연구보고 2019-04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수요예측을 통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돌봄 공백 해소 방안:
취학 전·후를 중심으로

김근진·박은정·김희수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9-04

수요예측을 통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돌봄 공백 해소 방안:

취학 전·후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김 근 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 은 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 희 수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9-04

수요예측을 통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돌봄 공백 해소 방안: 취학 전·후를 중심으로

발 행 일 2019년 11월
발 행 인 백선희
발 행 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전 화 02) 398-7700
팩 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 쇄 처 리드릭 02) 2269-191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99-2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2018년 4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해당 계획은 영유아 보육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이 부족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초등돌봄 서비스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초등 방과후 돌봄 이용자 수를 2016년 33만명에서 2022년 53만명으로 20만명을 확대하고, 초등 1, 2학년 위주인 초등돌봄체계를 초등 전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초등 돌봄체계는 전학년으로 확대되어야 하나, 여전히 초등 1, 2학년의 돌봄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비록 초등돌봄교실 등 기존의 초등돌봄체계가 1, 2학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아동과 부모가 마주하게 되는 돌봄 공백은 초등 입학 전 영유아 시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 1학년은 유아교육·보육 기관에서 초등학교로 전이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따라서 초등 1학년의 돌봄 수요는 취학 전 영유아 시기의 돌봄 수요와 비교하며 예측될 필요가 있고 돌봄 공급 정책은 이러한 돌봄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영유아 시기와 비교하여 발생하는 초등 1학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노력하였다. 관련 데이터 및 법제도 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등을 통하여 초등 1학년 돌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시 초등 1학년 돌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9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목차

요약 1

Ⅰ.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2. 연구내용 20
3. 연구방법 20
4. 선행연구 24

Ⅱ.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 33
1. 개요 35
2. 전국 및 시도별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분석 38
3. 소결 57

Ⅲ. 초등 방과후 돌봄 관련 제도 59
1. 초등 방과후 돌봄 관련 제도 61
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용 실행계획 87

Ⅳ. 초등 방과후 돌봄 해외사례 93
1. 일본 95
2. 덴마크 97
3. 독일 100

Ⅴ. 초등 방과후 돌봄 법적·제도적 분석 105
1. 온종일 돌봄체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관련 법안 107
2. 초중등 방과후 돌봄의 법적·제도적 쟁점 115
3. 소결 136

Ⅵ. 초등 1학년 돌봄 면담조사 결과 분석 139
1. 수요자 요구 ····· 141
2. 제도적 문제 ····· 158

Ⅶ.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설문조사 결과 분석 181
1.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조사 결과 ····· 183
2. 만5세 돌봄 수요 조사 결과 ····· 271

Ⅷ. 초등 1학년 돌봄 정책 개선방안 287
1. 초등 1학년 돌봄 수요예측 ····· 289
2. 초등 1학년 돌봄 정책 개선방안 ····· 291

참고문헌 299

Abstract 305

부록: 조사표 307

표 목차

〈표 Ⅰ-3-1〉 학부모 면담조사 참여자 정보 ····· 21
〈표 Ⅰ-3-2〉 종사자 및 관계기관 인사 면담조사 및 의견청취 정보 ····· 21
〈표 Ⅰ-3-3〉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니 대상 조사 응답자 특성 ····· 22
〈표 Ⅰ-3-4〉 취학 전 만5세 아동 어머니 대상 조사 응답자 특성 ····· 22
〈표 Ⅰ-4-1〉 선행연구 정리 ····· 29
〈표 Ⅱ-2-1〉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전국) ····· 38
〈표 Ⅱ-2-2〉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서울) ····· 40
〈표 Ⅱ-2-3〉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부산) ····· 41
〈표 Ⅱ-2-4〉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대구) ····· 42
〈표 Ⅱ-2-5〉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인천) ····· 43
〈표 Ⅱ-2-6〉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광주) ····· 44
〈표 Ⅱ-2-7〉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대전) ····· 45
〈표 Ⅱ-2-8〉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울산) ····· 46
〈표 Ⅱ-2-9〉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세종) ····· 47
〈표 Ⅱ-2-10〉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경기) ····· 48
〈표 Ⅱ-2-11〉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강원) ····· 49
〈표 Ⅱ-2-12〉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충북) ····· 50
〈표 Ⅱ-2-13〉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충남) ····· 51
〈표 Ⅱ-2-14〉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전북) ····· 52
〈표 Ⅱ-2-15〉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전남) ····· 53
〈표 Ⅱ-2-16〉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경북) ····· 54
〈표 Ⅱ-2-17〉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경남) ····· 55
〈표 Ⅱ-2-18〉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제주) ····· 56
〈표 Ⅲ-1-1〉 부처별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 현황
(기관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만 포함) ····· 61
〈표 Ⅲ-1-2〉 부처별 돌봄서비스 연계활동 내용 ····· 62
〈표 Ⅲ-1-3〉 방과후학교의 근거법령 ····· 63
〈표 Ⅲ-1-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요 ····· 64
〈표 Ⅲ-1-5〉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 65

〈표 Ⅲ-1-6〉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 66
〈표 Ⅲ-1-7〉 방과후학교 교원 업무 지원 ····· 66
〈표 Ⅲ-1-8〉 방과후학교지원센터 ····· 67
〈표 Ⅲ-1-9〉 초등돌봄교실의 근거법령 ····· 68
〈표 Ⅲ-1-10〉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 ····· 69
〈표 Ⅲ-1-11〉 초등돌봄교실 간식 및 급식 관리 ····· 70
〈표 Ⅲ-1-12〉 오후돌봄교실과 저녁돌봄교실 참여 학생 현황(2017년) ····· 70
〈표 Ⅲ-1-13〉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 현황(2013-2017) ····· 71
〈표 Ⅲ-1-14〉 오후돌봄교실 이용학생 분포 현황(2017년) ····· 71
〈표 Ⅲ-1-15〉 지역아동센터의 근거법령 ····· 72
〈표 Ⅲ-1-16〉 지역아동센터 추진체계 ····· 72
〈표 Ⅲ-1-17〉 지역아동센터 설치 기준 ····· 73
〈표 Ⅲ-1-18〉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 · 74
〈표 Ⅲ-1-19〉 지역아동센터 집단급식소 설치 기준 ····· 74
〈표 Ⅲ-1-2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15) ····· 75
〈표 Ⅲ-1-21〉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별 이용아동 구분 ····· 75
〈표 Ⅲ-1-22〉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 소득기준 ····· 76
〈표 Ⅲ-1-2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 가구특성기준 ····· 76
〈표 Ⅲ-1-24〉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 연령기준 ····· 77
〈표 Ⅲ-1-25〉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 돌봄특례 ····· 78
〈표 Ⅲ-1-26〉 지역아동센터 1일 운영시간(2016년) ····· 78
〈표 Ⅲ-1-27〉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공휴일, 야간보호 운영 여부(2016년) ····· 79
〈표 Ⅲ-1-28〉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특성별 현황: 경제상황(2016년) ····· 79
〈표 Ⅲ-1-29〉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특성별 현황: 가정형태(2016년) ····· 80
〈표 Ⅲ-1-30〉 다함께돌봄센터의 근거법령 ····· 80
〈표 Ⅲ-1-31〉 다함께돌봄센터 추진체계 ····· 81
〈표 Ⅲ-1-32〉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 82
〈표 Ⅲ-1-33〉 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준 ····· 82
〈표 Ⅲ-1-34〉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배치기준 ····· 83
〈표 Ⅲ-1-35〉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 84
〈표 Ⅲ-1-36〉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선정기준 ····· 84
〈표 Ⅱ-1-37〉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 85

〈표 Ⅲ-1-38〉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결정 및 수납 ····· 85
〈표 Ⅲ-1-39〉 지역아동센터-초등돌봄교실 연계 ····· 86
〈표 Ⅲ-1-40〉 지역돌봄협의회 운영 체계 ····· 87
〈표 Ⅲ-2-1〉 초등돌봄 이용 현황 ····· 87
〈표 Ⅲ-2-2〉 초등돌봄 수요 인원 추계('22년 기준) ····· 88
〈표 Ⅲ-2-3〉 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 교실활용) ····· 89
〈표 Ⅲ-2-4〉 마을돌봄(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등) ····· 89
〈표 Ⅲ-2-5〉 재정지원 ····· 91
〈표 Ⅲ-2-6〉 연도별 소요재정 현황 ····· 91
〈표 Ⅳ-1-1〉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아동클럽의 비교 ····· 97
〈표 Ⅳ-3-1〉 덴마크와 독일 방과후학교 비교 ····· 103
〈표 Ⅴ-1-1〉「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 108
〈표 Ⅴ-2-1〉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 116
〈표 Ⅴ-2-2〉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 117
〈표 Ⅴ-2-3〉 초등돌봄교실 종사자 지위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 규정 ····· 118
〈표 Ⅴ-2-4〉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 종사자 지위 규정 ····· 119
〈표 Ⅴ-2-5〉 민간 위탁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표 Ⅴ-2-6〉 아동복지법상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규정 ····· 122
〈표 Ⅴ-2-7〉 초등돌봄교실의 수익자 부담 규정 ····· 123
〈표 Ⅴ-2-8〉 수익자 부담 및 경비 보조에 대한 온종일돌봄체계 특별법안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 124
〈표 Ⅴ-2-9〉 아동복지법상 다함께돌봄센터 수익자 부담 규정 ····· 124
〈표 Ⅴ-2-10〉 행·재정 지원 주체에 대한 온종일돌봄체계 특별법안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표 Ⅴ-2-11〉 아동복지법상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의 비용 지원 규정 ····· 127
〈표 Ⅴ-2-12〉 방과후학교 관련 소득세법 규정 ····· 128
〈표 Ⅴ-2-13〉 방과후학교관련 지방계약법 규정 ····· 129
〈표 Ⅴ-2-14〉 초등돌봄교실 개념 정의 ····· 130
〈표 Ⅴ-2-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 · 133

〈표 Ⅴ-2-16〉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공간 확보 규정 ····· 134
〈표 Ⅴ-2-17〉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이용 대상 규정 ····· 135
〈표 Ⅴ-2-1〉 「청소년 활동 진흥법」상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 규정 ····· 165
〈표 Ⅶ-1-1〉 초등학교 입학 후, 적응기간인 3월 한 달 동안 이용한
돌봄 서비스(1,2,3순위) ····· 190
〈표 Ⅶ-1-2〉 초등학교 입학 후, 적응 기간인 3월 한 달 동안 이용한
돌봄서비스(1순위) ····· 191
〈표 Ⅶ-1-3〉 초등학교 입학 후, 적응 기간인 3월 한 달 동안 이용한
돌봄서비스(2순위) ····· 192
〈표 Ⅶ-1-4〉 출근시간을 전후한 아침시간대에 돌봄서비스 필요 여부(취업모) 193
〈표 Ⅶ-1-5〉 퇴근시간을 전후한 저녁시간대에 돌봄서비스 필요 여부(취업모) 194
〈표 Ⅶ-1-6〉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중요도 ····· 195
〈표 Ⅶ-1-7〉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중요도(접근성) ····· 196
〈표 Ⅶ-1-8〉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중요도(시설편의성) ····· 198
〈표 Ⅶ-1-9〉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중요도(프로그램) ····· 199
〈표 Ⅶ-1-10〉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중요도(돌봄 서비스 인력) ····· 200
〈표 Ⅶ-1-11〉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중요도(식사/간식) ····· 201
〈표 Ⅶ-1-12〉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 의향 및 부담 비용 ····· 202
〈표 Ⅶ-1-13〉 수업시수 3시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 ····· 203
〈표 Ⅶ-1-14〉 수업시수 연장(3시)에 대한 자녀의 반응 예측 ····· 203
〈표 Ⅶ-1-15〉 취학 직전 이용 기관 및 일일 이용시간 ····· 204
〈표 Ⅶ-1-16〉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발생한 가장 큰 변화 ····· 205
〈표 Ⅶ-1-17〉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발생한 가장 큰 변화(1순위) ····· 206
〈표 Ⅶ-1-18〉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발생한 가장 큰 변화(2순위) ····· 206
〈표 Ⅶ-1-19〉 학기 초에 신청하였던 초등돌봄교실 유형(학기 중) ····· 207
〈표 Ⅶ-1-20〉 유형 별 초등돌봄교실 이용여부와 이용 시간
(아침돌봄)(학기 중) ····· 208
〈표 Ⅶ-1-21〉 유형 별 초등돌봄교실 이용여부와 이용 시간
(오후돌봄)(학기 중) ····· 208
〈표 Ⅶ-1-22〉 유형 별 초등돌봄교실 이용여부와 이용 시간
(저녁돌봄)(학기 중) ····· 209
〈표 Ⅶ-1-23〉 유형 별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만족도(아침돌봄)(학기 중) ····· 210

〈표 Ⅶ-1-24〉 유형 별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만족도(오후돌봄)(학기 중) ····· 210
〈표 Ⅶ-1-25〉 유형 별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만족도(저녁돌봄)(학기 중) ····· 211
〈표 Ⅶ-1-26〉 초등돌봄교실 월평균 비용(학기 중) ····· 212
〈표 Ⅶ-1-27〉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학기 중) ····· 212
〈표 Ⅶ-1-28〉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1순위)(학기 중) ····· 213
〈표 Ⅶ-1-29〉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2순위)(학기 중) ····· 213
〈표 Ⅶ-1-30〉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학기 중) ····· 215
〈표 Ⅶ-1-31〉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1순위)(학기 중) ····· 215
〈표 Ⅶ-1-32〉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2순위)(학기 중) ····· 216
〈표 Ⅶ-1-33〉 초등돌봄교실 이용 의향 ····· 217
〈표 Ⅶ-1-34〉 방학에 신청하였던 초등돌봄교실 유형(방학 중) ····· 218
〈표 Ⅶ-1-35〉 유형 별 초등돌봄교실 이용 여부와 이용 시간
(아침돌봄)(방학 중) ····· 218
〈표 Ⅶ-1-36〉 유형 별 초등돌봄교실 이용 여부와 이용 시간
(오전돌봄)(방학 중) ····· 219
〈표 Ⅶ-1-37〉 유형 별 초등돌봄교실 이용 여부와 이용 시간
(오후돌봄)(방학 중) ····· 219
〈표 Ⅶ-1-38〉 유형 별 초등돌봄교실 이용 여부와 이용 시간
(저녁돌봄)(방학 중) ····· 220
〈표 Ⅶ-1-39〉 유형 별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만족도(아침돌봄)(방학 중) ····· 221
〈표 Ⅶ-1-40〉 유형 별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만족도(오전돌봄)(방학 중) ····· 221
〈표 Ⅶ-1-41〉 초등돌봄교실 월평균 비용(방학 중) ····· 222
〈표 Ⅶ-1-42〉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 223
〈표 Ⅶ-1-43〉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1순위) ····· 223
〈표 Ⅶ-1-44〉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2순위) ····· 224
〈표 Ⅶ-1-45〉 학기 중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였으나, 방학 중에
이용하지 않는 이유 ····· 225
〈표 Ⅶ-1-46〉 학기 중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였으나, 방학 중에
이용하지 않는 이유(1순위) ····· 225
〈표 Ⅶ-1-47〉 학기 중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였으나, 방학 중에
이용하지 않는 이유(2순위) ····· 226
〈표 Ⅶ-1-48〉 방과후학교 이용여부와 개수, 비용(학습프로그램)(학기 중) ····· 227
〈표 Ⅶ-1-49〉 방과후학교 이용여부와 개수, 비용(예체능프로그램)(학기 중) ·· 227

〈표 Ⅶ-1-50〉 방과후학교의 서비스 만족도(학습프로그램)(학기 중) ····· 228
〈표 Ⅶ-1-51〉 방과후학교의 서비스 만족도(예체능프로그램)(학기 중) ····· 229
〈표 Ⅶ-1-52〉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학기 중) ····· 230
〈표 Ⅶ-1-53〉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1순위)(학기 중) ····· 230
〈표 Ⅶ-1-54〉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2순위)(학기 중) ····· 231
〈표 Ⅶ-1-55〉 방과후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학기 중) ····· 232
〈표 Ⅶ-1-56〉 방과후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1순위)(학기 중) ····· 232
〈표 Ⅶ-1-57〉 방과후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2순위)(학기 중) ····· 233
〈표 Ⅶ-1-58〉 방과후학교 이용 의향 ····· 234
〈표 Ⅶ-1-59〉 지역아동센터 시간 유형별 신청/이용여부 및 월평균 비용 (학기 중) ····· 235
〈표 Ⅶ-1-60〉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만족도(학기 중) ····· 235
〈표 Ⅶ-1-61〉 초등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로의 이동방법(학기 중) ····· 235
〈표 Ⅶ-1-62〉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학기 중) ····· 236
〈표 Ⅶ-1-63〉 지역아동센터 시간 유형별 신청/이용여부 및 월평균 비용 (방학 중) ····· 237
〈표 Ⅶ-1-64〉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만족도(방학 중) ····· 237
〈표 Ⅶ-1-65〉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방학 중) ····· 238
〈표 Ⅶ-1-66〉 다함께돌봄센터 시간 유형별 신청/이용여부 및 월평균 비용 (학기 중) ····· 239
〈표 Ⅶ-1-67〉 다함께돌봄센터 서비스 만족도(학기 중) ····· 239
〈표 Ⅶ-1-68〉 초등학교에서 다함께돌봄센터의 이동방법(학기 중) ····· 239
〈표 Ⅶ-1-69〉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학기 중) ····· 240
〈표 Ⅶ-1-70〉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학기 중) ····· 241
〈표 Ⅶ-1-71〉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의향 ····· 241
〈표 Ⅶ-1-72〉 유형 별 다함께돌봄센터 신청/이용 여부와 이용 시간 (오전돌봄)(방학 중) ····· 242
〈표 Ⅶ-1-73〉 유형 별 다함께돌봄센터 신청/이용 여부와 이용 시간 (오후돌봄)(방학 중) ····· 243
〈표 Ⅶ-1-74〉 유형 별 다함께돌봄센터 신청/이용 여부와 이용 시간 (저녁돌봄)(방학 중) ····· 243
〈표 Ⅶ-1-75〉 유형 별 다함께돌봄센터 서비스 만족도(오전돌봄)(방학 중) ···· 244
〈표 Ⅶ-1-76〉 유형 별 다함께돌봄센터 서비스 만족도(오후돌봄)(방학 중) ···· 245

〈표 Ⅷ-1-77〉 유형 별 다함께돌봄센터 서비스 만족도(저녁돌봄)(방학 중) ····· 245
〈표 Ⅷ-1-78〉 다함께돌봄센터 월평균 비용(방학 중) ····· 246
〈표 Ⅷ-1-79〉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방학 중) ····· 247
〈표 Ⅷ-1-80〉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1순위)(방학 중) ····· 247
〈표 Ⅷ-1-81〉 공공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학기 중) ····· 248
〈표 Ⅷ-1-82〉 공공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방학 중) ····· 249
〈표 Ⅷ-1-83〉 민간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학기 중) ····· 250
〈표 Ⅷ-1-84〉 민간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방학 중) ····· 251
〈표 Ⅷ-1-85〉 학원 등 사교육 이용여부와 개수 비용(학원학습)(학기 중) ····· 252
〈표 Ⅷ-1-86〉 학원 등 사교육 이용여부와 개수 비용(학원 예체능)(학기 중) 252
〈표 Ⅷ-1-87〉 학원 등 사교육 이용여부와 개수 비용(그룹지도)(학기 중) ····· 253
〈표 Ⅷ-1-88〉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비용 부담 정도
(학원 학습)(학기 중) ····· 254
〈표 Ⅷ-1-89〉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비용 부담 정도
(학원 예체능)(학기 중) ····· 255
〈표 Ⅷ-1-90〉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비용 부담 정도
(그룹지도)(학기 중) ····· 256
〈표 Ⅷ-1-91〉 학원 등 사교육 서비스 만족도(학원 학습)(학기 중) ····· 257
〈표 Ⅷ-1-92〉 학원 등 사교육 서비스 만족도(학원 예체능)(학기 중) ····· 257
〈표 Ⅷ-1-93〉 학원 등 사교육 서비스 만족도(그룹지도)(학기 중) ····· 258
〈표 Ⅷ-1-94〉 학원 등 사교육프로그램 이용하는 주된 이유(학기 중) ····· 259
〈표 Ⅷ-1-95〉 학원 등 사교육프로그램 이용하는 주된 이유(1순위)(학기 중) 260
〈표 Ⅷ-1-96〉 학원 등 사교육프로그램 이용하는 주된 이유(2순위)(학기 중) 261
〈표 Ⅷ-1-97〉 학원 등 사교육 이용여부와 개수 비용(학원학습)(방학 중) ····· 262
〈표 Ⅷ-1-98〉 학원 등 사교육 이용여부와 개수 비용(학원 예체능)(방학 중) 262
〈표 Ⅷ-1-99〉 학원 등 사교육 이용여부와 개수 비용(그룹지도)(방학 중) ····· 263
〈표 Ⅷ-1-100〉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비용 부담 정도
(학원 학습)(방학 중) ····· 264
〈표 Ⅷ-1-101〉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비용 부담 정보
(학원 예체능)(방학 중) ····· 265
〈표 Ⅷ-1-102〉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비용 부담 정보
(그룹지도)(방학 중) ····· 266
〈표 Ⅷ-1-103〉 학원 등 사교육 서비스 만족도(학원 학습)(방학 중) ····· 267

〈표 Ⅶ-1-104〉 학원 등 사교육 서비스 만족도(학원 예체능)(방학 중) ····· 267
〈표 Ⅶ-1-105〉 학원 등 사교육 서비스 만족도(그룹지도)(방학 중) ····· 268
〈표 Ⅶ-1-106〉 학원 프로그램 이용하는 주된 이유(방학 중) ····· 269
〈표 Ⅶ-1-107〉 학원 프로그램 이용하는 주된 이유(1순위)(방학 중) ····· 270
〈표 Ⅶ-1-108〉 학원 프로그램 이용하는 주된 이유(2순위)(방학 중) ····· 271
〈표 Ⅶ-2-1〉 출퇴근시간을 전후한 아침/저녁시간대에 돌봄서비스 필요 (취업모) ····· 275
〈표 Ⅶ-2-2〉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발생하게 될 변화 예측(1,2,3순위) · 276
〈표 Ⅶ-2-3〉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발생하게 될 변화 예측(1,2순위) ····· 277
〈표 Ⅶ-2-4〉 초등학교 입학 한 후, 이용 예정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1,2,3순위) ····· 278
〈표 Ⅶ-2-5〉 초등학교 입학 한 후, 이용 예정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1순위) 278
〈표 Ⅶ-2-6〉 초등학교 입학 한 후, 이용 예정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2,3순위) ····· 279
〈표 Ⅶ-2-7〉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중요도 ····· 281
〈표 Ⅶ-2-8〉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중요도(접근성) ····· 282
〈표 Ⅶ-2-9〉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중요도(시설편의성) ····· 283
〈표 Ⅶ-2-10〉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중요도(프로그램) ····· 283
〈표 Ⅶ-2-11〉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중요도(돌봄 서비스 인력) ····· 284
〈표 Ⅶ-2-12〉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중요도(식사/간식) ····· 284
〈표 Ⅷ-1-1〉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대비 공급률 ····· 290

그림 목차

[그림 Ⅲ-2-1] 범정부 돌봄서비스 협력 및 전달체계 ····· 90
[그림 Ⅶ-1-1] 학기 중 돌봄 시간 이용 실태(전체) ····· 184
[그림 Ⅶ-1-2] 학기 중 돌봄 시간 이용 실태(취업모) ····· 185
[그림 Ⅶ-1-3] 학기 중 돌봄 시간 이용 실태(전업모) ····· 186
[그림 Ⅶ-1-4] 방학 중 돌봄 시간 이용 실태(전체) ····· 188
[그림 Ⅶ-1-5] 방학 중 돌봄 시간 이용 실태(취업모) ····· 189
[그림 Ⅶ-1-6] 방학 중 돌봄 시간 이용 실태(전업모) ····· 189
[그림 Ⅶ-2-1] 시간대별 만5세 자녀 돌봄 실태(전체) ····· 273
[그림 Ⅶ-2-2] 시간대별 만5세 자녀 돌봄 실태(취업모) ····· 274
[그림 Ⅶ-2-3] 시간대별 만5세 자녀 돌봄 실태(전업모) ····· 274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 방안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진학에 따른 돌봄 공백 및 이에 따른 돌봄 수요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비해 초등학교 특히 1학년의 수업 및 돌봄 시간이 짧은 관계로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은 여성의 경력단절 및 사교육 확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재희·김근진·엄지원, 2017).

□ 이런 점에서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는 유초연계와 연결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진학할 시 아동과 부모가 겪게 되는 돌봄 공백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진학할 때 아동과 부모가 겪게 되는 돌봄 공백 및 돌봄 수요를 파악하여 초등학교 1학년의 돌봄교실 정책이 실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연구내용

□ 아동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진학할 시 발생하는 돌봄 공백 및 이에 따른 돌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취학 전 만5세 학부모 및 돌봄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함.

□ 돌봄에 있어서 취학 전·후(유치원 5세반과 초등학교 1학년)를 비교함으로써 초등학교 진학이 아동 및 부모에게 돌봄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법적·제도적 분석을 통해 취학 전

돌봄체계와 구분되는 초등 방과후 돌봄체계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함.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확대 방안을 유초연계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1학년에 취학하면서 발생하는 돌봄의 변화 및 초등학교를 둘러싼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여 제시함.

다. 연구방법

□ 문헌분석

□ 면담조사

-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부모 및 관계기관 인사 20명을 대상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진학 시 발생하는 돌봄 공백 및 요구, 관련 제도적 쟁점 등에 대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 초등학교 1학년 및 유치원·어린이집 5세반 아동의 부모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돌봄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표집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900명, 유치원·어린이집 5세반 어머니 30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니는 취업모 538명, 전업모 362명으로 구성함.

□ 통계분석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아동 수 및 맞벌이 비율 등을 기준으로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함.

□ 제도적 분석

- 현재의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제도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각각의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현황을 제시하고 초등 방과후 돌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들을 분석한 후 초등 방과후 돌봄의 법적·제도적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아동과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어떠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에 관한 방향을 제시함.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2.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

가. 개요

□ 초등 1학년 아동의 돌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7세 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출산율 가정은 저출산 추세를 반영하여 저위 가정을 채택함.

□ 초등 방과후 돌봄은 2018년 4월에 발표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서 파악한 바에 따라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의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비율은 29.4%로 가정하였고, 시간제 맞벌이와 전일제 맞벌이 비율은 각각 40.2%와 25.7%로 가정하였음. 취학 전 방과후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75.2%로 가정함.

□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되는 2022년 기준으로 장래인구추계 저위가정의 7세 인구는 438,447명이고, 시간제 맞벌이 비율 40.2%를 적용하면 176,256명이 됨.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서 사용한 장래인구추계 중위가정에서 2022년 7세 인구는 439,266명으로 2022년 기준으로는 저위가정과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2022년 기준으로 온종일 돌봄체계에서 가정한 최대수요 64만명은 저위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 2022년 기준 초등 1학년 돌봄 공급은 176,256명에 (53만/64만)을 곱하여 145,962명으로 추정하였음. 이는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수준의 공급의 106.2%에 해당함.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서 제시한 계획은 돌봄교실 1실당 20명의 아동을 가정하였는데, 돌봄교실 1실당 20명의 아동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과밀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돌봄교실 1실당 20명일 경우와 10명일 경우를 나누고, 기혼여성 취업률 증가에 따라 이용률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최대 이용률은 취학 전 1년 방과후 돌봄 이용률 75.2%로 하고 최소 이용률은 시간제 맞벌이 비율 40.2%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음.

나. 전국 및 시도별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분석

□ 전국의 경우 2019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아동수 137,497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실당 20명일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1.7%,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8%로 추정

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7%,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44%로 추정됨.

□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초등 1학년 돌봄 아동수 145,962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4.3%,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2.8%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1.7%,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52.8%로 추정됨.

□ 1실당 10명일 경우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기준으로는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0.8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9%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8.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2%로 추정됨.

□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2.1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1.4%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0.8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6.4%로 추정됨.

□ 시도별 분석도 전국 기준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3 초등 방과후 돌봄 해외사례

가. 일본

□ 일본의 경우 저출산 및 일·가정 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발생하는 초등돌봄 문제인 “초등학교 1학년의 벽”을 돌파하기 위하여 방과후 돌봄 정책을 중시하고 있음(임현정·정영모, 2017: 292).

□ 법적 근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 고시에 기반하여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를 지침으로 하고 있으나, 일본의 방과후아동클럽은 「아동복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임현정·정영모, 2017: 292).

□ 관리주체의 측면에서 초등돌봄교실은 단위학교가 관리하고 있으나, 방과후아동클럽은 기초지자체인 시정촌이 관리하고 있음.

□ 공간의 측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아동클럽은 모두 학교의 유휴교실(일본에서는 여유교실)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방과후아동클럽은 기초지자체가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하기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음.

나. 덴마크

□ 덴마크는 2014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82%이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84.6%로 오히려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보다 높음(OECD Family Database). 덴마크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는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온 덴마크의 보육정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덴마크 6세~11세 아동의 방과전/후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2016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3.5%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6세~8세 연령의 아동 중 76.7%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OECD Family Database).

□ 현재 덴마크 방과후 센터는 공립학교(Folkeskole)에 소속되어 있으며, 공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음. 방과후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학교 차원에서 방과후 센터 책임자의 역할 및 기능을 결정함.

□ 방과전후 센터를 포함한 대부분의 아동 돌봄 시설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6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금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 운영함.

다. 독일

□ 독일의 초등 방과후 돌봄은 학교와 별도시설인 호르트(Hort)와 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종일제 학교(Ganztagsschule)로 구분할 수 있음.

□ 2017년 기준 동독 호르트의 72%가 6시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서독에서는 6시 30분 이후에 호르트에서 돌봄을 시작하고, 방과 전에 운영하는 호르트의 비율이 27%에 그친 반면, 오후 돌봄의 운영시간에서는 동서독 간에 거의 차이가 없음. 대부분 최소 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4시부터 6시 사이에 마치는 호르트는 동독이 85%, 서독이 91%로 나타남(BMFSFJ, 2018). 종일제 학교의 상황은 주마다 매우 다르며 정의도 모호함. 일반적으로 최소 주 3일, 하루에

수업 시간 포함 최소 7시간을 운영할 경우 종일제 학교 서비스를 제공함 (Münder, 2017).

□ 덴마크와 독일의 방과후학교는 모두 운영에 있어 학교장이 책임을 지며, 관리 주체는 지자체로 명시되어 있음. 양국 모두 지자체에 교육청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내 돌봄 서비스 실행 과정에서 돌봄과 학교 교육 체계 간 이원화로 갈등을 유발할 요인이 적음. 또한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재원과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 부과를 통해 운영된다는 것도 공통점임.

4 초등 방과후 돌봄 법적·제도적 분석

가. 온종일 돌봄체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관련 법안

□ 온종일 돌봄체계 관련 법안

- 박경미 의원안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표 의원안, 김한정 의원안, 한선교 의원안, 박인숙 의원안, 정부안

□ 별도 법률안

- 남인순 의원안, 박홍근 의원안, 전현희 의원안

나. 초등 방과후 돌봄의 법적·제도적 쟁점

□ 초등 방과후 돌봄의 법·제도 관련 쟁점으로 관리주체, 종사자 지위, 민간위탁, 수익자 부담, 행·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연계·협력, 입법형태, 교육과 돌봄의 관계, 돌봄의 목적과 운영목표, 공간 확보, 이용대상이 있음.

□ 초등 방과후 돌봄의 법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은 온종일 돌봄체계의 확대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논의된 쟁점들에 대처할 수 있는 법체계 정비가 요구됨.

5. 초등 1학년 돌봄 면담조사 결과 분석

가. 수요자 요구

□ 초등학교 취학 후 발생하는 변화

- 등하교 시간: 취학 전과 비교하면 취학 후는 등교시간이 늦어지고 하교시간이 빨라짐.
- 방학: 취학 후에는 방학이 길어지기 때문에 방학 중 돌봄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하게 됨.

□ 초등돌봄교실

- 오후돌봄교실이 끝나는 오후 5시 이후 돌봄틈새시간이 발생함.
-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이유
  - 안전: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안전함.
  - 자유놀이: 자유놀이를 할 수 있어서 아동들이 선호함.
-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교육의 측면: 취학 후에는 교육의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는 경우 많음.
  - 돌봄의 측면: 돌봄 종사자 수의 부족으로 돌봄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 염려
  - 낙인 효과: 취약계층 우선이용으로 인한 낙인효과 발생
- 초등돌봄교실 개선사항: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 조부모 및 육아도우미 지원

- 기관과 기관, 기관과 집 또는 놀이터를 연계하는 이동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

□ 초등학교 시수 연장

-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의 놀이 병행을 고려하여 시수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나. 제도적 문제

□ 인력 관리

- 초등 돌봄전담사는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초등돌봄교실을 관리하고 있으나, 학교 내 지위가 정규교직원에 비해 불안정하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의 안정성 및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거버넌스의 분절화로 인한 돌봄 서비스 간 연계의 어려움

□ 법적 근거 부재

-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 부재
- 돌봄 서비스 간 연계·협력의 법적 근거 부재

6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설문조사 결과 분석

가.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조사 결과

1) 초등 1학년 자녀 돌봄 시간 실태

□ 학기 중

- 1시 이후부터 3시 29분까지 60% 이상의 아동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함. 3시 30분부터 5시 29분까지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중이 37~46%로 가장 컸으며, 6시 이후 6시 59분까지는 25%의 아동이 조부모 또는 친인척의 돌봄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취업모 자녀 기준).
- 만5세 돌봄 시간 실태와 비교하면, 취업모의 경우 초등 1학년은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이용 비율이 50% 미만으로 감소하는 시간대는 오후 3시로 나타남(초등돌봄교실 35.3%, 방과후학교 11.3%). 이후 시간대에는 공적 방과후 돌봄 이용 비율은 급격히 감소함. 그에 비해 만5세의 경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50% 미만으로 감소하는 시간대는 오후 4시 30분으로 나타남(유치원 26.3%, 어린이집 22%). 이후 시간대에는 공적 방과후 돌봄 이용 비율이 급격히 감소.
- 이를 비교하면 공적 방과후 돌봄 이용 비율이 50% 미만으로 감소하는 시간대가 초등 1학년과 만5세는 1시간 30분의 차이가 나며, 이를 돌봄 공백 시간이라 추정할 수 있음.

□ 방학 중

- 방학 중 취업모의 자녀는 초등돌봄교실과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서 돌봄을 받는 비중이 크고 전업모의 자녀는 부모의 직접 돌봄과 방과후학교의 비중이 크다는 차이점이 있음.

□ 초등학교 입학 후 3월 한 달 적응기간 동안 이용한 돌봄 서비스

-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합친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 직접 돌봄(74.3%)이 가장 많았으며, 학원 등 사교육(54.6%), 방과후학교(42.6%), 초등돌봄교실(34.8%), 조부모 또는 친인척(34.1%) 순으로 집계됨.

2) 돌봄 요구 및 취학 후 돌봄의 변화

□ 취업모의 돌봄 요구

- 취업모의 36.6%는 출근 시간 전으로 하여 아침시간대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며, 평균 1시간 5분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취업모의 49.8%는 퇴근 시간을 후로 하여 저녁시간대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며, 평균 2시간 5분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돌봄서비스 구성요소의 중요성

- 초1자녀를 둔 어머니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녀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돌봄 서비스 인력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돌봄 서비스 시설의 환경과 안전, 이동시의 안전한 보호 지원, 집과의 접근성을 중요시함.
-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프로그램의 세부 요소는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나타남.
-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여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초등 자녀를 위해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3.6%는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전업모(60.5%)보다 취업모(82.3%)의 이용 의향이 더 많았음.
- 월 평균 11.65만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업모는 평균 9.26만원, 취업모는 평균 12.83만원 부담하겠다고 응답하여 취업모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보임.

- 초등학교 1학년의 수업시수가 오후 3시까지로 늘리는 것에 대해 어머니 중 55.3%는 동의하였으며, 44.7%는 동의하지 않음. 취업모의 61.0%가 수업시수 연장에 동의하여, 전업모(47.0%)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음.

□ 초등학교 입학 후 발생한 변화

- 긴 방학(68.0%), 취학 전과 비교하여 집에 일찍 귀가하는 것(65.3%), 사교육비용 증가(53.8%), 담임교사가 덜 신경 쓰는 것(31.3%)순으로 응답함(1,2,3순위 합산 결과).

3) 초등돌봄교실 이용 실태

□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

- 학기초에 신청한 초등돌봄교실 유형은 아침돌봄이 10.3%, 오후돌봄이 97.5%, 저녁돌봄이 9.1%으로 나타남.
- 그중, 아침돌봄을 이용하는 비율은 69.7%로 탈락률은 30.3%이고, 오후돌봄은 탈락자가 없으며, 저녁돌봄 신청자 중 이용자는 75.9%로 탈락률은 24.1%임.
-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의 월평균 비용은 5.49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초등돌봄교실 비용은 급간식 및 추가 프로그램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1,2,3순위 합계 기준으로 '돌볼 사람이 없어서'가 8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가 46.7%,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가 40.8%, '돌봄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되어서'가 30.7%로 나타남.

□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 방학 중에 신청한 초등돌봄교실 유형은 오전돌봄이 89.4%, 오후돌봄이 84.3%, 아침돌봄이 9.0%, 저녁돌봄이 7.8%로 나타남.
- 신청자의 65.2%는 아침돌봄을 이용하며, 신청자의 96.9%는 오전돌봄을, 신청자의 96.3%는 오후돌봄을, 신청자의 80.0%는 저녁돌봄을 이용함.
-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의 월평균 비용은 7.40만원으로 나타남.
-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돌볼 사람이 없어서'가 81.2%로 가장 높았고,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가 47.5%, '사교육비 부담

을 덜기 위해'가 44.7%, '돌봄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되어서'가 26.3%로 나타남(1,2,3순위 합산)

- 학기 중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였으나 방학 중에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돌봄'이 61.3%로 가장 높았고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방학 프로그램 이용'이 41.9%로, '여행 또는 휴가'와 기타가 각각 28.0%, '공공기관의 방학 프로그램 이용'이 23.7%로 나타남(1,2,3순위 합산)

4) 방과후학교 이용 실태

□ 학기 중 방과후학교

- 73.9%가 학기 중 방과후학교 학습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음. 주당 개수는 1.19개이고, 월평균 비용은 7.75만원으로 나타남.
- 79.7%가 학기 중 방과후학교 예체능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주당 개수는 1.63개, 월평균 프로그램 비용은 7.5만원임.
- 학기 중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57.9%),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57.7%), '프로그램이 좋아서'(56.8%),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42.8%), '돌볼 사람이 없어서'(37.4%)의 순으로 나타남(1,2,3순위 합산).
- 방과후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43.7%), '자녀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41.0%), '방과후에 집에 보호자(부모나 조부모 등)가 있어서'(35.9%),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아서'(33.6%), '프로그램의 질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23.6%), '이용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해서'(22.0%) 순으로 나타남(1,2,3순위 합산).

5) 학원 등 사교육 이용 실태

□ 학기 중 학원 등 사교육

- 사교육을 이용하는 전체 696명 중 58.9%은 학습과 관련된 학원 및 사교육을 이용하고, 주당 1.88개의 사교육을 이용하며, 월 평균 21만 9천 7백원을 지출함.
- 학습과 관련된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의 69.3%가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사교육을 이용하는 전체 696명 중 89.2%는 예체능과 관련된 학원을 이용하고, 주당 4.82개의 예체능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월 평균 16만 1천 1백원을 지출함.
- 예체능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56.6%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함.
-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 보내는 주된 이유는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65.8%), '자녀가 원해서'(64.8%), '선행학습'(30.5%), '돌볼 사람이 없어서'(29.9%), '학교수업 보충 심화'(26.1%), '주변 사람들이 많이 보내고 있어서'(21.4%) 순으로 나타남(1,2,3순위 합산).

□ 방학 중 학원 등 사교육

- 학습과 관련된 학원 및 사교육을 이용하는 아동은, 방학 중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하는 전체 681명 중, 6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당 1.89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월 평균 23만 1천 9백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체능과 관련된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하는 아동은, 방학 중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하는 전체 681명 중, 88.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당 1.70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월 평균 16만 9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습과 관련된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의 71.1%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예체능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의 61.2%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함.
- 방학 중에 자녀를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 보내는 주된 이유는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68.0%), '자녀가 원해서'(66.1%), '선행학습'(32.6%), '돌볼 사람이 없어서'(31.9%), '학교수업 보충 심화'(25.6%), '주변 사람들이 많이 보내고 있어서'(20.3%) 순으로 나타남(1,2,3순위 합산 결과).

나. 만5세 돌봄 수요 조사 결과

1) 만5세 자녀 돌봄 시간 실태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오후 4시 30분이 되면, 유치원 22.0%, 어린이집 26.3%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학원 등 사교육 30.2%, 조부모 또는 친인척 15.6%로 집계됨. 학원 등 사교육의 비중은 오후 5시에 36.6%로 가장 높음. 이후 부모 직접 돌봄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오후 6시 30분에는 부모 직접 돌봄의 비중이 64.4%에 달함(취업모 기준).

2) 돌봄 요구 및 취학 후 돌봄의 변화 예측

□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큰 변화를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1순위에서 자녀가 일찍 귀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65.7%로 나타났고, 1순위에서 3순위까지 합산한 결과에서 해당 항목에 83.7%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1순위 응답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응답은 사교육비 증가였으며, 긴 방학, 담임 교사가 덜 신경을 씀, 통학차량 없음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이후 이용할 예정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질문한 결과, 1순위에서는 초등 돌봄 교실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방과후학교가 39.7%임. 학원 등 사교육은 9%, 지역아동센터는 1.3%에 그침.

3) 돌봄 서비스, 구성요소의 중요성

□ 접근성에서는 이동 시 안전한 보호 지원이 4.72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시설편의성에서도 주변 환경 및 시설 공간의 안전이 4.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부모들이 돌봄 서비스에서 자녀의 안전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프로그램 요소에서는 교과목 보충학습에 대한 중요도보다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예체능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7. 초등 1학년 돌봄 정책 제언

가.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예측

나. 초등 1학년 돌봄 정책 개선방안

□ 운영시간: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

□ 인력관리: 초등 돌봄 수요에 부응하는 돌봄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돌봄 종사자들의 지위 및 인력 관리에 대해 논의할 필요 있음.

□ 공간 확보: 초등 방과후 돌봄에 사용되는 공간 확보를 위한 별도의 법적 장치가 요구됨.

□ 법적 근거: 온종일 돌봄체계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거버넌스: 온종일 돌봄체계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학교돌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분리된 우리나라만의 거버넌스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관계에 대한 정교한 제도설계가 요구됨.

□ 프로그램: 아동 및 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할 필요 있음.

□ 수익자 부담: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과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일정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확대할 필요 있음.

□ 초등학교 수업시수 연장: 초등학교 수업 시수 연장은 돌봄 공백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돌봄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고 교육과정 개편과 연관되어 추진되어야 함.

□ 방학 중 돌봄 공급: 방학 중 돌봄 공급은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 이를 위해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 있음.

I

서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방법

04 선행연구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 방안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b). 이와 관련하여 부처 간(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교 내외의 온종일 돌봄체계 모델 개발 및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a).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진학에 따른 돌봄 공백 및 이에 따른 돌봄 수요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비해 초등학교 특히 1학년의 수업 및 돌봄 시간이 짧은 관계로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은 여성의 경력단절 및 사교육 확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재희·김근진·엄지원, 2017). 아동의 관점에서도 초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학교에 있는 시간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에 비해 짧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의 변화(사교육 시간이 늘어나는 등)는 아동의 학교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는 유초연계와 연결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진학할 시 아동과 부모가 겪게 되는 돌봄 공백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의 요구에 특화된 돌봄정책 연구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유초연계에 중점을 두고 초등학교 1학년의 돌봄 공백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진학할 때 아동과 부모가 겪게 되는 돌봄 공백 및 돌봄 수요를 파악하여 초등학교 1학년의 돌봄교실 정책이 실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돌봄에 있어서 취학 전·후를 비교함으로

써 초등학교 진학이 아동 및 부모에게 돌봄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분석하고,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돌봄을 위한 기존 정책이 갖고 있는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향후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진학할 시 발생하는 돌봄 공백 및 이에 따른 돌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취학 전 만5세 학부모 및 돌봄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한다.

둘째, 돌봄에 있어서 취학 전·후(유치원 5세반과 초등학교 1학년)를 비교함으로써 초등학교 진학이 아동 및 부모에게 돌봄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법적·제도적 분석을 통해 취학 전 돌봄체계와 구분되는 초등 방과후 돌봄체계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확대 방안을 유초연계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1학년에 취학하면서 발생하는 돌봄의 변화 및 초등학교를 둘러싼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여 제시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확대 방안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진학 시 발생하는 아동 및 부모의 돌봄 수요와 연결하여 제시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분석

초등돌봄 및 유초연계에 대한 선행연구 및 자료를 분석하였다. 초등돌봄 체계에

대한 외국 사례를 고찰하였다.

나. 면담조사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부모, 종사자 및 관계기관 인사 19명을 대상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진학 시 발생하는 돌봄 공백 및 요구에 대한 심층면담조사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였다.

〈표 Ⅰ-3-1〉 학부모 면담조사 참여자 정보

구분	성별	연령(만)	취업여부	최종학력
1	여	34	전업주부	대학원 이상
2	여	36	반일제	4년제 졸
3	여	38	종일제	4년제 졸
4	여	35	종일제	4년제 졸
5	여	35	반일제	4년제 졸
6	남	43	종일제	대학원 이상
7	여	42	종일제	대학원 이상

〈표 Ⅰ-3-2〉 종사자 및 관계기관 인사 면담조사 및 의견청취 정보

종사자	내용
초등돌봄전담사 5인	• 초등 방과후 돌봄 종사자로서의 애로사항 • 개선 요구 사항 • 초등 방과후 돌봄 개선 방안 의견 청취 • 지역의 초등 방과후 돌봄 정책 추진 상황 및 시사점
지역아동센터장 2인	
00시청 교육혁신지구 협력관	
00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회장	
00도청 출산보육정책 팀장	
00교육청 장학사	
00군청 아동드림팀장	

다. 설문조사

초등학교 1학년 및 유치원·어린이집 5세반 아동의 부모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돌봄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900명, 유치원·어린이집 5세반 어머니 30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니는 취업모 650명, 전업모 250명으로 구성하였다.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지역규모별 차이를 고려하여 표집 대상자를 대도시, 중소도

시, 읍면으로 구분하여 표집하였다. 지역할당은 대도시 70%(서울시 및 광역시), 중소도시 20%(시 단위), 읍면 지역 10%(군 단위)로 구성하였다.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900명(취업모 538명, 전업모 362명)과 취학 전 만5세 아동의 어머니 300명으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Ⅰ-3-3〉, 〈표 Ⅰ-3-4〉와 같다.

〈표 Ⅰ-3-3〉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니 대상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전체	100.0	(900)			
모 취업 상태			연령		
전업모	40.2	(362)	30대 미만	69.4	(625)
취업모	59.8	(538)	40대	30.6	(275)
취업 형태			평균 연령(세)(표준편차)	37.87	(3.28)
전일제	81.4	(438)	최종학력		
시간제	18.6	(100)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0	(126)
돌봄 문제로 퇴직한 경험			대학교 졸업 이상	86.0	(774)
있음	45.4	(253)	가구원 수		
없음	54.6	(304)	1~2인	0.9	(8)
퇴직 시기			3~4인	83.9	(755)
영유아기	85.6	(338)	5인 이상	15.2	(137)
초등학교 입학 이후	14.4	(57)	가구 소득		
지역 규모			400만원 미만	24.7	(222)
대도시	75.3	(678)	400~500만원 미만	23.9	(215)
중소도시	22.2	(200)	500~600만원 미만	21.0	(189)
읍면지역	2.4	(22)	600만원 이상	30.4	(274)
			평균 월 소득(만원)(표준편차)	497.84	(173.43)

〈표 Ⅰ-3-4〉 취학 전 만5세 아동 어머니 대상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전체	100.0	(300)			
연령			모 취업 상태		
30대 이하	82	(246)	전업모	31.7	(95)
40대	17.7	(53)	취업모	68.3	(205)
50대 이상	0.3	(1)	자녀의 이용기관		
평균 연령(표준편차)	36.5	(4.11)	어린이집	41.0	(123)
학력			유치원	57.0	(171)
고등학교 졸업	12.0	(36)	사교육기관	1.3	(4)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대학교 졸업	78.7	(236)	기타	0.7	(2)
대학원 졸업 이상	9.3	(28)	지역 구분		
가구 소득			대도시	66.7	(200)
400만원 미만	24.0	(72)	중소도시	31.0	(93)
400~500만원 미만	20.7	(62)	읍면지역	2.3	(7)
500~600만원 미만	27.0	(81)			
600만원 이상	28.3	(85)			
평균 소득 (표준편차)	498.35	(183.21)			

설문조사 문항은 부록에 수록하였으며, 초등학교 1학년 및 만5세 문항 6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초등학생 돌봄 실태 파악 및 수요 분석 연구」의 설문조사 문항 14번(김영란 외, 2018: 184)에 기반하여 구성하였고, 초등학교 1학년 문항 7번 및 7-1번은 「초등학생 돌봄 실태 파악 및 수요 분석 연구」의 설문조사 문항 17번 및 17-1번(김영란 외, 2018: 185)에 기반하여 구성하였다.

라. 통계분석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아동 수 및 기혼여성 취업률을 기준으로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하였다.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수요예측을 위해서 취학 전 종일제(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률과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의 차이 분석을 통해 아동이 유치원·어린이집 5세반에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할 때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보여줌으로써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요구되는 돌봄 수요를 제시하였다.

마. 제도적 분석

현재의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제도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각각의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현황을 제시하고 초등 방과후 돌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초등 방과후 돌봄의 법적·제도적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아동과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어떠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바.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학계 및 현장의 돌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문항, 제도 개선방안 등에 관해 연구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사.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관련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아. 정책토론회 개최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함께 하는 초등 돌봄을 위한 육아정책의 과제(2019년 10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초등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정책토론을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

4. 선행연구

가.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현황 관련 연구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5년 가족실태조사(장혜경 외, 2015: 404)를 통해서 초등학교 자녀의 돌봄 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초등학생 돌봄과 관련하여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장소, 기관 이용 시 월 평균 지출금액, 1일 평균 방과후 혼자 있는 시간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총 2,176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후 시간에 하는 활동을 살펴보면, 학원이 60.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집에서 보호자와 함께 지내는 경우가 19.0%로 조사되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6.3%, 방과후아카데미 5.5%, 지역아동센터 2.5%, 공부방 2.2%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호자 없이 집에서 혼자 있는 경우도 2.9%로 비교적 낮지 않는 수치이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가 다른 가족 구성에 비해 초등돌봄교실(14.3%), 지역아동센터(11.2%), 방과후 아카데미(3.5%)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한부모가정의 공적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높음을 알수 있다. 방과후 기관 이용 초등학생의 혼자 있는 시간(일평균)의 경우, '거의 없음'이 63.0%로 가장 많았으며, 혼자 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는 16.8%, '2시간 정도' 10.3%, '4시간 이상' 4.3%로 나타나, 27.0%의 초등학생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장혜경 외, 2015: 408). 취학 전 영유아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돌봄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간대를 조사한 결과, 평일 1순위 시간대는 오후 2시~4시(35.1%)이고 2순위는 오후 4시~6시(37.8%)로 나타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의 하원/하교 이후의 시간대에서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대까지의 돌봄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혜경 외, 2015: 409).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이용 실태와 이용만족도 등을 살펴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종호·심영미(2015)는 의정부시, 고양시, 연천군에 거주하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실태와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학부모의 자녀는 주 4.8일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였고, 5.4%의 아동은 토요일에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이유는 67.7%가 방과후에 자녀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어서를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아서(20.7%), 학습 및 숙제 지도를 위해서(28.7%), 식사 및 간식을 해결하기 위해서(18.7%), 자녀가 가기 원해서(14.0%), 사회성 및 또래관계를 위해서(11.7%)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을 시킬 형편이 안되서(7.7%), 예체능 교육(2.0%)은 10% 이하의 비율을 나타냈다. 초등돌봄교실 이후에, 56.7%는 집에서 성인이 아동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원에 가는 경우가 29.3%로 나타났다. 성인 없이 혼자 보낸다는 비율도 11.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의 돌봄 공백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등돌봄교실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교사(4.08점), 프로그램 만족도(3.87점), 이용효과 만족도(3.85점), 시설환경 만족도(3.74점) 순으로 나타나, 학부모는 교사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초등돌봄교실의 시설환경 개선이 요구된다(김종호·심영미, 2015).

노성향(2012: 36)은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여, 초등돌봄교실 이용 취업모과 미이용 취업모를 구분하여 초등돌봄교실의 인지도, 필요성, 이용 이유, 만족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취업모의 요구를 살펴보았다. 조사에 참여한 취업모의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90.3%), 초등돌봄교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9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돌봐줄 성인이 없어서(61.2%)가 가장 많고, 친구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해서가 15.5%로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특히 다양한 운영시간과 저렴한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비용이 저렴하고 원하는 시간에 맡길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취업모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초등돌봄교실을 미이용하는 이유로는 다른 활동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가 53.3%로 가장 높고, 집에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22.2%,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14.2%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 아동 전용 이미지 때문이라는 응답도 10.3%로 적지 않았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 서비스로의 목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프로그램을 대신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노성향, 2012: 36).

나.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관련 연구

미취학아동 시기와는 달리 초등학생은 돌봄 공백이 있어도 나 홀로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근에 높아졌다(김영란 외, 2018).

김지경·김균희(2013: 66)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통해 수집된 초등학교 1학년 및 4학년 4,72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의 개인, 부모 및 가구의 특성에 따른 방과후 돌봄 공백 일수의 차이를 검증하고,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 유무 및 일수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 일수는 개인, 부모, 가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맞벌이가정, 조손·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 중 거의 매일 돌봄 공백 상태를 겪는 비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방과후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김지경·김균희, 2013: 67).

김영란 외(2018: 146)에 의하면 돌봄 공백은 시간적으로 부모의 돌봄이 가능한 휴일/공휴일 보다는 주중/방학 중에 발생하고, 저학년 자녀(1~3학년)를 양육하는

경우와 맞벌이가구에서 돌봄 공백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하여 향후 방과후 돌봄서비스 개선 방안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정책 지점과 대상이 주중/방학 중이며, 저학년 자녀와 맞벌이가구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돌봄 공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돌봄 공백이 학교 학습활동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임혜정(2017)에 의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대해 방과후 돌봄 공백이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는 것을 밝혔으며, 이에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방과후 돌봄정책은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교육적 맥락을 고려해 교육적으로 잘 설계된 돌봄서비스로 보완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임혜정, 2017). 또한 같은 맥락에서 김경은(2012)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의 돌봄 없이 혼자 있는 경우가 일주일에 1회 이상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자기돌봄)은 학습활동이나 독서 시간이 성인 돌봄 아동에 비해 적고, 게임이나 TV 시청 등의 활동시간이 더 많고 학업 및 학교 규칙에 대한 적응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돌봄 공백은 학교 학습활동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학습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김경은, 2012: 62).

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관련 연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둔 가정의 방과후 돌봄 측면에서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 실태를 연구한 송혜림(2014)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후 돌봄에서 학교의 공적인 돌봄체계의 질에 대한 부모와 아동의 불만이 학원을 비롯한 사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중요 원인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취업모의 인식 및 요구에 대해 연구한 노성향(2012: 35) 역시 아동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 및 우수한 돌봄교실 강사확보를 초등돌봄교실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취업모들이 응답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공적인 초등돌봄체계에 있어서 양적인 공급부족 문제 뿐 아니라 돌봄의 질적인 문제 역시 중요한 선택기준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공적인 초등돌봄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는 기존의 초등돌봄체계가 대상 선정에 있어서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주의에 기

반하여 발달하였으나 보편주의적인 돌봄체계를 구성하지 못한 관계로 저소득층에게는 서비스 중복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반면,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조영희, 2014).

기존의 공적인 초등돌봄 체계라고 볼 수 있는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연계보다는 경쟁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김진숙·서혜전, 2016). 이는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수가 줄어든다는 것인데, 이러한 초등돌봄 서비스 간의 이러한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연계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연계의 방안으로는 시간대별 역할 분담,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 등을 들 수 있다(김진숙·서혜전, 2016).

방과후 돌봄 서비스 간의 연계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 중 하나로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 고시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인 근거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근거법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국회에서 10여년에 걸쳐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방과후과정 민간위탁 문제, 강사의 지위 문제 등의 이슈에서 의견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워 방과후학교의 근거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김민경·정영모, 2018).

또한, 김선혜(2015: 517)는 초등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아동의 자기결정의 자유에 근거하여 돌봄서비스의 목적을 논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돌봄서비스가 '교육'과 '돌봄'을 모두 포함하는 돌봄서비스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돌봄서비스가 아동들의 긍정적 인지·정서·신체 발달을 유도하고 학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를 전제하지만, 이 목적은 상당히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의 학력 저하를 전제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혜, 2015: 531). 돌봄서비스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그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 공공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있지만, 아동의 자유를 고려한다면 돌봄서비스의 희망 여부와 돌봄교실 안에서의 다양한 선택에 대해서는 아동들에게 자기결정의 권리를 어느 정도 위임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선혜, 2015: 532).

〈표 Ⅰ-4-1〉 선행연구 정리

연구명 (연구자, 년도)	연구내용	연구방법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
1)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취업모의 인식 및 요구 (노성향, 2012)	-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취업모의 인식과 아동의 초등돌봄교실 참여실태 조사 -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취업모의 요구 파악	- 설문조사	- 초등돌봄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요자의 이용실태와 요구를 반영해 수정되어야 하며 체계화/표준화 되어야 함. -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한 강사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2)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 분석과 개선방안 (조영희, 2014)	-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길버트와 테렐(2005)의 사회정책분석틀을 활용하여 돌봄 서비스 정책을 종합적으로 파악	- 문헌연구 - 제도분석	- 아동 방과후 돌봄은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고, 아동인권 보장의 문제, 공보육성이 강화되어야 함. - 아동 돌봄 서비스 개선안 제시: 정책의 총괄적 관리 문제, 돌봄 서비스 대상자 확대에 대한 문제,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 전달체계, 접근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운영 모델 개발, 재원 확보의 문제
3) 방과후 돌봄서비스 간의 협력과 역할 분석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김진숙·서혜전, 2016)	-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방과후 돌봄서비스간의 협력과 역할에 대해 파악	- 질적연구 (FGI)	- 방과후 돌봄이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변화의 하위범주를 5개 개념, 방과후 돌봄서비스간의 협력과 역할 7개의 개념 도출 -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도입배경, 역사, 운영철학, 서비스 유형 등을 토대로 각각의 정체성을 찾고 타 서비스에 대해 강점 사항들이 무엇인지 정립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지역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들과의 협력과 역할의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4) 방과후학교 근거법 마련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김민경·정영모, 2018)	- 정책네트워크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방과후학교 분야의 법안을 둘러싼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관계구조를 밝히고 방과후학교 근거법의 가결 가능성 검토	- 문헌연구 - 정책네트워크 분석	- 입법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는 교육부, 국회의원, 학원 관계자, 전교조, 방과후학교 강사, 위탁업체 관계자 등인 것으로 나타남. - 방과후학교 입법 정책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협력적 관계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론장 제공 - 방과후학교 근거법 마련을 위한 입법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방과후학교 입법 정책과 관련한 학문적 연구 활성화 필요함.
5) 초등학교 돌봄서비스의 목적 논의: 공공성과 아동 자기결정의 자유에 근거하여	- 돌봄서비스의 목적을 분석하고, 공공성 강화와 아동 자기결정의 자유에 근거하여 논의함으로써 돌봄서비스가 '교육'과 '돌봄'을 모두 포함하는 돌봄서비스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 문헌연구 - 관찰/면접 조사	- 돌봄서비스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 공공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있지만, 아동의 자유를 고려한다면 돌봄서비스의 희망 여부와 돌봄교실 안에서의 다양한 선택에 대해서는 아동에게 자기결정의 권리를 어느 정도

연구명 (연구자, 년도)	연구내용	연구방법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
(김선혜, 2015)	있는지 점검		위임해야 함.
6)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 유무 및 일수의 결정요인 (김지경·김균희, 2013)	- 초등학생의 양육 및 돌봄 공백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을 위하여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유무 및 일수 파악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분석	- 저학년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로 대상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 있음. -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모든 아동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질적 수준의 향상 및 양적 확대 이루어져함. - 돌봄 공백을 상태에 놓여 있는 나홀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상시적인 공적 방과후 서비스를 확충하여 제공하는 등 지역 여건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됨.
7)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돌봄 공백이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미치는 영향 (임혜정, 2017)	- 방과후 돌봄 공백이 초등학생의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분석	-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영유아기의 체계적 돌봄서비스 망이 연계되지 못하는 초등학교의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로 하는 돌봄정책 연계성 강화가 시급 - 초등학기 저학년 시기 방과후 돌봄 정책은 교육적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8) 초등학교 돌봄 실태 파악 및 수요 분석 연구 (김영란 외, 2018)	-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실태와 이용욕구, 돌봄 공급량 산출을 위한 돌봄 수요 추정, 수요기반 정책과제 제안	- 설문조사 - 2차자료 분석	- 돌봄 수요 규모 산출결과, 필수수요 40만에서 57만, 최대수요 약 118만가구에서 146만가구인 것으로 나타남. 현행 방과후 공적 방과후 돌봄 공급은 필수수요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하여, 방과후 돌봄 수요 대응 공급확대를 제안함. - 방과후 시간 이용 실태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 검토 필요

1) 노성향(2012).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취업모의 인식 및 요구. 인간발달연구, 19, 21-40.
2) 조영희(2014).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1), 141-162.
3) 김진숙·서혜전(2016). 방과후 돌봄서비스간의 협력과 역할 분석-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방과후아동지도연구, 13, 45-67.
4) 김민경·정영모(2018). 방과후학교 근거법 마련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교육문제연구, 31, 99-118.
5) 김선혜(2015). 초등학교 돌봄서비스의 목적 논의: 공공성과 아동 자기결정의 자유에 근거하여. 한국초등교육, 26(4), 515-535.
6) 김지경·김균희(2013).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 유무 및 일수의 결정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4(1), 51-70.
7) 임혜정(2017).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돌봄 공백이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1(3), 65-86.
8) 김영란 외(2018). 초등학교 돌봄 실태 파악 및 수요 분석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Ⅱ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

01 개요

02 전국 및 시도별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분석

03 소결

Ⅱ.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

1. 개요

초등돌봄 수요에 대해서 교육부를 포함한 범정부적으로 전국 초등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 2,700,574명 중 1,822,472명(응답률 67.5%)을 조사한 「2018년 범정부 공동 초등 돌봄 수요조사 결과 보고(교육부, 2019)」에 따르면, 총 550,623명(30.2%)이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학년은 187,626명(58.1%)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전체 학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났다(교육부, 2019: 1).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32.6%는 오후 5시까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오후 4시까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7.9%, 오후 5시 이후에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20.4%로 나타났다(교육부, 2019: 2). 이러한 결과는 초등돌봄 수요 중에서 1학년의 수요가 가장 높고, 오후 5시 이후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가 상당 수준 존재함을 보여준다.

현재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은 이용 학생수를 기준으로 초등돌봄교실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b: 26). 이는 학교 밖 돌봄인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초등 1학년 비율이 낮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 4학년부터 이용할 수 있으므로 초등 1학년은 이용할 수 없으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 수가 적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1학년 아동의 돌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7세 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1학년은 만6세와 만7세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만7세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출산율 가정은 저출산 추세를 반영하여 저위 가정을 채택하였다. 취학 전에 유치원 방과후 및 어린이집 종일반을 다니는 아동 수는 2017년 평균 유치원 이용률 49.3% 및 어린이집 이용률 41.3%로 가정하였고, 유치원 아동 중 공립유치원 재원 아동 비율은 25%, 사립유치원 재원 아동 비율은 75%로 가정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참여 비율은 공립유치원 원아

의 80%, 사립유치원 원아의 65%로 가정하였으며 어린이집 종일반 비율은 100%로 가정하였다(문무경·박창현·송기창·김문정, 2017: 136). 이러한 가정 하에 7세 인구가 취학 전과 동일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의 아동 수를 추산하였다.

초등 방과후 돌봄은 2018년 4월에 발표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서 파악한 바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비율은 29.4%로 가정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b: 26). 시간제 맞벌이와 전일제 맞벌이 비율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서 파악한 바와 같이 각각 40.2%와 25.7%로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기준 7세 인구는 45만 8,896명이고, 7세 아동이 어린이집 종일반 및 유치원 방과후 서비스를 계속 받게 될 경우 35만 1,663명이 된다. 7세 인구 대비 취학 전 방과후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75.2%이다.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받는 7세 인구는 13만 7,497명인데 취학 전 방과후 서비스 이용자 수와 비교하면 39.1%이다. 다시 말해서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자 수는 취학 전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자 수의 39.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학 전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이용자격에 맞벌이 여부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맞벌이 여부의 제한을 두는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

시간제 맞벌이 가정에 있는 7세 아동은 18만 8,006명이고, 전일제 맞벌이 가정에 있는 7세 아동은 12만 193명이다. 시간제 맞벌이 수 대비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 비율은 73.1%이고 전일제 맞벌이 수 대비로는 114.4%이다. 이런 점에서 전일제 맞벌이 기준으로는 공적인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수요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 되지만, 시간제 맞벌이 기준으로는 수요를 73.1%만 충족하고 있다.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중 초등 1학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를 기본적인 이용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시간제 허용 여부는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전일제만 맞벌이로 인정하여 초등돌봄교실 이용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 분석은 출산율의 저위 가정을 사용하였으므로 7세 인구는 2030년에는 2019년의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초등 방과후 돌봄 시설이 인구 감소에 따라 같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적어도 양적으로는 인구 감소에 따라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관계부처 합동, 2018b)」에서 제시한 계획은 돌봄교실 1실당 20명의 아동을 가정한 것이다. 돌봄교실 1실당 20명의 아동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과밀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만약 돌봄교실 1실당 10

명의 아동을 가정한다면 필요한 공급은 2배가 된다. 그 외에도 기혼여성 취업률이 증가하여 시간제 맞벌이 비율이 증가할 수도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돌봄교실 1실당 20명일 경우와 10명일 경우를 나누고, 최대 이용률은 취학 전 1년 방과후 돌봄 이용률 75.2%로 하고 최소 이용률은 시간제 맞벌이 비율 40.2%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관계부처 합동, 2018b)」에서는 33만명 수준인 초등 방과후 돌봄의 규모를 53만명으로 20만명 증원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161% 증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초등 방과후 돌봄 대상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초등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관계부처 합동, 2018b)」에서는 초등돌봄 수요 추정 시 저학년(1~3학년)의 경우 최소 수요를 전일제 맞벌이 비율 25.7%, 최대 수요를 시간제 맞벌이 비율 40.2%를 적용하였고, 고학년(4~6학년)의 경우 수요율을 10% 내외로 가정하여 2022년 기준 최대 64만명으로 추정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b: 26).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인 2017년 초등 1학년의 방과후 돌봄 이용률은 29.4%(관계부처 합동, 2018b: 26)인데, 온종일 돌봄체계 이후의 초등 1학년 돌봄 공급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되는 2022년 기준으로 장래인구추계 저위가정의 7세 인구는 438,447명이고, 시간제 맞벌이 비율 40.2%를 적용하면 176,256명이 된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서는 장래인구추계 중위가정을 사용했는데(관계부처 합동, 2018b: 26; 교육부, 2018a: 2-3; 교육부, 2018b: 1), 중위가정에서는 2022년 7세 인구는 439,266명으로 2022년 기준으로는 저위가정과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으로 온종일 돌봄체계에서 가정한 최대 64만명은 저위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 2022년 기준 초등 1학년 돌봄 공급은 176,256명에 (53만/64만)을 곱하여 145,962명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수준의 공급의 106.2%에 해당한다.

여기서 분석한 내용은 시도별로 출산율에 따라 학생수가 증감한다고 가정하였고 인구이동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인구이동에 따라 특정 지역은 출산율이 감소해도 학생수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은 오후돌봄이 대부분이므로 돌봄교실이 증가하여도 아침 및 저녁돌봄을 필요로 하는 맞벌이 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2. 전국 및 시도별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분석

전국의 경우 2019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아동수 137,497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실당 20명일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1.7%,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8%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7%,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44%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초등 1학년 돌봄 아동수 145,962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4.3%,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2.8%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1.7%,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52.8%로 추정된다.

1실당 10명일 경우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기준으로는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0.8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9%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8.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2%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 체계가 완성될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2.1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1.4%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0.8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6.4%로 추정된다.

〈표 Ⅱ-2-1〉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전국)

단위: 명

구분 (년)	7세 인구	취학 전 1년 방과후(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75.2%)	시간제 맞벌이 (이용률 40.2%)	전일제 맞벌이 (이용률 25.7%)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온종일 돌봄체계 완성 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2019	467,676	351,663	188,006	120,193	137,497	145.962
2020	458,896	345,061	184,476	117,936		
2021	431,082	324,147	173,295	110,788		
2022	438,447	329,685	176,256	112,681		
2023	424,418	319,136	170,616	109,075		
2024	378,929	284,931	152,329	97,385		
2025	339,848	255,544	136,619	87,341		
2026	306,894	230,765	123,371	78,872		

구분 (년)	7세 인구	취학 전 1년 방과후(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75.2%)	시간제 맞벌이 (이용률 40.2%)	전일제 맞벌이 (이용률 25.7%)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온종일 돌봄체계 완성 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2027	275,840	207,414	110,888	70,891		
2028	256,889	193,164	103,269	66,020		
2029	240,763	181,039	96,787	61,876		
2030	237,549	178,622	95,495	61,050		

자료: 통계청(각년도). 장래인구추계 7세 인구. 자료에 기반하여 재구성.

서울의 경우 2019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아동수 20,865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실당 20명일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3%,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0.4%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6.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61.8%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초등 1학년 돌봄 아동수 22,159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5.6%,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5.4%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91.9%,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71.9%로 추정된다.

1실당 10명일 경우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기준으로는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1.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0.2%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3.2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0.9%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2.8%,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2.7%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5.9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5.95%로 추정된다.

〈표 Ⅱ-2-2〉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서울)

단위: 명

구분 (년)	7세 인구	취학 전 1년 방과후(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75.2%)	시간제 맞벌이 (이용률 40.2%)	전일제 맞벌이 (이용률 25.7%)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온종일 돌봄체계 완성 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2019	70,971	53,370	28,530	18,240	20,865	22,159
2020	68,961	51,859	27,722	17,723		
2021	63,776	47,960	25,638	16,390		
2022	64,579	48,563	25,961	16,597		
2023	61,392	46,167	24,680	15,778		
2024	54,150	40,721	21,768	13,917		
2025	46,787	35,184	18,808	12,024		
2026	41,631	31,307	16,736	10,699		
2027	36,874	27,729	14,823	9,477		
2028	34,456	25,911	13,851	8,855		
2029	32,175	24,196	12,934	8,269		
2030	32,072	24,118	12,893	8,243		

자료: 통계청(각년도). 장래인구추계 7세 인구. 자료에 기반하여 재구성.

부산의 경우 2019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아동수 7,927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실당 20명일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1.4%,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7.4%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7.8%,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64.3%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초등 1학년 돌봄 아동수 8,418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3.9%,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2.2%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93.3%,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74.4%로 추정된다.

1실당 10명일 경우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기준으로는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0.7%,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8.7%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3.9%,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2.15%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1.9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1.1%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6.6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7.2%로 추정된다.

〈표 Ⅱ-2-3〉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부산)

단위: 명

구분 (년)	7세 인구	취학 전 1년 방과후(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75.2%)	시간제 맞벌이 (이용률 40.2%)	전일제 맞벌이 (이용률 25.7%)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온종일 돌봄체계 완성 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2019	26,961	20,275	10,838	6,929	7,927	8,418
2020	26,483	19,915	10,646	6,806		
2021	25,065	18,849	10,076	6,442		
2022	25,481	19,162	10,243	6,549		
2023	24,909	18,732	10,013	6,402		
2024	21,825	16,412	8,774	5,609		
2025	19,096	14,360	7,677	4,908		
2026	16,470	12,385	6,621	4,233		
2027	14,238	10,707	5,724	3,659		
2028	13,208	9,932	5,310	3,394		
2029	12,247	9,210	4,923	3,147		
2030	12,004	9,027	4,826	3,085		

자료: 통계청(각년도). 장래인구추계 7세 인구. 자료에 기반하여 재구성.

대구의 경우 2019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아동수 6,333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실당 20명일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1.6%,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7.8%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4.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58%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초등 1학년 돌봄 아동수 6,726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4.2%,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2.7%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9.7%,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67.8%로 추정된다.

1실당 10명일 경우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기준으로는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0.8%,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8.9%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2.2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9%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2022년에

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2.1%,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1.35%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4.8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3.9%로 추정된다.

〈표 Ⅱ-2-4〉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대구)

단위: 명

구분 (년)	7세 인구	취학 전 1년 방과후(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75.2%)	시간제 맞벌이 (이용률 40.2%)	전일제 맞벌이 (이용률 25.7%)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온종일 돌봄체계 완성 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2019	21,540	16,198	8,659	5,536	6,333	6,726
2020	21,066	15,842	8,469	5,414		
2021	19,842	14,921	7,976	5,099		
2022	20,241	15,221	8,137	5,202		
2023	19,818	14,903	7,967	5,093		
2024	17,831	13,409	7,168	4,583		
2025	15,781	11,867	6,344	4,056		
2026	13,739	10,332	5,523	3,531		
2027	11,903	8,951	4,785	3,059		
2028	10,999	8,271	4,422	2,827		
2029	10,191	7,664	4,097	2,619		
2030	9,969	7,497	4,008	2,562		

자료: 통계청(각년도). 장래인구추계 7세 인구. 자료에 기반하여 재구성.

인천의 경우 2019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아동수 8,066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실당 20명일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2.2%,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9%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7.4%,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44.7%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초등 1학년 돌봄 아동수 8,566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4.8%,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3.9%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2.2%,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53.7%로 추정된다.

1실당 10명일 경우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기준으로는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1.1%,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9.5%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8.7%,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2.35%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2.4%,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1.95%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1.1%,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6.85%로 추정된다.

〈표 Ⅱ-2-5〉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인천)

단위: 명

구분 (년)	7세 인구	취학 전 1년 방과후(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75.2%)	시간제 맞벌이 (이용률 40.2%)	전일제 맞벌이 (이용률 25.7%)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온종일 돌봄체계 완성 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2019	27,434	20,630	11,028	7,051	8,066	8,566
2020	26,600	20,003	10,693	6,836		
2021	24,927	18,745	10,021	6,406		
2022	25,408	19,107	10,214	6,530		
2023	24,399	18,348	9,808	6,271		
2024	21,412	16,102	8,608	5,503		
2025	19,249	14,475	7,738	4,947		
2026	17,676	13,292	7,106	4,543		
2027	15,840	11,912	6,368	4,071		
2028	14,845	11,163	5,968	3,815		
2029	13,990	10,520	5,624	3,595		
2030	13,863	10,425	5,573	3,563		

자료: 통계청(각년도). 장래인구추계 7세 인구. 자료에 기반하여 재구성.

광주의 경우 2019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아동수 4,363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실당 20명일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2.7%,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9.9%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1.1%,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51.7%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초등 1학년 돌봄 아동수 4,634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5.4%,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4.8%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6.1%,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61.1%로 추정된다.

1실당 10명일 경우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기준으로는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1.3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9.95%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0.5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5.85%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2.7%,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2.4%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3.0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0.55%로 추정된다.

〈표 Ⅱ-2-6〉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광주)

단위: 명

구분 (년)	7세 인구	취학 전 1년 방과후(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75.2%)	시간제 맞벌이 (이용률 40.2%)	전일제 맞벌이 (이용률 25.7%)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온종일 돌봄체계 완성 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2019	14,839	11,159	5,965	3,814	4,363	4,634
2020	14,594	10,975	5,867	3,751		
2021	13,570	10,205	5,455	3,487		
2022	13,588	10,218	5,462	3,492		
2023	13,164	9,899	5,292	3,383		
2024	11,832	8,898	4,756	3,041		
2025	10,660	8,016	4,285	2,740		
2026	9,454	7,109	3,801	2,430		
2027	8,459	6,361	3,401	2,174		
2028	7,834	5,891	3,149	2,013		
2029	7,296	5,487	2,933	1,875		
2030	7,154	5,380	2,876	1,839		

자료: 통계청(각년도). 장래인구추계 7세 인구. 자료에 기반하여 재구성.

대전의 경우 2019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아동수 4,089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실당 20명일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3.1%,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0.6%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9%,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47.7%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초등 1학년 돌봄 아동수 4,343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5.8%,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5.6%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3.9%,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56.9%로 추정된다.

1실당 10명일 경우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기준으로는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1.5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0.3%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9.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3.85%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2.9%,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2.8%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1.9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8.45%로 추정된다.

〈표 Ⅱ-2-7〉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대전)

단위: 명

구분 (년)	7세 인구	취학 전 1년 방과후(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75.2%)	시간제 맞벌이 (이용률 40.2%)	전일제 맞벌이 (이용률 25.7%)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온종일 돌봄체계 완성 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2019	13,908	10,459	5,591	3,574	4,089	4,343
2020	13,429	10,099	5,398	3,451		
2021	12,542	9,432	5,042	3,223		
2022	12,616	9,487	5,072	3,242		
2023	12,081	9,085	4,857	3,105		
2024	10,810	8,129	4,346	2,778		
2025	9,566	7,194	3,846	2,458		
2026	8,601	6,468	3,458	2,210		
2027	7,898	5,939	3,175	2,030		
2028	7,353	5,529	2,956	1,890		
2029	6,937	5,217	2,789	1,783		
2030	6,886	5,178	2,768	1,770		

자료: 통계청(각년도). 장래인구추계 7세 인구. 자료에 기반하여 재구성.

울산의 경우 2019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아동수 3,422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실당 20명일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1.2%,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7.1%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0.6%,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50.1%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초등 1학년 돌봄 아동수

3,634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3.8%,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1.9%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5.6%,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60.2%로 추정된다.

1실당 10명일 경우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기준으로는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0.6%,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8.55%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0.3%,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5.05%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1.9%,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0.95%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2.8%,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0.1%로 추정된다.

〈표 Ⅱ-2-8〉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울산)

단위: 명

구분 (년)	7세 인구	취학 전 1년 방과후(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75.2%)	시간제 맞벌이 (이용률 40.2%)	전일제 맞벌이 (이용률 25.7%)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온종일 돌봄체계 완성 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2019	11,640	8,753	4,679	2,991	3,422	3,634
2020	11,510	8,656	4,627	2,958		
2021	11,058	8,316	4,445	2,842		
2022	11,035	8,298	4,436	2,836		
2023	10,644	8,004	4,279	2,736		
2024	9,462	7,115	3,804	2,432		
2025	8,211	6,175	3,301	2,110		
2026	7,398	5,563	2,974	1,901		
2027	6,761	5,084	2,718	1,738		
2028	6,225	4,681	2,502	1,600		
2029	5,791	4,355	2,328	1,488		
2030	5,645	4,245	2,269	1,451		

자료: 통계청(각년도). 장래인구추계 7세 인구. 자료에 기반하여 재구성.

세종의 경우 2019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아동수 1,440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실당 20명일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3.9%,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63.5%로 추정되고, 2030년

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5.2%,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4.5%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초등 1학년 돌봄 아동수 1,529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6%,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67.4%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7.9%,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9.7%로 추정된다.

1실당 10명일 경우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기준으로는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6.9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1.75%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2.6%,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2.25%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8%,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3.7%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3.9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4.85%로 추정된다.

〈표 Ⅱ-2-9〉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세종)

단위: 명

구분 (년)	7세 인구	취학 전 1년 방과후(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75.2%)	시간제 맞벌이 (이용률 40.2%)	전일제 맞벌이 (이용률 25.7%)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온종일 돌봄체계 완성 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2019	4,899	3,684	1,969	1,259	1,440	1,529
2020	5,194	3,906	2,088	1,335		
2021	5,257	3,953	2,113	1,351		
2022	5,645	4,245	2,269	1,451		
2023	5,896	4,434	2,370	1,515		
2024	5,539	4,165	2,227	1,424		
2025	5,335	4,012	2,145	1,371		
2026	4,936	3,712	1,984	1,269		
2027	4,594	3,455	1,847	1,181		
2028	4,418	3,322	1,776	1,135		
2029	4,256	3,201	1,711	1,094		
2030	4,242	3,190	1,705	1,090		

자료: 통계청(각년도). 장래인구추계 7세 인구. 자료에 기반하여 재구성.

경기의 경우 2019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아동수 39,024명을 기준으로 공

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실당 20명일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0.2%,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5.2%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1.6%,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33.9%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초등 1학년 돌봄 아동수 41,443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2.7%,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9.9%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6%,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42.2%로 추정된다.

1실당 10명일 경우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기준으로는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0.1%,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7.6%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5.8%,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66.95%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1.3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9.95%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8%,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1.1%로 추정된다.

〈표 Ⅱ-2-10〉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경기)

단위: 명

구분 (년)	7세 인구	취학 전 1년 방과후(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75.2%)	시간제 맞벌이 (이용률 40.2%)	전일제 맞벌이 (이용률 25.7%)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온종일 돌봄체계 완성 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2019	132,733	99,815	53,359	34,112	39,024	41,443
2020	132,272	99,469	53,173	33,994		
2021	124,828	93,871	50,181	32,081		
2022	129,098	97,082	51,897	33,178		
2023	125,762	94,573	50,556	32,321		
2024	112,815	84,837	45,352	28,993		
2025	102,019	76,718	41,012	26,219		
2026	93,003	69,938	37,387	23,902		
2027	83,842	63,049	33,704	21,547		
2028	78,076	58,713	31,387	20,066		
2029	73,314	55,132	29,472	18,842		
2030	72,484	54,508	29,139	18,628		

자료: 통계청(각년도). 장래인구추계 7세 인구. 자료에 기반하여 재구성.

강원의 경우 2019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아동수 3,681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실당 20명일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3.6%,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1.5%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7%,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44%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초등 1학년 돌봄 아동수 3,909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6.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6.6%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1.8%,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52.9%로 추정된다.

1실당 10명일 경우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기준으로는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1.8%,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0.75%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8.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2%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3.1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3.3%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0.9%,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6.45%로 추정된다.

〈표 Ⅱ-2-11〉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강원)

단위: 명

구분 (년)	7세 인구	취학 전 1년 방과후(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75.2%)	시간제 맞벌이 (이용률 40.2%)	전일제 맞벌이 (이용률 25.7%)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온종일 돌봄체계 완성 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2019	12,519	9,414	5,033	3,217	3,681	3,909
2020	12,075	9,080	4,854	3,103		
2021	11,193	8,417	4,500	2,877		
2022	11,230	8,445	4,514	2,886		
2023	10,834	8,147	4,355	2,784		
2024	9,951	7,483	4,000	2,557		
2025	8,998	6,766	3,617	2,312		
2026	8,172	6,145	3,285	2,100		
2027	7,346	5,524	2,953	1,888		
2028	6,866	5,163	2,760	1,765		
2029	6,450	4,850	2,593	1,658		
2030	6,358	4,781	2,556	1,634		

자료: 통계청(각년도). 장래인구추계 7세 인구. 자료에 기반하여 재구성.

충북의 경우 2019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아동수 4,289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실당 20명일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2.9%,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0.3%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0.7%,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32.3%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초등 1학년 돌봄 아동수 4,555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5.6%,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5.2%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5.1%,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40.5%로 추정된다.

1실당 10명일 경우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기준으로는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1.4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0.15%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5.3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61.15%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2.8%,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2.6%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7.5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0.25%로 추정된다.

〈표 Ⅱ-2-12〉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충북)

단위: 명

구분 (년)	7세 인구	취학 전 1년 방과후(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75.2%)	시간제 맞벌이 (이용률 40.2%)	전일제 맞벌이 (이용률 25.7%)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온종일 돌봄체계 완성 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2019	14,588	10,970	5,864	3,749	4,289	4,555
2020	14,296	10,751	5,747	3,674		
2021	13,436	10,104	5,401	3,453		
2022	13,294	9,997	5,344	3,417		
2023	13,154	9,892	5,288	3,381		
2024	11,951	8,987	4,804	3,071		
2025	11,191	8,416	4,499	2,876		
2026	10,172	7,649	4,089	2,614		
2027	9,194	6,914	3,696	2,363		
2028	8,640	6,497	3,473	2,220		
2029	8,148	6,127	3,275	2,094		
2030	8,062	6,063	3,241	2,072		

자료: 통계청(각년도). 장래인구추계 7세 인구. 자료에 기반하여 재구성.

충남의 경우 2019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아동수 6,108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실당 20명일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1.6%,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7.8%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66.7%,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24.8%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초등 1학년 돌봄 아동수 6,487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4.2%,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2.6%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0.9%,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32.6%로 추정된다.

1실당 10명일 경우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기준으로는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0.8%,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8.9%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3.3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62.4%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2.1%,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1.3%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5.4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66.3%로 추정된다.

〈표 Ⅱ-2-13〉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충남)

단위: 명

구분 (년)	7세 인구	취학 전 1년 방과후(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75.2%)	시간제 맞벌이 (이용률 40.2%)	전일제 맞벌이 (이용률 25.7%)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온종일 돌봄체계 완성 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2019	20,774	15,622	8,351	5,339	6,108	6,487
2020	20,284	15,254	8,154	5,213		
2021	19,100	14,363	7,678	4,909		
2022	19,537	14,692	7,854	5,021		
2023	18,944	14,246	7,615	4,869		
2024	17,038	12,813	6,849	4,379		
2025	16,178	12,166	6,504	4,158		
2026	14,974	11,260	6,020	3,848		
2027	13,817	10,390	5,554	3,551		
2028	12,984	9,764	5,220	3,337		
2029	12,298	9,248	4,944	3,161		
2030	12,170	9,152	4,892	3,128		

자료: 통계청(각년도). 장래인구추계 7세 인구. 자료에 기반하여 재구성.

전북의 경우 2019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아동수 4,758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실당 20명일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3.7%,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1.8%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1.8%,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53%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초등 1학년 돌봄 아동수 5,053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6.4%,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6.8%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6.9%,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62.5%로 추정된다.

1실당 10명일 경우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기준으로는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1.8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0.9%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0.9%,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6.5%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3.2%,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3.4%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3.4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1.25%로 추정된다.

〈표 Ⅱ-2-14〉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전북)

단위: 명

구분 (년)	7세 인구	취학 전 1년 방과후(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75.2%)	시간제 맞벌이 (이용률 40.2%)	전일제 맞벌이 (이용률 25.7%)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온종일 돌봄체계 완성 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2019	16,185	12,171	6,506	4,160	4,758	5,053
2020	15,677	11,789	6,302	4,029		
2021	14,291	10,747	5,745	3,673		
2022	14,474	10,884	5,819	3,720		
2023	13,601	10,228	5,468	3,495		
2024	12,023	9,041	4,833	3,090		
2025	10,910	8,204	4,386	2,804		
2026	9,901	7,446	3,980	2,545		
2027	9,085	6,832	3,652	2,335		
2028	8,417	6,330	3,384	2,163		
2029	7,882	5,927	3,169	2,026		
2030	7,734	5,816	3,109	1,988		

자료: 통계청(각년도). 장래인구추계 7세 인구. 자료에 기반하여 재구성.

전남의 경우 2019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아동수 4,698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실당 20명일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4.6%,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3.4%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2%,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53.3%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초등 1학년 돌봄 아동수 4,989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7.3%,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8.6%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7%,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62.8%로 추정된다.

1실당 10명일 경우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기준으로는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2.3%,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1.7%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1%,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6.65%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3.6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4.3%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3.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1.4%로 추정된다.

〈표 Ⅱ-2-15〉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전남)

단위: 명

구분 (년)	7세 인구	취학 전 1년 방과후(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75.2%)	시간제 맞벌이 (이용률 40.2%)	전일제 맞벌이 (이용률 25.7%)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온종일 돌봄체계 완성 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2019	15,980	12,017	6,424	4,107	4,698	4,989
2020	15,356	11,548	6,173	3,946		
2021	14,101	10,604	5,669	3,624		
2022	14,013	10,538	5,633	3,601		
2023	13,476	10,134	5,417	3,463		
2024	12,115	9,110	4,870	3,114		
2025	10,676	8,028	4,292	2,744		
2026	9,850	7,407	3,960	2,531		
2027	8,968	6,744	3,605	2,305		
2028	8,323	6,259	3,346	2,139		
2029	7,796	5,863	3,134	2,004		
2030	7,623	5,732	3,064	1,959		

자료: 통계청(각년도). 장래인구추계 7세 인구. 자료에 기반하여 재구성.

경북의 경우 2019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아동수 6,606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실당 20명일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2.4%,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9.4%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0.6%,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50.8%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초등 1학년 돌봄 아동수 7,016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5.1%,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4.3%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5.6%,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60.1%로 추정된다.

1실당 10명일 경우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기준으로는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1.2%,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9.7%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0.3%,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5.4%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2.5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2.15%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2.8%,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0.05%로 추정된다.

〈표 Ⅱ-2-16〉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경북)

단위: 명

구분 (년)	7세 인구	취학 전 1년 방과후(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75.2%)	시간제 맞벌이 (이용률 40.2%)	전일제 맞벌이 (이용률 25.7%)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온종일 돌봄체계 완성 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2019	22,470	16,897	9,033	5,775	6,606	7,016
2020	22,007	16,549	8,847	5,656		
2021	20,669	15,543	8,309	5,312		
2022	20,704	15,569	8,323	5,321		
2023	20,106	15,120	8,083	5,167		
2024	17,757	13,353	7,138	4,564		
2025	16,051	12,070	6,453	4,125		
2026	14,422	10,845	5,798	3,706		
2027	12,902	9,702	5,187	3,316		
2028	11,941	8,980	4,800	3,069		
2029	11,142	8,379	4,479	2,863		
2030	10,899	8,196	4,381	2,801		

자료: 통계청(각년도). 장래인구추계 7세 인구. 자료에 기반하여 재구성.

경남의 경우 2019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아동수 9,696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실당 20명일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2.2%,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8.9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0.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50.6%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초등 1학년 돌봄 아동수 10,297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4.8%,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3.8%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5.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59.9%로 추정된다.

1실당 10명일 경우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기준으로는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1.1%,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9.45%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0.2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5.3%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2.4%,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1.9%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2.7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9.95%로 추정된다.

〈표 Ⅱ-2-17〉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경남)

단위: 명

구분 (년)	7세 인구	취학 전 1년 방과후(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75.2%)	시간제 맞벌이 (이용률 40.2%)	전일제 맞벌이 (이용률 25.7%)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온종일 돌봄체계 완성 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2019	32,980	24,801	13,258	8,476	9,696	10,297
2020	32,049	24,101	12,884	8,237		
2021	30,536	22,963	12,275	7,848		
2022	30,577	22,994	12,292	7,858		
2023	29,303	22,036	11,780	7,531		
2024	26,089	19,619	10,488	6,705		
2025	23,273	17,501	9,356	5,981		
2026	21,124	15,885	8,492	5,429		
2027	19,225	14,457	7,728	4,941		
2028	17,676	13,292	7,106	4,543		
2029	16,448	12,369	6,612	4,227		
2030	16,017	12,045	6,439	4,116		

자료: 통계청(각년도). 장래인구추계 7세 인구. 자료에 기반하여 재구성.

제주의 경우 2019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아동수 2,133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실당 20명일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0.9%,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76.6%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6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21.5%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초등 1학년 돌봄 아동수 2,265명을 기준으로 공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3.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81.3%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69%,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129%로 추정된다.

1실당 10명일 경우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기준으로는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0.4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8.3%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2.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60.75%로 추정된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2022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21.7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40.65%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이용률 75.2%일 때 공급은 수요의 34.5%, 이용률 40.2%일 때 공급은 수요의 64.5%로 추정된다.

〈표 Ⅱ-2-18〉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제주)

단위: 명

구분 (년)	7세 인구	취학 전 1년 방과후(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75.2%)	시간제 맞벌이 (이용률 40.2%)	전일제 맞벌이 (이용률 25.7%)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온종일 돌봄체계 완성 후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2019	7,255	5,456	2,917	1,865	2,133	2,265
2020	7,043	5,296	2,831	1,810		
2021	6,891	5,182	2,770	1,771		
2022	6,927	5,209	2,785	1,780		
2023	6,935	5,215	2,788	1,782		
2024	6,329	4,759	2,544	1,627		
2025	5,867	4,412	2,359	1,508		
2026	5,371	4,039	2,159	1,380		
2027	4,894	3,680	1,967	1,258		
2028	4,628	3,480	1,860	1,189		
2029	4,402	3,310	1,770	1,131		
2030	4,367	3,284	1,756	1,122		

자료: 통계청(각년도). 장래인구추계 7세 인구. 자료에 기반하여 재구성.

3. 소결

장래인구추계 저위가정을 이용하여 7세 인구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의 초등돌봄 수요를 예측한 결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이용률을 최대치인 75.2%, 돌봄교실 당 인원을 최소치인 10명으로 가정한다고 해도 2030년에는 공급 총량이 수요의 80% 가까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률 및 돌봄교실 당 인원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는 수요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에서 가정하는 최대 이용률 40.2%, 돌봄 교실 당 인원 20명을 가정하면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시의 공급수준을 유지하면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추세로 인한 급격한 아동 수 감소로 인하여 2030년으로 가게 되면 양적인 수준에서는 온종일 돌봄체계의 공급 수준이 부족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22년에는 이용률 40.2%를 가정할 시 공급은 수요의 82.8%로 추정되어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추세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초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완성 후 돌봄 공급은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에 비해 106.2%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온종일 돌봄체계가 초등 전학년에 대한 돌봄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초등 1학년에 대한 돌봄 공급은 상대적으로 그 확대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봄 수요가 가장 높은 학년은 1학년이고(교육부, 2019: 1),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되므로, 돌봄 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1학년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그 외에도 돌봄 공급은 총량의 수준에서만 봐서는 안되고, 질적인 수준과 수요자가 원하는 돌봄 시간대에 공급이 되는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오후 5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오후돌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8년 범정부 공동 초등 돌봄 수요조사 결과 보고」에서는 오후 5시 이후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4%로 나타났는데(교육부, 2019: 2), 이러한 결과는 돌봄 공급을 총량의 관점에서만 보아서는 안되며,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Ⅲ

초등 방과후 돌봄 관련 제도

01 초등 방과후 돌봄 관련 제도

0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용 실행계획

Ⅲ. 초등 방과후 돌봄 관련 제도[1)]

1. 초등 방과후 돌봄 관련 제도

가. 부처별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 현황

부처별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구별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부의 방과후학교를 포함할 수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방과후학교는 프로그램 시간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온전한 돌봄 프로그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학원이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시간제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일정한 돌봄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구에 포함한다.

〈표 Ⅲ-1-1〉 부처별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 현황(기관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만 포함)

구분		교육부	보건복지부	
사업명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원대상		1~6학년	만 18세 미만	만 6~12세
지원기준 (소득)		맞벌이 가정 중심 (없음)	취약계층 중심 (중위소득 100% 이하)	맞벌이 가정 중심(없음)
지원내용		보호, 교육 및 일부 급·간식 지원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상시 및 일시 돌봄프로그램 운영
지원형태		무상(프로그램,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무상(소득별 이용료 5만원 이내 부담)	10만원 이내 이용료 자부담
운영 시간	학기	방과후~17시 (일부 22시까지 운영)	14~19시 (필수운영시간) ※ 필수운영	여건에 따라 자율

1) 본 장의 일부를 「2019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함께 하는 초등 돌봄을 위한 육아정책의 과제(2019년 10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발표하였음(“초등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쟁점 및 개선방안”).

구분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방학	여건에 따라 자율	12~17시 (필수운영시간)	여건에 따라 자율
근거법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아동복지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아동복지법

자료: 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2018d).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p.73.

부처별 돌봄서비스 연계활동 내용으로는 시군구 권역별 협의회, 공통수요 신청 배치, 프로그램 및 강사 공유, 학생 정보 공유, 시설 공유, 공통연수, 공통 워크숍, 공동 컨설팅 등을 들 수 있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d: 74).

〈표 Ⅲ-1-2〉 부처별 돌봄서비스 연계활동 내용

연계활동 내용		
• 시군구 권역별 협의회 • 상호 기관 방문 • 공통 성과 보고 • 시도/시군구 돌봄운영/ 실무협의회	• 공통수요 신청 배치 • 프로그램 및 강사 공유 • 학생 정보 공유 • 시설 공유	• 공통연수 • 공통 워크숍 • 공동 컨설팅 • 기타활동

자료: 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2018d).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p.74.

나. 방과후학교

1) 근거법령

방과후학교의 직접적인 근거법령으로는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초·중등교육과정 총론)을 들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으로 방과후과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과후학교에 대해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방과후학교의 내용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제작한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a)」 및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b)」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지침으로 작동한다.

〈표 Ⅲ-1-3〉 방과후학교의 근거법령

구분	내용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초·중등교육과정 총론)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2019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 가능
2019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제작한 자료로서,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 가능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19. 3. 10).

2) 프로그램 개요

「2019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요를 보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특기·적성, 교과, 돌봄 등"을 포함하고 있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a: 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돌봄이 포함되어 있으나 초등돌봄교실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사로 "현직교원,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다고 규정한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a: 5). 교육부에서 발간한 자료에서는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별 강사 현황에서 현직교원 비율을 "교과 프로그램" 15.1%, "특기·적성 프로그램" 6.3%, "전체 프로그램" 8.3%라고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8c: 2). 이러한 비율은 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현직교원의 강사 비율이 50-9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이지만, 일본의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현직 교원은 방과후 강사로 활동할 수 없으며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한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방과후학교는 현직교원을 강사로 활용함으로써 교원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방과후학교 운영시간은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토요일, 휴업일,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a: 6).

학생 관리 및 안전지도는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a: 7). 이러한 규정은 안전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해외사례와 구별된다. 방과후학교의 안전관리 책임이 단위학교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단위학교가 방과후학교 운영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Ⅲ-1-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프로그램	단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기·적성, 교과, 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운영 방침	• 단위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할 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현직교원,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용한다.
운영 시간	• 방과후학교는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단위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한다. • 방과후학교는 토요일, 휴업일,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다.
학생 관리 및 안전 지도	•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 시 생활·안전 지도 등 학생 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다만,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의해 급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단위학교는 앱(APP), 문자 서비스(SMS) 제공, 학교 배움터지킴이 활용 등 적극적인 학생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한다. •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 운영교실을 집중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나 방화 차단막 등을 활용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 단위학교는 학교 인근의 경찰 지구대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학생 안전 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자료: 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2018a). 2019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pp.5-7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3) 강사 선정

방과후학교 강사는 “개인위탁”과 “업체위탁”으로 구분된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a: 8-12). 먼저 개인위탁을 보면 개인위탁 강사는 교육(지원)청 단위 강사풀 활용, 홈페이지 공고 또는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www.afterschool.go.kr)을 통해 모집하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은 강사 선정 계획에 따라 강사를 선정한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a: 8). 「2019 방

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은 이외에 원어민 강사 활용의 기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a: 9).

〈표 Ⅲ-1-5〉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구분	내용
강사 선정 및 계약 체결	• 개인위탁 강사는 교육(지원)청 단위 강사풀 활용, 홈페이지 공고 또는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www.afterschool.go.kr)을 통해 모집하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은 강사 선정 계획에 따라 강사를 선정한다. • 개인위탁 외부강사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고,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한다.
강사 활용	• 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에서 추천된 강사를 강사풀에 등재하고, 단위학교에서 강사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농어촌 소재학교는 지역 내에 있는 주민 중 전문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군인, 귀농인, 기업인 등)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원어민 강사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면서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근무처 변경·추가' 절차를 이행한 후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 가능하다. • 단위학교의 장은 원어민 강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자료: 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2018a). 2019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pp.8-9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의 선정 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에 따른 계약보다 "프로그램과 강사의 질 등을 우선적으로 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리 여부는 위탁업체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a: 11). 이러한 규정은 방과후학교를 사교육업체에 맡기게 되었고 최저가 낙찰로 이어지면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서혜전, 2018: 347)을 야기하게 되었다. 「2019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은 업체위탁의 선정에도 학교운영위원회 및 방과후학교 소위원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a: 12).

〈표 Ⅲ-1-6〉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구분	내용
취지	단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위탁업체의 선정	단위학교는 업체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에 따른 계약보다 프로그램과 강사의 질 등을 우선적으로 검증한다.
위탁업체 선정의 투명성 강화	• 단위학교는 위탁업체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이 수립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프로그램 편성계획, 수강료 산출 내역, 업체선정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심의(자문)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한다. 다만, 방과후학교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조사·검토 결과를 심의(자문)할 수 있다.

자료: 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2018a). 2019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pp.10-12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4) 교원 업무 지원

「2019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방과후학교 교원 업무 지원으로 교육(지원)청이 방과후학교 유공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a: 13). 방과후학교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 보직교사 임명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현직교원의 방과후학교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만 방과후학교 참여로 인해 현직교원이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2019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방과후학교 교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및 활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a: 13).

〈표 Ⅲ-1-7〉 방과후학교 교원 업무 지원

구분	내용
교직원 인센티브	• 교육(지원)청은 방과후학교 유공교원에게 전보 및 승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교육(지원)청은 방과후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교직원을 표창할 수 있다. •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교사를 교내 인사와 관련하여 우대할 수 있다.
전담 보직교사 임명	방과후학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단위학교에 방과후학교 전담 보직교사 임명을 권장한다.
보조인력 활용	• 보조인력이라 함은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일용직, 자원봉사자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학교장, 교감, 행정실 직원(실장 포함), 무기계약직은 해당되지 않는다. • 단위학교는 학교운영비(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또는 수용비 범위 내에서 보조인력과 계약 또는 위촉하여 방과후학교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자료: 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2018a). 2019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p13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5)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의 별도 조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는데, 지자체 공동 운영이 권장된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a: 16).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지역사회·학교 간 수요와 공급의 연결 체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표 Ⅲ-1-8〉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구분	내용
목적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한 자원과 단위학교를 연계하여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설치	• 교육(지원)청은 방과후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별도 조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형태는 교육청 단위, 교육지원청 단위, 지자체 공동, 공익재단 등의 운영이 가능하며, 지자체 공동 운영을 권장한다. • 교육(지원)청은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인력(정규직)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역할	교육(지원)청·지역사회·학교 간 수요와 공급의 연결 체제 역할을 수행한다. • 단위학교 간에 연계 및 연합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 교육기부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단위학교가 지역 내 방과후학교 인프라를 공유하도록 지원한다. •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단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방과후학교 업무 관련자 연수를 실시하며,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자료를 보급 지원한다.

자료: 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2018a). 2019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p.16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다. 초등돌봄교실

1) 근거법령

초등돌봄교실의 근거법령은 방과후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라고 할 수 있다. 이 고시는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초등돌봄교실이 방과후학교에서 파생된 제도라는 점에서 초등돌봄교실의 근거로도 볼 수 있다. 방과후과정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사항으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역시 초등돌봄교실의 간접적인 근거로 볼 수 있다.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는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지침으로 작동한다.

〈표 Ⅲ-1-9〉 초등돌봄교실의 근거법령

구분	내용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초·중등교육과정 총론)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2019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초등돌봄 운영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제작한 자료로서,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 가능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19. 3. 10).

2) 돌봄전담사

초등돌봄교실은 돌봄전담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게 된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d)」에서는 돌봄전담사의 정의를 "돌봄교실 프로그램 관리와 학생의 보호, 교실 관리, 관련 보고, 기타 돌봄교실 관련 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d: 18). 돌봄전담사의 자격요건은 "유·초·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d: 18). 돌봄전담사의 역할은 "학생관리, 돌봄교실 관리, 연간·월간·주간 운영 프로그램 작성, 프로그램 관리, 개인활동 관리, 간식 및 급식 준비·제공·사후처리, 돌봄교실 관련 업무 협조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d: 18).

돌봄전담사는 시·도교육청 채용절차에 의해서 채용되는데 2017년 기준 무기계약 66.8%, 기간제 33.2%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Ⅲ-1-10〉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

구분	내용
정의	돌봄교실 프로그램 관리와 학생의 보호, 교실 관리, 관련 보고, 기타 돌봄교실 관련 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
자격	돌봄전담사의 돌봄교실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유·초·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역할	가) 학생 관리 나) 돌봄교실 관리 다) 연간, 월간, 주간 운영 프로그램 작성 라) 프로그램 관리 마) 개인활동 관리 바) 간식 및 급식 준비, 제공, 사후처리 사) 돌봄교실 관련 업무 협조 등
채용	가) 근거: 시·도교육청 계획 나) 절차: 돌봄전담사는 시도교육청 채용절차에 의하여 채용하되, 공개 모집과 서류 심사 및 면접 절차 등을 강화하여 유능한 인재를 발굴·채용

자료: 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2018d). 2019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p.18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3) 이용아동 선정기준

초등돌봄교실의 이용아동 선정기준은 “초등 1-2학년 위주에서 초등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학부모 수요 및 학교여건에 따라 대상 학년을 선정”하되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d: 41).

4) 간식 및 급식 관리

초등돌봄교실 간식 및 급식 관리에 대해서는 간식의 경우 완제품을 제공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자체조리가 가능하며, 급식은 매식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d: 69). 이런 점에서 간식 및 급식 제공은 자체조리보다는 외부업체가 제공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초등돌봄교실 간식 및 급식 제공을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1-11〉 초등돌봄교실 간식 및 급식 관리

기본방침
•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학생에게 간식 및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고 영양적 균형을 고려한다. • 메뉴 선정 및 업체 계약 시 학생의 안전을 우선 고려한다. •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제공 방법 및 제공 범위를 우선 고려한다. • 교육비 지원대상 외 학생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식중독 등 안전사고 방지를 우선 고려하고, 간식의 경우 완제품을 제공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자체조리 할 수 있다. •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식단을 월 단위로 작성하되, 간식의 경우 고칼로리 메뉴는 지양한다. • 급식은 매식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리를 할 경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학기 중: 매식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자체조리 가능 - 방학 중: 도시락, 매식, 자체조리 등 학교의 여건에 따라 결정

자료: 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2018d). 2019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p.69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5) 참여 현황

2017년 기준 오후돌봄교실 참여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전체의 87.7%로 나타났고, 저녁돌봄교실 참여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전체의 83.7%로 나타났다(김진석·백선희·정영모·김소영·조은하, 2017: 18). 이러한 결과는 초등돌봄교실이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위주로 구성되는 것에서 제도가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Ⅲ-1-12〉 오후돌봄교실과 저녁돌봄교실 참여 학생 현황(2017년)

구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오후돌봄교실	학생수(명)	124,000	91,166	16,421	7,708	3,399	2,609	245,303
	비율(%)	50.5	37.2	6.7	3.1	1.4	1.1	100
저녁돌봄교실	학생수(명)	5,215	3,355	776	467	223	202	10,238
	비율(%)	50.9	32.8	7.6	4.6	2.2	2.0	100.0

자료: 김진석·백선희·정영모·김소영·조은하(2017).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및 제도화 방안. 범정부공동추진단·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팀. p.18.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 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24만 5천명이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였다(김진석 외, 2017: 18). 지역아동센터에 참여한 초등학생이 약 8만 명 정도라는 것과 비교하면 초등돌봄교실이 공적인 초등학생 돌봄에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13〉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 현황(2013-2017)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학교 수(교)	5,784	5,938	5,972	5,998	6,054
참여학교 비율(%)	97.3	97.3	96.9	97.0	98.9
교실수(실)	7,395	10,960	12,380	11,920	11,980
학생수(천명)	160	221	240	238	245

자료: 김진석 외(2017).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및 제도화 방안. 범정부공동추진단·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팀. p.18.

2017년 기준 오후돌봄교실 이용학생 분포를 보면, 저소득 9.4%, 한부모 2.8%, 맞벌이 71.1%로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중 중심인 것과 비교하면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김진석 외, 2017: 20).

〈표 Ⅲ-1-14〉 오후돌봄교실 이용학생 분포 현황(2017년)

구분		구분						
		우선지원					일반	계
		저소득	한부모	맞벌이	기타	계		
오후 돌봄교실	학생 수(명)	23,066	6,865	174,297	17,298	221,526	23,777	245,303
	비율(%)	9.4%	2.8%	71.1%	7.1%	90.3%	9.7%	100.0%

자료: 김진석 외(2017).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및 제도화 방안. 범정부공동추진단·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팀. p.20.

라. 지역아동센터

1) 근거법령

지역아동센터의 근거법령은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아동복지법 제52조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아동복지법 제52조).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Ⅲ-1-15〉 지역아동센터의 근거법령

구분	내용
아동복지법 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019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사업개요, 설치, 운영, 예산지원 및 절차, 평가, 협조사항, 서식, 부록 등을 규정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19. 3. 10).

2) 추진체계

지역아동센터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시·도청,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시·군·구청, 지역아동센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2019b: 6).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및 시·도지원단은 초등돌봄교실에는 없는 지원체계로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구성된 지원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Ⅲ-1-16〉 지역아동센터 추진체계

구분	내용
보건복지부	- 기본계획 수립, 지침 마련, 법령·제도개선 등 사업총괄 - 국고보조금 지원, 아동복지교사 예산지원·사업총괄 및 평가 - 사업운영 지도·점검, 평가총괄 및 표준화 모델 개발·보급 - 시설정보시스템 개편 및 관리 총괄 -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 종사자 교육기획,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 시설운영 지원 - 시도지원단 사업 조정·평가 및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 - 시설정보시스템 관리지원 및 중앙지원단전산관리시스템 구축·관리 - 연구개발 및 시설 평가사업 지원 - 홍보, 민간자원 개발·연계 지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중앙부처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업무 지원 등
시·도청	- 사업계획의 검토·조정 및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 관할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 - 아동복지교사 시도별 사업총괄 및 지도점검 - 시·도 평가사업 총괄(시·도평가운영단 구성운영 및 지원)

구분	내용
	- 시·도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 시·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컨설팅 등 시설운영 지원 - 시설정보시스템 관리·평가사업·아동복지교사 교육 등 지원 - 시·도 특성화사업 개발 - 홍보, 정보관리, 민간자원 개발·연계지원 등으로 네트워크 구축 - 시·도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업무 지원 등
시·군·구청	-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관리, 예산지원 등 운영 -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이용·종결 관리 - 아동복지교사 예산집행, 운영관리(채용·계약, 배정·노무, DB관리 등) -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후원금 내역 관리 - 시·군·구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기관 및 지자체 협조 등

자료: 보건복지부(2019b).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p.6.

3) 설치기준

지역아동센터의 설치는 신고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50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b: 11-12). 이러한 신고주의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비율을 높게 만들고, 서비스의 질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윤향미·조문석·오재록, 2013: 193).

〈표 Ⅲ-1-17〉 지역아동센터 설치 기준

구분	내용
신고제도 (아동복지법 제5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신고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아동복지법」 제71조제2항)에 처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시설은 폐쇄조치하여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요망

자료: 보건복지부(2019b).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pp.11-12.

4) 종사자 배치기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기준은 아동 30명, 10명을 기준으로 시설장, 생활복지사, 영양사의 배치 인원을 구분하고 있다. 영양사의 경우는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에만 배치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b: 24).

〈표 Ⅲ-1-18〉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

구분	시설장	생활복지사	영양사
아동 30명 이상	1명	2명 (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1명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
아동 10인 미만*	1명	-	-

주1: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11, 부칙 제4조에 따라 아동 10인 미만 시설 배치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 시설은 인정되나 '12.8.5.부터 10인 미만 시설은 신규설치 신고할 수 없음
주2: 기존('12.8.4. 이전) 10인 미만 시설은 10인 이상으로 변경 가능. 기존 시설(10인 이상)에서 10인 미만 시설로 변경 불가
자료: 보건복지부(2019b).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p.24.

영양사가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에만 배치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서 1회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양사 및 조리사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b: 24).

〈표 Ⅲ-1-19〉 지역아동센터 집단급식소 설치 기준

구분	내용
식품위생법 제88조·제101조	종사자 포함 1회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식품위생법 제51조·제52조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

자료: 보건복지부(2019b).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p.24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5) 종사자 자격기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은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로 구분되는데, 각각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유초중등 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1급 자격증 등에 기반하여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b: 24-25).

〈표 Ⅲ-1-2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15)

구분	내용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생활복지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자료: 보건복지부(2019b).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pp.24-25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6) 이용아동 선정기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기준을 보면 “돌봄취약아동(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모두 만족)” 및 “일반아동(연령기준을 만족)”에 따라 구분되며, 이용아동 등록은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은 돌봄취약 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20% 범위 내에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b: 39).

〈표 Ⅲ-1-21〉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별 이용아동 구분

구분	내용
돌봄취약아동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일반아동	연령기준을 만족하는 아동
이용아동 등록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2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19b).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p.39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돌봄취약아동"의 기준 중에서 소득기준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선발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보건복지부의 「2019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에 규정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9b: 42-43). 지역아동센터가 이용아등을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1990년대 이전부터 빈곤아동 지원활동인 "공부방"이 법제화된 연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심정미·채현탁, 2015: 315).

〈표 Ⅲ-1-22〉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 소득기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 소득기준
가) 다음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다음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소득 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 증명서
(6)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 장애수당 또는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8)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아동이 등록장애인인 경우에 한함)
(10)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조손가족인 경우에 한함)
(11)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나) 상기 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다음의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자료: 보건복지부(2019b).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pp.42-43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 가구특성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기초연금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 규정된 가구특성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된다(보건복지부, 2019b: 44-46).

〈표 Ⅲ-1-2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 가구특성기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 가구특성기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나) 차상위계층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외의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 가구특성기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되는 사람의 아동 또는 발급되는 아동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차상위자활 대상자)의 아동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 (손)자녀인 아동 또는 경감 받는 아동
(6)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의 (손)자녀인 아동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
(7)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과 동거하는 (손)자녀인 아동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아동
(9)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는 조손가족의 아동
(10)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마) 조손가족의 아동: 가구원수 산정기준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경우
바) 한부모가족의 아동: 가구형태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인 한부모가족인 경우
사) 3명 이상 다자녀가족의 아동: 자녀의 연령과 상관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아) 맞벌이 가정의 아동

자료: 보건복지부(2019b).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pp.44-46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 연령기준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9b: 46).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지역적 특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표 Ⅲ-1-24〉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 연령기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 연령기준
가)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연령기준에 적합함
(1)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2) 만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3)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 또는 형제·자매가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5)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6)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자료: 보건복지부(2019b).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p.46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 이외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에는 돌봄특례가 있는데, 일반아동이라도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경우, 보호자의 질병 또는 실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보건복지부, 2019b: 47).

〈표 Ⅲ-1-25〉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 돌봄특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 돌봄특례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돌봄취약아동으로 선정 가능
가)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나)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다)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라)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마)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자료: 보건복지부(2019b).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p.47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7) 운영시간

지역아동센터의 1일 운영시간은 2017년 기준 9시간~10시간 미만이 전체의 59.2%로 초등돌봄교실과 비교하면 장시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진석 외, 2017: 35).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초등돌봄교실과 달리 저녁돌봄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표 Ⅲ-1-26〉 지역아동센터 1일 운영시간(2016년)

구분		센터 수(개소)	비율(%)
전체		4,105	100
1일 운영시간	7시간~8시간 미만	8	0.2
	8시간~9시간 미만	263	6.4
	9시간~10시간 미만	2,433	59.2
	10시간~11시간 미만	594	14.5
	11시간~12시간 미만	401	9.8
	12시간 이상	54	9.9

자료: 김진석 외(2017).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및 제도화 방안. 범정부공동추진단·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팀. p.35

지역아동센터의 야간보호(20시 이후 운영) 비율은 2017년 기준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42%가 20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석 외, 2017: 35).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초등돌봄교실과 달리 야간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1-27〉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공휴일, 야간보호 운영 여부(2016년)

구분	센터 수(개소)	비율(%)	별도 지원 여부	
			있음	없음
전체	4,036	100.0	-	-
토요일 매주 운영	1,652	40.2	1,598(91.5%)	149(8.5%)
공휴일 운영	64	1.6	-	-
20시 이후 운영 (야간보호)	1,724	42.0	916(53.1%)	808(46.9%)

자료: 김진석 외(2017).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및 제도화 방안. 범정부공동추진단·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팀. p.35.

8) 이용아동 현황

2016년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을 보면 중위소득 100% 이하의 아동이 전체의 92.4%에 달하였는데, 이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김진석 외, 2017: 36).

〈표 Ⅲ-1-28〉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특성별 현황: 경제상황(2016년)

구분		이용아동 수(명)	비율(%)	시설당 평균아동수(명)
전체		106,668	100.0	26.0
경제 상황	교육급여대상(중위소득 50% 이하)	27,030	25.3	6.6
	중위소득 50% 초과~85% 이하	40,741	38.2	9.9
	중위소득 85% 초과~100% 이하	30,812	28.9	7.5
	중위소득 100% 초과	8,085	7.6	2.0

자료: 김진석 외(2017).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및 제도화 방안. 범정부공동추진단·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팀. p.36.

2016년 가정형태를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을 보면 전체의 32.3%가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진석 외, 2017: 37).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등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발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Ⅲ-1-29〉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특성별 현황: 가정형태(2016년)

구분		이용아동 수(명)	비율(%)	시설당 평균아동수(명)
전체		106,668	100.0	26.0
가정 형태	양부모가정	72,120	67.7	17.6
	모자가정	17,672	16.6	4.3
	부자가정	12,473	11.7	3.0
	조손가정	3,323	3.1	0.8
	소년소녀가정	217	0.2	0.1
	기타(친척 및 시설)	863	0.8	0.2

자료: 김진석 외(2017).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및 제도화 방안. 범정부공동추진단·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팀. p.37.

마. 다함께돌봄센터

1) 근거법령

다함께돌봄센터의 근거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이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위탁, 비용지원, 보호자 비용 부담, 종사자 자격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19a)」가 있다.

〈표 Ⅲ-1-30〉 다함께돌봄센터의 근거법령

구분	내용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호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구분	내용
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개요, 설치, 운영, 지원 및 평가, 협조사항, 부록 등을 규정

2) 추진체계

다함께돌봄센터의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시·도, 시·군·구, 다함께돌봄센터로 이어지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9a: 10).

〈표 Ⅲ-1-31〉 다함께돌봄센터 추진체계

구분	내용
보건복지부	- 기본계획 수립,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제도개선 - 평가 및 컨설팅, 현장지도·점검 등 사업관리 총괄 - 국고보조금 교부 및 관리 - 자원 연계를 위한 부처 간 연계 및 조정 등
다함께돌봄 사업지원단	- 평가 및 컨설팅, 종사자 교육 등 시설운영 지원 - 다함께돌봄사업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 다함께돌봄사업 홍보 및 연구·조사 등
시·도	- 시·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 시·군·구 사업 지도점검 및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 광역 돌봄협의회를 통한 돌봄서비스의 연계·조정 등
시·군·구	-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및 센터 설치·운영 - 예산집행 및 지도점검 등 센터 운영관리 - 기초 돌봄협의회를 통한 돌봄서비스의 연계·조정 등
다함께돌봄센터	-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방학 중 돌봄서비스 제공 - 마을돌봄협의회를 통한 돌봄 서비스의 연계·조정 등

자료: 보건복지부(2019a). 2019 다함께돌봄사업안내. p.10.

3) 설치기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에서 명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센터명칭과 로고가 있는 경우 다함께돌봄센터와 병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19a: 14).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능 건축물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학교(교육부에서 '학교돌봄' 확대를 추진 중이므로, 초등학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에서 제외) 등 교육연구시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공체육시설(운동시설), 주민센터(업무시설), 마을회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9a: 17).

〈표 Ⅲ-1-32〉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

구분	내용
명칭	"○○시·군·구 다함께돌봄센터"로 표기하고 로고를 반드시 활용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센터명칭과 로고가 있는 경우에는 병기 가능
입지 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지역 내 공적돌봄서비스 현황 및 각 지원사업 간 연계를 감안하여, 다함께돌봄센터가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설치가능 건축물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 도서관, 학교(교육부에서 '학교돌봄' 확대를 추진 중이므로, 초등학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에서 제외) 등 교육연구시설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공체육시설(운동시설), 주민센터(업무시설), 마을회관(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자료: 보건복지부(2019a). 2019 다함께돌봄사업안내. pp.14-17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4) 위탁기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운영 가능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19a: 21). 수탁자의 자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19a: 22). 이와 같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한정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위탁이 가능한 지역아동센터보다 위탁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표 Ⅲ-1-33〉 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준

구분	내용
운영방식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운영 가능
수탁자의 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구분	내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자료: 보건복지부(2019a). 2019 다함께돌봄사업안내. pp.21-22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5) 종사자 배치기준

센터장 1인과 돌봄선생님 1인을 센터 내 필수 인력으로 배치하되, 이용아동 수와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돌봄선생님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보건복지부, 2019a: 38). 동 시간대 상시 돌봄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1명의 돌봄선생님을 배치하여야 하며,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동안은 (센터장, 돌봄선생님, 자원봉사자 등) 가급적 2명이 상주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9a: 38).

〈표 Ⅲ-1-34〉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배치기준

구분	내용
종사자 정의	- 센터장: 다함께돌봄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자 - 돌봄선생님: 아동의 돌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자
종사자 역할	- 다함께돌봄센터 시설관리, 기간별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관리, 아동 출결관리, 생활·안전·귀가지도, 급·간식 제공, 기타 센터 관련 업무 협조 등 - 센터장 및 돌봄선생님의 각 업무 및 역할은 센터 운영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종사자 배치	- 센터장 1인과 돌봄선생님 1인을 센터 내 필수 인력으로 배치하되, 이용아동 수와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돌봄선생님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동 시간대 상시 돌봄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1명의 돌봄선생님을 배치하여야 하며,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동안은 (센터장, 돌봄선생님, 자원봉사자 등) 가급적 2명이 상주하여야 함.

자료: 보건복지부(2019a). 2019 다함께돌봄사업안내. pp.34-35, p.38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6) 종사자 자격기준

센터장 및 돌봄선생님의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초중등교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등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19a: 35-36).

〈표 Ⅲ-1-35〉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구분	내용
센터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돌봄 선생님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

자료: 보건복지부(2019a). 2019 다함께돌봄사업안내. pp.35-36.

7) 이용아동 선정기준

이용아동 선정기준은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의 초등학생을 이용대상으로 하고 맞벌이 여부 또는 소득과 무관하도록 규정하여 보편적 돌봄을 지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a: 25).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 입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Ⅲ-1-36〉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선정기준

구분	내용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초등학생) 아동 -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입소 우선순위(예시)	-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혹은 모가 일하는 경우 -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 초등학교 저학년 -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

자료: 보건복지부(2019a). 2019 다함께돌봄사업안내. p.25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8) 운영시간

다함께돌봄센터는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본운영시간 8시간은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9a: 26).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은 학기 중 14:00~19:00이고, 방학 중에는 09:00~18:00이다.

〈표 Ⅱ-1-37〉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구분	내용
상시돌봄	-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종일돌봄, 시간제돌봄) 돌봄을 의미 - 종일 돌봄은 매일 센터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학기 중은 14시~19시) 동안 이루어지며, 시간제 돌봄은 정기적인 단시간 혹은 요일별 이용에 해당
운영시간	-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하여야 함 -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하계휴가 등의 사유로 임시 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하며, 대체인력 활용 등의 사전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초등학교 학기·방학 중에는 다음의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 조정 -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기본 운영시간 8시간) • 학기 중: 14:00~19:00(종일돌봄 제공 시간과 동일) • 방학(단기방학 포함): 09:00~18:00

자료: 보건복지부(2019a). 2019 다함께돌봄사업안내. pp.26-27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9) 이용료 결정 및 수납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료는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수납한도액으로 하고 수납한도 내에서 수납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급간식을 제공할 시에는 월 10만원 이외에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가 가능하다.

〈표 Ⅲ-1-38〉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결정 및 수납

구분	내용
근거	-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4항)
수납한도액	- 월 10만원(아동 1인당) - 수납한도 내에서 지역여건 및 제공서비스 등에 따라 수납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함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19a). 2019 다함께돌봄사업안내. pp.33-34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마. 방과후 돌봄서비스 간 연계

1) 지역아동센터-초등돌봄교실 연계

지역아동센터-초등돌봄교실 연계는 “프로그램 및 시설·장소 연계”,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지역아동센터에 위탁”, “시간대별 연계” 등을 들 수 있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d: 74).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지역아동센터에 위탁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초등돌봄교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대별 연계는 초등돌봄교실이 오후돌봄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저녁돌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초등돌봄교실의 저녁돌봄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Ⅲ-1-39〉 지역아동센터-초등돌봄교실 연계

구분	내용
프로그램 및 시설·장소 연계	- (특화 프로그램 공동운영) 돌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강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동으로 운영 - (시설, 장소 및 프로그램 강사 공동 활용) 각 돌봄기관별 시설·장소 및 프로그램 강사 공동 활용, 프로그램 운영주체가 운영 책임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지역아동센터에 위탁	- (운영 방식) 학교가 지역아동센터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고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교실 운영 또는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 운영
시간대별 연계	- (기본 방향) 학교여건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돌봄교실 이용 후 지역아동센터를 시간대별로 운영 - (운영 방식) 시간대를 달리하여 각기 다른 돌봄기관 간 이동 시 아동의 안전조치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차량 운행이 가능한 돌봄기관을 우선 연계 추진

자료: 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2018d).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p.74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2) 지역돌봄협의회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방과후 돌봄서비스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해서 지역돌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돌봄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역돌봄기관 수준에서 각각 시·도 돌봄지원협의회, 시·군·구 돌봄운영협의회, 단위돌봄기관 권역별 협의회가 구성된다. 이들의 주요기능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Ⅲ-1-40〉 지역돌봄협의회 운영 체계

행정 단위	주관	주요기능·업무	협력기관
시·도 돌봄지원협의회	광역 자치단체	• 관할 내 돌봄협의회 컨설팅 등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돌봄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운영 • 돌봄전담사 대체인력풀 구성 협조	시도교육청 유관단체
시·군·구 돌봄운영협의회	기초 자치단체	• 지역돌봄운영계획 수립·운영 • 돌봄기관 안내자료 제작 • 돌봄 관계자 대상 지역 단위별 공동교육 • 학부모 대상 돌봄서비스 홍보 • 돌봄기관 간 우수사례 발굴 • 돌봄전담사 대체인력풀 구성 협조	교육지원청 유관단체
단위돌봄기관 권역별 협의회	지역 돌봄기관	• 돌봄기관 공동설명회 개최 • 돌봄기관 간 정보 공유 • 돌봄기관 상호 방문 • 저녁돌봄 연계 및 프로그램 공유 • 돌봄전담사 대체인력풀 구성 협조	단위학교

자료: 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2018d).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p.76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용 실행계획

2018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용 실행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영유아 돌봄에 비해 미흡한 초등 돌봄체계를 개선하여 초등 돌봄 공백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대상을 초등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8년 현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초등돌봄 이용현황은 1~6학년 기준 12.5%로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은 영유아 돌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초등학교 1학년 29.4%, 2학년 24.4%로 돌봄이 특히 요구되는 초등 1·2학년을 기준으로 해도 30%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표 Ⅲ-2-1〉 초등돌봄 이용 현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총계
전체 학생수(A)	458,353	433,289	452,713	434,713	419,069	419,506	2,674,227
이용 학생수(B)	134,662	105,660	33,015	24,471	18,627	16,604	333,039
초등돌봄교실	124,000	91,166	16,421	7,708	3,399	2,609	245,303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총계
지역아동센터	10,662	14,494	16,594	15,352	13,156	11,882	82,14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	-	1,411	2,072	2,113	5,596
이용률(B/A)	29.4%	24.4%	7.3%	5.1%	4.3%	4.0%	12.5%

주: 전체/이용 학생수, 초등돌봄교실 자료는 '17년 기준, 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16년 기준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b).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p.26.

정부에서 추계하고 있는 초등돌봄 수요 인원(2022년 기준)은 맞벌이 가정, 저학년 돌봄 중심으로 약 46~64만명이다. 학년별로 구분하면 저학년인 1~3학년은 최소 32만명(전일제 맞벌이 비율 25.7% 적용), 최대 50만명(시간제 맞벌이 포함 40.2% 적용)이고, 고학년인 4~6학년은 수요율 약 10% 내외로 가정하여 약 14만명으로 추계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b: 26).

〈표 Ⅲ-2-2〉 초등돌봄 수요 인원 추계('22년 기준)

구분		저학년			고학년			총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학생 수		396,454	423,651	416,618	414,362	455,958	439,369	2,546,413
수요 추계	수요율	40.2%(시간제 맞벌이 비율 포함) 또는 25.7%(전일제 맞벌이 비율)			13%	10%	9%	
	전일제 한정	101,889	108,878	107,071	53,867	45,596	39,543	456,844
		317,838			139,006			
	시간제 포함	159,375	170,308	167,480	53,867	45,596	39,543	636,169
		497,163			139,006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b).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p.26.

2018년 현재 초등돌봄 서비스 운영은 초등돌봄교실 24만명, 지역아동센터 8.2만명 등 총 33만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22년까지 총 53만명으로 초등학생 이용자 수를 20만명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b: 6).

이를 위해 학교돌봄 10만명, 마을돌봄 10만명을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4만명 대상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등 학교돌봄을 앞으로 34만명까지 10만명을 확대할 계획인데 초등돌볼교실 확대로 7만명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한 돌봄으로 3만명을 추가하는 것을 추진한다(관계부처 합동, 2018b: 11).

〈표 Ⅲ-2-3〉 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 교실활용)

구분	내용
현재	- 24만명 대상 돌봄 - 초등돌봄교실 11,980 교실 운용 - 1-2학년 중심, 17시 까지 운영 - 일부 학교는 22시까지 운영
향후	- 34만명 대상 돌봄 • 초등돌봄교실 확대: 3,500실, 7만명 추가 • 교실활용(지자체): 1,500실, 3만명 추가 - 대상·운영시간 단계적 확대 • 초등 1,2학년 위주에서 초등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연장 • 저학년(1~3): 맞벌이가정 돌봄 서비스 집중 확대 • 고학년(4~6): 학생 특성·수요에 맞게 탄력적 확대 - 초등학교 신설 시, 돌봄 전용공간 설치 의무화, 지자체가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 내 지역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모델 개발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b).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p.11.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구성된 마을돌봄에서는 현재 9만명 대상 돌봄에서 19만명 대상 돌봄으로 10만명을 확대하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9만명 추가, 지역아동센터에서 1만명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b: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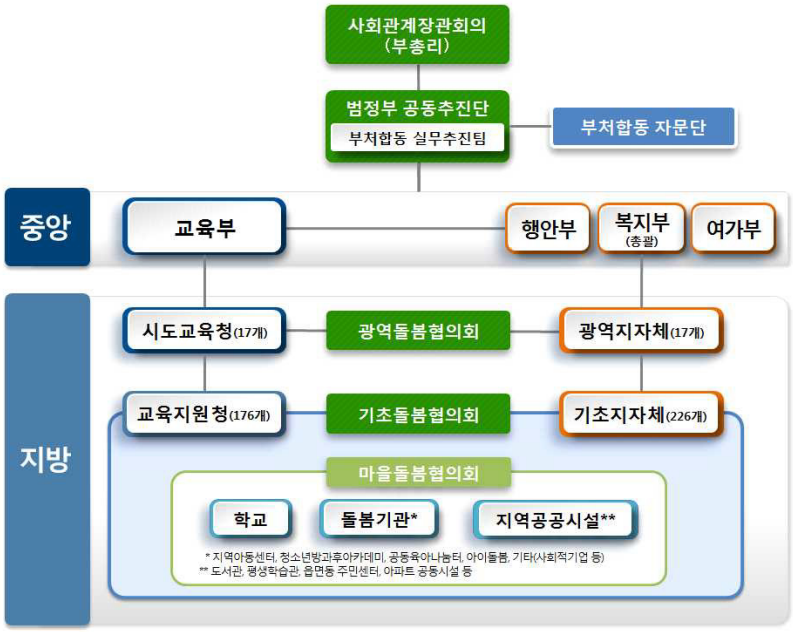
〈표 Ⅲ-2-4〉 마을돌봄(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등)

구분	내용
현재	- 9만명 취약계층 중심 돌봄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향후	- 19만명 대상 돌봄 • 다함께돌봄사업 확대: 1,817개소, 9만명 추가 • 지역아동센터 등: 1만명 추가 - 보편적 돌봄지원체계 구축 - 다함께돌봄: 지역 내 공공시설 공간(도서관, 주민센터 등) 및 지역자원을 활용,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돌봄서비스 제공 추진 - 지역아동센터: 기존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에서 일반아동 이용 기준 확대 등을 통해 사회통합적 돌봄 제공 추진 • 일반아동 이용비율을 종전 10%에서 20%까지 확대('18.2월)하고, 지역별 특성(도시에 비해 입소 아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군단위 이하 지역 등)에 따라 일반아동 비율 추가 확대 검토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b).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p.15.

이를 위한 범정부 돌봄서비스 협력 및 전달체계는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부처합동 실무추진팀을 포함한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과 17개 광역지자체가 구성하는 광역돌봄협의회, 176개 교육지원청과 226개 기초지자체가 구성하는 기초돌봄협의회, 학교, 돌봄기관 및 지역공공시설이 구성하는 마을돌봄협의회를 통해 돌봄서비스 관련 사업이 추진된다(관계부처 합동, 2018b: 17).

[그림 Ⅲ-2-1] 범정부 돌봄서비스 협력 및 전달체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b).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p.17.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으로는 2022년까지 총 1조 1,053억원이 투입되며, 학교돌봄 3,500실에 5,985억원, 교실활용 1,500실에 1,508억원, 마을돌봄 1,817개소에 3,5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관계부처 합동, 2018b: 20).

〈표 Ⅲ-2-5〉 재정지원

구분	내용
전체	- 재정지원 전체 1조 1,053억원('22년까지)
학교돌봄	- 학교돌봄 3,500실: 5,985억원 - 시설비(1,050억원=3,500실×0.3억원)는 전액 국고 지원 • 돌봄 전용교실 확보를 위한 시설 신·증축 비용, 겸용사용을 위한 일반교실의 혁신적 리모델링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가 지원 - 운영비(2,100억원) 및 인건비(2,835억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 • 단가: (운영비) 실당 연간 0.2억원, (인건비) 1인당 연간 0.27억원
교실활용	- 교실활용 1,500실: 1,508억원 - 선도사업 결과, 운영주체 및 확충 모델에 따라 분담주체 결정('20.상)
마을돌봄	- 마을돌봄 1,817개소: 3,560억원 - 시설비(949억원) 및 운영비·인건비(2,611억원)를 국고 보조 지원 - 보조율: 서울 30%, 지방 50%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b).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p.20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이를 위한 연도별 소요재정 예상은 다음과 같다.

〈표 Ⅲ-2-6〉 연도별 소요재정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학교돌봄	돌봄교실	539	868	1,197	1,526	1,855	5,985
	교실활용(지자체)	선도 사업*			578	930	1,508
마을돌봄		18	299	629	915	1,699	3,560
총계		557	1,167	1,826	3,019	4,484	11,053

주: 1) 선도사업: 지자체-교육청-학교 협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선도모델 마련(10개 시군구)
(예산) '18년 45억원(교육부 30, 행안부 15), '19년 35억원(교육부) 기 확보
2) 소요재정은 돌봄 신규 확충에 따른 예산 규모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b).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p.20.

Ⅳ

초등 방과후 돌봄 해외사례

01 일본
02 덴마크
03 독일

Ⅳ. 초등 방과후 돌봄 해외사례[2)]

해외사례 비교로는 일본, 덴마크, 독일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사회경제적, 문화적, 제도적 수준에서 유사한 점이 많은 반면,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처 간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덴마크의 경우는 공적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생의 비율이 60%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우리나라는 현재 12.5%)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독일의 경우 역시 호르트와 종일제 학교 등을 통해 학교 안 돌봄과 학교 밖 돌봄의 연계·협력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사례로 선정하였다.

1. 일본

일본의 방과후아동클럽을 우리나라의 초등돌봄교실과 비교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저출산 및 일·가정 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발생하는 초등돌봄 문제인 “초등학교 1학년의 벽”을 돌파하기 위하여 방과후 돌봄 정책을 중시하고 있다(임현정·정영모, 2017: 292).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방과후아동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초등돌봄교실과 비교하면 〈표 Ⅳ-1-1〉과 같다.

먼저 법적 근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 고시에 기반하여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를 지침으로 하고 있으나, 일본의 방과후아동클럽은

2) 본 장의 일부를 2019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함께 하는 초등 돌봄을 위한 육아정책의 과제(2019년 10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발표하였음(“초등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쟁점 및 개선방안”).

「아동복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초등돌봄교실보다 방과후아동클럽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리주체의 측면에서 초등돌봄교실은 단위학교가 관리하고 있으나, 방과후아동클럽은 기초지자체인 시정촌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초등돌봄교실이 교육부 관할인 반면에, 방과후 아동클럽은 후생노동성 관할이라는 부처의 차이도 있을 수 있으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지자체와 교육청이 통합되어 있어 지방정부 수준에서 거버넌스가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거버넌스가 지방정부 수준에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방과후아동클럽이 학교 내의 유휴교실을 공간으로 하고 있음에도 학교와 지자체의 연계 및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재정조달의 측면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은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을 중심으로 재정을 조달하지만, 방과후아동클럽은 비용의 1/2을 수익자부담, 나머지 1/2은 정부지원으로 하는데 중앙정부 1/3, 도도부현(광역지자체) 1/3, 시정촌(기초지자체) 1/3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이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에서 재정을 조달하는 것은 다른 교육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는 것에 소극적인 이유가 된다.

인사의 측면에서도 초등돌봄교실은 관리주체가 단위학교이기 때문에 돌봄전담사를 시도교육청에서 채용하고 있으나, 방과후아동클럽은 기초지자체가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 지역인사를 중심으로 선발하게 된다.

안전관리의 측면에서 초등돌봄교실은 단위학교가 책임을 지고 있으나, 방과후아동클럽은 기초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있다. 방과후아동클럽의 안전책임을 기초지자체가 지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므로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다.

공간의 측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아동클럽은 모두 학교의 유휴교실(일본에서는 여유교실)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방과후아동클럽은 기초지자체가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원활하게 이루이지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하기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측면에서도 방과후아동클럽이 연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초등돌봄교실은 아직은 단위학교 중심이므로 연계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Ⅳ-1-1〉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아동클럽의 비교

구분	초등돌봄교실(한국)	방과후아동클럽(일본)
근거법령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아동복지법
관리주체	단위학교	시정촌(기초지자체)
재정조달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비용의 1/2: 수익자부담 비용의 1/2: 정부지원(중앙정부 1/3, 도도부현 1/3, 시정촌 1/3)
인사	시·도교육청에서 채용	기초지자체에서 지역인사를 중심으로 선발
안전관리	단위학교	기초지자체
공간	유휴교실	유휴교실 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간 활용
연계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활성화되어 있음

자료: 김수동, 2015; 김수동·윤준영·정영모, 2017; 김수동·정영모, 2016; 이정미, 2017; 임현정·정영모, 2017의 내용을 재구성.

2. 덴마크

2014년 기준 덴마크의 15세~64세 여성 고용률은 69.8%이며, 어머니 고용률은 82%로 오히려 전체 여성의 고용률보다 높다(OECD Family Database, 2019[3]). 덴마크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는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온 덴마크의 보육정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덴마크의 공공 보육과 돌봄 서비스 발달 및 높은 서비스 이용률이 방증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덴마크의 0~2세(ECEC) 기관이용률은 57.2%이며, 이 중 공보육 이용률은 85.3%이다. 3~5세 기관 이용률은 97.3%이고, 공보육 이용률은 78.6%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공보육이용률은 0~2세가 8.9%, 3~5세가 21.1%로 OECD 평균[4]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김은지·최인희·선보영·성경·배주현·김수정·양난주, 2018: 54).

덴마크는 취학 전 아동의 공보육뿐만 아니라 초등 돌봄에서도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덴마크 6~11세 아동의 방과전/후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2016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3.5%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6~8세 연령의 아동 중 76.7%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Family

3)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인출일: 2019. 8. 29)
4) 2016년 기준 OECD 평균 공보육이용률은 0~2세 44.1%, 3~5세 66.9%이다(김은지 외, 2018: 54).

Database, 2019).

덴마크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크게 6세~9세 또는 10세까지 이용하는 방과후 센터(After school centre)와 10세~14세까지 이용하는 청소년 클럽(Youth clubs)으로 나눌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해당하는 덴마크 방과후 센터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덴마크의 방과후학교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 되었다. 이미 1874년에 첫 방과후학교를 개설했으며, 1919년에 20개의 방과후학교가 운영되었다. 1975년부터는 입학한 어린 아동들을 위해 학교 내에 주간 돌봄 시설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방과후 돌봄은 대부분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였으며, 일반 돌봄 시설보다 저렴하게 제공되었다. 1979년에는 공립학교법에 지자체가 방과전후 돌봄을 위해 부모에게 사용료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다(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2000: 23).

현재 덴마크 방과후학교는 공립학교(Folkeskole)에 소속되어 있으며, 공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5] 공교육 중심의 덴마크에서 의무 공교육의 핵심인 공립학교에 대한 규정인 공립학교법은 덴마크 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공립학교법 제1조에 공립학교는 부모와 협동하여 학생들의 능력 개발뿐만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서의 교육 등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조는 공립학교의 기본적인 책임이 기초자치단체에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지자체 의회가 기본 목표와 틀,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수립하고, 개별학교는 수립된 계획 내에서 교육을 실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와 협력 관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윤성현, 2013). 동법에 근거하여 방과후 센터도 해당 법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지자체가 관할한다. 그리고 지방 의회가 센터의 설립 및 운영 목표, 내용을 결정한다.[6]

방과후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학교 차원에서 방과후 센터 책임자의 역할 및 기능을 결정한다.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해당 운영을 감독하고, 학부모가 학부모 위원회를 통해 교육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7]

5) https://www.uvm.dk/sfo-klub-og-fritidshjem/sfo (인출일: 2019. 8. 30.)
6) https://www.uvm.dk/sfo-klub-og-fritidshjem/sfo (인출일: 2019. 8. 30.)
7) https://www.uvm.dk/sfo-klub-og-fritidshjem/sfo (인출일: 2019. 8. 30.)

방과후 센터는 지역에 따라 6~9세 또는 6~10세 아동이 방과전과 후에 모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과전/후 센터라고 할 수 있다. 방과전/후 센터를 포함한 대부분의 아동 돌봄 시설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6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금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8] 우선 학교 시작 전에 오는 아동을 돌보고 제 시간에 등교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방과후에는 공동 활동과 다양한 선택 활동들을 제공한다. 아동들은 방과후 센터에서 음악, 미술, 만들기, 연극과 같은 창조적 활동부터 수영, 축구, 아이스 스케이팅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9]

방과후학교의 돌봄 서비스와 다양한 활동은 보육 및 교육 과정을 마친 돌봄 전문 인력이 제공한다. 페다고(Pædagog)라고 불리는 돌봄 전문 인력은 직업학교에서 3.5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페다고가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책임 교사는 별도로 배치되어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9: 15,27).

공립학교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공립학교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이다. 하지만 국가나 광역지자체 등이 비용을 책임진다는 예외적인 법규가 있을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이 공립학교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규칙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 정규 교육시간 이외에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공립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성인이나 지역문화센터 참여자의 경우는 지방의회가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도 있다(윤성현, 2013). 방과후 센터는 정규 시간 이외 활동에 해당되므로 지자체 의회의 결정에 따라 비용이 부과된다. 아동의 방과후 센터 이용 시간과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청구되는 비용이 다르지만, 코펜하겐을 기준으로 방과후 센터의 평균 한 달 이용 비용은 962 DKK(덴마크 크로네, 962 DKK는 약 17만원)이었다. 2019년 9월 1일 이용자부터 1,005 DKK가 부과될 예정인데, 이는 2019/20학년도 수업일수가 90시간 감소하면서 방과후 센터의 운영 시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시간 대비 이용 요금은 동일하다. 이용요금 적용은 매달 동일하지

8) https://lifeindenmark.borger.dk/Coming-to-Denmark/Family-and-children/(인출일: 2019. 8. 27.)
9) https://www.borger.dk/familie-og-boern/Boernepasning/Skolefritidsordning-og-fritidshjem (인출일: 2019. 8. 27.)

만, 7월은 무료로 제공된다.[10)]

3. 독일

독일은 2000년대 이후 가족 내 돌봄을 지원하는 현금 급여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보육인프라 확장을 통한 돌봄의 사회화, 탈가족화 흐름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정책 변화는 초등학교[11)] 아동의 종일 돌봄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민련/기사련과 사민당의 2013년 연정협약서에는 아동 주간 돌봄 시설에 종일 돌봄의 단계적 확대에 대해 명시하였고, 2017년 연정협약에서는 의무교육 학령기에 있는 아동의 부모들의 일가족 양립 개선을 위해 초등학령기 아동의 종일 돌봄 청구권 도입을 합의하였다. 초등학교 아동의 수업 외 돌봄을 위한 연방차원 법은 사회법 8권(SGB VIII) §24 Abs. 4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의무교육 연령 아동에게 주간 돌봄 시설에서 아동의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BMFSFJ, 2018). 하지만 주간 돌봄 제공의 책임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와 지자체에 있다(Münder, 2017).

정부의 초등 학령기 아동을 위한 돌봄 제공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차원에서 의무교육 연령에 있는 아동에 대한 주간 돌봄 시설의 서비스 제공 측면이다. 둘째, 학교 교육 차원에서 초등학생에게 학교 수업 시간 내에 돌봄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종일제 학교 개념으로 방과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과 돌봄의 통합 측면이다(Münder, 2017). 전자인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지원 차원에는 보육시설인 호르트(Hort)에서 제공되는 돌봄이 해당되며, 후자는 종일제 학교(Ganztagsschule)를 중심으로 방과후 활동과 돌봄이 제공된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초등 학령기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위에 언급된 호르트와 종일제 학교는 다양한 운영형태와 제공 시간에 따라 구분된다. 종일

10) https://international.kk.dk/artikel/cost-after-school-care (인출일: 2019. 8. 27.)
11) 독일의 기초학교(Grundschule)는 1~4학년까지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독일 기초학교를 초등학교로 지칭하고자 함.

제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제공되는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의무형 종일제 학교(Gebundene Ganztagsschule), 참여 학생들에게 모든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특정 학급이나 학년에게 해당하는 특정 종일반 활동만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부분 의무형 종일제 학교(Teilgebundene Ganztagsschule),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하는 개방형 종일제 학교(Offene Ganztagsschule)로 구분된다(StEG-Konsortium, 2016).

종일제 주간 돌봄의 다양한 형태는 인력구성 측면에서도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의무형 종일 주간 돌봄은 교사 50%, 보육교사 50%이며, 개방형 종일 주간 돌봄과 호르트는 100% 보육교사로 구성된다. 또한 보육교사나 교사의 돌봄만으로 아동 주간 돌봄 시설이 운영되지는 않으며, 교사의 돌봄을 대체하는 서비스를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Alt, Guglhör-Rudan, Hüsken & Winklhofer, 2019).

호르트 돌봄과 종일제 학교 중 확대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는 주에 따라 차이가 있다(BMFSFJ, 2018). 베를린, 함부르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은 호르트는 확대하지 않고 종일제 학교만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여타 서독에 있는 주들은 복수 모델로 두 종류를 함께 확대하고 있다. 구동독의 영향으로 동독 지역에서는 주로 호르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Münder, 2017).

또한 2002년 이후로 종일 주간 돌봄이 전체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종일제 학교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2006년 기준 11세 이하 학령기 아동이 호르트에 약 340,000명, 종일제 학교에 약 315,000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종일제 학교 이용 아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호르트에 약 452,000명, 종일제 학교에 약 892,000명으로 종일제 학교 이용 아동이 호르트 이용 아동의 2배가량으로 급증하였다(Münder, 2017).

호르트에서 아동의 돌봄 시간은 평균적으로 수업 외에 주당 5일, 하루 당 5시간이다(BMFSFJ, 2018). 독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호르트의 운영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지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동독과 서독 간 호르트의 방과전 운영 시간의 격차가 크다. 동독에서는 학령기 아동들이 학교 시작 전에 호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다수의 호르트들이 방과전 돌봄을 제공한다. 2017년 기준 동독 호르트의 72%가 6시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서독에서는 6시 30

분 이후에 호르트에서 돌봄을 시작하고, 방과 전에 운영하는 호르트의 비율이 27%에 그쳤다. 반면, 오후 돌봄의 운영시간에서는 동서독 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 대부분 최소 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4시부터 6시 사이에 마치는 호르트는 동독이 85%, 서독이 91%로 나타났다(BMFSFJ, 2018). 종일제 학교의 상황은 주마다 매우 다르며 정의도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최소 주 3일, 하루에 수업 시간 포함 최소 7시간을 운영할 경우 종일제 학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본다(Münder, 2017).

호르트는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시설에서 교육 인력이 제공하는 돌봄 중심이고, 종일제 학교는 숙제 지도 또는 특별활동그룹과 같은 과외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대다수의 종일제 학교들은 스포츠나 음악 관련 공동 여가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한다.[12]

호르트 이용 비용은 운영주체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에 70~150유로 정도이다. 여기에 약 40~50유로의 식사 비용이 추가되기도 한다.[13] 종일제 학교 이용 비용도 지역에 따라,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일반적으로 점심식사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끼당 3~4유로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다.[14]

지금까지 살펴본 독일의 방과후학교 내용을 앞선 덴마크 사례와 비교하면 〈표 Ⅳ-3-1〉과 같다. 독일은 돌봄 시설인 호르트에서 학교 중심의 종일제 학교로 핵심 전달체계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덴마크는 이미 70년대부터 학교 내 방과후 돌봄이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초기 양상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재 양국의 전달체계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덴마크와 독일의 방과후학교는 모두 운영에 있어 학교장이 책임을 지며, 관리 주체는 지자체로 명시되어 있다. 양국 모두 지자체에 교육청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내 돌봄 서비스 실행 과정에서 돌봄과 학교 교육 체계 간 이원화로 갈등을 유발할 요인이 적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재원과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 부과를 통해 운영된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덴마크와 독일 방과후학교의 차이점을 보면, 덴마크는 교육 관련법인 공립학교

12)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kinderbetreuung/ganztagsbetreuung/betreuungsluecken-fuer-grundschulkinder-schliessen/133604 (인출일: 2019. 8. 23.)
13) https://www.kita.de/wissen/hort/ (인출일: 2019. 9. 2.)
14) https://www.elternimnetz.de/kinder/schulkind/ganztagsschulen.php (인출일: 2019. 9. 2.)

법에 근거하여 방과후학교를 실시하고 있는데 비해, 독일은 사회정책 관련법 중 아동 및 청소년 복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법 8권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독일과 덴마크의 방과후학교의 시발점이 달랐기 때문에 근거법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제공 인력 측면에서도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덴마크는 책임 교사가 배치되지만 페다고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독일은 방과후학교 중 의무형, 부분 의무형 종일제 학교 인력에 50%를 교사로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덴마크의 페다고와 유사한 보육 담당 인력이 배치된다. 덴마크에 비해 독일의 방과후학교의 운영에는 기존 학교 내 인력의 투입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Ⅳ-3-1〉 덴마크와 독일 방과후학교 비교

	덴마크	독일
근거법령	공립학교법	사회법 8권(SGB VIII)
관리주체	지자체	주정부와 지자체
운영책임	학교장	학교장
재원	지자체 이용자 부담금	지자체 이용자 부담금
인력	돌봄 전문 인력(페다고, Pædagog)	의무형: 교사 50%, 보육교사 50%, 개방형&호르트: 100% 보육교사
연계	방과후 다양한 신체 및 여가 활동 시 타 기관과 협력	교사의 돌봄을 대체하는 서비스 제공 시 다양한 외부 기관과 협력

자료: 본 보고서 pp.100-102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V

초등 방과후 돌봄 법적·제도적 분석

01 온종일 돌봄체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관련 법안

02 초중등 방과후 돌봄의 법적·제도적 쟁점

03 소결

Ⅴ. 초등 방과후 돌봄 법적·제도적 분석[15)]

본 장에서 논의하는 초등 방과후 돌봄 법적 제도적 분석은 먼저 최근에 제출된 온종일 돌봄체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초등 방과후 돌봄 관련 법적·제도적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1. 온종일 돌봄체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관련 법안

공적인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중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별도의 법률인 「아이돌봄지원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는 교육부 고시인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2015-74호)에 제시되어 있는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에 의해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이 시행된 2004년 이후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여러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제출된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관련 법안 중 2012년 이후 최근의 법안 일부를 소개함으로써 그동안의 법적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외에 2018년 4월 발표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관계부처 합동, 2018b)」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발의되었으

15) 본 장의 일부를 2019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함께 하는 초등 돌봄을 위한 육아정책의 과제(2019년 10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발표하였음("초등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쟁점 및 개선방안")

므로 이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제시된 법안들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별도 법률안의 2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안에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과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고 별도 법률안은 초중등교육법과 별개의 독립된 법률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온종일 돌봄체계 관련 법안은 별도 법률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온종일 돌봄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므로 별도로 설명한다.

가. 온종일 돌봄체계 관련 법안

1) 박경미 의원안[16)]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온종일 돌봄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Ⅴ-1-1〉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안 제2조	온종일 돌봄시설의 종류 -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학교 내 시설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 -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
안 제4조	이 법은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온종일 돌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안 제5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안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교육장)의 협의를 거쳐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7조 및 8조	지역의 온종일 돌봄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온종일 돌봄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돌봄협의회를 둠
안 제9조	온종일 돌봄은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간식 및 급식 지원, 특기적성 및 역량 개발 지원 등을 의미함
안 제10조	온종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온종

16)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2019.8.27.)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2).

구분	내용
	일 돌봄시설의 설치기준,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안 제11조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
안 제12조	교육부장관은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안 제14조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자는 기초수급자, 한부모·다문화가족, 장애인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온종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안 제15조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자는 보호자에게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안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시설 및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1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자료: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2019.8.27.)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2).

본 법안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기존의 온종일 돌봄체계에 포함된 기관을 모두 관할하고 있다.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관리주체로 규정한 반면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교육부장관을 관리주체로 규정하였는데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자가 보호자에게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수익자 부담의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다.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기준,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지방자치 확대에 부응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김진표 의원안[17]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제작한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과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가 방과후학교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최근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대행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강사들의 임금체불, 저질교구 유

17)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2019.5.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462).

통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안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에서 프로그램 위탁 시 계약방법과 조건, 해당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명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강사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김진표 의원안 제안이유).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부 장관은 방과후학교의 과정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과정과 내용을 정하게 하였다(안 제23조의2제2항).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3조의2제5항). 이렇게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의 내용, 위탁 계약 기간·조건·해지 및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안 제23조의2제6항).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에 따라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지 지도·감독하도록 하였다(안 제23조의2제7항).

2) 김한정 의원안[18)]

김한정 의원안은 방과후학교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 및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방과후학교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한정 의원안 제안이유).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방과후학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의2제1항),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다(안 제23조의2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의2제3항), 국공립학교에 구는 학교운영영위원회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안 제32조의제1항 제6호).

18) 김한정 의원 대표발의(2017.9.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305).

3) 한선교 의원안[19]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야 할 관련 행정기관에서도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기피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선교 의원안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여,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한선교 의원안 제안이유).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의 장은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과정 이외에 학생의 신체·정서·인지·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활동 및 초등돌봄교실(이하 "방과후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의2제1항), 제32조의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야 하며,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3조의2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의2제3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단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안 제23조의2제4항).

4) 박인숙 의원안[20]

전국 96% 이상의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보육교실, 에듀-캐어(edu-care) 등의 형태로 초등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설, 시스템, 초등보육교사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전혀 없어 관리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박인숙 의원안은 학교 현장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에 대하여 학교의 체계적인 관리하에 초등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박인숙 의원안 제안이유).

주요내용으로는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신설 및 직원 배치 및 편성 운영에

19)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2016.1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255).
20)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2012.11.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836).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23조의2 신설) 학교운영회의 심의사항에 초등돌봄교실을 신설하였다(제32조제1항).

5) 정부안[21]

정부안은 학교에서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의 시간 또는 학교의 휴업일 중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하며, 교육감이 매년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정부안 제안이유).

주요내용으로는 학교는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이하 "방과후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3조의2제1항).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안 제23조의2제2항),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안 제23조의2제4항).

다. 별도 법률안

1) 남인순 의원안[22]

방과후 돌봄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소관별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학교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계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곤란하고, 각 사업별로 운영방식이 상이하여 사업추진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남인순 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방과후 돌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중앙

21) 정부 제출법안(2016.11.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627).
22)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2016.11.7.).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법안(의안번호 3336).

방과후돌봄정책협의회와 시·도방과후돌봄협의회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그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남인순 의원안 제안이유).

주요내용으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5년마다 방과후 돌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중앙방과후돌봄정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안 제6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방과후 돌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였다(안 제7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 및 조정을 통하여 방과후 돌봄에 관한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방과후돌봄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고(안 제9조), 시도지사는 방과후 돌봄에 관한 주요시책을 협의하고 관계 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방과후돌봄협의회를 두도록 하였다(안 제11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방과후 돌봄을 증진하고 관계 기관 및 민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방과후돌봄협의회를 두도록 하였다(안 제12조).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도록 하였다(안 제14조 및 제15조).

그 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돌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보호자 및 학령기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방과후돌봄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안 제18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방과후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서비스의 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방과후돌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안 제20조).

비용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돌봄시설 및 방과후돌봄지원센

터의 설치·운영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돌봄 우선 지원에 필요한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2조).

2) 박홍근 의원안[23]

방과후학교의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에 방과후학교의 계획에서부터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과정을 규정한 별도의 독립된 형태의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박홍근 의원안은 확대 시행 중인 방과후학교의 활성화와 돌봄기능 강화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박홍근 의원안 제안이유).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는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매년 방과후학교의 편성 및 운영 기준 등이 포함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안 제3조), 국가는 방과후학교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방과후학교 관련 사업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4조). 국가 또는 교육감은 중앙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기획·조정하는 전문인력과 중앙 또는 지역지원센터와 학교에서 실무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였다(안 제5조).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장이 학교 실정,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안 제8조).

3) 전현희 의원안[24]

전현희 의원안은 초·중·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및 발전 방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정부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교육감이 교육전문가,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 단체 및 기관 등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공공적 방식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방과후 안전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23)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2016.12.8.).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4265).
24)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2016.7.7.). 방과후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687).

안팎의 아동·청소년의 삶이 공적으로 보호받아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교원 및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방과후 활동 및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전현희 의원안 제안이유).

주요내용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활동이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안 제4조), 방과후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시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아동·청소년 등의 이용자에 대하여 활동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0조).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과 협력하여 방과후 활동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민관의 협력을 통한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두도록 하였다(안 제7조 및 제12조). 교사의 방과후 활동 참여는 정상 근무시간 이후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 방과후 활동은 학교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안 제6조 및 제9조).

2. 초중등 방과후 돌봄의 법적·제도적 쟁점

가. 관리 주체

남인순 의원이 2016년에 대표발의한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6: 10).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기본법 등 기존 법률의 규정 간 상충이 우려되므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현행 법률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서로 다른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기본법」을 중심으로 기존 법률을 보완하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부처의 입장은 각 부처에서 시

행하고 있는 돌봄서비스가 별도의 체계를 갖추고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부처 간 돌봄서비스 연계·협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Ⅴ-2-1〉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구분	내용
보건복지부	제정안의 취지와 목적은 교육부 주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운영(참고자료) 및 현행 「아동복지법」을 통하여 달성 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임
교육부	제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3개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법을 새로 만들 경우 법간 상충 문제가 발생하므로 새로운 법률을 만들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현재 국회 계류 중), 기존 「청소년 기본법」, 「아동복지법」 등의 법안의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 제도를 개선하고, 돌봄서비스 간의 연계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지원 관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제7장(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 충돌이 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청소년육성에 관해서는 「청소년 기본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16).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 검토보고,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336)(2016.12.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p.10.

해당 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제출한 방과후 돌봄에 관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방과후돌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안 제6조),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7조).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으로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활용하자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는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시 각 법률에 근거한 기본계획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학교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체 아동에게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교육부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정규교육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시·도교육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Ⅴ-2-2〉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구분	내용
보건복지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활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방과후 교육과 관련된 개별 법률 및 각 법률에 근거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시 법률·기본계획 간 충돌 문제 발생할 수 있고, 방과후 교육·돌봄과 관련한 사항은 학교 인프라를 기반하여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
행정안전부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방과 후 활동은 정규교육과의 관계, 소요재원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만약 동 제정안을 입법하더라도, 방과 후 활동이 교육에 관한 사무이고, 현재도 학교에서 해당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도 방과후돌봄협의회 및 방과후 돌봄시설 운영 등의 주체를 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시·도 교육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16).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 검토보고,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336)(2016.12.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p.15.

초등 방과후 돌봄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초등 방과후 돌봄의 관리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와 연관되어 있다.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교육부와 복지부,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중 누구를 관리주체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2019년 8월 27일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사회부총리 겸교육부장관을 관리주체로 규정하였고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관리주체로 규정하였다.

초등 방과후 돌봄의 관리주체를 일원화시킬 것인가, 기존과 같이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별개의 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할 것인가 등 초등 방과후 돌봄 정책의 관리 주체에 관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2018년 4월 발표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관계부처 합동, 2018b)」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관리 주체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도 정교한 제도설계가 요구된다.

나. 종사자 지위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는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교육공무직원으로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의 지위는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규정 등에 의해 규정

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박인숙 의원안(2012.11.28. 발의, 의안번호 2836)은 초등보육교사의 지위에 대한 근거규정을 제시하였다.

〈표 V-2-3〉 초등돌봄교실 종사자 지위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 규정

구분	내용
박인숙 의원안 (2012.11.28. 발의, 의안번호 2836)	제23조의2(초등보육교실) ② 초등보육교실에는 초등보육교사를 1인 이상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근무기준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에는 초등보육교사를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직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상 공립학교의 행정직원 등 학교직원은 교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초등 돌봄전담사의 지위를 규정할 경우 공무원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2016.11.28. 발의, 의안번호 3899)은 초등 돌봄전담사를 포함한 교육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해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려는 시도였다. 해당 법안에서 교육공무직원은 "교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여(안 제2조),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할 경우 나타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 인정 여부 논란을 피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에 관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안 제5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안 제8조), 교육공무직원을 정규직으로 규정하였고, 보수에 관해서도 교원 또는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안 제10조). 보수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동일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유은혜 의원안 제안이유)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2016년 12월 19일에 철회되었는데, 그 이유는 부칙 제2조(기존 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교육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부칙 제2조제4항은 사용자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상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을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사의 자격을 갖추더라도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사로 임용될 수 없는 현재 교원 선발 시스템상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교육공무직원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한 예비 교사들의 심한 반발이 일어났다.

현재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무기계약직이지만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승급을 할 수 없고, 기간이 지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직원"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할 필요는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 돌봄전담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직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

〈표 Ⅴ-2-4〉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 종사자 지위 규정

구분	내용
교육공무직원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교육공무직원"이란 교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란 객관적으로 일시적 업무가 아니고 학기 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제5조(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① 국립학교,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시·도 교육관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를 각각 노동관계법의 사용자로 본다(이하 "사용자"라 한다). ②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교육공무직원이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2년 이내로 기간을 정한 한시 사업에 필요한 경우 3. 정년을 초과한 교육공무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정년	제8조(정년) ① 교육공무직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구분	내용
보수	제10조(보수 등) ①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교원 또는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더 유리할 경우 이에 따른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방학기간 중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존 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기존 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과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의해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고 지자체가 주관한 돌봄교실의 경우에 종사자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도 있다. 2018년 4월에 발표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서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유휴교실 활용 돌봄교실을 앞으로 1,500실 3만명을 추가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서울 중구 및 충남 홍성군 등에서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고 지자체가 주관하는 돌봄교실이 시행되고 있다. 지자체가 주관한 돌봄교실의 경우 기존에 교육청 소속인 돌봄전담사들은 지자체 소속으로 소속이 변경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가 직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교육청 소속의 돌봄전담사와 지자체 소속의 돌봄전담사 그리고 민간위탁인 돌봄전담사들의 종사자 지위의 차이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8월 27일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 기준,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의 확대에 따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이지만 국회 검토보고서는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5] 해당 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중에서 강원도 교육청은 돌봄전담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25) 국회 교육위원회(2019).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019.9.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p.15

다.[26] 이러한 의견은 종사자 지위를 어떻게 법적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 민간 위탁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김진표 의원안(2019.5.16. 발의, 의안번호 20462), 이재영 의원안(2012.6.20. 발의, 의안번호 218) 및 정부안(2012.8.31. 제출, 의안번호 1457)은 방과후학교의 민간 위탁의 근거 규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현황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으나, 방과후학교의 민간위탁 허용문제는 공교육의 사교육 시장화를 부추기고, 이익창출을 위한 높은 수업료 책정 및 교육의 질 저하 우려, 학습지·온라인 대기업체의 독점 우려 등의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다.[27]

〈표 Ⅴ-2-5〉 민간 위탁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분	내용
김진표 의원안 (2019.5.16. 발의, 의안번호 20462)	제23조의2(방과후학교의 운영) ⑤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에 따라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재영 의원안 (2012.6.20. 발의, 의안번호 218)	제23조의2(방과후학교 등) ④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접한 학교·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대상의 법인 또는 단체는 국립학교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정부안 (2012.8.31. 제출, 의안번호 1457)	제23조의2(방과후학교) ⑤ 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상 방과후학교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과후학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근 학교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6) 국회 교육위원회(2019).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019.9.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p.27

27)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2012.9.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p.8

방과후학교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방과후학교와 경쟁하는 입장에 있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학교교육과 학원교육은 서로 다른 교육기능과 방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정책은 공교육이 사교육을 흡수토록 함으로써 학원교육 종사자의 직업기반을 박탈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의 영리단체 위탁운영,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 등은 학생들에게 유상으로 교육받게 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교육기회의 차별을 가져오므로, 헌법상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및 무상 의무교육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28)]

방과후학교는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본격적인 돌봄으로 볼 수는 없으나 초등돌봄교실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중 일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제공되고 있고, 초등돌봄교실에 있는 아동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돌봄의 측면에서도 방과후학교의 민간위탁 문제는 법적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상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규정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 개인위탁은 제외하고 있다. 「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19a: 21)」에서는 수탁자의 자격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표 Ⅴ-2-6〉 아동복지법상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규정

구분	내용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19. 9. 10)

라. 수익자 부담

17개 시·도교육청의 2019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을 보면 매일 1개 이상(지역 및 학교여건에 따라 주5회 이내) 제공되는 창의·인성 등 무상프로그램 이외의

28)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2012.9.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p.12

프로그램과 급·간식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비용은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가이드라인(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c)」에는 수익자 부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Ⅴ-2-7〉 초등돌봄교실의 수익자 부담 규정

구분	내용
급·간식	간식 및 급식은 수익자 부담으로 제공하되,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은 무상으로 제공함
추가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무상프로그램 이외 학부모가 수익자 부담으로 추가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유상으로 운영하되,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은 무상으로 제공함

자료: 17개 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2018c). 2019 초등돌봄교실 운영 가이드라인[별책]. p.7.

수익자 부담의 범위가 추가 프로그램과 급·간식에 한정되는 점은 학부모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아동과 학부모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바깥놀이의 경우 초등돌봄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바깥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 문제 때문에 돌봄 보조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수익자 부담의 제한으로 인해 돌봄 보조인력을 구하지 못한다면 초등돌봄교실에서 바깥놀이를 하는 것에 제약이 발생하게 되고 학부모와 아동이 원하는 돌봄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박인숙 의원안(2012.11.28. 발의, 의안번호 2836), 이재영 의원안(2012.6.20. 발의, 의안번호 218) 및 정부안(2012.8.31. 제출, 의안번호 1457)은 수익자 부담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초등돌봄교실 경비 보조의 근거규정을 제시하였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에서는 이러한 수익자 부담 및 경비 보조의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8월 27일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도 수익자 부담의 근거를 규정하였다.

〈표 Ⅴ-2-8〉 수익자 부담 및 경비 보조에 대한 온종일돌봄체계 특별법안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구분	내용
박경미 의원안(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19.8.27. 발의, 의안번호 22122)	제15조(보호자의 비용 부담) 온종일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의 보호자에게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박인숙 의원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11.28. 발의, 의안번호 2836)	제23조의2(초등보육교실) ④ 학교의 장은 초등보육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초등보육교실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보육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재영 의원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6.20. 발의, 의안번호 218)	제23조의2(방과후학교 등) ②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 참가 학생에게 운영에 필요한 수업료 등 교육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 및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정부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8.31. 제출, 의안번호 1457)	제23조의2(방과후학교) 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에서 수익자 부담의 근거규정 부재는 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4항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Ⅴ-2-9〉 아동복지법상 다함께돌봄센터 수익자 부담 규정

구분	내용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19. 9. 10)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양적인 확대 뿐 아니라 질적 수준 제고 역시 온종일 돌봄체계 확립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자 부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초등 방과후 돌봄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 행·재정 지원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은 그 지원 주체를 「교육감」으로 할 것인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지원 주체를 교육감으로 할 경우 시·도교육청 이외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주체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지원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할 경우 시·도교육청 이외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도 지원 주체에 포함된다. 시·도교육청 이외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주체에 포함될 경우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재정 지원 주체의 확대로 인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및 협력이 강화되고 교육부 이외의 다른 부처의 지원에 대한 근거법이 마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국회에 제출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나타났는데 한선교 의원안(2016.12.8. 발의, 의안번호 4255)과 정부안(2016.11.16. 제출, 의안번호 3627)에서 행·재정 지원 주체에 대해 제시하였다.

〈표 Ⅴ-2-10〉 행·재정 지원 주체에 대한 온종일돌봄체계 특별법안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분	내용
박경미 의원안(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19.8.27. 발의, 의안번호 22122)	제17조(비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온종일 돌봄시설, 지원센터 및 제12조 제4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한선교 의원안 (2016.12.8. 발의, 의안번호 4255)	제23조의2(방과후학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정부안 (2016.11.16. 제출, 의안번호 3627)	제23조의2(방과후학교) ④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부안은 교육감에게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운영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한선교의원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두 개정안은 지원 주체 및 지원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29)]

교육부는 방과후학교를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도교육청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어 교육감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방과후학교에 관한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는 보통교부금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이루어지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30)]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연계·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재정지원 주체는 교육청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019년 8월 27일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행·재정적 지원의 주체로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상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서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국가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9)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55), 정부제출(의안번호 3627), 2017.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p.11
30)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55), 정부제출(의안번호 3627), (2017.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p.12

〈표 Ⅴ-2-11〉 아동복지법상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의 비용 지원 규정

구분	내용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59조 (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4조(비용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9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용료를 받는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19. 9. 10)

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연계·협력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는 학교와 지역 연계를 중심으로 초등 방과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와 지역의 연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서울 도봉구에서는 2015~2016년 서울형교육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청에서 주관하는 아동·청소년 방과후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당시 제기되었던 법적인 문제들 중에는 소득세법의 세액 공제가 있었는데,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방과후학교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나 방과후 과정에 한정된다는 것이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여기서 “학교 등”은 초중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과정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 공제가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방과후과정은 교육비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비 세액 공제의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수의계약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는 입찰에 의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방과후학교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돌봄과는 구분된다고 볼 수 있으나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실시될 수 있고, 초등돌봄교실이 현재 제도적으로 방과후학교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방과후학교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계·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이 아직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 Ⅴ-2-12〉 방과후학교 관련 소득세법 규정

구분	내용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19. 9. 10)

〈표 Ⅴ-2-13〉 방과후학교관련 지방계약법 규정

구분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19. 9. 10)

사. 입법 형태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근거 법률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에도 많은 법안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법안들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별도 법률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같은 차이는 앞서 언급한 관리 주체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관리 주체를 교육청과 학교로 규정하는 반면 별도 법률안은 관리 주체를 교육청과 학교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초등 방과후 돌봄을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는 것은 의무교육과 관련한 문제도 발생시키게 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할 경우 특히 학교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방과후학교의 일종으로 초등돌봄을 규정할 경우 선택적 교육활동인 방과후학교와 의무교육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헌법상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헌법 제31조제3항), 의무교육을 수행하는 교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민간위탁에 의해 의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할 것인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초등 방과후 돌봄의 관리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이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18년 4월 발표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관계부처 합동, 2018b)」에서는 지자체 중심의 초등 돌봄서비스 간 연

계·협력 체계를 제시하였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 초등 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아. 교육과 돌봄의 관계

17개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2019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방과후학교의 개념을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c: 3)으로 정의하고 있다.

17개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2019 초등돌봄교실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표 Ⅴ-2-14〉 초등돌봄교실 개념 정의

구분	내용
초등돌봄교실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 등)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활동
돌봄인력	돌봄전담사, 돌봄업무담당교사, 돌봄봉사인력, 단체활동 지도강사 등 돌봄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인력

자료: 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2018c). 초등돌봄교실 운영 가이드라인. p.3

「2019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의 추진배경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d: 3).

- *핵가족화 심화, 여성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점차 증가(초등돌봄 공백은 여성이 출산 이후 소득활동을 포기하는 두 번째 위기로 이어짐)*
-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방과후·방학 중 돌봄 사각지대 발생*
-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 협력과 연계를 통해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 필요*

현재 초등돌봄교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일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31]에서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의 개념에 정의되어 있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 중 "돌봄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방과후학교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학교교육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돌봄교실 역시 학교교육활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주체가 학교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돌봄 기능 역시 교육의 영역에서 정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돌봄의 영역은 영유아보육에서와 같이 교육의 영역과는 별도로 발전되어 왔다는 점에서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돌봄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교육계에서는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시각은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주체를 학교로 규정한 201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안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반발에서도 나타난다.[32] 교육과 돌봄을 구분하는 이러한 입장은 초등돌봄교실은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시각인 것이다.

교육과 돌봄을 구분하는 이러한 시각이 나타나는 제도적인 배경은 교육과 돌봄에 대한 거버넌스가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도적 실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OECD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분리되어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을 관할하고,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을 비롯한 복지를 담당하는 거버넌스의 분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돌봄의 영역이 학교에서 확대되는 것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반발이 나타나는 것이다. 교육과 돌봄에 관한 이러한 거버넌스의 분리는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저해하게 되고, 학교 안 돌봄과 학교 밖 돌봄의 연계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덴마크와 독일의 사례를 보면, 덴마크의 방과후 센터는 공립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공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방과후 센터 운영에 대한 책임도 학교장에게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덴마크의 공립학교법은 공립학교의 기본적인 책임이 기초자치단체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덴마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3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 (2013.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p.6
32) 한국교육신문. 2016.11.10.「돌봄교실 운영주체 학교로 못 박나」

돌봄의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학교 안 돌봄과 학교 밖 돌봄의 연계가 용이하다. 독일에서는 초등돌봄은 사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초등돌봄에 대한 책임은 우리나라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독일 역시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밖 돌봄을 포함하는 호르트와 학교 안 돌봄에 해당하는 종일제 주간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 돌봄의 통합적인 접근, 학교 안 돌봄과 학교 밖 돌봄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방과후아동클럽은 문부과학성이 아닌 후생노동성 관할이지만 장소는 초등학교 내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도 일본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통합되어 있어 교육과 돌봄의 거버넌스가 지방정부 수준에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외사례와는 달리 교육과 돌봄의 거버넌스가 이원화되어 있지만 교육과 돌봄의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2018년 4월에 발표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관계부처 합동, 2018b)」에서는 학교돌봄의 인원을 초등돌봄교실 3,500실 7만명, 지자체가 주관한 교실활용 돌봄교실 1,500실 3만명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b: 11). 이렇게 될 경우 학교에서 주관하는 초등돌봄교실은 학교교육활동에 포함되지만 지자체가 주관하는 교실활용 돌봄교실은 학교교육활동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관리주체에 따라 초등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동일한 돌봄교실의 성격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과 돌봄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자. 돌봄의 목적 및 운영 목표

현재 초등 방과후 돌봄에서는 돌봄의 목적 및 운영 목표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특히 아동권에 기초한 아동의 선택할 권리, 적절히 돌봄 받을 권리, 발달 단계에 따라 돌봄을 받을 권리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장수정·송다영·백경흔, 2019: 281-282).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놀이권 및 휴게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역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차. 공간 확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자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로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한 임차료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임차료는 다함께돌봄센터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이다(박혜준·이재림·김영선·이보람, 2018: 127). 「2019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19a: 60)」에서는 국고보조금은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에 한정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시설의 월세 등 건물임차료에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보건복지부, 2019b: 147).

〈표 Ⅴ-2-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

구분	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19. 9. 10)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재 개인이나 민간 주체의 다함께돌봄센터는 임차료 부담 등의 문제로 돌봄 공간을 확대하거나 지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박혜준 외, 2018: 107).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의 돌봄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의 돌봄공간은 이미 별도의 운영목표와 운영주체가 명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박혜준 외, 2018: 114).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돌봄기관이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보편적 지원을 하는 돌봄기관과는 목적이 다르다. 지역아동센터를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지역아동센터

에 다니던 취약계층 아동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돌봄기관의 공간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공간 확보 규정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센터 확대에 지장이 있으므로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초등 방과후 돌봄기관의 경우에도 공간 확보에 관한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Ⅴ-2-16〉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공간 확보 규정

구분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주택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원 및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19. 9. 10)

카. 이용 대상

이용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에게 돌봄서비스 이용에 관한 우선권을 줄 것인가가 문제된다. 초등돌봄교실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게 이용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돌봄 서비스의 보편지원을 위해서는 이용대상을 한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019년 8월 27일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온종일 돌봄 우선제공을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 오산시는 우선 제공 대상자를 취약계층보다는 맞벌이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다자녀가구 및 부모의 근로시간이 긴 경우 등으로 수정하여 돌봄의 보편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국회 교육위원회, 2019: 26). 광주광역시도 온종일 돌봄 우선대상자에 대해 돌봄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속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재량 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국회 교육위원회, 2019: 26). 충남교육청은 다자녀가정(4자녀 이상 또는 3자녀 모두 만12세 이하)의 자녀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국회 교육위원회, 2019: 27).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우선 이용권 부여보다는 돌봄의 보편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온종일 돌봄체계는 취약계층 중심이 아닌 돌봄의 보편적 지원을 목표로 만들어진 정책이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표 Ⅴ-2-17〉「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이용 대상 규정

구분	내용
안 제14조(온종일 돌봄의 우선 제공)	온종일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온종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구분	내용
	자녀 7. 그 밖에 교사가 추천하는 아동(제2조제3호가목의 온종일 돌봄시설에서 온종일 돌봄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온종일 돌봄의 우선제공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	(경기 오산시) 우선 제공 대상자를 취약계층보다는 맞벌이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다자녀가구 및 부모의 근로시간이 긴 경우 등으로 수정하여 돌봄의 보편적 시행 추진 필요 (광주광역시) 동 조에 따른 대상자에 대해 돌봄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속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재량 사항으로 수정 필요 (충남교육청) 다자녀가정(4자녀 이상 또는 3자녀 모두 만12세 이하)의 자녀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으로 수정 필요

자료: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 검토보고서(2019.9.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pp.26-27.

3. 소결

지금까지 초등 방과후 돌봄 관련 법안 및 법적·제도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관련 쟁점으로 관리주체, 종사자 지위, 민간위탁, 수익자 부담, 행·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연계·협력, 입법형태, 교육과 돌봄의 관계, 돌봄의 목적과 운영목표, 공간 확보, 이용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초등 방과후 돌봄의 법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은 온종일 돌봄체계의 확대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논의된 쟁점들에 대처할 수 있는 법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VI

초등 1학년 돌봄 면담조사 결과 분석

01 수요자 요구
02 제도적 문제

Ⅵ. 초등 1학년 돌봄 면담조사 결과 분석

1. 수요자 요구

가. 초등학교 취학 후 발생하는 변화

1) 등하교 시간

초등학교 취학 후 발생하는 변화로는 하교 시간이 빨라져서 아이가 일찍 오고 방학이 길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지적되었다.

> 일단 일찍 온다. 굉장히 일찍 오고, 방학이 길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초등학교 가면서 .. (초등 1학년 학부모 B)

취학 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닐 때와 비교하면 취학 후 초등학교에서는 등교 시간은 늦어지고 하교 시간은 빨라진다. 이에 따라 학부모의 시간 이용에도 제약이 따르게 된다.

> 엄마들이 지금 컵라면 사들고..하하하 다 보내놓으면 데려가야 되니까 맞춰서 컵라면..(아이 학교 끝나는) 시간이 너무 빨리 돌아와서.. 12시부터 뭐 준비하고.. 청소하고.. 뭐 애들 그 쵸 먹을거 준비하면 바로 데리러 나가야하는 시간이니까.. (초등 1학년 학부모 A)

>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직장맘들이 많이 쉬고, 그 1-2학년 때는 픽업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제일 바쁘고, 금방 끝나고 하니까 아이들 적응 때문에 휴식 기간을 그때 많이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초등 1학년 학부모 A)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부모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저도 가끔은 출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조부모님의 도움을 이제 받아요 저는. 가끔이어가지고 시터를 쓰진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찾는걸 부탁드리고, 저는 출근하고.. (초등 1학년 학부모 B)

> 근데 그 딱.. 저희는 그 뭐지? 등교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만약에 조금 출근 시간이 빠

> 른 부모들은 약간.. 그것 때문에 아침도.. 그.. 도우미 선생님을 쓰시더라고요. 8시까지 오셔서.. 저희 학교는 절대로 8시 40분 전에는 못오게 하거든요. 안정상의 문제로..선생님이 교실에 안계시거나 그럴 수 있어서.. 절대로 오지말라고.. 맨날 신신당부를 하시거든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런것도 있는거 같아요. 학교 끝나고 돌봄도 있지만, 시작전에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거 같아요. (초등 1학년 학부모 B)

조부모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연근무제 등 노동정책의 지원이 없을 시 어머니의 직장 선택에도 제약이 따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저희도.. 등교 시키시는 분 중에서도 아저씨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요즘에는 회사에서 무슨 선택.. 무슨 탄력근무제.. 아홉시 반에 출근 해서 가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거 같다라고요. 그다음에 회사 쪽에서도 아홉시 반에서 여섯시 반 퇴근으로 하는데.. (초등 1학년 학부모 A)

> 근데 그것도 직장다니는 엄마들이 아홉시까지 출근 할라면, 아이가 일찍 가야 하잖아요. 직장이 거리가 있는 엄마들은.. 아빠나 엄마가 등교를 시키지 못하면 엄마들이 직장을 알아보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이 직장 근무시간 그거 때문에 정말 잠깐 일하는 파트타임.. 식당 아닌 이상,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조부모님이 등교같은거 시켜주시는..크지 않는 이상.. (초등 1학년 학부모 D)

2) 방학

방학 중에는 방과후학교 시간이 학기 중과 달리 시작 시간이 아침으로 당겨지게 되고, 초등돌봄교실은 오전과 오후돌봄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방학 때 학교에 오래 있는 것은 아이가 지겨울 수 있으므로 조부모에게 맡긴다는지 하는 식으로 학기 중과 다른 방식의 돌봄을 모색하게 된다.

> 거의 7월말 8월 한 달 정도? 아 그리고 이 방과후가 그래도 좋은거는 또 방학때는 아침 9시로 바뀌었어요. (초등 1학년 학부모 A)

> 같은 시간동안 하는건데 그거를 학교가는 시간에 맞춰서 앞쪽으로 당겨서 방학 동안만 운영을 하더라고요. (초등 1학년 학부모 A)

> 저는 일단 이게 5주잖아요. 돌봄 교실을 5주 다 해주시는거 같더라고요. 유치원 다닐때는 방학이 있어서, 방과후도 방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동안 아이가 방치되고, 친정에 내려다 주고, 친정이 지방이라.. 그래서 초등학교도 역시 돌봄 교실.. 아이가 하루종일 있으면 지겹고 하니까, 아이가 또 학원을 다니는게 아니기 때문에, 방학 하는 날, 친정에 5주간. 맡

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루 종일 돌봄 하는게 아이가 지겨울까봐.. 하루종일 돌봄 할 순 있지만 저학년이고.. 고학년 되면 또 많이 공부하고 그래야 되니까.. 저학년때 열심히 놀으라고.. 친정에 5주간..맡길 계획입니다. (초등 1학년 학부모 C)

방학 중 돌봄은 학기 중 돌봄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경험하는 방학 중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막해하고 있었다.

저는 그냥 오전에 방과후만.. 그거 말고는. 어떻게 해야되나 대책이.. 경험을 해보지 않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좀 막막한 입장이에요. (초등 1학년 학부모 D)

저는 다니기 싫다는 미술 학원이라도 보내야 되나.. 방학 동안 나오는 프로그램 그거를 추가 해야 되나.. 딱히 아이들이 방학동안 할 게 없는게 현실이에요. (초등 1학년 학부모 E)

저도 아직 계획을 못 잡은게.. 여태까지 한번도 방학이라는게 없었거든요.. 유치원 같은 경우도 방학 자체가 없었어요. 계속 방과후를 해서 놀았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은 없고, 아직까지 생각 중에 있어요. 한 달 남아가지고. 다 이제 지옥을 볼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친구들 보니까 그때는 다 연락 못하고.. 먼저 보낸 친구들 보면은 방학동안 연락 못하는 그런 기간이 있더라고요.. 나도 친정에 맡겼더니 엄마가 하루가 어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다고.. 아이 둘을 데려다 놓거든요. 어린이집 다니는 애도 한.. 2주간.. 왜냐하면 큰 애만 보내면 아이가 심심하니까.. 큰 애가 좀 너그러운 성격이에요. 둘째는 좀 그런데.. (초등 1학년 학부모 D)

방학 중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아 학부모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리고 저는 좋은곳을 어떤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청소년 미래 본부라고, 거기는 저녁 10시까지 아이들 스스로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놀고 싶은거 놀고, 책 보고싶은거 보고, 이러거를 해주는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또 심심할거 같지만, 책보거나, 컴퓨터 하거나, 간단한 색칠 놀이를 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들어가면 잘 몇시간 동안 있더라고요. 그런데가 있는거를 엄마들이 정보를 알면.. 학원 시간 외에 엄마들이 급할 때, 아이들 돌봐주는거도 괜찮은거 같아요. 이런 시설이 많이 생기면 좋겠고, 시설이 있어도 모르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가장 좋은거는 돌봄 안에서 이런것들이 이뤄지면 더 좋고. 학교 안에서 해야 엄마들이 마음이 제일 놓이니까..(초등 1학년 학부모 E)

3) 교사의 태도

초등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없다.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달리 옮기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옮길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

서 부모와 교사의 관계가 취학 전과 비교하면 역전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엄마들도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학교를 보내는지라, 기대를 다 저버리고..바라는거 없이, 안전하게, 엄마들이 좀.. 선생님들이 그렇게 있다잖아요. 엄마들이 유치원에서 유난 떨었던 엄마들도 많고, 근데 학교는 교육하는 기관이고, 갑과 을이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담임은 좋기는 한데, 요구 할 거를 다 요구하지 못하고.. 사실 할 말은 되게 많죠. (초등 1학년 학부모 C)

> 저는 어린이집 보냈을 때도, 너무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일로만 보는 선생님이 있는데, 정말 마음으로 옮겨야 되나, 계속 보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옮길 수도 없고, 계속 일년을 참아야 하고.. (초등 1학년 학부모 D)

학부모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교사의 태도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달리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 근데 사람이 정말.. 우리 학교는 정말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런게 좀 덜한 편이에요. 담임선생님이 이제.. 엄마가 미리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선생님 아이가 병원을 가야해서 일찍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 문자를 못 받으신 거예요. 애들 보느라 그랬겠죠. 그래서 엄마가 밖에서 한시간을 기다렸어요. 뭐 부모니까 기다릴 수 있죠. 수업 중에 확인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한 번은 아이가 아파서 등교 늦게 한다고 8시 전에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것도 안보신거야. 그래서 10시에 애가 갔더니, 선생님이 애한테 막,, 아까 그 더하기빼기 못한다 한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다다다다 한거예요 애한데. (초등 1학년 학부모 C)

나. 초등돌봄교실

1) 운영시간

가)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시간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은 현재 일부 저녁돌봄을 제외하면 오후돌봄은 오후 5시까지이다. 초등돌봄교실에서 저녁돌봄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돌봄교실 종사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오후 5시 이후 다른 교직원들이 퇴근한 상태에서 돌봄교사 혼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안전 문제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는 학교 보안관이 근무하면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후 5시 이후에는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이 지원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초등

돌봄교실이라는 한 장소에서 장기간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동에게도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다.

> 사실 좀.. 이상적인 방향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구 마다 키움센터 같은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돌봄은 오후 돌봄까지 하는게 적합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왜냐하면, 다섯시 이후에 모든 교사가 퇴근을 한 상태에서 돌봄 교사 혼자 남아서 아이를 돌보고 운영을 하는 것도 학교에서는 그에 따른 보안관 선생님들 근무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안전 문제 있고요. 그리고 기타 전기 사용이라든가 학교 입장에서는 전혀 반갑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운영시간이 끝났을때 돌봄 교실도 마치는게 저는 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답답하다 생각을 하구요. (초등 돌봄전담사 A)

초등돌봄교실을 마친 후 저녁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셔틀버스를 통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돌봄센터로 이동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셔틀버스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운영 돌봄센터로 이동하여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운영 및 예산 차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저녁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 그럼 그 이후에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고민이 되는데, 그 이후에 학생들은 사실은 각 지역마다 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에서.. 그.. 지자체에서 셔틀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모든 학생이 저녁 시간에 돌봄을 원하는건 아니거든요. 남아 있는 학생들을 셔틀로 태워서 센터로 이동하고, 센터에서 예체능을 접목해서 프로그램을 두고 아이들이 자기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나는 농구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농구를 할 수 있는거 고, 아니면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면 피아노를 배우고.. 몇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면, 더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운영 차원에서도, 예산 차원에서도 훨씬 효율적일거란 생각이 들어요. (초등 돌봄전담사 A)

나) 초등돌봄교실의 의무이용시간

초등돌봄교실 의무이용 시간은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학원 등을 가기 위해 외부로 나가게 되면 다시 초등돌봄교실에 입실하지 못하는 것 및 학교 내에서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공통적이었으나 학교에 따라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할 시 5시까지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중간에 외부로 나가는 것은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간에 외부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학원 등 사적 돌봄과의 연계에서 어려움이 호소되었다.

제 친구는 아예 그 돌봄 그 다섯시까지 하는거를 처음에는 했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뺄 수 가 없고, 무조건 월,화,수,목,금 다섯시까지 강제로 하지 않으면 아예 신청이 안되나봐요. 뭐 이렇게 학원 때문에.. 뭐 그 시스템 자체는 이해를 하지만, 사실 이제 초등학교는 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마들이, 뭐 하루, 이틀이라도 조금 딱 날 자, 요일을 정해서 그렇게 조금 일찍 끝낼 수 있는 날을 정하거나 했으면 좋겠다고.. 걔도 이제 영어 때문에 하루, 이틀 뭐 병원 간다고 빼다가 선생님이 안된다고.. 절대 안돼. 처음에는 약간 그 정돈 해드릴 수 있겠다 말 했는데, 그게 사실 법적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결국에는 그래도 영어 다 끊고 돌봄만 하는데 그 대신 돌봄만 있으면 지겨우니까, 방과후를 엄청나게 많이 넣어서, 요리 이런거로 좀 재미있게 해서.. 영어를 끊었어요 시간이 도저히. 다섯시 끝나고 다섯시 반에 셔틀 타고 가서 여섯시 시작해서 일곱시 끝나서 집에 오면 너무 늦고, 다른거 아무것도 못하니까.. (초등 1학년 학부모 B)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시간은 따로 없는거 같은데, 선생님께서 학기 초에는 적응을 해야 하니까, 시간 좀.. 하루에 두세시간이라도 꼬박 꼬박 나오라고 그 말씀만 하셨고, 이렇게 시간을.. 기준은 없었던거 같아요. (초등 1학년 학부모 C)

그런건 있어요. 방과후는 갈 수가 있는데, 개인 사립 학원은 가지 못하는 전제 하에 돌봄을 신청하고 있어요. (초등 1학년 학부모 C)

다) 돌봄 틈새 시간

초등학교의 오후 돌봄교실은 오후 5시에 끝나지만 부모의 퇴근 시간은 그 이후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시간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아이의 제일 친한 친구는 돌봄을 하는데, 엄마 퇴근 시간이 6시인데 그때 맞춰서 못끝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 아이는 태권도 학원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그런 경우가 허다 하더라고요. 일찍 못끝나는 엄마들은 아이가 돌봄 끝나고 태권도를 가도, 태권도에서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초등 1학년 학부모 D)

2)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이유

가) 안전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등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은 학부모들이 학교 밖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적 수준이 개선이 되면 학부모들이 충분히 이용할 의향이 있었다.

그냥 학교에서 조금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

분을 조금 더 교육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잘 개선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적 돌봄 보다는 학교쪽에서 운영하는 거를 많이 이용할... 학부모들은 충분히 그럴 의향이 충분히 있어요.. (초등 1학년 학부모 A)

저 아시는 분도 만족스러워 하신다고 하는거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선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있다는거 자체가 돌봄의 가장 큰 장점이니까, 그 부분에선 학교 안에서 있다는게 제일.. 좋은 장점인거 같아요. (초등 1학년 학부모 A)

나) 자유놀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학교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점도 있지만 자녀가 좋아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초등돌봄교실은 교구들이 많이 있어서 아동이 놀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키즈카페에 가는 느낌이라서 자녀가 좋아한다는 것이다.

아이는 좋아하더라고요. 본인은 약간 키즈 카페 가는 느낌으로.. 제 친구가 그러는데 간다고 하더라고요. 교구도 많고 그러니까, 그 아이 자체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특별히 교육적인걸 기대하지 않고, 그 시간에 안전하게 있는 보육의 관점에서는 만족을 하더라고요. 빨리 나올 수 없는 거는 안좋고, 나머지는 자기는 만족한다고.. (초등 1학년 학부모 B)

제 친구는 딸인데도, 되게 좋아한다고.. 저는 너무 오래.. 다섯시까지 사실 .. 어른이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도 힘든데.. 약간 출근의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그렇게 진지하게 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즐거운 마음으로 잘 다니더라고요. (초등 1학년 학부모 B)

학원과 같은 사교육의 경우는 특정한 내용을 배운다는 압박이 있지만 초등돌봄교실은 그러한 압박이 없이 놀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좋아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학원같은 경우는 약간 뭘 배워야 하는 느낌이 나는데, 학교 안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행복한 거죠. (초등 1학년 학부모 A)

3)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가) 교육의 측면

맞벌이지만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고 조부모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지원으로 방과후에 학원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 근데 주변에 직장을 다니시는데도 돌봄을 안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뭐.. 계속 거기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거 때문에, 결국 그냥 도우미를 쓰셔서 빨리 빼거나, 아니면 조부모를 이용해서 빨리 빼서 학원으로 해서 계속 돌리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요. (초등 1학년 학부모 A)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교 내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한다는 측면 뿐 아니라 취학 후에는 교육의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 그게 그러니까 되게 양가적인게..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를 다니려면 그냥 보육을 하는게 맞지만, 또 한쪽에서는 교육적으로 욕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걸 놓치니까, 이용을 하지 않고, 사설로 나가는.. (초등 1학년 학부모 B)

> 돌봄 안쓰시는 분들이 더 많은것 같긴 해요. 사실.. 조부모가 가까이 계시거나, 시터를 쓰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초등 1학년 학부모 A)

나) 돌봄의 측면

그 외에 실내에서 갇혀 있다는 느낌이나 돌봄 종사자들의 수가 부족함에 따라 돌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다.

> 그건 교육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진 모르겠지만, 거기서의 케어부분이 잘 안되거나, 그냥 돌봄 안에서 갇혀있다는 인식 때문에 그걸 안 이용하고, 가까이 조부모가 사시면 그분들께 맡기는게 더 안정적이라고 해서 맡기는 경우도 있을거 같아요. (초등 1학년 학부모 A)

> 그리고 그전에 돌봄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선생님과.. 선생님 배치가 많이 안되어 있거나 그러면.. 혼자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면.. (초등 1학년 학부모 A)

다) 연령 혼합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이유로는 연령이 높은 아동들과 돌봄교실에서 같이 있게 되면 비속어 사용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1,2학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관계부처 합동, 2018b)」에서는 초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연령이 높은 아동들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확대될 수도 있다.

> 근데 이제 돌봄을 얘기 들어보면, 첫째가, 주변에 먼저 키우고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물어보면, 거기 형아들이 말이나 이런 것들이 쎈 형아들도 많고 그런 환경적으로 오히려 더 빨리 흡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안하는게 더 낫지 않겠냐 조언을 받았어요. 저는 유치원때, 방과후를 굉장이 만족도가 높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뭔가 부모가 시켜주지 못하는 다른걸 경험할 수 있는게 있지 않겠나 싶어서 관심을 가졌다가, 주변에 그런 조언을 받고 또 안좋은 쪽으로 더 빨리 흡수를.. 그래서 거기보다는 다른쪽으로 눈을 돌리는게 낫겠다 싶어서 신청을 안한거 거든요. (초등 1학년 학부모 E)

라) 낙인 효과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에 대한 낙인 효과 문제도 지적되었다. 낙인 효과는 이동아동을 취약계층에 한정하는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실의 경우도 기본적인 이용 자격은 맞벌이지만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적지만 초등돌봄교실에서도 낙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낙인 효과는 맞벌이 부모들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기 꺼려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 돌봄을 보내는 엄마 입장에선 정말 돌봄이 필요해서 보내는거잖아요. (초등 돌봄전담사 E)

> 근데 중요한건, 돌봄 교실에 한 교실에 1,2학년 문제인 친구들이 돌봄에 와요. 돌봄 다녀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문제 있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더커져.. 그리고 또 저희 학교는 도서 도구도 없는데 처음 돌봄 만들어졌을때 엄마들 제일 많이 물어본게, 저소득 친구들 있으니까 여기 저소득 애들 오느냐? 위약금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보내는 거예요. 한부모 있느냐 저소득 있느냐를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저소득 있다고 하면 안보내는 거예요. 또 일반 맞벌이 부부는.. (초등 돌봄전담사 B)

> 1순위, 2순위 할 때, 이미 돌봄이라는 느낌 자체가 아~ 이렇게 좀.. 걔네들은 말도 험해. 걔네들은 아빠가 이래서.. 엄마가 없으니까 이래..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애들이 교육을 저렇게 받은거야 이렇게 찍혀버린다는거죠. (초등 1학년 학부모 E)

부모들 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돌봄교실 이용 아동은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 우선이기 때문에 돌봄교실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인식들이 있다. 학교 내에서 돌봄교실에 가지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맞벌이 부모들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학교의 모든 문제점은 돌봄에서 발생한다는 시각이 학교 안에는 있어요. 이게 저소득 우선순위이다 보니까, 저소득 애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초등 돌봄전담사 D)

> 학교에서 돌봄 아이들 굉장히 싫어하고, 학급 담임 선생님도 좋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돌봄 학생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돌봄을 안보내신다는 부모가 있어요. 당당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필요한 부모님 조차도 낙인같은 꼬리표 때문에 꺼리시더라고요. 돌봄 다니는 아이들한테 심지어는 보건실에서 대일밴드도 안줘요. 모든 사건은 돌봄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누가 쓰레기 버렸으면 돌봄 아이들이 버렸을 거라고 하는 거죠. (초등 돌봄전담사 E)

> 사촌 형아는 원래 또 다른 애들은 돌봄 애들 싫어해요 이렇게 말 하더라고요. 걔는 안하고는 있는데 또 걔가 다니는 학교 친구들은, 돌봄을 별로 안좋아하는.. 친구들이 표현을 이렇게 해줬나봐요. 돌봄하는 애들 싫어해요 그러더라고요. (초등 1학년 학부모 D)

4) 초등돌봄교실 개선 사항

초등돌봄교실 개선 사항으로는 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실내에서만 활동하는 것보다 체육 시간을 늘리는 것도 요구되었다.

> 수업 내용을 알차게.. 아이들이 일단 저학년들은 일단 할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자기네들 끼리 놀고.. 이런거 보다, 만들기라던지.. 아니면 체육을 일주일에 몇번 넣어주시던지. 지겹지 않도록 아이들이 하루종일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초등 1학년 학부모 C)

초등돌봄교실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 안에서 놀 수 있다는 점 때문이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이 뒷받침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아이들끼리 놀아서 재미있는거보다..아이들끼리 노는것도 재미있겠지만, 뭔가를 하면서 놀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등 1학년 학부모 C)

돌봄 서비스 중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미술 대회나 그런것들을 학교에서도 해서.. 돌봄 교실 시간에 아이들한테 해서, 정부에서 하는 미술 대회도 많고,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그림을 그려서 이걸 해보자. 돌봄 교실 안에서 또 그림을 내보기도 하고 좀..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해서 좀 아이들이 결과가 중요한건 아니지만.. 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좀 알찬 돌봄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초등 1학년 학부모 C)

저도 그래서 방학 동안 돌봄 교실에 애들을 하루종일 냅두는게 마음이 쓰이는게, 진짜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느니 체계적으로 할머니랑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자연스럽게 많이 느끼고, 정말 많은걸 하거든요. (초등 1학년 학부모 C)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치원 때는, 방과후 말고, 정규반이 있고, 방과후 반이 있잖아요. 정규반에서 다들 방과후 반을 가고싶어 했어요. 자격이 안되니까 못가는거지. 왜 그랬냐면, 정말 프로그램이 다양했어요. 방학 중에도 체험 학습 같은거를 잘 다녔어요. 부모와 갈 수도 있지만, 친구랑 같이 어울려서 보거나.. 재미는 남다르잖아요. (초등 1학년 학부모 E)

근데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진거 같아. 역사 탐방 같은거 라던지, 예를 들면, 국사 나오는거 많잖아요. 그런것도 방과후 때 괜히 교실에만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날을 잡아서 그 아이들과 같이, 탐방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전 괜찮다고 봐요. 물론 이것도 프로그램 다양화에 포함된거죠. (초등 1학년 학부모 E)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초등돌봄교실 자체의 프로그램 뿐 아니라 같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의 연계 활성화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좀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맞벌이 부모들도 맡길 때 기분 좋게, 아이들이 재미있게, 재미있는 수업들도 늘려주고, 방과후 선생님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거 보단, 아이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짜서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작은 소망 있습니다. (초등 1학년 학부모 C)

네 그때 음악 줄넘기 하면서, 그때 나가서 하나 봐요. 교실에서 하지 않고, 나가서 하는데, 피구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해. 그러더라고요. 수업 자체는 음악 줄넘기, 그니까 방과후 수

> 업을 가져와서 하는거야. 근데 그 안에 줄넘기만 하지 않고.. 다른 피구도 조금 하고 이런거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횟수가 늘고 이러면, 엄마 아빠가 방과후를 따로 신청 하지 않고 돌봄을 만족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초등 1학년 학부모 C)

> 방과후 하면은 그냥 그 중간 중간 들르는곳? 방과후를 하는 날은. 그 다음에 학원도 가고.. (초등 1학년 학부모 C)

프로그램의 다양성 이외에도 아동의 출결 관리 등 운영 관리 측면에서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 제가 아는 직장맘은 아이가 이제 친구랑 그날 놀고 싶다고 돌봄을 안가거나 그런 날이 있었는데, 안갔으면 돌봄 선생님이 아이가 와야 하는데 오늘 아이가 안왔습니다는 연락을 주셔야 되는데, 연락이 없으시더래요. 그래서 다음날 선생님 왜 연락을 안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빠지는 일이 있으면 다음부턴 어머님이 먼저 연락을 주십시요 이러시더래요. 엄마들은 솔직히 유치원, 어린이집을 보내다가 초등학교 돌봄에서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것도 조금 중요하게.. 마음 놓고 그럴라면 그래야 되는데, 체크가 학교다보니, 스스로 해야하는게 되다보니까.. 조금 거기서 약간 당황 하더라고요. 그런.. 하다못해,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체크라도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는것 만으로도 마음이 좀 놓이지 않을까.. (초등 1학년 학부모 D)

다. 방과후학교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는 것은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 저는 방과후가 되게.. 첫째 다니는 학교는 엄청 그게 강화돼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교장선생님이 자신감 있게 우리 학교는 정말 서울시에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강좌도 여러개 이고, 수업 시간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체육, 악기같은거도 하고.. 뭐 인라인도 하고, 바둑이나 주산.. 그 다음에..어.. 남자애들 좋아하는 로봇이나 보드게임, 요리 뭐 여자 애들 비즈 만드는거 하고.. 만화 그리기도 있어요. 요즘에는 약간 그렇게 창의적인 인재 이런거 때문에 약간 뭐 물품 그리기도 있고, 요즘 스타일로 많이 그런 수업도 다양하더라고요. 전통적인 것 부터.. 그래서 저는 그거가 강화된게 좋았어요. 학교에서 제일 만족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게 다양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거.. 어쨌든 하든 안하든, 얘가 이런 과목이 있다는 거를 아는거 만으로도 좋을거 같았어요. (초등 1학년 학부모 B)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인기 강좌의 경우 선착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청에 어려움이 있어 추첨제로 변경한 경우도 있었다.

> 그래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하다가 서버가 터지고, 다운되고 그래서 이젠 아예 그냥 추첨으로 변했어요. 48시간 동안 아무 때나 신청을 해 놓으면, 그 이후에 그냥 추첨제로.. 그 다음에 끝나면, 마감이 되면, 대기 순번 쭉 나오고.. 어떤 학교는 아직도 선착순이어서 막 난리가 아니... 00초등학교는 다섯시 시작하는데 그 서버가 다운 되어가지고, 엄마들이 막 업체에 아홉시 막 야근하는 사람하고 막 싸워가지고는 어쨌든 그 사람이 아 그럼 새벽엔 절대 안열리니까 안심하고 주무세요. 했는데, 알고 보니 새벽 3시에 열린 거예요. (초등 1학년 학부모 B)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의 경우 정책의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방과후학교 영어 허용을 둘러싼 정책 변동이 그 예시인데 이러한 정책의 불확실성은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활동을 이용하는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영어도 작년에 12월 까진 있다가 또 막 또.. 정책 때문에 없어졌다가 생긴다 생긴다 그러다가 결국 3월에는 안열렸거든요. 안열리고 갑자기 이번에 6월부터 열린다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학원은 제가 돈을 내면,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지 않는 한, 보낼 수 있다는 그게 있는데.. 이건 또 갑자기 정책이 바꼈다 이러면 보내던 것도 못 보낼 수 있고, 보내고싶어도 못 보내고.. 그런.. 그 약간.. 걱정? 불확실성에 대한 그.. 왔다 갔다..좌지우지가.. 큰게 있으니까. (초등 1학년 학부모 B)

전일제 뿐 아니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학부모에게는 주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 토요일에 운영하는 방과후학교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 그리고 저는 사실 토요일날 출근 할 때가 있어서 못하는데, 토요일날 방과후가 있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엄마들이 그래서 자꾸 인기가 많아서 자꾸 증설되고 반 더 늘어나고 막 그렇게 해서. (초등 1학년 학부모 B)

방과후 활동으로 하는 체육 활동 중에는 그룹지도가 있다. 대표적으로 축구의 경우 같은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들이 모여서 주말에 학교 운동장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체육을 통해 같은 반 아동과 학부모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저는 반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 반친구 남자 애들끼리 모여서, 보통 남자 애들은 축구하고, 여자 애들은 생활 체육으로 하거든요. 남자 애들 거의 뭐 일주일에 한번? 일학년 딱 들어가면은 그 여자 엄마들, 남자 엄마들이 각각 뭉쳐갖고 생활 체육이나, 축구 같은 거를 많이 친목도모 같이 한번 더 이렇게 운동 할 수 있게 묶어주는 활동을 많이 해요. (초등 1학년 학부모 B)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과 달리 강사가 아이들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아동과 학부모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싫어할 수 있는 통제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방과후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수준을 믿지 못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 근데 학교에서 하는 돌봄은 중간에 이렇게 뭐 요즘에 보니까 오픈 클래스 해갖고 학부모들이 직접 가서 그 돌봄 서비스 그거를 볼 수 있나봐요. 방과후 하는거를. 근데 보고 오신 분들께서는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 있으시더라고요. 아이들을 그분들 눈에, 통제하기 어려워 보이신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아무래도 그 어떤 그 업체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대하기도 어려우신거 같고, 잘 통제가 안 되서 수업하는 동안 좀 보면서 너무 불편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빼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초등 1학년 학부모 A)

> 우선은 믿고 맡겼는데 가서 수업하는걸 보니까 그분들이 아무래도 좀 교사로서 아무래도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잘 잡히지가 않고 하니까. (초등 1학년 학부모 A)

> 무섭게 하면 애들이 싫어서 안다녀 이렇게 되잖아요. 끊을래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방지 해야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따듯하게, 뭐 좋게 말하면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거고, 사실은 이제 무섭게 하기가 힘들어서 네.. 그런.. 그 부분 좀 아쉽더라고요. (초등 1학년 학부모 A)

2)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방과후학교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강사 지위가 안정되지 못하고 서비스 수준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비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그러다가 수시로 바뀌는거 같기도 하고, 그 분들 자체가 아무래도 음.. 그.. 일하면서의 불안정 때문에 아무래도 수업에 지장은 어느정도 있지 않을까. 그 분들이 안정되고,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방과후도 더 단체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초등 1학년 학부모 A)

정부나 무슨.. 그런 중간에 방과후 업체가 민간이 아닌 좀 그런.. 정부쪽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이 된다고 하면, 돌봄 이 방과후 퀄리티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거의 솔직히 그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일찍 오기 때문에, 아이들을 늦게 찾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부분..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초등 1학년 학부모 A)

민간 업체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더 믿음이 간다는 응답도 있었다.

업체 이런거 보다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면 훨씬 더.. 믿음이 가요. 저희 둘째는 잠실 청소년 무슨 종합센턴가 거기서 떡 만들기 이런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 믿는게 있죠. 아무래도 그냥 일반 사설보다는 구 이름이 하나 들어가면..(초등 1학년 학부모 A)

수학 이런거. 영어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구몬 수학을 하고, 그 동네 주민 센터에서는 미술이 있어서, 주민 센터에서는 미술을 좀 저렴하고, 경쟁률이 치열하지만 인기가 꽤 있거든요. 강좌가 그런 주민 센터같은데서 많이 있으면은 집에서 가깝고, 충분히 그쪽 교육도 같이 이용하는 것도 되게 편하고 좋은거 같아요. (초등 1학년 학부모 A)

3) 방과후학교 수강료

방과후학교 수강료에 대해서는 학원보다는 저렴하지만 주민센터 등 공공기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보다는 비싸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돌봄 뒤 방과후가 가격이 좀 비싸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주민센터 보다도 더 비싸죠.. 그리고 재료비가 들어가는 그런 활동들은 수업료 보다 더, 그만큼의, 배 만큼의 재료비도 같이 들어가서 방과후를 이용하는 메리트가 조금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 1학년 학부모 A)

보드게임은 7만5천원에 재료비가 3-4만원? 해서 한 11만원정도.. 그 로봇은 더 비싸. 한 수업 7-8만원에 재료비가 또 7-8만원정도 들어가.. 그 어떤 업체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방과후를 하는 업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선생님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지는 않을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더 좀 저렴하면은.. 퀄리티 부분을 높히거나, 아니면 저렴하거나, 둘 중에 한 부분이 된다면.. 그럼 충분히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주민센터는 3달에 보통 4만5천원? 5만원? 이러거든요. (초등 1학년 학부모 A)

보통 한 과목에 수강료가 9만원. 재료비 합쳐서 3개월, 3개 과정에 41만 4천원 한 달에 3만원 꼴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싸죠. (초등 1학년 학부모 E)

라. 조부모 및 육아도우미 지원

초등학생을 위해 사용하는 육아도우미 서비스는 영유아 시기와 달리 직접 돌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기관과 기관, 기관과 집 또는 놀이터를 연계하는 이동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초등학생 시기는 교우 관계가 활성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슷한 또래의 아동들과 만나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아도우미의 역할이 영유아 시기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리고 다니시긴 하고, 초등부터는 제가 봤을 땐, 돌봄이 필요하기 보다는. 뭔가 교우들과의 그런 사회 생활을 많이 하다보니까, 결국은 그냥 학원에 가거나 그런 식으로 어디서 어디로 데려다 주는 역할만 해주시고, 그 분이 직접 아이를.. 저도 같이 놀기는.. 이제 초1이 되니까.. 아무래도 친구랑 함께 노는게 좋다보니까.. 이동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돌봄을 직접으로 하기는 힘들거 같아요. (초등 1학년 학부모 A)

> 놀이터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오니까, 아이들하고 노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기 위해서 놀이터로 그냥 가고, 많이 놀고 하더라고요. 적응을 잘 했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일단 첫 사회 생활하는.. 직접 오시는 엄마들도 많고.. (초등 1학년 학부모 A)

맞벌이 부모의 경우에는 아이의 등하교 등에서 조부모의 도움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 할아버지가 일단 하교를 해주세요. 등교, 하교를 조부모님이.. 지금은 가까이 사셔서 하시는데, 근데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아직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랑 떨어져 있어야하니까, 그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단 가야되는 상황이고..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이제 방과후나, 돌봄 끝나고 돌려야 되나, 아니면 사람 붙혀야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초등 1학년 학부모 C)

마. 초등학교 시수 연장

초등학교 시수 연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한 학부모들은 그 이유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닐 때보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하교 시간이 훨씬 빨라지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 저는 돌봄 이것도 중요한데... 선생님이 좀.. 오랫동안 그냥 봐주실 수 있으면..(학부모 A)

> 저는 한시간 만이라도 늘어나면, 더 좋을거 같고.. 너무 짧아서.. 또 그렇게 되면 결국 방과후랑 이런게 붙어서 느니까, 그냥 선생님한테.. 솔직히 이런 방과후나 돌봄보다는 담임 선생

님과 있는 시간이 더 긴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시수를 한두시간 더 늘어난다고 하면, 그거로 인해 아이들한테는 큰 지장이 없는데, 선생님들이 지장이 가시겠지만.. 교육자로써....(초등 1학년 학부모 A)

정규교육시간 시수가 늘어난다면 방과후과정을 쓸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방과후로 다른 업체를 써서 쓰는거도, 솔직히 이거도 있어서 쓰지만.. 더 늘어난다면 이거를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초등 1학년 학부모 A)

정규교육시간이 연장되면 아이들이 힘들지 않겠는가는 질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끝나는 시간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므로 정규교육시간이 연장되어도 적응이 가능할 것이고, 정규교육시간이 짧으면 부모가 돌보는 시간이 아니라 사교육 시간이 늘어날 뿐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아이들은.. 괜찮을거 같아요. 이미 벌써,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늦어진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세시에 하는거는 거부감이 없고..선생님이 안하신다...부모들은 원하기 때문에.. 그럼 그만큼 공교육이 포션을 차지하면, 사교육이 들어갈 틈이 없어지는.. 제일 이상적인.. (초등 1학년 학부모 A)

어리다고 엄마 손이 필요해서 일찍 마치는것도 있는데, 사실 엄마 손에 있지 않고, 거의 사교육으로 가게 되거든요.. 초 1,2도.. 어쨌든.. (초등 1학년 학부모 B)

담임 선생님하고 있는 시간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반에서 있는거를 즐거워하고, 잘 다니는거 같더라고요. 학교에서의 생활을.. 아이들이.. 그래서 더 늘어나는 건, 아이들은 더 좋을 거 같아요. 그만큼 반에 있으니까, 돌봄 보다 더 아이도 더 안정적이고, 보내시는 분들도 더 조금.. 이상적이겠죠? (초등 1학년 학부모 A)

현재 교육과정은 놀이를 병행하기 때문에 정규교육시간이 늘어나도 아이들에게 주는 부담은 적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책을 보니까, 예전같지 않던데요? 놀이를 병행 한다 잖아요, 중간에 얘네는 놀이감 가지고 정말 노는 시간도 있어요. 물론 이제 바닥에 앉아서 저런거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유치원에서도 7살때 책상에 앉아서 받아쓰기 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거든요. 미리 연습해라 에요. 1학년 가서 너네가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런게 아니고.. 일찍 스폰지처럼 스며들듯이 하는 시스템을 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딱하지 만은 않은거 같아요. 수업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아요. 수업 내용이 많이 하는거 같지도 않아요. (초등 1학년 학부모 E)

2. 제도적 문제

가. 인력 관리

1) 초등 돌봄전담사의 지위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초등 1학년은 초등돌봄교실이 공적 방과후 돌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공무직 파업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초등 돌봄전담사의 지위를 둘러싼 갈등은 초등 돌봄 서비스의 안정성 및 질 제고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 돌봄 수요에 부응하는 돌봄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돌봄 종사자들의 지위 및 인력 관리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가) 낮은 자존감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처우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교 내에서 교육에 비해 돌봄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에 있었다.

>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업무량에 비해 지친 상태에요. 초등돌봄교실의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지만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인정은 없어요. 돌봄전담사에 대해서는 하나의 진행자로서의 역할만 인정을 받고 있어요. 시민의식을 키워주는 것은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의 역할인데 care를 교육과 접목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에 학교 안에서 돌봄교실은 care하는게 소용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초등 돌봄전담사 A)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돌봄전담사라는 호칭에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돌봄전담사라는 호칭은 교사가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돌봄전담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유초중등 교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요구되지만 초등학교 정규교사가 되기 위한 교원 임용시험을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정규 교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돌봄이 교육보다 하위로 취급됨에 따라 돌봄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과 관련해서도 이 전담사 호칭이 나는 교사가 아닌거잖아요. 최소한 보육교사란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데, 유일하게 보육교사 또는, 그래도 전담사 만큼은 꼭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 다 교사잖아요. 근데 나도 어느날.. 저도 입사 할 때 보육교사로 입사를 했어요. 근데 어느날 전담으로 그게 호칭이 바뀌고 아이들과 부모.. 처음에는 지금은 그냥 적응을 하지만, 정작 돌봄이라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집에서 케어하는 돌봄 아주머니 이런식으로 교육받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도 받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학부모가 보육교사한테 말 놓고. 근데 선생님들이 힘들때도 호칭은 나의 정체성인데 나는 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지만, 교사가 아닌 진짜 전담사인 거예요. (초등돌봄전담사 B)

특히 회식이나 연수 등 다른 교직원들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돌봄을 이유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대해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교육에 비해 돌봄이 학교 내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다들 놀러가고 어디 갈때 저희는 남아서 애들 봐야 하니까. 그렇다고 니네는 이런거 하지 이런쪽에서.. 회식같은 거도 열외에요. 니네는 애들 봐야지 어딜가. 이런거에서 너무 서럽고, 일은 일대로 다 하고, 차라리 정말 우리끼리만 있으면 아 내가 일을 해야하구나 하는데,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나, 행정하는 실무원들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 비교 대상이 되잖아요. 비교되면 진짜 저희 허무해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는 좀.. (초등 돌봄전담사 C)

돌봄전담사는 정규교사에 비하여 학교 뿐만 아니라 학부모로부터도 교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체성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는 같은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다른 교직원들에 비해서 자신의 업무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사람은 정체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단 얘기가 있잖아요. 그니까 초등 전담 선생님도 정체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이분들은 그냥 이분들은 내버려둬도 잘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가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무가치하게 대해 왔어요. 그래서 가치를 존중할 줄 아는 사회정인 풍토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돌봄전담 선생님 중 한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부모님을 만났어요. 이게 진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얘기에요. 근데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 하냐면, 아 선생님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우리 애 돌봐주고.. 그런데 몇일 후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데 학부모를 봤는데 얼굴을 탁 돌리면서 아는 체를 안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니라면서요. 이런 인식들이 깔려있는데, 초등 돌봄이 개선된다? 저는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A)

그 분들도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지만, 뭔가 자기도 정식 선생님이 아니라는 그.. 생각이

있으시긴 한거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교사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가 그쪽에 대해서 얘기 하는거 보니까, 그렇게 돌봄 선생님으로 가면, 정식 교사도 아니고 해서 인정도 못 받고 조금..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초등 1학년 학부모 D)

나) 소속에 따른 종사자 처우의 차이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초등 돌봄기관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존의 초등돌봄교실 종사자와 처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같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소속에 따라 처우에 차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 한가지는 키움 센터가 생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센터장과 교사들과의 어떤 갭이 생겼어요. 그 갭이 조정이 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키움센터에 선생님들이랑 센터장 선생님들이나 교사와 비교가 되니까, 그거 스스로도 아.. 저쪽에서 지자체 소속이 되면 이런 대우를 받는데, 교육청 소속이 되어 있어서 이렇구나 라는 어떤 약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게 현실이구요. (초등 돌봄전담사 A)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학교에서 일을 시킬 때는 사명감을 많이 강조하지만 실제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제가 경험하고 얘기 들었을 때는, 선생님들 그래도 돌봄 전담이라지만 내 반을 맡고 아이를 돌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긍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근본적인 환경이 아예 개선되지 않잖아요. 아이들한테 케어가 되고 투자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은 있지만, 지쳐있는게 많이 봤거든요. 선생님 혼자 근무 했을 때는 그래도 학교에서는 굉장히 사명감을 많이 강조해요. 일 시킬때는 항상 너는 교사에요. 일 시킬때는 선생님이고 전문가가 돼있고 일 시키면 그래요. 전문가라 그러고..근데 선생님들 지쳐있는게 되게 오랫동안.. 선생들이 열심히 했기때문에 그렇고..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자존감이나 자부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초등 돌봄전담사 B)

다) 관리 책임 부담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비정규직인 지위에서 돌봄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진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학교 부장교사들이 담당해야 하는 관리 책임을 돌봄전담사들이 실제로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교 내 지위와 책임 간의 괴리를

느끼고 있었다.

> 사실 저희 무늬만 정규직이지, 알고 보면 비정규직이잖아요? 월급도 그렇게 받고 있고, 근데 진짜 그 학교 부장들 이상,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일들이 있고 프로그램 강사부터 체험부터 다 내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들어보면, 교육 관련 모든 행정 업무는 다 책임지고 있고, 똑같이 다 해야 되는 시스템에서 학교에서는 대단한 전문가라고 불러주지만 실제 일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위치가.. 내 위치가 그걸 추진하기 좀 그런.. 어떤 때는 대단한 전문가가 되고, 어떤 날은 정말.. 되게 서럽고.. 이걸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드는 생각은 이렇게 돌봄 형태가 돼있는데, 나의 위치에서 일을 시키는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워요. (초등돌봄전담사 B)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학교 내 지위와 비교하여 업무와 책임이 과중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 돌봄 업무 뿐 아니라 급식 및 특수 아동 관리의 문제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내가 학교에서 돌봄을 다 전담해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돌봄에는 한부모다 저소득층이 다 모든 아이들이 돌봄 1순위 잖아요. 그니까 사실 학교에 모든 어려운 일은 돌봄 선생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하는 일처럼 저소득.. 방학 때 같은 경우 급식도 다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일반 아동 뿐 만 아니라 특수 아동까지 있어요. (초등돌봄전담사 B)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문제 중 하나로 시간제 반 관리를 들 수 있다. 시간제 반이 증가하였으나 별도 인력 없이 전일제 돌봄전담사가 관리 책임을 떠맞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시간제 반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뭔가 정책을 할 때는 하고 싶은거를 정말 많이 잡았었어요. 그걸 누가 봤었겠다 할 정도로.. 근데 사람을 채용할 때 인력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전일제에게 관리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한 학교에 한명씩만 8시간 선생님을 쓰고 그러면 그것 통해 시간제 그 4시간짜리가 있는데, 그 반 운영 행정 지원이나 강사나 이런 사람 누가 관리하느냐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예요. (초등돌봄전담사 B)

라) 승급 및 임금격차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직원에 속하는데 무기계약직에 해당한다. 그 이전에는 계약직 신분이었으나 최근 교육청 소속의 무기계약직으로 전

환되었다.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직과 비교하면 고용의 안정성이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승급이 되지 않고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승급이 안된다는 것과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커지는 문제는 초등 돌봄전담사에게 돌봄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 또 지쳐있고 교장 교감 선생님 항상 사명감으로 아이들 많이.. 교사인데 하면서.. 근데 그것도 너무 근본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최저급여를 받고 일하는 상태에서 1년 일해도 10년 일해도 내가 월급은 그대로.. 개선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훨씬 많이 요구하는게 지친다.. 이게 과연 내가 그 형태로 아이들을.. 사랑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초등돌봄전담사 B)

마) 부가업무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돌봄 업무 자체 뿐 아니라 급간식 등 돌봄과 관련된 다른 업무가 자신들에게 책임이 오는 상황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 돌봄이라는 글자가 있는 거면 모든걸 저희한테.. 솔직히 간식이나 이런 것도 행정실에서 입찰을 해줘야 하는데, 전임 선생님들이 직접 해야지 이런식으로 나오면.. 저희가 다른 애들과 있으니까 어쨌든 애들 간식을 먹어야 하니까.. 하다보면 저희가 일을 다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는 일은 진짜 한보따리이고, 말마따나, 대우는 그냥 실무원들.. 애들 보지 않는 처우나 똑같이 받고 똑같이 받으면 차라리 나은데, 다들 놀때 우리는 일하고.. (초등 돌봄전담사 C)

2) 종사자의 자격요건

돌봄 종사자의 자격요건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에서는 유초중등 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돌봄 전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부모 및 주민이 자발적으로 돌봄에 참여할 수도 있다. 현재는 이러한 경우에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양한 경력을 지닌 부모들을 돌봄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박혜준 외, 2018: 118).

>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마을학교로 만들었는데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마을주민이 마을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예산지원을 받은 것은 00군에서 마을회관 리모델링비 2,500만

원만 지원받고 그 외는 지원받은 게 없어요. (00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회장 A)

2019년 8월 27일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에서 충남교육청은 온종일 돌봄시설에 “마을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돌봄시설”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국회 교육위원회, 2019: 25). 이러한 의견은 기존의 돌봄체계가 기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종사자의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돌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공간 배치 및 확보

스웨덴의 레저타임센터를 예시로 초등 방과후 돌봄을 위한 공간이 단순히 학교 내의 교실이 아니라 별도의 건물인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아이들이 좋아할 공간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의 교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애초에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주 체계가 잘 돼 있어요. 법이 있어요. 교육법에 근거하고 있고, 초등학교 1,2,3학년 아이들이 주로 머무는 레저타임센터가 있는데, 교실로 존재하는게 아니라, 건물로 존재해요. 그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면, 체육관 하나 크기예요. 학교 체육관 하나같이 크고 좋은 시설인데, 요즘에 일요일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거 있잖아요. 아빠가 아이 데리고 키즈카페 같은데 가면은 지난주에 봤는데, 애들이 엄청 좋아하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 뿐 아니라 체육활동, 예술활동, 낮잠, 휴식 이런거까지.. 그야말로 좋은 공간이 하나의 건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시청 교육혁신지구 협력관 A)

공간의 문제 뿐 아니라 스웨덴과 같이 보육 교사를 정규직으로 선발하여 정규수업과 연계하여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물론 이러한 방안은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거버넌스 구조와 교사의 신분이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통합되어 있고 공립학교의 교사는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분리되어 있고 공립학교의 교사는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교육과 돌봄이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

고 교육과 돌봄을 담당하는 교사의 신분 역시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레저타임센터에 있는 선생님들은 정규 선생님이에요. 교사에요. 그리고 그분들을 별도로 뽑는데 자격 조건은, 대학 3년제 이상에 그 과정을 통과해서 선발이 되면 보육 교사가 되고 일반 정규 수업하고 연결해서 서로 협력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잘 발달 돼 있었어요. 1997년부터 법이 만들어 지면서 세팅이 되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스웨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을텐데, 그만큼 사람에게 투자를 많이 하는 선진국 국가고 그러다보니까 이걸 미리 세팅을 해놓으니까, 1,2,3학년 대부분의 아이들이 해요. 근데 그건 돈이 무상은 아니고, 소득에 따라 약간 비례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4학년 이상의 아이들은 개방형 레저타임센터, 학교 밖에,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개방형 레저타임센터에서 자유롭게 등록해서 왔가 갔다 하는데, 거기도 엄청 많은 아이들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게 잘 세팅 돼있죠. (시청 교육혁신지구 협력관 A)

별도의 건물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좋아할 공간을 배치하는 것은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 의미가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고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 초등학교 1,2,3학년 만큼은 너무 좋은게,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동의 문제라든가, 관리 문제 이런거 자체가 밖으로 나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팅이 잘 되어있던 거 같아요. (시청 교육혁신지구 협력관 A)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제정된 법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예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 규정을 들 수 있는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였는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 3~6학년이 여기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3~6학년이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읍·면·동에 설치하여야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문화시설이 실제로 활성화된다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지만 경로당과 노인복지센터 등에 비해 설치 수준이 미미한 실정이다.

〈표 Ⅴ-2-1〉「청소년 활동 진흥법」상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 규정

구분	내용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19. 10. 21)

현행 우리나라 법에도 여가부가 관할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게 되어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3,500개 운영이 있어요. 근데 청소년 문화가 강제 조항이거든요. 서울시장과 25개 지자체 구청장님들이 그거를 법을 이행해야 되는데, 전국 3,500개가 있는데, 전국에 278개 밖에 안돼요. 그니까 10프로도 안돼요. 읍,면,도마다 한 개 이상 두게 되어 있는데.. 운영해야 해요. 근데 스웨덴 개방형 레저타임센터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청소년 문화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데죠. 서울만 424개 군에 15개 밖에 없어요. 그니까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나, 아동에 대한 정책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있는데도 안지켜요. 이거는 어찌보면 고발 대항할 그런거거든요. 엄청 쎈 법이에요. 설치, 운영 해야한다고 써있어요. 그런데 동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 센터는 3~40개 되는데가 허다해요. 한 동에..그니까 노인들을 위한 복지나 이런것들은 어마어마한데, 아동을 위한거 자체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역습이 오는거죠. 그 문제가 심각한거 같고. (시청 교육혁신지구 협력관 A)

다. 돌봄 서비스 간 연계

1) 학교 안 돌봄과 학교 밖 돌봄

돌봄 서비스 간 연계는 학교가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하는 것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관계부처 합동, 2018b)」에서도 제시된 방향이다.

> 그 다음에 연결 해줘야되요. 지역에 있는 지역 아동 센터는 3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와 헌신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니까 이런 분들이 지역의 아이들 돌봄과 현장에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그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를 커브로 해서, 학교를 연결하되, 그거를 연결할수 있는데도 지자체라고요. 지자체가 역할을 하고, 협력인데 (시청 교육혁신지구 협력관 A)

그런데 문제는 학교 안과 밖을 연계하는 것이 현장 종사자들에게는 어렵다는 것이다. 학교 안에 있는 돌봄 종사자들이 실제 지역돌봄 시스템에 참여하여 연계는 것이 교육과 복지의 거버넌스 분리로 인하여 실제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 그리고 저는 그 프로그램 쪽은 저희가 조금 지역과 연계하면서 외부에 나가가지고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런 일을 접했을때, 나도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면은, 뭔가 되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육 기관, 학교라는 교육이 높아가지고,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나가서 회의에 참석하고싶고, 어떤 곳에 가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가장 문제인거 같아요. 좋은 프로그램, 아이들이 나갈 수 없어. 그러면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올수는 있어요. (초등 돌봄전담사 E)

특히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전일제로 혼자 근무하는 경우 지원인력이 없으면 외부에 나가서 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위한 활동이 어렵게 되어 있다. 현장 종사자들이 학교 밖에서 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실제로 수행하기에는 지장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근데 문제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체육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엔, 저희가 돌봄부 쪽에서는 그런게 커뮤니티가 되게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 사회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나 기관들, 이런 곳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하고 현장 학습도 가고, 그런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근무를 하면서, 이제 더더군다나 나갈 수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문제는 출퇴근 시간에 다 학교 가야되잖아요. 그니까 아이들이 해마다 연도가 달라지면서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인력도 없어요. 지원 인력도 없는데다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이 연결망이 다 끊겨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될지 이것도 불투명 해졌어요. (초등 돌봄전담사 E)

학교 안 돌봄과 학교 밖 돌봄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적인 기반이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기반 위에서 시설, 예산 인력 관리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의 들어오는 입실 상황도 전체 초등학교 수의 25퍼센트 밖에 안돼요. 현재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그니까 너무 적은 숫자인데, 어쨌든 저는 1,2,3학년 정도는 학교 안에서 하는게 되게 효과적이다. 근데 그거를 지원과 시설과 돌봄.. 스웨덴처럼 아예 정규 교사로 세팅을 해서 정확하게 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시설도 개선하고 그렇게 그거에 관리나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게 좋은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니까 법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이들 시선에선 그냥 힘들고, 부모는 좋고, 그니까 이제 2학년 되면 아이들이 돌봄교실에 오는게 버겁지만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하고. (시청 교육혁신지구 협력관 A)

2) 공적 돌봄과 사적 돌봄

공적 돌봄이 초등 방과후 돌봄을 책임지지 못하고 사각지대가 형성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사적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공적 돌봄의 부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메우는 사적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돌봄 교실보다도 더 많은 상당수 아이들은 방과후학교에 다 가있어요. 근데 방과후학교는 돌봄처럼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애들이 메뚜기처럼 돌아다니잖아요. A반, B반, C반. 이렇게 배치되고.... 마지막으로 상업이 잘 되는 곳이 태권도 학원, 검도 학원이.. 오후 한두시에 학교 후문이나 정문에 딱 버스 대기하고, 학생을 모셔가요. 그리고 부모님이 올 때까지 맞추려고 해주고, 동네 그런 곳이 상업중이에요. 독일이나 유럽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사회의 서비스나 국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상업자들이 돈벌이로.. 키즈카페도 그게 다 그냥 뭐.. 다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정책 자체가 제대로 세팅 안 된다 보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시청 교육혁신지구 협력관 A)

학부모들은 공적 돌봄과 사적 돌봄을 양자택일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각자 자신에게 최적화된 조합을 추구하기 때문에 초등돌봄교실의 의무이용 시간을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돌봄의 최적 조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초등돌봄교실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거기는 무조건 처음에는 하루, 이틀 나갈수 있어요. 어머님이 데리러오면 나갈수 있어요.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른 엄마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거는 위험하니, 뭐 어떤 애는 일찍 나가고 어떤애는.. 막.. 이게 관리가 안될 수 있으니까, 아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초등 1학년 학부모 B)

> 저는 여기서 방과후를 가는 거예요. 돌봄 교실에서 선생님이 방과후 반으로 아이를 방과후 수업을 월,수,금 세 과목 하는데, 돌봄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보내주죠. 방과후 반으로.. 학교 밖으로는 못나가게 되어있어요. 중간에 학원을 가게 되면, 다시 돌봄으로 오지 못하는.. (초등 1학년 학부모 C)

> 월,수,금 영어 가고, 화,목은 그 학교 방과후 로봇 만들기 하고, 보드게임 하루씩 하고. 보통은 12시 50분에 마치는 날이 두번 있고, 한시 반에.. 한시 사십분에 마치는 날이 세번이어 가지고, 그 방과후는 한시 40분에 마치는날 맞춰서 두시부터 시작 하거든요. 한시 반까지 쭉, 한시간 반동안 해서 세시 반까지 시키고, 월,수,금은 이제 영어 때문에 열두시 오십분까지 받아서 한시간 놀이터에서 놀고, 입에 뭐 간식 넣고, 바로 또 셔틀 태워서 보내고 (초등 1학년 학부모 B)

라. 거버넌스의 분절화

초등 방과후 돌봄 정책에 대해서 거버넌스의 분절화 문제가 제기되었다. 초등 방과후 돌봄 정책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다 보니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되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부처 칸막이는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지난 정부까지 어떻게 했냐면 초등 방과후 돌봄 정책에 4개 부처가 모였어요.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행안부 네개가 모였어요. 4개 부처가 모였는데, 아시다시피, 공공위원도 계시지만, 공직 사회에는 성과금이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국장급부터는 공무원 성과금 공제도 시작 되면서 이게 보이지 않는 성과 급제가 있어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부처간 칸막이가 허물어지지 않으니까 위에서도 허물어지지 않는 칸막이를 밑에서 어떻게 평정을 하겠어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A)

초등 돌봄전담사들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유초중등 교사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17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d: 18). 면담에 응한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은 보육교사이면서 소속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거버넌스의 분절화에 기인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는 교육청 소속이라서 복지부, 여가부,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1개원을 관리하는 것처럼 규모가 커졌으나 업무를 도와주는 개선방안이 없어요. 지금은 2기 전환점으로 양적확대 뿐 아니라 질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기에요. (초등 돌봄전담사 A).

거버넌스의 분절화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 사항 중 하나로 대체교사 문제를 들 수 있다.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병가 시에 대체교사를 구할 때 교육청의 대체교사 인력풀로 불충분할 경우에도 거버넌스의 분절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같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소속에 따라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 현장제안 사항으로 대체교사 문제가 있어요. 돌봄전담사는 병가 시에 대체를 구하는 것에 굉장한 곤란을 겪어요. 교육청 인력풀 운영이 형식적이라서 도움이 안되요. 어린이집 같이 지자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1학교당 1명 지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똑같은 보육교사인데도 교육청 소속이라 지자체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초등 돌봄전담사 A)

특히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다함께돌봄센터 확대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모두 보건복지부 관할 돌봄기관이지만 이용 대상 아동의 자격요건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이면 이용자격에 제한이 없다. 기존에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입장에서는 인근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될 경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돌봄 현장의 생태계 문제를 정책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현장의 생태계를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연못에다가 황소개구리를 넣어 놨어요. 그러면 현장은 당연히 유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초등 돌봄도 마찬가지고. 바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얘기하는 순간 자기 직무에 대한 위화감을 느껴요. 얘기는 못하는데 유독 많은게 아동센터거든요. 그니까 생태계가 파괴가 됐어요. 지금 있는 지역아동센터 120미터 옆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생겨요. 관계자 분들이 저희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현장은 다 반대를 해요. 그런데 현장은 반대하지만, 이미 정책은 결정을 하고 정책을 하고 통보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로 차원에서 오신거 같아요. 듣기에는.. 이게 뭐냐하면,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한번 발을 담그고 나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힘들잖아요. 이미 물은 건너 간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A)

거버넌스의 분절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안 돌봄에 관여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초등 온종일 돌봄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되었으나 실제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돌봄에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나라 초등학교 돌봄이 네개 부처가 다 찢어져 있잖아요? 지역 아동 센터는 보건복지부고, 방과후학교는 여가부고, 학교 초등 돌봄은 교육부에요. 하나 어디죠 또? 보건복지부도 다함께 돌봄도 있어서 그니까 지자체 장이 학교 안에 돌봄 교실을 관여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도봉구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 몇백만원씩 프로그램 지원해주고 그런게 있는데.. 그거는 되게 작은거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업을 하려면, 지역 전체 돌봄을 지자체 문제로 밀어낼 필요가 있고, 지금 초등 온종일 돌봄 정책은 지자체가 협의 의장이고, 지자체가 관여할 일이에요 이건. 근데 학교하고 협력은 하지만, 지금 학교 돌봄 교실은 부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정책 자체가 집행이 안돼요. (시청 교육혁신지구 협력관 A)

이러한 거버넌스의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초등 돌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초등 방과후 돌봄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교 안 돌봄과 학교 밖 돌봄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법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찢어져 있는 이거를 이거 자체를 모아서, 아동, 청소년 분야 만큼은 국가가 제대로 대통령 직속이 힘을 가지고 세팅해.. 그 속에서 지자체가 관여를 하게 된다면, 이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중구 잖아요. 중구청 부장이 지금 지자체에서 만든 학교 돌봄 교실을 만들고 있어요. 예산도 좀 많이 투여하고, 학교 돌봄 교실과 지자체가 만든 돌봄 교실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이런.. 전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효과를 목적으로 그렇게 뭔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책 자체가 혼란 속에서 새롭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청 교육혁신지구 협력관 A)

초등 돌봄교실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이 강화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고 있었다.

> 사실은 지자체에서 학교에 지금 봉사자로써 지원센터 라든가, 아니면 코디맘이라든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는 경우처럼, 돌봄 교실에 지원을 해주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초등 돌봄전담사 A)

지방자치단체가 초등돌봄교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중적인 행정 업무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예를 들어 공문을 작성하는 경우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보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관리감독이 일원화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이중적인 행정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돌봄 현장에서는 우려하고 있었다.

> 지자체 얘기가 나와서.. 그 생각이 뭐냐면, 저희는 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학교 감당이 힘들어.. 지자체에서 했으면 좋겠고.. 저희 눈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저희가 학교 교육부 소속으로 있는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구청에 있었어요. 이 돌봄 자체는 지원비를 구청에서 줬었어요. 저는 구청에서 월급을 받았었어요. (초등 돌봄전담사 B)

> 왜냐하면, 나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교장, 교감, 행정 실장님까지 교육청까지 뭐든 똑같이 다 가요. 그리고 별도도 강남구청 그 감시를 그 문서 공문을 또 올려야해. 이중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중 일을 했었어요. 그니까 이게 지자체로 간다는게 학교가 완전 돈이 독립이 되면 지자체로 가는것 대찬성이에요. 근데 학교에, 지자체에서 책임 질 부분은 지자체고, 책임 안지고 나의 모든 일적인 부분에서 또 학교 관리, 교육 공문 똑같이 교육 받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초등 돌봄전담사 B)

이에 대해 스웨덴 레저타임센터와 같이 학교장과 구별되는 별도의 센터장이 관리감독 책임을 맡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스웨덴 레저타임센터화 되면서 발전되면 관리 권한과,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레저타임센터장이 따로 있을 거예요. 학교장이 다 관할 하는게 아니라, 분화 시키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시청 혁신교육지구 협력관 A)

초등돌봄교실의 정책에 대해 교육청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그 이유는 초등돌봄교실이 원래 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청과 학교는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돌봄교실이 확대되는 것에 소극적이다. 돌봄은 교육과 구별되는 기능으로 교육청과 학교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초등돌봄교실 확대는 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저출산 대책 등으로 추진한 정책이기 때문에 초등돌봄교실 정책은 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이게 지금 교육청에 포커싱을 두게 되는데요. 교육청도 완전 중간이에요. 국가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이걸 확 밀려 했잖아요. 교육청이 하겠다고 해서 한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밀어 붙인 거거든요? 그니까 그 무게가 엄청 크기 때문에 한 것인데, 000교육청을 예로 들게요. 초등교육과 안에 방과후팀과 돌봄팀이 같이 있어요. 돌봄 전담하는 장학사는 많아야 둘일 겁니다. 사무만 보고 있어요. 그니까 가이드라인만 넘겨도 토스의 역할만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교육청에 아마 교육협력복지과 안에 교육복지팀이 담당하고 있는데, 예산 배부하는 일만 하고 있어요. 그니까 이게 000 교육청도 관심을 갖고 할 여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이게 국가 사무의 압력을 받다 보니까, 넘겨만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교육청 예산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것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지금. 초등 돌봄 관련 예산 교육부가 편성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배부만 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교육청으로 가도 정책이 바뀌기 어려워요. 이게 국가로 가야해요.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너무 열악하다. 세계 경제 대국인데.. 새롭게 세팅해서 뭔가 나가야 된다고요. 지금 너무 교육청에게만 표적이 돼서. (시청 혁신교육지구 협력관 A)

마. 법적 근거 부재

초등 방과후 돌봄 정책에서 법적 근거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책 추진에 한계가 된다. 보건복지부 관할의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여성가족부 관할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한 돌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현재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근거는 교육부 고시인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인데 교육부 고시는 법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 법으로 보면, 지금 현행에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초중고의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는 상태로, 무법 상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련된 근거는 교육부 고시에, 교육부 교시는 법이 아니거든요. 초중고 총론만, 교육부 고시만 있기 때문에, 법이 없어요. 만약에 근데 법이 왜 없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법이 만들어 지기 전에 양상이 달라질 거예요. 상당한 양상으로 발전 될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무법적으로.. 이 정책이 해왔던 거예요. 방과후학교도 마찬가지에요. (시청 혁신교육지구 협력관 A)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관련 법안이 많이 제출되었으나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기만료폐기가 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은 국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하다가 알아본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놀란게 초등 돌봄 교실은 법안이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작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아무도 안움직이지? 되게 궁금해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A)

아. 수익자 부담

초등돌봄교실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무상프로그램 외의 추가 프로그램과 급간식의 경우만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한다(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c: 7). 그러나 수익자 부담 항목을 이렇게 제한할 경우 보조인력을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조인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안전문제로 인해 바깥놀이 등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보조인력을 사용하지 못하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실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 처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했어요. 수익자 부담으로 했을 때는, 6만원에서 7만원 사이를 받았는데, 그때는 보조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식 준비를 맛있는 것을 많이 해주셨고, 보조 선생님의 역할은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고 싶으면, 제가 방과후 아이들을 수용 해야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제가 돌보거나 바깥에 돌봄을 나가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책 사업을 하면서 수익자금을 안 걷게 됐잖아요? 그래서 보조 선생님을 못 쓰는게 가장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바깥 놀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놀 때 가장 저희에게 주입 시키는건 안전밖에 없습니다. (초등 돌봄전담사 D)

초등돌봄교실에서 지적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아동들이 지나치게 실내에만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학교라는 공간은 운동장이 있어서 바깥놀이를 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보조인력을 사용하지 못하면 바깥놀이를 하기 어렵다. 초등돌봄교실에 있는 아동들은 방과후학교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제가 아무리 잘 해줘도 시설이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실내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1,2학년 정말 학교라는 곳이 좋다고봐요. 왜냐하면, 운동장이라는게 있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커다란 운동장이 어디에 있어요. 학원에도 없고, 키움 센터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운동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섯시까지 실내에 있어야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임장을 봐야하는데, 돌봄 교실은 똑같이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방과후를 갔다 오고, 방과후 시간도 다 다르고, 귀가 시간도 일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초등 돌봄전담사 D)

아동돌은 바깥놀이를 원하지만 보조인력이 없을 경우 안전관리 책임을 모두 돌봄전담사가 져야 하기 때문에 아동들이 실내에서만 있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 그러다보니까, 실내에 있으면 나가고싶어도 못나가요. 근데 저는 그냥 나가라고 하기도 해요. 제가 숙제 지도 끝나고 갈게. 그러면 저의 부담은 어마무시해요. 사고가 나면은, 안전하지 않았다. 책임이 엄청 크고. 제가 그 책임을 감수하면서 내보내지만, 제가 언제나 불안하고, 우리 아이들은 나가기 위해서 다리를 붙잡아요. 오늘은 안될거 같아 그러면, 제가 너무 충격을 먹은게, 선생님 이번에 딱 한번만 나가요. 이럴 정도로 나가서 노는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어떠한 프로그램 하나보다도 큰 놀이인데, 그걸 돌봄에서 지금 몇프로나 남았을까요? 거의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해 줘야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보조를 쓰는 문제... (초등 돌봄전담사 D)

자. 돌봄의 방향 및 관점

돌봄의 방향 및 관점에 대해서 돌봄은 어른 중심적인 개념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아동의 관점에서는 돌봄보다는 여가 또는 레저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시각이다.

> 돌봄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함의가 있는데, 저는 적어도 초등학생부터는 돌봄이라는 말이 적당할까 하는 의문이 좀 문제거든요. 돌봄이라는 말의 용어가 영어로 케어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의 돌봄이 적합한가를 봤을 때는, 결국 어른의 얘기에요. 아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가시간으로 봐야 해요. 정규 수업시간 끝난 이후의 시간으로 봐야한다. 그래서 스웨덴이나 유럽에서는 에듀케어센터라 하지 않고, 애프터스쿨이라고 부르지 않고, 레저타임 이라고 불러요. 독일도 레저타임이라고 부를 거예요. 스웨덴도 여가센터라고 부르거든요. (시청 교육혁신지구 협력관 A)

초등돌봄을 보는 관점은 국가, 학교, 부모,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도 제시되

었다. 국가의 시각에서는 방과후학교가 원래 사교육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이 시작되었고 초등돌봄 역시 부모가 부담하는 사적 돌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의 시각은 비용을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 다섯가지 시각으로 봐야하는데, 국가의 시각, 학교의 시각, 부모의 시각, 아동의 시각, 지역의 시작으로 나눠 보면요. 국가의 시각은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방과후 돌봄보다는, 방과후학교 정책이었어요. 방과후학교 정책은 노무현정부에 시작했는데, 사교육비 때문에 시작했던 거예요. 사교육비가 엄청 높아서 학교에서 싼 값에 해보겠다고 한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은 레저타임의 정책인데, 노무현정부 때 시각 자체가 학생의 입장이 아니라, 사교육 절감으로 생긴거죠. 그리고 학교의 빈 교실에 학원보다 싼값에 강사를 불러서 시키겠다. 그거와 함께 돌봄 교실이 들어왔는데, 국가가 어찌되었든, 국민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초등의 돌봄 공백이 엄청나게 크다보니까 해결 할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만한게 학교였던 거예요. (시청 교육혁신지구 협력관 A)

아동의 시각에서는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이 실내의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장시간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머물고 싶은 공간이 아니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아동의 시각으로 혹은 전담 선생님들 시각으로 보면요. 시설 상태가 너무 안좋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건 돌봄교실이 아니라.. 수용소다.. 교실에다 아이들을 집어 넣는 거예요. 조금 리모델링 해서 바닥에 온열 장치만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도 되게 힘드신데, 아이들 시각에서 보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아침 9시에 왔어요. 그럼 보통 요즘에 돌봄 교실 몇시에 끝나나요? 다섯시에 끝나죠? 아이는 아홉시에 학교에 와서 다른 애들 집에 갈때, 다시 돌봄 교실에 가서 다섯시, 다섯시 반까지 있으니까, 거의 8시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시청 교육혁신지구 협력관 A)

아동의 시각에서는 공간의 측면에서 초등돌봄교실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달리 아동친화적으로 조성된 공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학교라는 공간이.. 머물고 싶은 공간이 아니에요. 그니까 아이는 온 몸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거예요. 유치원, 어린이집 때와는 달리, 1학년 교실에 들어가 보면, 약간 삭막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닌 상태에 있는데, 5시까지 있는 아이는 되게 힘들죠. (시청 교육혁신지구 협력관 A)

그러나 부모의 시각에서는 안전의 측면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선호한다.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돌봄 서비스이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학교 밖 돌봄보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 부모의 시각으로 보면, 여기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안전하고. 부모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우리 교육 정책 중에 만족도가 최고고요. 그리고 국정 과제 중에서 1순위이었어요. (시청 교육혁신지구 협력관 A)

차. 교육과 돌봄의 관계

초등 방과후 돌봄을 보는 학교의 시각은 교육과 돌봄은 구분되고 돌봄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학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해야 하고 돌봄은 복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의 시각과 지역의 시각을 말하면, 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인데 법도 없는 상태에서 방과후학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돌봄교실도 들어왔어요. 전담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교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 교육 과정을 훼손시켜야 돼요. 이게 업무 자체를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니까 학교의 시각에선 이거를 지자체가 어떤 역할 해주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어요. 전국의 초등학교를 조사해 보시면 8~90퍼센트 이상 나올 거예요. 압도적으로. 지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 중요성은 알겠는데, 감당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돌봄전담사한테 다 쏠리는 거죠. 방과후 부장이 담당하기는 하지만, 업무 자체가 방과후 부장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교사가 여력이 없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담사들이 업무를 다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식이고. (시청 교육혁신지구 협력관 A)

이에 비해 초등 방과후 돌봄을 보는 지역의 시각은 돌봄은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학교와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한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 지역의 시각에서 보면, 아동친화도시나 혁신교육 지구를 하게 되면서, 이 지역에서 아이들,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니까 지역에서 아이들을 함께 마을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우리가 소중한 이 아이들을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은 들었는데, 어디서 막히냐 하면, 예산과 인력 면에서 이 부분이 막혀 있거든요. (시청 교육혁신지구 협력관 A)

돌봄에 대한 학교의 시각은 안전하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시각에서 엿볼 수 있다.

물론 안전은 돌봄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전 뿐만 아니라 아이의 발달에 알맞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돌봄에 대한 학교의 시각은 정규교육활동에 방해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제가 깜짝 놀란건, 저희 연수 때도 교육 담당자란 분이 너네들이 숙제를 잘 봐줄 것도 없고, 다 잘 봐줄거 없다. 그냥 그 시간에 안전하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보육이라고 하는것은 교육과 돌봄이 같이 있는 건데, 제일 창의성이 발휘되는 이 아이들에게 그냥 안전하게만 이 교실 안에 박아놔라 라는 메세지를 연수 때 줘가지고 제가 메일까지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는 보육에 대한, 이 돌봄에 대한, 교육자. 책임자들이 너무 되게 가볍게 여긴다는거.. 이것도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규 교육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중요한 교육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끝나고 봐주면 돼 라는 인식이 관리자에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연수때 조차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초등 돌봄전담사 D)

초등학교에서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 통합적으로 돌봄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과 돌봄의 제도적 구분에 따른 한계는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저해하고 있다.

> 월급 부분도 있지만, 이해 자체에서 치부시 되는게 있어요. 정규 과정 뒤에 너는 비정규직 사람이야. 그냥 있으면 되는 사람, 이런 존재에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 아이가 문제 되는 것을 담임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되는게 맞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은 굳이 나랑 협의를 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죠. 왜? 너는 나랑 다른 존재라는 인식이 말로 표현은 안하지만, 깔려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 붙이기 어려운게 있어요. 근데 간혹, 어떤 선생님은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이렇게 되는구나. (초등 돌봄전담사 D)

카. 부모와의 협력

초등 돌봄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돌봄 시간의 확대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아동에게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부모가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해결 해주고, 센터에 보내면 센터에서 해결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상담하고 있어요. 상담을 해도 부모님이 아시는 거보다, 센터에서 알고 있는게 훨씬

>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 하세요. 내가 거기 보내니까 니들이 키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부모님이 안하시는데 저희가 왜 해야 할까요? 저는 부모가 아닌데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는데도, 전혀 하지 않으세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B)

기관에서 돌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부모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는 아동에게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 솔직히 아침에 가족들과 아침을 먹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각자 시간대가 다 다르고, 아침을 거르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럼 학교에 가서 밥을 먹어요.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가 학원도 갔다가 센터도 와서, 7시 8시에 집에 돌아가거든요. 저녁을 여기서 먹어요. 간식도 여기서 먹고.. 단 한 끼도 부모와 하지 않아요. 부모는 무엇을 할까요? 단 한 끼도 하지 않는데, 왜 자꾸 교사들만 더 늘리고, 왜 자꾸 돌봄이 할 수 있는, 타인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만 만들어 줄까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B)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돌봄 시간 확대에만 정책을 집중할 뿐 아니라 부모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시 말해서 돌봄 정책은 노동 정책과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맞벌이 가정은, 부모가 아이들을 케어 하지 못하는 거를 국가가 해줄 수 있는 키움센터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 것 같다 하지요. 하지만 조건은 있었어요. 그래도 부모가 아이들을 케어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직장이나 부모가 일하는 근무지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좀 더 근로기준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낸 거예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도 7시, 8시 넘어 퇴근해요. 저도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사회복지사들 중에 여성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의 아이들은 어디서 방임 되고 있는 건가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 말씀처럼, 학교 돌봄 5시까지 하고, 그 뒤로는 지역에 있는 센터. 저희 아이들은 계속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건 결국 악순환이 계속 되는거 잖아요? 그러면 부모들도 일찍 끝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일찍 아이들을 데려가고, 여기에 돌봄 하시는 저희 센터나, 학교 돌봄 선생님들도 일찍 끝나서 자기 아이들 케어 하면, 훨씬.. 가장 좋은.. 그게 저희 아이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저희 센터 다니는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면 좋겠다고..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B)

VII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설문조사 결과 분석

01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조사 결과

02 만5세 돌봄 수요 조사 결과

Ⅶ.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조사 결과

가. 초등 1학년 자녀 돌봄 시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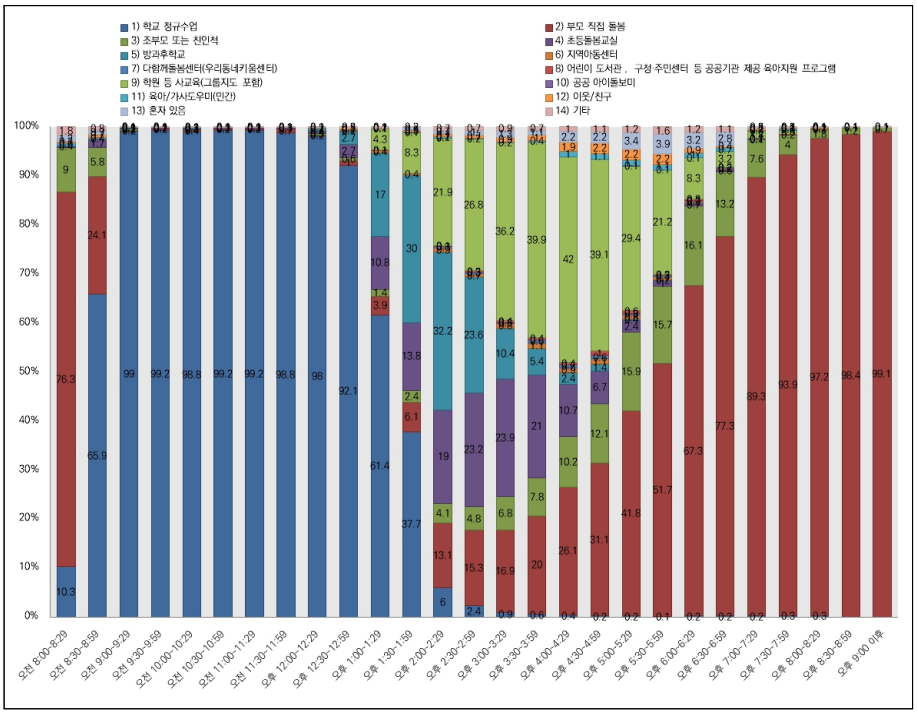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30분 단위로 어디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돌봄을 받는지를 조사하였다. 세부적으로 학교 정규수업, 부모, 조부모 또는 친인척,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공기관 제공 육아지원 프로그램, 학원 등 사교육, 공공 아이돌보미, 육아/가사도우미(민간), 이웃/친구, 혼자 있음, 기타로 구분하여, 학기 중/ 방학 중에 각 시간대별로 어떤 돌봄을 받는지 조사하였다.

1) 학기 중

조사에 참여한 전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기 중 돌봄 시간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아동은 기상 후, 부모의 직접 돌봄이나 조부모 또는 친척의 돌봄을 받다가, 오전 9시 이후부터 12시 59분까지(92.1~99.2%) 학교 정규수업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후 1시 이후부터 2시 59분까지는 방과후학교(17.0~32.2%), 3시 59분까지는 (10.8~23.9%) 초등돌봄교실 이용 비중이 커지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학원 등 사교육의 비중이 약 36~42%대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의 아동이 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5시 이후부터 취침까지 부모 직접 돌봄과 조부모 친인척의 돌봄 비중이 높아진다.

한편,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구간은 오후 5시부터 6시 29분까지이며, 이 시간대에 3.2~3.9%의 아동은 어떠한 돌봄 없이 혼자 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공공아이돌보미 등의 이용 비율은 약 1% 이내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Ⅷ-1-1] 학기 중 돌봄 시간 이용 실태(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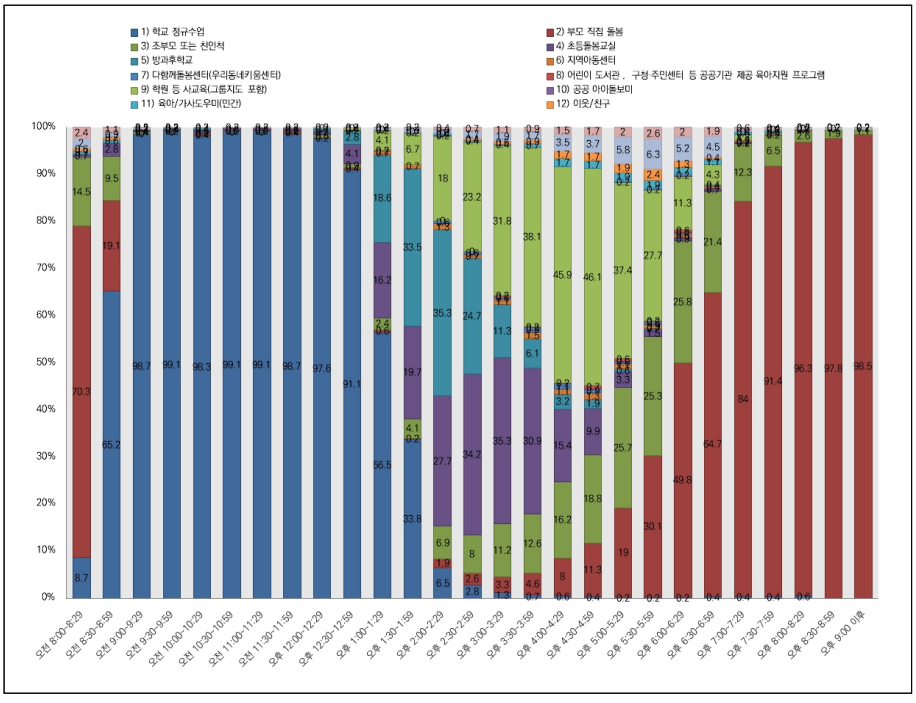
취업모와 전업모의 자녀를 구분하여, 학기 중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돌봄 시간 실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취업모 자녀의 돌봄 시간을 살펴보면, 기상 후 오전 8시 29분 이전까지 부모 직접 돌봄이 70.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2시 59분까지 65~99%의 대다수의 아동이 학교 정규수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시 이후부터 3시 29분까지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비중이 커져 동시간대 많게는 60% 이상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3시 30분부터 5시 29분까지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중이 약 37~46%로 가장 컸으며, 6시 이후 6시 59분까지는 조부모 및 친인척 돌봄 비율이 다른 시간대보다 비교적 높아서 약 25%의 아동이 조부모 또는 친인척의 돌봄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의 퇴근 이후 시간으로 추정되는 오후 7시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는 부모 직접 돌봄의 비율이 점점 증가한다. 한편,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오후 5시부터 6시 59분으로 4.5~6.3%의 아동이 성인의 돌봄 없이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오전 8시부터 8시29분까지의 등교하기 직전의 시간대에 혼자 있는 아동이 2%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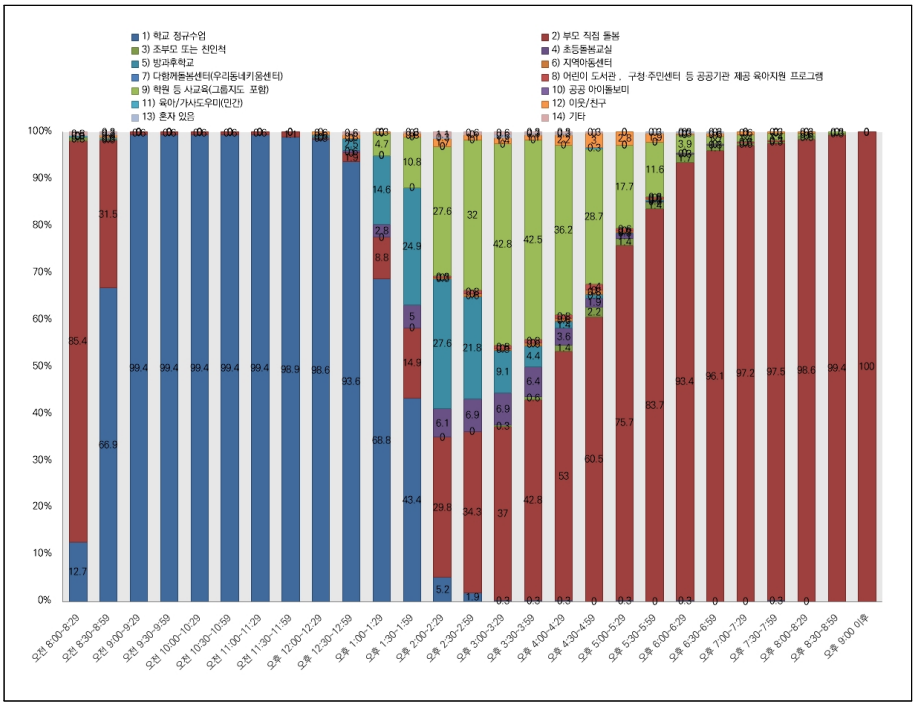
학기 중 취업모 자녀의 돌봄 시간 경우, 초등돌봄교실의 비중은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16.2~35.3%를 차지하고 있으나 오후 4시 30분 이후는 10% 미만으로 급속히 감소한다. 조부모 또는 친인척의 비중은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16.2~25.8%를 차지하고 있다. 학원 등 사교육의 비중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0~46.1%를 차지하였고 특히 오후 4~5시는 45% 이상,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 30분은 30% 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였다. 초등돌봄교실의 비중이 줄어드는 오후 4시 이후 조부모 또는 친인척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초등돌봄교실의 공백을 조부모 또는 친인척의 도움으로 메꾸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학원 등 사교육의 비중도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 30분 사이에 증가하는 것은 초등돌봄교실의 공백을 메꾸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Ⅶ-1-2] 학기 중 돌봄 시간 이용 실태(취업모)



이어서, 전업모 자녀의 학기 중 돌봄 시간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아동의 돌봄 시간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두드러지는 특성은 아동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과 취업모 자녀에 비하여 사교육 및 학원의 비중이 약간 낮은 점, 공공아이돌보미와 민간돌보미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아니지만, 일부 시간대에 최대 6% 정도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경우는 저소득층, 한부모 등 취약계층이거나 초등돌봄교실 신청 시에는 맞벌이였지만 초등돌봄교실 이용 중 맞벌이가 아니게 된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림 Ⅶ-1-3] 학기 중 돌봄 시간 이용 실태(전업모)



후술할 만5세 돌봄 시간 실태와 비교하면, 취업모의 경우 초등 1학년은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이용 비율이 50% 미만으로 감소하는 시간대는 오후 3시로 나타났다(초등돌봄교실 35.3%, 방과후학교 11.3%). 이후 시간대에는 공적 방과후 돌봄 이용 비율은 급격히 감소한다. 그에 비해 만5세의 경우 유치원 및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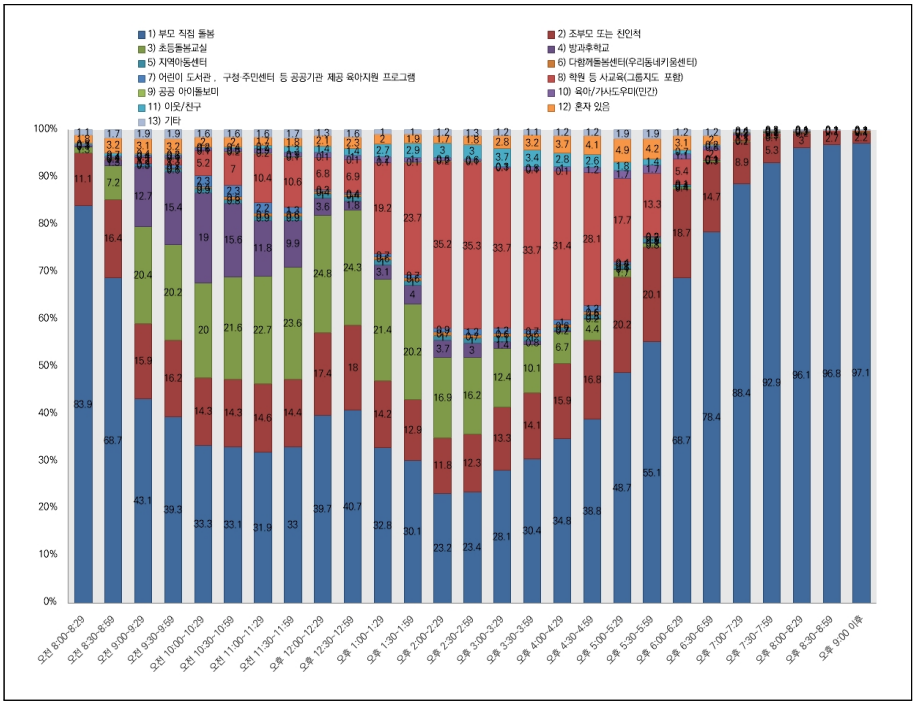
이용 비율이 50% 미만으로 감소하는 시간대는 오후 4시 30분으로 나타났다(유치원 26.3%, 어린이집 22%). 이후 시간대에는 공적 방과후 돌봄 이용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다.

이를 비교하여 공적 방과후 돌봄 이용 비율이 50% 미만으로 감소하는 시간대를 살펴보면, 초등 1학년과 만5세의 경우 1시간 30분의 차이가 발생한다. 초등 1학년의 공적 방과후 돌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등돌봄교실이 오후 5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오후돌봄교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결과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 중에서도 오후 5시 이전에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공적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 방학 중

전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방학 중 돌봄 시간 실태를 살펴보면, 기상 이후부터 오후 1시 59분까지, 오후 4시부터 취침시간까지는 부모 직접 돌봄이 다른 돌봄 형태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59분까지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비중이 점점 커져, 동시간대 많게는 37% 가량의 아동이 방학 중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2시부터 4시 29분까지는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중이 31~35% 정도로 나타나, 동시간대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방학 중 아동의 돌봄 시간 중, 두드러지는 것 특징은 전 시간대에서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이 발생한다는 것과 최대 4.9%의 아동이 오후 5시부터 5시 29분에 혼자 시간을 보낸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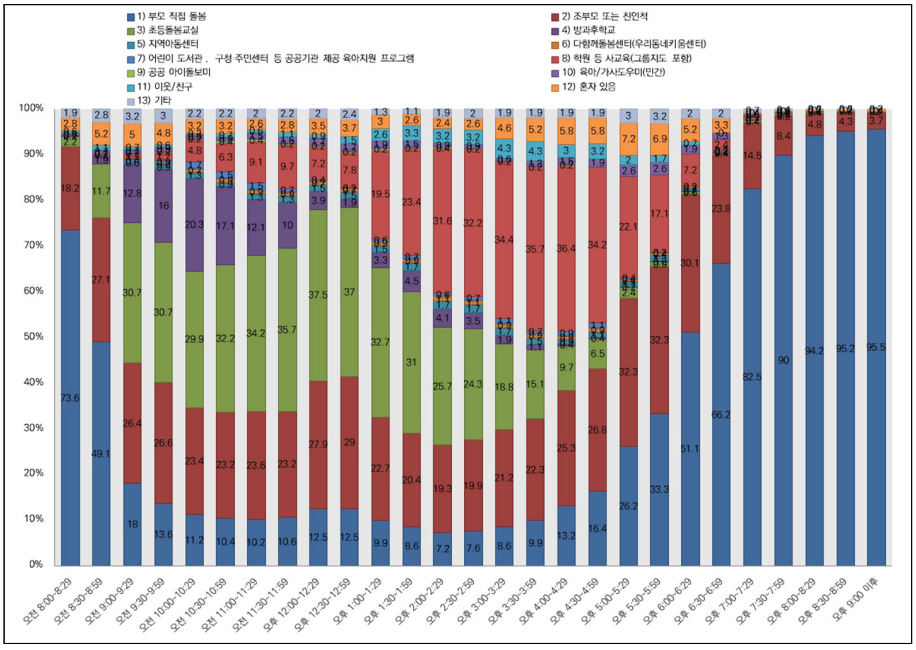
[그림 Ⅶ-1-4] 방학 중 돌봄 시간 이용 실태(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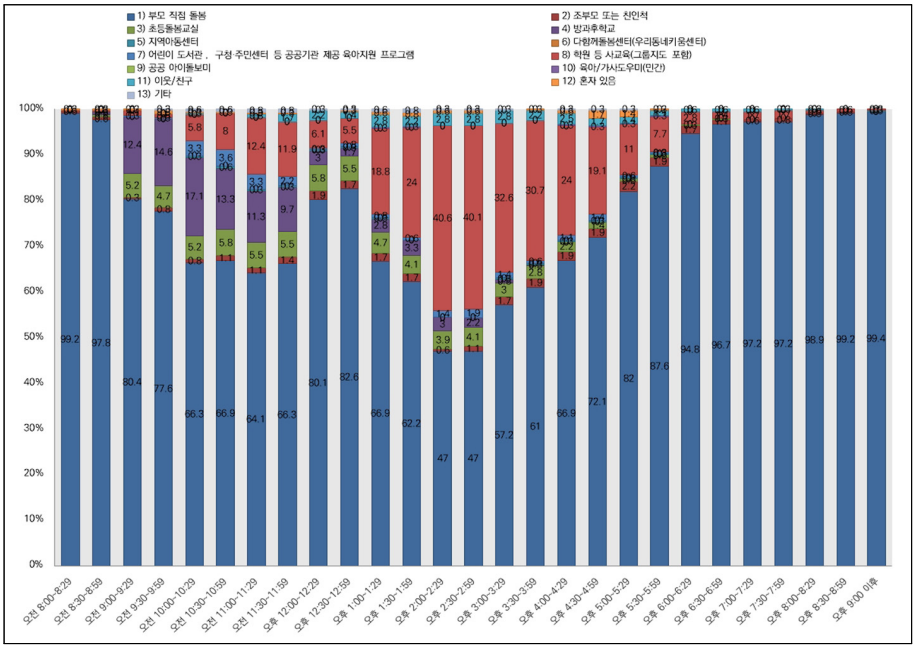
방학 중 돌봄 시간을 취업모와 전업모의 자녀로 나누어 살펴보면, 취업모의 자녀는 초등돌봄교실과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서 돌봄을 받는 비중이 크다는 점과, 전업모의 자녀는 부모의 직접 돌봄과 방과후학교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취업모의 경우는 초등돌봄교실의 비중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24.3~37.5%를 유지하지만 오후 3시 이후는 20% 미만, 오후 4시 이후는 10% 미만으로 급속히 감소한다. 조부모 또는 친인척의 비중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19.3~32.3%를 차지하고 있다. 학원 등 사교육의 비중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17.1~36.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방학 중 돌봄의 경우 오전과 오후 모두 조부모 또는 친인척의 비중이 높음을 보여준다. 초등돌봄교실의 비중이 줄어드는 오후에는 학원 등 사교육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공적인 방과후 돌봄의 공백을 조부모 또는 친인척의 도움이나 학원 등 사교육으로 메꾸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Ⅶ-1-5] 방학 중 돌봄 시간 이용 실태(취업모)



[그림 Ⅶ-1-6] 방학 중 돌봄 시간 이용 실태(전업모)



3) 초등학교 입학 후 3월 한 달 적응 기간에 이용한 돌봄서비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적응 기간인 3월 한 달 동안 어떠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 이용시간이 많은 순으로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합친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 직접 돌봄(74.3%)이 가장 많았으며, 학원 등 사교육(54.6%), 방과후학교(42.6%), 초등돌봄교실(34.8%), 조부모 또는 친인척(34.1%) 순으로 집계되었다.

〈표 Ⅶ-1-1〉 초등학교 입학 후, 적응기간인 3월 한 달 동안 이용한 돌봄 서비스(1,2,3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부모 직접 돌봄	54.4	11.4	12.2	74.3
조부모 또는 친인척	16.2	13.3	7.4	34.1
초등돌봄교실	19.1	12.0	5.9	34.8
방과후학교	3.1	27.3	18.6	42.6
지역아동센터	0.6	1.1	1.2	2.4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0.2	0.5	0.9	1.3
공공기관 제공 육아지원 프로그램	0.3	1.7	3.8	4.8
학원 등 사교육	4.6	26.3	33.6	54.6
공공 아이돌보미	0.1	0.1	0.1	0.3
육아/가사도우미(민간)	0.8	0.4	0.9	1.8
이웃/친구	0.3	3.6	7.4	9.3
혼자 있음	0.2	1.6	5.2	5.7
기타	-	0.7	2.9	2.9
계(수)	100.0(900)	100.0(830)	100.0(690)	(9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적응 기간인 3월 한 달 동안 이용한 돌봄서비스 중 이용시간이 가장 많은 1순위를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3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이용한 돌봄은, 부모 직접 돌봄이 54.4%로, 절반 이상의 아동의 부모 직접 돌봄 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초등돌봄교실 19.1%, 조부모 또는 친인척 16.2%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나머지는 4.6~0.1%대로 적은 수준이었다. 어머니가 전업모일수록, 소득수준이 적을수록 부모 직접 돌봄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취업모일수록 초등돌봄교실, 조부모 및 친인척 돌봄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Ⅶ-1-2〉 초등학교 입학 후, 적응 기간인 3월 한 달 동안 이용한 돌봄서비스(1순위)

단위: %(명)

구분	부모 직접 돌봄	조부모 또는 친인척	초등 돌봄 교실	방과 후 학교	지역 아동 센터	다함께 돌봄 센터	공공기관 제공 육아 지원 프로그램	학원 등 사교육	공공 아이 돌보미	육아 / 가사 도우미 (민간)	이웃 / 친구	혼자 있음	계	(수)
전체	54.4	16.2	19.1	3.1	0.6	0.2	0.3	4.6	0.1	0.8	0.3	0.2	100.0	(900)
모 취업상태														
전업모	85.6	2.2	3.9	3.6	0.3	0.3	0.3	3.6	-	0.3	-	-	100.0	(362)
취업모	33.5	25.7	29.4	2.8	0.7	0.2	0.4	5.2	0.2	1.1	0.6	0.4	100.0	(538)
$x^2(df)$						263.808(11)***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76.6	4.5	9.5	2.7	1.8	0.5	0.5	3.6	-	-	0.5	-	100.0	(222)
400~500만원 미만	59.1	9.8	22.8	3.3	-	-	-	3.7	-	0.9	-	0.5	100.0	(215)
500~600만원 미만	51.9	19.6	19.6	2.1	0.5	-	1.1	5.3	-	-	-	-	100.0	(189)
600만원 이상	34.7	28.5	23.7	4.0	-	0.4	-	5.5	0.4	1.8	0.7	0.4	100.0	(274)
$x^2(df)$						139.216(33)***								
지역규모														
대도시	55.0	15.6	18.1	3.2	0.7	0.1	0.3	5.2	-	0.9	0.4	0.3	100.0	(678)
중소도시	52.5	19.0	21.5	2.5	-	0.5	0.5	2.5	0.5	0.5	-	-	100.0	(200)
읍면지역	54.5	9.1	27.3	4.5	-	-	-	4.5	-	-	-	-	100.0	(22)
$x^2(df)$						14.917(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01$.

초등학교 입학 후, 적응 기간 3월 한 달 동안,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을 이용한 돌봄서비스 2순위 결과를 살펴보면, 방과후학교가 27.3%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학원 등 사교육이 26.3%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방과후학교 및 학원 등 사교육 이용의 경우, 취업모보다 전업모의 자녀가 많은 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소득수준 500만원 이상보다 500만원 미만 가구의 자녀가 학원 등 사교육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방과후학교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Ⅷ-1-3〉 초등학교 입학 후, 적응 기간인 3월 한 달 동안 이용한 돌봄서비스(2순위)

단위: %(명)

구분	부모 직접 돌봄	조부모 또는 친인척	초등 돌봄 교실	방과 후 학교	지역 아동 센터	다함께 돌봄 센터	공공기관 제공 육아 지원 프로그램	학원 등 사교육	공공 아이 돌보미	육아 / 가사 도우미 (민간)	이웃 / 친구	혼자 있음	계	(수)
전체	11.4	13.3	12.0	27.3	1.1	0.5	1.7	26.3	0.1	0.4	3.6	1.6	0.7	100.0
모 취업상태														
전업모	6.3	8.2	6.3	30.7	1.3	-	2.2	37.3	-	0.3	6.3	0.3	0.9	100.0
취업모	14.7	16.4	15.7	25.2	1.0	0.8	1.4	19.4	0.2	0.4	2.0	2.3	0.6	100.0
$x^2(df)$						82.582(2)***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7.2	8.7	9.7	27.2	2.1	-	3.6	32.3	-	-	6.7	1.5	1.0	100.0
400~500만원 미만	10.9	13.0	9.3	26.4	0.5	-	1.0	29.5	0.5	1.0	5.2	1.6	1.0	100.0
500~600만원 미만	11.8	12.4	12.9	34.3	2.2	1.1	1.1	20.8	-	0.6	1.7	1.1	-	100.0
600만원 이상	14.8	17.4	15.2	23.5	-	0.8	1.1	23.1	-	-	1.5	1.9	0.8	100.0
$x^2(df)$						65.566(36)**								
지역규모														
대도시	11.6	14.3	11.4	25.9	1.4	0.5	1.9	25.6	-	0.5	4.3	1.7	0.8	100.0
중소도시	11.5	9.3	12.6	31.7	-	0.5	0.5	30.6	-	-	1.6	1.1	0.5	100.0
읍면지역	5.6	16.7	27.8	33.3	-	-	5.6	5.6	5.6	-	-	-	-	100.0
$x^2(df)$						70.267(24)***								

주: 적응기간인 3월 한 달 동안 이용한 돌봄서비스 2순위 응답자 83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나. 돌봄 요구 및 취학 후 돌봄의 변화

1) 취업모의 돌봄 요구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중, 취업 중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을 전후로 하여 아침시간대와 저녁시간대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아침시간대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한지 질문한 결과, 취업모의 36.6%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63.4%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수준이 600만원 이상 가구가 600만원 미만의 가구보다 아침시간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아침시간대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은 평균 64.5분인 것으로 나타

났다.

〈표 Ⅶ-1-4〉 출근시간을 전후한 아침시간대에 돌봄서비스 필요 여부(취업모)

단위: %, 분(명)

구분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계	(수)	평균 시간(분)	(수)
전체	36.6	63.4	100.0	(538)	64.5	(197)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34.8	65.2	100.0	(66)	60.4	(23)
400~500만원 미만	32.5	67.5	100.0	(114)	61.2	(37)
500~600만원 미만	26.8	73.2	100.0	(127)	64.9	(34)
600만원 이상	44.6	55.4	100.0	(231)	66.5	(103)
$x^2(df)$ / F	12.568(3)**				0.456	
지역규모						
대도시	38.0	62.0	100.0	(387)	62.5	(147)
중소도시	34.6	65.4	100.0	(136)	70.4	(47)
읍면지역	20.0	80.0	100.0	(15)	70.0	(3)
$x^2(df)$ / F	2.345(2)				1.365	

주: 취업모 538명과 근 아침시간대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취업모 19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1$.

이어서, 퇴근시간을 전후로 한 저녁시간대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한지 질문한 결과, 취업모의 49.8%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0.2%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125.88분의 돌봄 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50%에 가까운 취업모가 저녁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초등 1학년의 저녁돌봄 내실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재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의 중심이 되는 초등돌봄교실은 오후돌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취업모의 저녁돌봄 수요는 현재의 초등돌봄교실이 가지고 있는 돌봄 사각지대를 보여주고 있다.

취업모는 출퇴근 시간 중, 출근 시간을 전후한 아침시간대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36.6%)보다 퇴근 시간을 전후로 저녁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49.8%)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 취업모의 저녁 돌봄에 대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Ⅷ-1-5〉 퇴근시간을 전후한 저녁시간대에 돌봄서비스 필요 여부(취업모)

단위: %(명)

구분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계	(수)	평균 시간(분)	(수)
전체	49.8	50.2	100.0	(538)	125.88	(268)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50.0	50.0	100.0	(66)	143.64	(33)
400~500만원 미만	44.7	55.3	100.0	(114)	115.47	(51)
500~600만원 미만	43.3	56.7	100.0	(127)	118.00	(55)
600만원 이상	55.8	44.2	100.0	(231)	128.81	(129)
$x^2(df)$ / F	6.687(3)				1.564	
지역규모						
대도시	47.3	52.7	100.0	(387)	123.56	(183)
중소도시	57.4	42.6	100.0	(136)	133.40	(78)
읍면지역	46.7	53.3	100.0	(15)	102.86	(7)
$x^2(df)$ / F	4.140(2)				1.038	

주: 취업모 53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2) 돌봄서비스 구성요소의 중요성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서비스 내용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돌봄서비스 구성요소의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자녀를 위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접근성, 시설 편의성, 프로그램, 돌봄서비스 인력, 식사/간식의 5개 영역에 대한 총 23개 구성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중요하지 않음(1)에서 매우 중요(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응답 경향을 살펴보면, '(16)돌봄교사가 아동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질 것'이 평균 4.6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6)이동 시 안전한 보호 지원'이 평균 4.62점, '(4)집이나 학교에서의 이동거리가 가까울 것'이 4.61점으로 나타났다. '(12)주변 환경 및 시설 공간의 안전'과 '(18)돌봄 선생님의 자격 요건'이 평균 4.59점 동률이었으며, '(17)돌봄 선생님과 부모의 소통(4.57점)', '(19)돌봄 선생님 1인당 담당하는 아동의 수'(4.52점), '(3)방학 중 이용 가능한 시간'(4.48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2)주말 및 공휴일 이용 가능 시간'은 3.3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13)교과목 보충학습 프로그램'도 3.93점, '(21)저녁 식사 제공'과 '(20)아침 식사 제공'이 각각 3.51점, 3.49점으로 비교적 낮게 응답되었다.

어머니들은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녀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돌봄 서비스 인력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동 시의 안전한 보호 지원, 집과의 접근성, 주변 환경 및 시설 공간의 안전도 중요시하였다.

〈표 Ⅶ-1-6〉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중요도

단위: %(명), 점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중요	매우 중요	계	(수)	평균
접근성	(1) 주중 이용 가능한 시간	0.2	0.6	7.6	35.3	56.3	100.0	(900)	4.47
	(2) 주말 및 공휴일 이용 가능시간	8.2	17.7	24.6	27.9	21.7	100.0	(900)	3.37
	(3) 방학 중 이용 가능한 시간	0.6	1.1	7.6	31.6	59.2	100.0	(900)	4.48
	(4) 집이나 학교에서의 이동거리가 가까울 것	0.3	0,1	5.4	26.6	67.6	100.0	(900)	4.61
	(5) 하교 및 이동 시 차량 지원	1.0	2.6	14.6	34.4	47.4	100.0	(900)	4.25
	(6) 이동 시 안전한 보호 지원	0.3	0.7	4.6	25.3	69.1	100.0	(900)	4.62
	(7) 이용 자격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	1.3	1.2	14.6	37.3	45.6	100.0	(900)	4.25
시설 편의성	(8)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	0.1	0.2	6.9	37.0	55.8	100.0	(900)	4.48
	(9) 놀이 공간이 충분할 것	0.1	0.6	10.7	40.7	48.0	100.0	(900)	4.36
	(10) 바깥 놀이를 할 수 있을 것	0.6	1.7	17.4	41.0	39.3	100.0	(900)	4.17
	(11) 교재나 교구 구비	-	1.4	15.0	44.2	39.3	100.0	(900)	4.21
	(12) 주변 환경 및 시설 공간의 안전	0.1	0.1	5.2	29.3	65.2	100.0	(900)	4.59
프로그램	(13) 교과목 보충학습 프로그램	0.1	4.2	21.4	51.1	23.1	100.0	(900)	3.93
	(14) 예체능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	2.4	20.1	48.6	28.9	100.0	(900)	4.04
	(15)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	-	1.9	16.1	47.2	34.8	100.0	(900)	4.15
돌봄 서비스 인력	(16) 돌봄 선생님이 아동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질 것	0.1	0.1	5.7	24.2	69.9	100.0	(900)	4.64
	(17) 돌봄 선생님과 부모의 소통	-	0.3	5.3	31.3	63.0	100.0	(900)	4.57
	(18) 돌봄 선생님의 자격 요건	-	0.2	5.7	29.3	64.8	100.0	(900)	4.59
	(19) 돌봄 선생님 1인당 담당하는 아동의 수	-	0.3	7.0	33.0	59.7	100.0	(900)	4.52
식사/간식	(20) 아침 식사 제공	4.6	12.1	33.6	29.4	20.3	100.0	(900)	3.49
	(21) 저녁 식사 제공	4.6	11.9	32.1	31.0	20.4	100.0	(900)	3.51
	(22) 방학 중 식사 제공	0.2	2.6	12.2	38.4	46.6	100.0	(900)	4.29
	(23) 식사 및 간식의 질	0.1	0.4	6.9	37.0	55.6	100.0	(900)	4.4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가) 접근성

방과후 돌봄서비스 구성요소 중 접근성의 세부 요소 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6)이동시 안전한 보호 지원(약간 중요 25.3%+매우중요 69.1%, 평균 4.62점)'이었으며, '(4) 집이나 학교에서의 이동거리가 가까울 것(약간 중요 26.6%+매우중요 67.6%, 평균 4.61점)', '(3)방학 중에 이용 가능한 시간(평균 4.48점)', '(1)주중 이용 가능한 시간(평균 4.47점)', '(7)이용 자격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평균 4.25점)', '(5)하교 및 이동 시 차량지원(평균 4.25점)', '(2)주말 및 공휴일 이용 가능 시간(평균 3.37점'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접근성에 있어서, 이동 시의 안전을 가장 중시하였으며, 주말 및 공휴일 이용에 대하여는 비교적 덜 중요시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주중 및 방학 중 이용가능한 시간은 전업모보다 취업모가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말 및 공휴일 이용 가능 시간의 경우, 취업모보다 전업모가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1-7〉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중요도(접근성)

단위: %(명), 점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접근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중요	매우 중요	계	(수)	평균
(1) 주중 이용 가능한 시간	전체	0.2	0.6	7.6	35.3	56.3	100.0	(900)	4.47
	모 취업상태								
	전업모	0.3	0.6	8.3	41.7	49.2	100.0	(362)	4.39
	취업모	0.2	0.6	7.1	31.0	61.2	100.0	(538)	4.52
	$x^2(df)/t$			12.998(4)*					-2.931**
(2) 주말 및 공휴일 이용 가능 시간	전체	8.2	17.7	24.6	27.9	21.7	100.0	(900)	3.37
	모 취업상태								
	전업모	4.1	13.5	26.5	33.1	22.7	100.0	(362)	3.57
	취업모	11.0	20.4	23.2	24.3	21.0	100.0	(538)	3.24
	$x^2(df)/t$			25.331(4)***					3.934***
(3) 방학 중 이용 가능한 시간	전체	0.6	1.1	7.6	31.6	59.2	100.0	(900)	4.48
	모 취업상태								
	전업모	0.6	0.8	7.7	40.1	50.8	100.0	(362)	4.40
	취업모	0.6	1.3	7.4	25.8	64.9	100.0	(538)	4.53
	$x^2(df)/t$			21.529(4)***					-2.702**
(4) 집이나 학교에서의 이동	전체	0.3	0,1	5.4	26.6	67.6	100.0	(900)	4.61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접근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중요	매우 중요	계	(수)	평균
거리가 가까울 것	모 취업상태								
	전업모	0.3	-	4.1	29.0	66.6	100.0	(362)	4.62
	취업모	0.4	0.2	6.3	24.9	68.2	100.0	(538)	4.60
	$x^2(df)/t$			4.069(4)					0.279
⑸ 하교 및 이동 시 차량 지원	전체	1.0	2.6	14.6	34.4	47.4	100.0	(900)	4.25
	모 취업상태								
	전업모	0.6	1.4	16.9	38.4	42.8	100.0	(362)	4.22
	취업모	1.3	3.3	13.0	31.8	50.6	100.0	(538)	4.27
	$x^2(df)/t$			12.153(4)*					-0.917
⑹ 이동 시 안전한 보호 지원	전체	0.3	0.7	4.6	25.3	69.1	100.0	(900)	4.62
	모 취업상태								
	전업모	0.3	0.3	4.7	28.2	66.6	100.0	(362)	4.60
	취업모	0.4	0.9	4.5	23.4	70.8	100.0	(538)	4.63
	$x^2(df)/t$			3.967(4)					-0.665
(7) 이용 자격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전체	1.3	1.2	14.6	37.3	45.6	100.0	(900)	4.25
	모 취업상태								
	전업모	0.8	0.8	13.8	41.4	43.1	100.0	(362)	4.25
	취업모	1.7	1.5	15.1	34.6	47.2	100.0	(538)	4.24
	$x^2(df)/t$			5.690(4)					0.17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시설 편의성

시설편의성에 대한 세부 구성요소 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12)주변 환경 및 시설 공간의 안전(약간 중요 29.3%+매우중요 65.2%, 평균 4.59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8)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평균 4.48점)', '(9)놀이 공간이 충분할 것(평균 4.36점)', '(11)교재나 교구 구비(평균 4.21점)', '(10)바깥 놀이를 할 수 있을 것(평균 4.17점)'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가 4점 이상을 나타내어, 시설편의성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 놀이 공간의 충분성 및 바깥놀이 여부에 있어서 전업모보다 취업모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1-8〉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중요도(시설편의성)

단위: %(명), 점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시설편의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중요	매우 중요	계	(수)	평균
(8)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	전체	0.1	0.2	6.9	37.0	55.8	100.0	(900)	4.48
	모 취업상태								
	전업모	0.3	-	8.0	42.5	49.2	100.0	(362)	4.40
	취업모	-	0.4	6.1	33.3	60.2	100.0	(538)	4.53
	$x^2(df)/t$			13.703(4)**					-2.986**
(9) 놀이 공간이 충분할 것	전체	0.1	0.6	10.7	40.7	48.0	100.0	(900)	4.36
	모 취업상태								
	전업모	0.3	0.6	12.2	45.9	41.2	100.0	(362)	4.27
	취업모	-	0.6	9.7	37.2	52.6	100.0	(538)	4.42
	$x^2(df)/t$			12.656(4)*					-3.113**
(10) 바깥 놀이를 할 수 있을 것	전체	0.6	1.7	17.4	41.0	39.3	100.0	(900)	4.17
	모 취업상태								
	전업모	0.8	1.7	18.2	47.8	31.5	100.0	(362)	4.07
	취업모	0.4	1.7	16.9	36.4	44.6	100.0	(538)	4.23
	$x^2(df)/t$			17.306(4)**					-2.875**
(11) 교재나 교구 구비	전체	-	1.4	15.0	44.2	39.3	100.0	(900)	4.21
	모 취업상태								
	전업모	-	1.1	14.1	48.6	36.2	100.0	(362)	4.20
	취업모	-	1.7	15.6	41.3	41.4	100.0	(538)	4.22
	$x^2(df)/t$			4.989(3)					-0.513
(12) 주변 환경 및 시설 공간의 안전	전체	0.1	0.1	5.2	29.3	65.2	100.0	(900)	4.59
	모 취업상태								
	전업모	0.3	-	4.1	35.4	60.2	100.0	(362)	4.55
	취업모	-	0.2	5.9	25.3	68.6	100.0	(538)	4.62
	$x^2(df)/t$			13.326(4)**					-1.70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다) 프로그램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프로그램의 세부 요소는 '(15)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약간 중요 47.2%+매우중요 34.8%, 평균 4.15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4)예체능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평균 4.04점)', '(13) 교과목 보충학습 프로그램(평균 3.93점)' 순으로 나타났다. 미미한 점수 차이기는 하지만, 어머니들은 교과목 보충학습 프로그램보다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더 중요한 것

으로 인식하고 있어, 학습보다는 체험/경험 활동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Ⅶ-1-9〉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중요도(프로그램)

단위: %(명), 점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프로그램)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중요	매우 중요	계	(수)	평균
(13) 교과목 보충학습 프로그램	전체	0.1	4.2	21.4	51.1	23.1	100.0	(900)	3.93
	모 취업상태								
	전업모	-	2.2	22.4	54.7	20.7	100.0	(362)	3.94
	취업모	0.2	5.6	20.8	48.7	24.7	100.0	(538)	3.92
	$x^2(df)/t$			9.749(4)*					0.323
(14) 예체능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전체	-	2.4	20.1	48.6	28.9	100.0	(900)	4.04
	모 취업상태								
	전업모	-	1.1	18.8	51.7	28.5	100.0	(362)	4.07
	취업모	-	3.3	21.0	46.5	29.2	100.0	(538)	4.01
	$x^2(df)/t$			6.215(3)					1.147
(15) 각종 체험 활동 프로그램	전체	-	1.9	16.1	47.2	34.8	100.0	(900)	4.15
	모 취업상태								
	전업모	-	1.1	15.2	50.3	33.4	100.0	(362)	4.16
	취업모	-	2.4	16.7	45.2	35.7	100.0	(538)	4.14
	$x^2(df)/t$			3.801(3)					0.37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라) 돌봄서비스 인력

돌봄서비스 인력의 세부구성 요소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16)돌봄 선생님이 아동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질 것(약간 중요 24.2%+매우 중요 69.9%, 평균 4.64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18)돌봄 선생님의 자격 요건(평균 4.59점)', '(17)돌봄 선생님과 부모의 소통(평균 4.57점)', '(19)돌봄 선생님 1인당 담당하는 아동의 수(평균 4.52점)'순으로 응답되었다.

돌봄서비스 인력의 경우 모든 세부요소에서 평균 4.5점 이상으로 분석되어, 다른 영역보다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모인 경우 '돌봄 선생님이 아동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질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Ⅷ-1-10〉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중요도(돌봄 서비스 인력)

단위: %(명), 점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돌봄 서비스 인력)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중요	매우 중요	계	(수)	평균
(16) 돌봄 선생님이 아동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질 것	전체	0.1	0.1	5.7	24.2	69.9	100.0	(900)	4.64
	모 취업상태								
	전업모	-	-	6.6	28.2	65.2	100.0	(362)	4.59
	취업모	0.2	0.2	5.0	21.6	73.0	100.0	(538)	4.67
	$x^2(df)/t$		8.157(4)						-2.082*
(17) 돌봄 선생님과 부모의 소통	전체	-	0.3	5.3	31.3	63.0	100.0	(900)	4.57
	모 취업상태								
	전업모	-	0.3	4.7	35.1	59.9	100.0	(362)	4.55
	취업모	-	0.4	5.8	28.8	65.1	100.0	(538)	4.59
	$x^2(df)/t$		4.135(3)						-0.929
(18) 돌봄 선생님의 자격요건	전체	-	0.2	5.7	29.3	64.8	100.0	(900)	4.59
	모 취업상태								
	전업모	-	0.3	5.0	30.7	64.1	100.0	(362)	4.59
	취업모	-	0.2	6.1	28.4	65.2	100.0	(538)	4.59
	$x^2(df)/t$		1.004(3)						-0.042
(19) 돌봄 선생님 1인당 담당하는 아동의 수	전체	-	0.3	7.0	33.0	59.7	100.0	(900)	4.52
	모 취업상태								
	전업모	-	-	6.9	38.4	54.7	100.0	(362)	4.48
	취업모	-	0.6	7.1	29.4	63.0	100.0	(538)	4.55
	$x^2(df)/t$		9.880(3)**						-1.61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마) 식사/ 간식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구성요소 중 식사/간식의 경우, 어머니들은 '(23)식사 및 간식의 질(약간 중요 37.0%+매우중요 55.6%. 평균 4.47점)'을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22)방학 중 식사 제공(평균 4.29점)', '(21)저녁 식사 제공(평균 3.51점)', '(20)아침 식사 제공(평균 3.49점)'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어머니가 취업모일수록 아침 및 저녁 식사 제공, 방학 중 식사 제공, 식사 및 간식의 질 등 식사/간식의 모든 항목에서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1-11〉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중요도(식사/간식)

단위: %(명), 점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식사간식)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중요	매우 중요	계	(수)	평균
(20) 아침 식사 제공	전체	4.6	12.1	33.6	29.4	20.3	100.0	(900)	3.49
	모 취업상태								
	전업모	5.2	13.8	34.5	30.7	15.7	100.0	(362)	3.38
	취업모	4.1	11.0	32.9	28.6	23.4	100.0	(538)	3.56
	$x^2(df)/t$			8.830(4)					-2.516*
(21) 저녁 식사 제공	전체	4.6	11.9	32.1	31.0	20.4	100.0	(900)	3.51
	모 취업상태								
	전업모	4.4	14.9	32.6	33.1	14.9	100.0	(362)	3.39
	취업모	4.6	9.9	31.8	29.6	24.2	100.0	(538)	3.59
	$x^2(df)/t$			14.692(4)**					-2.661**
(22) 방학 중 식사 제공	전체	0.2	2.6	12.2	38.4	46.6	100.0	(900)	4.29
	모 취업상태								
	전업모	0.3	4.1	16.3	47.2	32.0	100.0	(362)	4.07
	취업모	0.2	1.5	9.5	32.5	56.3	100.0	(538)	4.43
	$x^2(df)/t$			53.859(4)***					-6.981***
(23) 식사 및 간식의 질	전체	0.1	0.4	6.9	37.0	55.6	100.0	(900)	4.47
	모 취업상태								
	전업모	-	0.6	7.5	43.4	48.6	100.0	(362)	4.40
	취업모	0.2	0.4	6.5	32.7	60.2	100.0	(538)	4.52
	$x^2(df)/t$			13.004(4)*					-2.79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3)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의향

향후,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준을 개선하여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초등 자녀를 위해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3.6%는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26.4%는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상태와 소득수준, 지역규모에 따른 이용의향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업모(60.5%)보다 취업모(82.3%)의 이용 의향이 더 많았으며, 소득수준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가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의향이 가장 높았다. 또한 중소도시에서 이용의향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용의향을 밝힌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월 평균 11만 6천 5백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전업모는 평균 9만 2천 6백원, 취업모는 평균 12만 8천 3백원 부담하겠다고 응답하여 취업모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부담 비용을 더 높게 응답하였다.

〈표 Ⅷ-1-12〉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 의향 및 부담 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있음	없음	계	(수)	월 평균 비용 (만원)
전체	73.6	26.4	100.0	(900)	11.65
모 취업상태					
전업모	60.5	39.5	100.0	(362)	9.26
취업모	82.3	17.7	100.0	(538)	12.83
$x^2(df)/t$	53.088(1)***				-3.564***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64.4	35.6	100.0	(222)	8.28
400~500만원 미만	76.3	23.7	100.0	(215)	9.96
500~600만원 미만	70.9	29.1	100.0	(189)	10.58
600만원 이상	80.7	19.3	100.0	(274)	15.73
$x^2(df)/F$	18.146(3)***				14.013***
지역규모					
대도시	69.8	30.2	100.0	(678)	11.38
중소도시	85.5	14.5	100.0	(200)	12.38
읍면지역	81.8	18.2	100.0	(22)	11.83
$x^2(df)/F$	20.452(2)***				0.4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4) 초등학교 수업시수에 대한 의견

어머니에게 초등학교 1학년의 수업시수가 오후 3시까지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어머니 중 55.3%는 동의하였으며, 44.7%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모의 61.0%가 수업시수 연장에 동의하여, 전업모(47.0%)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가 수업시수 연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초등학교 수업시수 연장에 대한 의견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취업모의 경우는 돌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업시수 연

장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나지만 전업모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Ⅶ-1-13〉 수업시수 3시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계	(수)
전체	55.3	44.7	100.0	(900)
모 취업상태				
전업모	47.0	53.0	100.0	(362)
취업모	61.0	39.0	100.0	(538)
$x^2(df)$	17.173(1)***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46.8	53.2	100.0	(222)
400~500만원 미만	56.7	43.3	100.0	(215)
500~600만원 미만	56.1	43.9	100.0	(189)
600만원 이상	60.6	39.4	100.0	(274)
$x^2(df)$	9.742(3)*			
지역규모				
대도시	54.9	45.1	100.0	(678)
중소도시	57.0	43.0	100.0	(200)
읍면지역	54.5	45.5	100.0	(22)
$x^2(df)$	0.29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초등학교 1학년의 수업시수가 3시로 연장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자녀의 반응을 예측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싫어할 것이라는 응답이 38.4%로 가장 높았으며,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29.9%로 비등하게 나타났다. 좋아할 것이라는 응답도 23.1%로 나타나 낮지 않은 비중을 보였다.

〈표 Ⅶ-1-14〉 수업시수 연장(3시)에 대한 자녀의 반응 예측

단위: %(명)

구분	좋아할 것이다	싫어할 것이다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을 것이다	모르겠다	계	(수)
전체	23.1	38.4	29.9	8.6	100.0	(498)
모 취업상태						
전업모	28.2	35.9	27.6	8.2	100.0	(170)
취업모	20.4	39.6	31.1	8.8	100.0	(328)
$x^2(df)$	3.860(3)					

구분	좋아할 것이다	싫어할 것이다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을 것이다	모르겠다	계	(수)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23.1	39.4	29.8	7.7	100.0	(104)
400~500만원 미만	24.6	43.4	24.6	7.4	100.0	(122)
500~600만원 미만	20.8	37.7	34.9	6.6	100.0	(106)
600만원 이상	23.5	34.3	30.7	11.4	100.0	(166)
$x^2(df)$		6.376(9)				
지역규모						
대도시	22.0	40.1	30.1	7.8	100.0	(372)
중소도시	25.4	31.6	31.6	11.4	100.0	(114)
읍면지역	33.3	50.0	8.3	8.3	100.0	(12)
$x^2(df)$		6.358(6)				

주: 수업시수 3시 연장에 동의한 49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5) 초등학교 입학한 후 발생한 변화

초등학교 입학 전인, 취학 직전에 이용하였던 기관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유치원이 60.7%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집 35.6%, 사교육기관 3.1%, 기타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모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취학 직전 이용 기관의 일일 이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1-15〉 취학 직전 이용 기관 및 일일 이용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사교육기관	기타	계	(수)	1일이용시간(분)
전체	60.7	35.6	3.1	0.7	100.0	(900)	457.66
모 취업상태							
전업모	62.7	32.0	4.4	0.8	100.0	(362)	413.24
취업모	59.3	37.9	2.2	0.6	100.0	(538)	487.54
$x^2(df)$		6.088(3)					-12.937^{***}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60.4	37.4	1.4	0.9	100.0	(222)	435.45
400~500만원 미만	62.8	34.9	1.4	0.9	100.0	(215)	458.16
500~600만원 미만	59.8	39.7	0.5	-	100.0	(189)	460.54
600만원 이상	59.9	31.8	7.7	0.7	100.0	(274)	473.27
$x^2(df)$		$30.710(9)^{***}$					7.155^{***}
지역규모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사교육 기관	기타	계	(수)	1일이용 시간(분)
대도시	60.9	34.7	3.8	0.6	100.0	(678)	454.48
중소도시	60.0	38.0	1.0	1.0	100.0	(200)	466.43
읍면지역	59.1	40.9	-	-	100.0	(22)	475.86
$x^2(df)$		5.927(6)					1.74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01$.

이어서, 다음은 유아교육/보육/사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 입학한 후 발생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3순위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이다. 1,2,3순위를 합친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긴 방학(68.0%)이 가장 큰 변화로 응답되었으며, 취학 전과 비교하여 집에 일찍 귀가하는 것(65.3%), 사교육 비용 증가(53.8%), 담임교사가 덜 신경 쓰는 것(31.3%)을 변화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Ⅶ-1-16〉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발생한 가장 큰 변화

단위: %(명)

구분	집에 일찍 귀가	사교육 비용 증가	긴 방학	등교 시간 늦음	통학차량없음	담임 교사가 덜 신경씀	부모의 역할 요구	기타	계	(수)
1순위	38.6	24.1	18.4	2.6	5.4	6.6	4.0	0.3	100.0	(900)
2순위	15.3	19.3	32.9	3.0	10.3	10.7	8.4	0.1	100.0	(881)
3순위	13.4	12.2	19.6	4.2	13.2	16.2	20.9	0.3	100.0	(794)
1+2+3순위	65.3	53.8	68.0	9.1	27.2	31.3	30.7	0.7		(257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초등학교 입학한 후 발생한 가장 큰 변화(1순위)를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38.6%는 집에 일찍 귀가하는 것을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사교육 비용 증가(24.1%), 긴 방학(18.4%) 순으로 가장 큰 변화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담임교사가 덜 신경씀(6.6%), 통학차량 없음(5.4%), 부모 역할 요구(4.0%), 등교시간 늦음(2.6%)은 10% 이하로 낮은 비중으로 응답되었다.

〈표 Ⅷ-1-17〉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발생한 가장 큰 변화(1순위)

단위: %(명)

구분	집에 일찍 옴	사교육 비용 증가	긴 방학	등교 시간 늦음	통학 차량 없음	담임 교사가 덜신경 씀	부모의 역할 요구	기타	계	(수)
전체	38.6	24.1	18.4	2.6	5.4	6.6	4.0	0.3	100.0	(900)
모 취업상태										
전업모	41.4	22.1	14.9	1.9	6.1	8.8	4.4	0.3	100.0	(362)
취업모	36.6	25.5	20.8	3.0	5.0	5.0	3.7	0.4	100.0	(538)
$x^2(df)$				12.913(7)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41.0	24.8	15.8	2.3	5.0	6.3	4.5	0.5	100.0	(222)
400~500만원 미만	39.1	21.9	24.2	2.8	3.3	5.6	2.8	0.5	100.0	(215)
500~600만원 미만	41.3	23.3	16.4	2.1	4.8	5.8	5.8	0.5	100.0	(189)
600만원 이상	34.3	25.9	17.5	2.9	8.0	8.0	3.3	-	100.0	(274)
$x^2(df)$				19.674(21)						
지역규모										
대도시	36.6	25.2	17.4	3.4	6.0	6.8	4.3	0.3	100.0	(678)
중소도시	45.0	21.0	20.5	-	4.0	6.0	3.0	0.5	100.0	(200)
읍면지역	40.9	18.2	31.8	-	-	4.5	4.5	-	100.0	(22)
$x^2(df)$				18.481(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발생한 가장 큰 변화 2순위를 살펴보면, 긴 방학이 3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교육 비용 증가가 19.3%, 일찍 귀가 15.3%, 담임 교사가 덜 신경씀 10.7%, 통학차량 없음 10.3%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Ⅷ-1-18〉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발생한 가장 큰 변화(2순위)

단위: %(명)

구분	집에 일찍 옴	사교육 비용 증가	긴 방학	등교 시간 늦음	통학 차량 없음	담임 교사가 덜신경씀	부모의 역할 요구	기타	계	(수)
전체	15.3	19.3	32.9	3.0	10.3	10.7	8.4	0.1	100.0	(881)
모 취업상태										
전업모	17.8	16.9	33.1	2.0	10.7	9.0	10.5	-	100.0	(354)
취업모	13.7	20.9	32.8	3.6	10.1	11.8	7.0	0.2	100.0	(527)
$x^2(df)$				11.164(7)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20.0	15.3	34.0	2.3	11.2	10.7	6.5	-	100.0	(215)

구분	집에 일찍 옴	사교육 비용 증가	긴 방학	등교 시간 늦음	통학 차량 없음	담임 교사가 덜신경씀	부모의 역할 요구	기타	계	(수)
400~500만원 미만	12.6	20.6	34.6	0.5	11.7	11.2	8.9	-	100.0	(214)
500~600만원 미만	13.0	19.5	36.2	5.4	8.6	9.7	7.6	-	100.0	(185)
600만원 이상	15.4	21.3	28.5	3.7	9.7	10.9	10.1	0.4	100.0	(267)
$x^2(df)$				24.530(21)						
지역규모										
대도시	15.9	19.1	33.3	2.9	10.4	10.0	8.3	0.2	100.0	(661)
중소도시	12.6	20.7	32.3	3.5	10.1	12.1	8.6	-	100.0	(198)
읍면지역	22.7	13.6	27.3	-	9.1	18.2	9.1	-	100.0	(22)
$x^2(df)$				5.858(14)						

주: 초등학교 입학 후 발생한 가장 큰 변화 2순위 응답자 88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라. 초등돌봄교실 이용 실태

1)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

학기초에 신청한 초등돌봄교실 유형은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아침돌봄이 10.3%, 오후돌봄이 97.5%, 저녁돌봄이 9.1%로 나타났다.

〈표 Ⅶ-1-19〉 학기 초에 신청하였던 초등돌봄교실 유형(학기 중)

단위: %(명)

구분	아침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봄		계	(수)
	신청	미신청	신청	미신청	신청	미신청		
전체	10.3	89.7	97.5	2.5	9.1	90.9	100.0	(319)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8.3	91.7	95.8	4.2	10.4	89.6	100.0	(48)
400~500만원 미만	7.5	92.5	96.3	3.8	7.5	92.5	100.0	(80)
500~600만원 미만	5.6	94.4	97.2	2.8	8.5	91.5	100.0	(71)
600만원 이상	15.8	84.2	99.2	0.8	10.0	90.0	100.0	(120)
$x^2(df)$	6.504(3)		2.449(3)		0.502(3)			
지역규모								
대도시	11.6	88.4	96.6	3.4	9.5	90.5	100.0	(232)
중소도시	8.0	92.0	100.0	-	9.3	90.7	100.0	(75)
읍면지역	-	100.0	100.0	-	-	100.0	100.0	(12)
$x^2(df)$	2.248(2)		3.077(2)		1.248(2)			

주: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한 31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아침돌봄 교실 신청자 중에 아침돌봄을 이용하는 비율은 69.7%로 탈락률은 30.3%로 나타났다.

〈표 Ⅶ-1-20〉 유형 별 초등돌봄교실 이용여부와 이용 시간(아침돌봄)(학기 중)

단위: 분, %(명)

구분	아침돌봄		계	(수)	이용시간	(수)
	이용	미이용			평균시간	
전체	69.7	30.3	100.0	(33)	65.00	(23)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75.0	25.0	100.0	(4)	70.00	(3)
400~500만원 미만	66.7	33.3	100.0	(6)	58.75	(4)
500~600만원 미만	50.0	50.0	100.0	(4)	75.00	(2)
600만원 이상	73.7	26.3	100.0	(19)	64.29	(14)
$x^2(df)$	0.957(3)				0.088	
지역규모						
대도시	66.7	33.3	100.0	(27)	70.83	(18)
중소도시	83.3	16.7	100.0	(6)	44.00	(5)
읍면지역	-	-	-	-	-	-
$x^2(df)$	0.646(1)				2.031	

주: 학기 중 아침돌봄교실을 신청한 33명과 실제 이용한 2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오후돌봄 신청자는 모두 오후돌봄을 이용하고 있어 탈락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후돌봄의 경우 대부분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Ⅶ-1-21〉 유형 별 초등돌봄교실 이용여부와 이용 시간(오후돌봄)(학기 중)

단위: 분, %(명)

구분	오후돌봄		계	(수)	이용시간	(수)
	이용	미이용			평균시간	
전체	100.0	-	100.0	(311)	182.75	(311)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100.0	-	100.0	(46)	181.28	(46)
400~500만원 미만	100.0	-	100.0	(77)	202.34	(77)
500~600만원 미만	100.0	-	100.0	(69)	180.87	(69)
600만원 이상	100.0	-	100.0	(119)	171.72	(119)
$x^2(df)$/F	-				2.581	
지역규모						
대도시	100.0	-	100.0	(224)	189.77	(224)
중소도시	100.0	-	100.0	(75)	162.60	(75)

구분	오후돌봄		계	(수)	이용시간	(수)
	이용	미이용			평균시간	
읍면지역	100.0	-	100.0	(12)	177.50	(12)
$x^2(df)$/F	-				3.657	

주: 학기 중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한 31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저녁돌봄 신청자 중 이용자는 75.9%로 탈락률은 24.1%로 나타났다.

〈표 Ⅶ-1-22〉 유형 별 초등돌봄교실 이용여부와 이용 시간(저녁돌봄)(학기 중)

단위: 분, %(명)

구분	저녁돌봄		계	(수)	이용시간	(수)
	이용	미이용			평균시간	
전체	75.9	24.1	100.0	(29)	95.00	(22)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100.0	-	100.0	(5)	98.00	(5)
400~500만원 미만	33.3	66.7	100.0	(6)	60.00	(2)
500~600만원 미만	83.3	16.7	100.0	(6)	96.00	(5)
600만원 이상	83.3	16.7	100.0	(12)	100.00	(10)
$x^2(df)$/F	8.066(3)*				0.380	
지역규모						
대도시	77.3	22.7	100.0	(22)	85.88	(17)
중소도시	71.4	28.6	100.0	(7)	126.00	(5)
읍면지역	-	-	-	-	-	-
$x^2(df)$/F	0.099(1)				3.114	

주: 학기 중 저녁돌봄교실을 신청한 29명과 실제 이용한 22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학기 중 아침돌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47.8%, 만족하는 편 43.5%, 매우 만족 8.7%로 나타났다.

〈표 Ⅷ-1-23〉 유형 별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만족도(아침돌봄)(학기 중)

단위: %(명), 점

구분	아침돌봄					계	(수)	평균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전체	-	-	47.8	43.5	8.7	100.0	(23)	3.61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	-	100.0	-	-	100.0	(3)	3.00
400~500만원 미만	-	-	-	100.0	-	100.0	(4)	4.00
500~600만원 미만	-	-	50.0	50.0	-	100.0	(2)	3.50
600만원 이상	-	-	50.0	35.7	14.3	100.0	(14)	3.64
$x^2(df)$/F								1.448
지역규모								
대도시	-	-	44.4	50.0	5.6	100.0	(18)	3.61
중소도시	-	-	60.0	20.0	20.0	100.0	(5)	3.60
읍면지역	-	-	-	-	-	-	-	-
$x^2(df)$/F			1.947(2)					0.001

주: 학기 중 아침돌봄교실을 이용한 2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학기 중 오후돌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25.4%, 만족하는 편 53.7%, 매우 만족 18.0%로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Ⅷ-1-24〉 유형 별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만족도(오후돌봄)(학기 중)

단위: %(명), 점

구분	오후돌봄					계	(수)	평균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전체	0.6	2.3	25.4	53.7	18.0	100.0	(311)	3.86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	-	26.1	54.3	19.6	100.0	(46)	3.93
400~500만원 미만	1.3	2.6	16.9	55.8	23.4	100.0	(77)	3.97
500~600만원 미만	1.4	1.4	27.5	55.1	14.5	100.0	(69)	3.80
600만원 이상	-	3.4	29.4	51.3	16.0	100.0	(119)	3.80
$x^2(df)$/F			9.553(12)					1.173
지역규모								
대도시	0.9	2.2	26.8	52.7	17.4	100.0	(224)	3.83
중소도시	-	2.7	21.3	58.7	17.3	100.0	(75)	3.91
읍면지역	-	-	25.0	41.7	33.3	100.0	(12)	4.08
$x^2(df)$/F			4.103(8)					0.798

주: 학기 중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한 31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학기 중 저녁돌봄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하는 편 9.1%, 보통 31.8%, 만족하는 편 40.9%, 매우 만족 18.2%로 오후돌봄과 비교하면 '매우 만족'의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만족하는 편'의 비율은 저녁돌봄이 낮게 나타났고, '보통' 및 '불만족'의 비율은 저녁돌봄이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저녁돌봄의 프로그램이 TV 시청 등이 많아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Ⅶ-1-25〉 유형 별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만족도(저녁돌봄)(학기 중)

단위: %(명), 점

구분	저녁돌봄					계	(수)	평균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하는편	③보통	④만족하는편	⑤매우 만족			
전체	-	9.1	31.8	40.9	18.2	100.0	(22)	3.68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	-	60.0	20.0	20.0	100.0	(5)	3.60
400~500만원 미만	-	-	-	100.0	-	100.0	(2)	4.00
500~600만원 미만	-	20.0	-	80.0	-	100.0	(5)	3.60
600만원 이상	-	10.0	40.0	20.0	30.0	100.0	(10)	3.70
$x^2(df)$/F			12.213(9)					0.099
지역규모								
대도시	-	11.8	23.5	47.1	17.6	100.0	(17)	3.71
중소도시	-	-	60.0	20.0	20.0	100.0	(5)	3.60
읍면지역	-	-	-	-	-	-	-	-
$x^2(df)$/F			2.907(3)					0.52

주: 학기 중 저녁돌봄교실을 이용한 22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의 월평균 비용은 5만 5백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초등돌봄교실 비용은 급간식 및 추가 프로그램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Ⅷ-1-26〉 초등돌봄교실 월평균 비용(학기 중)

단위: 만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05	6.24	(319)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4.02	2.88	(48)
400~500만원 미만	4.93	6.74	(80)
500~600만원 미만	4.63	4.24	(71)
600만원 이상	5.78	7.69	(120)
F	1.103		
지역규모			
대도시	5.54	6.60	(232)
중소도시	3.99	5.17	(75)
읍면지역	2.17	3.43	(12)
F	3.119		

주: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 31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1,2,3순위 합계 기준으로 '돌볼 사람이 없어서'가 8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가 46.7%,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가 40.8%, '돌봄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되어서'가 30.7%로 나타났다.

〈표 Ⅷ-1-27〉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학기 중)

단위: %(명)

구분	①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②돌볼 사람이 없어서	③숙제 등 학습 관리를 받기 위해	④프로그램이 좋아서	⑤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⑥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⑦돌봄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 되어서	⑧ 기타	계	(수)
1순위	2.5	75.9	4.4	2.5	6.6	4.1	3.8	0.3	100.0	(319)
2순위	4.1	4.1	8.2	12.4	24.7	31.8	14.2	0.4	100.0	(267)
3순위	7.8	6.4	8.7	10.1	19.7	23.4	22.0	1.8	100.0	(218)
1+2+3순위	11.3	83.7	17.2	19.7	40.8	46.7	30.7	1.9		(319)

주: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 31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1순위는 '돌볼 사람이 없어서'가 7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Ⅶ-1-28〉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1순위)(학기 중)

단위: %(명)

구분	①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②돌볼 사람이 없어서	③숙제 등 학습 관리를 받기 위해	④프로그램이 좋아서	⑤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⑥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⑦돌봄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되어서	계	(수)
전체	5.1	74.1	3.1	5.1	4.7	4.3	3.5	100.0	(255)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11.8	73.5	2.9	2.9	2.9	2.9	2.9	100.0	(34)
400~500만원 미만	3.1	78.1	1.6	4.7	4.7	6.3	1.6	100.0	(64)
500~600만원 미만	3.2	71.0	3.2	8.1	8.1	3.2	3.2	100.0	(62)
600만원 이상	5.3	73.7	4.2	4.2	3.2	4.2	5.3	100.0	(95)
$x^2(df)$				11.151(18)					
지역규모									
대도시	5.4	71.5	4.3	7.0	3.8	4.8	3.2	100.0	(186)
중소도시	4.7	84.4	-	-	4.7	1.6	4.7	100.0	(64)
읍면지역	-	40.0	-	-	40.0	20.0	-	100.0	(5)
$x^2(df)$				28.108(12)**					

주: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 31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2순위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가 24.7%, '돌봄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되어서'가 14.2%로 나타났다.

〈표 Ⅶ-1-29〉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2순위)(학기 중)

단위: %(명)

구분	①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②돌볼 사람이 없어서	③숙제 등 학습 관리를 받기 위해	④프로그램이 좋아서	⑤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⑥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⑦돌봄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되어서	⑧기타	계	(수)
전체	4.1	4.1	8.2	12.4	24.7	31.8	14.2	0.4	100.0	(267)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7.1	7.1	-	7.1	14.3	40.5	23.8	-	100.0	(42)
400~500만원 미만	1.5	2.9	7.4	20.6	25.0	27.9	13.2	1.5	100.0	(68)
500~600만원 미만	3.4	6.9	13.8	8.6	27.6	29.3	10.3	-	100.0	(58)
600만원 이상	5.1	2.0	9.1	11.1	27.3	32.3	13.1	-	100.0	(99)
$x^2(df)$				27.001(21)						

구분	①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②돌볼 사람이 없어서	③숙제 등 학습 관리를 받기 위해	④프로그램이 좋아서	⑤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⑥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⑦돌봄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되어서	⑧기타	계	(수)
지역규모										
대도시	4.0	4.0	9.0	15.0	24.0	32.0	12.0	-	100.0	(200)
중소도시	3.5	5.3	5.3	5.3	22.8	35.1	22.8	-	100.0	(57)
읍면지역	10.0	-	10.0	-	50.0	10.0	10.0	10.0	100.0	(10)
$x^2(df)$				40.846(14)						

주: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2순위 응답자 26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1,2,3순위 합계 기준으로 '방과후에 집에 보호자(부모나 조부모 등)가 있어서'가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용 자격 기준이 되지 않아서'가 43.7%, '자녀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가 29.1%, '서비스의 질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와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므로'가 26.3% 동률이었다.

집에 보호자가 있어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초등돌봄교실이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등으로 이용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그다음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도 자녀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서비스의 질을 신뢰할 수 없어서,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므로 등의 응답도 26~3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여 자녀의 의사 및 초등돌봄교실 서비스의 질 및 낙인효과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용시간대가 맞지 않아서'는 21.2%로 나타나 초등돌봄교실이 오후 돌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시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용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해서'는 16.4%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는 12.0%로 다른 아동들에게 받는 영향 등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Ⅶ-1-30〉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학기 중)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	(수)
1순위	12.4	26.2	8.1	2.1	9.3	8.4	24.6	5.7	2.1	1.2	100.0	(581)
2순위	4.9	15.4	7.5	2.8	13.5	17.6	22.7	10.1	4.7	0.9	100.0	(467)
3순위	8.2	8.8	3.8	6.4	10.5	11.1	14.9	21.3	10.5	4.4	100.0	(342)
1+2+3순위	21.2	43.7	16.4	8.1	26.3	29.1	51.6	26.3	12.0	4.5		(581)

주: 1)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58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①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②이용 자격 기준이 되지 않아서, ③이용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해서, ④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아서, ⑤서비스의 질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 ⑥자녀가 가고 싶어하지 않아서, ⑦방과 후에 집에 보호자(부모나 조부모 등)가 있어서, ⑧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므로, ⑨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⑩기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1순위는 '이용 자격기준이 되지 않아서'가 26.2%로 가장 높았고, '방과후에 집에 보호자(부모나 조부모 등)가 있어서'가 24.6%, '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가 12.4%, '서비스의 질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 가 9.3%, '자녀가 가고 싶어하지 않아서'가 8.4%, '이용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해서'가 8.1%,로 나타났다. '이용 자격기준이 되지 않아서'와 '방과후에 집에 보호자(부모나 조부모 등)가 있어서' 이외에도 서비스의 질, 이용 시간대, 자녀 의사 등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Ⅶ-1-31〉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1순위)(학기 중)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	(수)
전체	12.4	26.2	8.1	2.1	9.3	8.4	24.6	5.7	2.1	1.2	100.0	(581)
모취업상태												
전업모	9.6	35.6	3.7	1.5	6.5	5.6	30.0	5.3	1.5	0.6	100.0	(323)
취업모	15.9	14.3	13.6	2.7	12.8	12.0	17.8	6.2	2.7	1.9	100.0	(258)
$x^2(df)$					72.594(9)***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12.6	33.9	7.5	2.3	5.2	4.0	27.6	5.2	0.6	1.1	100.0	(174)
400~500만원 미만	10.4	28.1	6.7	1.5	8.1	5.9	25.9	11.9	0.7	0.7	100.0	(135)
500~600만원 미만	13.6	28.0	8.5	3.4	7.6	13.6	18.6	1.7	3.4	1.7	100.0	(118)
600만원 이상	13.0	14.3	9.7	1.3	16.2	11.7	24.7	3.9	3.9	1.3	100.0	(154)
$x^2(df)$					61.010(27)***							
지역규모												
대도시	13.7	26.0	5.6	2.5	9.6	9.4	24.0	5.6	2.5	1.1	100.0	(446)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	(수)
중소도시	7.2	26.4	17.6	0.8	8.8	5.6	26.4	5.6	0.8	0.8	100.0	(125)
읍면지역	20.0	30.0	-	-	-	-	30.0	10.0	-	10.0	100.0	(10)
$x^2(df)$					35.943(18)**							

주: 1)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58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①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②이용 자격 기준이 되지 않아서, ③이용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해서, ④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아서, ⑤서비스의 질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 ⑥자녀가 가고 싶어하지 않아서, ⑦방과 후에 집에 보호자(부모나 조부모 등)가 있어서, ⑧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므로, ⑨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⑩기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2순위로는 '방과후에 집에 보호자가 있어서'가 22.7%, '자녀가 가고 싶어하지 않아서'가 17.6%, '이용자격 기준이 되지 않아서'가 15.4%로 나타났다.

〈표 Ⅶ-1-32〉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2순위)(학기 중)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	(수)
전체	4.9	15.4	7.5	2.8	13.5	17.6	22.7	10.1	4.7	0.9	100.0	(467)
모취업상태												
전업모	3.8	17.9	9.9	2.3	10.7	16.0	22.9	11.5	4.2	0.8	100.0	(262)
취업모	6.3	12.2	4.4	3.4	17.1	19.5	22.4	8.3	5.4	1.0	100.0	(205)
$x^2(df)$					14.985(9)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3.5	16.3	8.5	4.3	13.5	18.4	20.6	9.2	5.0	0.7	100.0	(141)
400~500만원 미만	4.5	21.4	10.7	1.8	8.9	18.8	18.8	10.7	4.5	-	100.0	(112)
500~600만원 미만	7.6	13.0	6.5	1.1	12.0	14.1	26.1	15.2	2.2	2.2	100.0	(92)
600만원 이상	4.9	10.7	4.1	3.3	18.9	18.0	26.2	6.6	6.6	0.8	100.0	(122)
$x^2(df)$					29.620(27)							
지역규모												
대도시	4.4	14.8	7.4	3.6	13.7	18.6	22.2	9.3	5.2	0.8	100.0	(365)
중소도시	6.4	17.0	8.5	-	13.8	14.9	23.4	12.8	2.1	1.1	100.0	(94)
읍면지역	12.5	25.0	-	-	-	-	37.5	12.5	12.5	-	100.0	(8)
$x^2(df)$					14.208(18)							

주: 1)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 미이용자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2순위 응답자 26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①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②이용 자격 기준이 되지 않아서, ③이용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해서, ④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아서, ⑤서비스의 질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 ⑥자녀가 가고 싶어하지 않아서, ⑦방과 후에 집에 보호자(부모나 조부모 등)가 있어서, ⑧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므로, ⑨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⑩기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초등돌봄 교실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준이 개선된다면 이용하겠다'가 66.4%로 가장 높았으며, 조건없이 이용하겠다는 22.9%, 서비스 수준이 개선되어도 이용하지 않겠다는 10.7%로 나타났다.

〈표 Ⅶ-1-33〉 초등돌봄교실 이용 의향

단위: %(명)

구분	조건없이 이용하겠다	서비스 수준이 개선된다면 이용하겠다	서비스 수준이 개선되어도 이용하지 않겠다	계	(수)
전체	22.9	66.4	10.7	100.0	(581)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23.0	63.8	13.2	100.0	(174)
400~500만원 미만	26.7	66.7	6.7	100.0	(135)
500~600만원 미만	22.0	70.3	7.6	100.0	(118)
600만원 이상	20.1	66.2	13.6	100.0	(154)
$x^2(df)$		7.228(6)			
지역규모					
대도시	20.9	67.3	11.9	100.0	(446)
중소도시	29.6	63.2	7.2	100.0	(125)
읍면지역	30.0	70.0	-	100.0	(10)
$x^2(df)$		6.843(4)			

주: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58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2)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방학 중에 신청한 초등돌봄교실 유형은 전체 신청자 기준으로 오전돌봄이 89.4%, 오후돌봄이 84.3%, 아침돌봄이 9.0%, 저녁돌봄이 7.8%로 나타났다. 학기 중과 달리 방학은 오전에 정규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전돌봄의 수요가 가장 높았다.

〈표 Ⅷ-1-34〉 방학에 신청하였던 초등돌봄교실 유형(방학 중)

단위: %(명)

구분	아침돌봄		오전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봄		계	(수)
	신청	미신청	신청	미신청	신청	미신청	신청	미신청		
전체	9.0	91.0	89.4	10.6	84.3	15.7	7.8	92.2	100.0	(255)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11.8	88.2	82.4	17.6	85.3	14.7	14.7	85.3	100.0	(34)
400~500만원 미만	4.7	95.3	93.8	6.3	78.1	21.9	4.7	95.3	100.0	(64)
500~600만원 미만	4.8	95.2	83.9	16.1	85.5	14.5	6.5	93.5	100.0	(62)
600만원 이상	13.7	86.3	92.6	7.4	87.4	12.6	8.4	91.6	100.0	(95)
$x^2(df)$	5.615(3)		6.113(3)		2.613(3)		3.307(3)			
지역규모										
대도시	9.1	90.9	88.2	11.8	86.6	13.4	8.1	91.9	100.0	(186)
중소도시	9.4	90.6	92.2	7.8	79.7	20.3	7.8	92.2	100.0	(64)
읍면지역	-	100.0	100.0	-	60.0	40.0	-	100.0	100.0	(5)
$x^2(df)$	0.509(2)		1.415(2)		3.980(2)		0.438(2)			

주: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한 25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방학 중 아침돌봄 이용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방학 중 아침돌봄 신청자의 65.2%가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Ⅷ-1-35〉 유형 별 초등돌봄교실 이용 여부와 이용 시간(아침돌봄)(방학 중)

단위: 분, %(명)

구분	아침돌봄		계	(수)	평균 이용시간	(수)
	이용	미이용				
전체	65.2	34.8	100.0	(23)	62.33	(15)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75.0	25.0	100.0	(4)	80.00	(3)
400~500만원 미만	100.0	-	100.0	(3)	48.33	(3)
500~600만원 미만	100.0	-	100.0	(3)	40.00	(3)
600만원 이상	46.2	53.8	100.0	(13)	71.67	(6)
$x^2(df)$ / F	5.615(3)				0.514	
지역규모						
대도시	70.6	29.4	100.0	(17)	57.92	(12)
중소도시	50.0	50.0	100.0	(6)	80.00	(3)
읍면지역	-	-	-	-	-	-
$x^2(df)$ / F	0.509(2)				0.550	

주: 방학 중 아침돌봄교실을 신청한 23명과 실제 이용한 1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방학 중 오전돌봄 이용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방학 중 오전돌봄 신청자의 96.9%가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Ⅶ-1-36〉 유형 별 초등돌봄교실 이용 여부와 이용 시간(오전돌봄)(방학 중)

단위: 분, %(명)

구분	오전돌봄		계	(수)	평균 이용시간	(수)
	이용	미이용				
전체	96.9	3.1	100.0	(228)	173.12	(221)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96.4	3.6	100.0	(28)	172.22	(27)
400~500만원 미만	95.0	5.0	100.0	(60)	173.51	(57)
500~600만원 미만	96.2	3.8	100.0	(52)	178.60	(50)
600만원 이상	98.9	1.1	100.0	(88)	170.00	(87)
$x^2(df)$ / F	6.133(3)				1.728	
지역규모						
대도시	97.0	3.0	100.0	(164)	171.32	(159)
중소도시	96.6	3.4	100.0	(59)	177.54	(57)
읍면지역	100.0	-	100.0	(5)	180.00	(5)
$x^2(df)$ / F	1.415(1)				2.033	

주: 방학 중 오전돌봄교실을 신청한 228명과 실제 이용한 22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방학 중 오후돌봄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방학 중 오후돌봄 신청자의 96.3%가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Ⅶ-1-37〉 유형 별 초등돌봄교실 이용 여부와 이용 시간(오후돌봄)(방학 중)

단위: 분, %(명)

구분	오후돌봄		계	(수)	평균 이용시간	(수)
	이용	미이용				
전체	96.3	3.7	100.0	(215)	231.66	(207)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100.0	-	100.0	(29)	231.72	(29)
400~500만원 미만	98.0	2.0	100.0	(50)	238.57	(49)
500~600만원 미만	96.2	3.8	100.0	(53)	231.27	(51)
600만원 이상	94.0	6.0	100.0	(83)	227.55	(78)
$x^2(df)$ / F	2.613(3)				0.224	
지역규모						
대도시	98.1	1.9	100.0	(161)	240.47	(158)
중소도시	90.2	9.8	100.0	(51)	199.57	(46)

구분	오후돌봄		계	(수)	평균 이용시간	(수)
	이용	미이용				
읍면지역	100.0	-	100.0	(3)	260.00	(3)
$x^2(df)$ / F	3.980(2)				6.031**	

주: 방학 중 오후돌봄교실을 신청한 215명과 실제 이용한 2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1$.

방학 중 저녁돌봄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저녁돌봄 신청자의 80.0%가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방학 중 오전돌봄과 오후돌봄은 학교에서 신청자를 대부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제공되고 있으나,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은 제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Ⅶ-1-38〉 유형 별 초등돌봄교실 이용 여부와 이용 시간(저녁돌봄)(방학 중)

단위: 분, %(명)

구분	저녁돌봄		계	(수)	평균 이용시간	(수)
	이용	미이용				
전체	80.0	20.0	100.0	(20)	168.75	(16)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80.0	20.0	100.0	(5)	157.50	(4)
400~500만원 미만	66.7	33.3	100.0	(3)	180.00	(2)
500~600만원 미만	75.0	25.0	100.0	(4)	160.00	(3)
600만원 이상	87.5	12.5	100.0	(8)	175.71	(7)
$x^2(df)$ / F	3.307(3)				0.028	
지역규모						
대도시	80.0	20.0	100.0	(15)	150.00	(12)
중소도시	80.0	20.0	100.0	(5)	225.00	(4)
읍면지역	-	-	-	-	-	-
$x^2(df)$ / F	0.438(2)				1.360	

주: 방학 중 저녁돌봄교실을 신청한 20명과 실제 이용한 1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방학 중 아침돌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53.3%, 만족하는 편 33.3%, 매우 만족 및 매우 불만족이 각각 6.7%로 나타났다.

〈표 Ⅶ-1-39〉 유형 별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만족도(아침돌봄)(방학 중)

단위: %(명), 점

구분	아침돌봄					계	(수)	평균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전체	6.7	-	53.3	33.3	6.7	100.0	(15)	3.33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	-	33.3	33.3	33.3	100.0	(3)	4.00
400~500만원 미만	-	-	33.3	66.7	-	100.0	(3)	3.67
500~600만원 미만	33.3	-	66.7	-	-	100.0	(3)	2.33
600만원 이상	-	-	66.7	33.3	-	100.0	(6)	3.33
$x^2(df)$ / F			10.750(9)					0.514
지역규모								
대도시	8.3	-	50.0	41.7	-	100.0	(12)	3.25
중소도시	-	-	66.7	-	33.3	100.0	(3)	3.67
읍면지역	-	-	-	-	-	-	-	-
$x^2(df)$ / F			5.625(3)					0.496

주: 방학 중 아침돌봄교실을 이용한 1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방학 중 오전돌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27.6%, 만족하는 편 53.8%, 매우 만족 16.7%로 나타나 아침돌봄보다 대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준다.

〈표 Ⅶ-1-40〉 유형 별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만족도(오전돌봄)(방학 중)

단위: %(명), 점

구분	오전돌봄					계	(수)	평균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전체	0.9	0.9	27.6	53.8	16.7	100.0	(221)	3.85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	3.7	14.8	59.3	22.2	100.0	(27)	4.00
400~500만원 미만	1.8	-	22.8	49.1	26.3	100.0	(57)	3.98
500~600만원 미만	-	-	36.0	50.0	14.0	100.0	(50)	3.78
600만원 이상	1.1	1.1	29.9	57.5	10.3	100.0	(87)	3.75
$x^2(df)$ / F			14.776(12)					1.727
지역규모								
대도시	1.3	1.3	27.7	50.9	18.9	100.0	(159)	3.85
중소도시	-	-	28.1	61.4	10.5	100.0	(57)	3.82
읍면지역	-	-	20.0	60.0	20.0	100.0	(5)	4.00
$x^2(df)$ / F			4.334(8)					0.134

주: 방학 중 오전돌봄교실을 이용한 22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의 월평균 비용은 7만 4천원으로 나타났는데 대도시일수록 월평균 비용이 높아졌다.

〈표 Ⅶ-1-41〉 초등돌봄교실 월평균 비용(방학 중)

단위: 만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7.40	7.64	(255)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8.00	9.17	(34)
400~500만원 미만	7.80	8.80	(64)
500~600만원 미만	6.29	7.02	(62)
600만원 이상	7.65	6.59	(95)
F	0.595		
지역규모			
대도시	8.24	8.34	(186)
중소도시	5.53	4.65	(64)
읍면지역	0.4	0.9	(5)
F	5.298**		

주: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 25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1$.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1,2,3순위 합계 기준으로 '돌볼 사람이 없어서'가 81.2%로 가장 높았고,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가 47.5%,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가 44.7%, '돌봄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되어서'가 26.3%로 나타났다. 또래 친구와 놀게 하기 위한 목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교우관계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돌봄에서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교육비 부담 및 돌봄 비용 정부 지원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기준에서 비용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을 보여준다.

〈표 Ⅶ-1-42〉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①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②돌볼 사람이 없어서	③숙제 등 학습 관리를 받기 위해	④프로그램이 좋아서	⑤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⑥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⑦돌봄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되어서	⑧ 기타	계	(수)
1순위	5.1	74.1	3.1	5.1	4.7	4.3	3.5	-	100.0	(255)
2순위	4.6	4.6	11.6	8.3	31.0	27.3	12.5	-	100.0	(216)
3순위	6.4	4.7	8.7	11.0	24.4	25.6	18.0	1.2	100.0	(172)
1+2+3순위	13.3	81.2	18.8	19.6	47.5	44.7	26.3	0.8		(255)

주: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 25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1순위는 '돌볼 사람이 없어서'가 74.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Ⅶ-1-43〉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1순위)

단위: %(명)

구분	①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②돌볼 사람이 없어서	③숙제 등 학습 관리를 받기 위해	④프로그램이 좋아서	⑤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⑥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⑦돌봄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되어서	계	(수)
전체	5.1	74.1	3.1	5.1	4.7	4.3	3.5	100.0	(255)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11.8	73.5	2.9	2.9	2.9	2.9	2.9	100.0	(34)
400~500만원 미만	3.1	78.1	1.6	4.7	4.7	6.3	1.6	100.0	(64)
500~600만원 미만	3.2	71.0	3.2	8.1	8.1	3.2	3.2	100.0	(62)
600만원 이상	5.3	73.7	4.2	4.2	3.2	4.2	5.3	100.0	(95)
$x^2(df)$				11.151(18)					
지역규모									
대도시	5.4	71.5	4.3	7.0	3.8	4.8	3.2	100.0	(186)
중소도시	4.7	84.4	-	-	4.7	1.6	4.7	100.0	(64)
읍면지역	-	40.0	-	-	40.0	20.0	-	100.0	(5)
$x^2(df)$				28.108(12)**					

주: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 25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1$.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2순위로는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가 31.0%로 가장 높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가 27.3%, '돌봄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되어서'가 12.5%로 나타나 또래 친구와의 교우관계 다음으로 비용 문제가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주었다.

〈표 Ⅷ-1-44〉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2순위)

단위: %(명)

구분	①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②돌볼 사람이 없어서	③숙제 등 학습 관리를 받기 위해	④프로그램이 좋아서	⑤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⑥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⑦돌봄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되어서	계	(수)
전체	4.6	4.6	11.6	8.3	31.0	27.3	12.5	100.0	(216)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	-	11.1	3.7	40.7	33.3	11.1	100.0	(27)
400~500만원 미만	1.8	-	17.5	14.0	28.1	29.8	8.8	100.0	(57)
500~600만원 미만	9.3	5.6	14.8	11.1	14.8	31.5	13.0	100.0	(54)
600만원 이상	5.1	9.0	5.1	3.8	41.0	20.5	15.4	100.0	(78)
$x^2(df)$				33.761(18)*					
지역규모									
대도시	3.1	3.7	13.6	10.5	30.2	24.7	14.2	100.0	(162)
중소도시	10.0	8.0	6.0	2.0	32.0	36.0	6.0	100.0	(50)
읍면지역	-	-	-	-	50.0	25.0	25.0	100.0	(4)
$x^2(df)$				16.733(14)					

주: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중 이용하는 주된 이유 2순위 응답자 21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학기 중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였으나 방학 중에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1,2,3순위 합계 기준으로 '조부모 또는 친인척 돌봄'이 61.3%로 가장 높았고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방학 프로그램 이용'이 41.9%로, '여행 또는 휴가'와 기타가 각각 28.0%, '공공기관의 방학 프로그램 이용'이 23.7%로 나타났다.

〈표 Ⅶ-1-45〉 학기 중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였으나, 방학 중에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①공공기관의 방학 프로그램 이용	②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방학 프로그램 이용	③조부모 또는 친인척 돌봄	④공공아이 돌보미 이용	⑤민간 육아 도우미 이용	⑥ 여행 또는 휴가	⑦ 기타	계	(수)
1순위	9.7	16.1	38.7	3.2	2.2	5.4	24.7	100.0	(93)
2순위	13.2	37.7	24.5	1.9	-	20.8	1.9	100.0	(53)
3순위	16.7	11.1	22.2	11.1	5.6	27.8	5.6	100.0	(36)
1+2+3순위	23.7	41.9	61.3	7.5	5.4	28.0	28.0		(93)

주: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중 방학 중 이용하지 않는 9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학기 중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였으나 방학 중에 이용하지 않는 이유 1순위로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돌봄'이 38.7%, 기타가 24.7%,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방학 프로그램 이용'이 16.1%, '공공기관의 방학 프로그램 이용'이 9.7%, '여행 또는 휴가' 5.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Ⅶ-1-46〉 학기 중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였으나, 방학 중에 이용하지 않는 이유(1순위)

단위: %(명)

구분	①공공기관의 방학 프로그램 이용	②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방학 프로그램 이용	③조부모 또는 친인척 돌봄	④공공아이 돌보미 이용	⑤민간 육아 도우미 이용	⑥ 여행 또는 휴가	⑦기타	계	(수)
전체	9.7	16.1	38.7	3.2	2.2	5.4	24.7	100.0	(93)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15.8	5.3	42.1	-	-	5.3	31.6	100.0	(19)
400~500만원 미만	5.3	15.8	31.6	5.3	-	10.5	31.6	100.0	(19)
500~600만원 미만	10.0	20.0	40.0	5.0	5.0	10.0	10.0	100.0	(20)
600만원 이상	8.6	20.0	40.0	2.9	2.9	-	25.7	100.0	(35)
$x^2(df)$			12.20(18)						
지역규모									
대도시	11.8	20.6	36.8	1.5	2.9	4.4	22.1	100.0	(68)
중소도시	5.6	5.6	38.9	5.6	-	11.1	33.3	100.0	(18)
읍면지역	-	-	57.1	14.3	-	-	28.6	100.0	(7)
$x^2(df)$			11.909(12)						

주: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중 방학 중 이용하지 않는 9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학기 중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였으나 방학 중에 이용하지 않는 이유 2순위로는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방학 프로그램 이용'이 37.7%로 가장 높았고, '조부모 또는 친인척 돌봄'이 24.5%, '여행 또는 휴가'가 20.8%, '공공기관의 방학 프로그램 이용'이 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Ⅷ-1-47〉 학기 중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였으나, 방학 중에 이용하지 않는 이유(2순위)

단위: %(명)

구분	①공공기관의 방학 프로그램 이용	②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방학 프로그램 이용	③조부모 또는 친인척 돌봄	④공공아이돌보미 이용	⑤민간육아도우미 이용	⑥여행 또는 휴가	⑦기타	계	(수)
전체	13.2	37.7	24.5	-	1.9	20.8	1.9	100.0	(53)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11.1	33.3	11.1	-	-	33.3	11.1	100.0	(9)
400~500만원 미만	28.6	42.9	-	-	-	28.6	-	100.0	(7)
500~600만원 미만	14.3	35.7	21.4	-	7.1	21.4	-	100.0	(14)
600만원 이상	8.7	39.1	39.1	-	-	13.0	-	100.0	(23)
$x^2(df)$			15.430(15)						
지역규모									
대도시	15.9	34.1	25.0	-	2.3	22.7	-	100.0	(44)
중소도시	-	50.0	33.3	-	-	-	16.7	100.0	(6)
읍면지역	-	66.7	-	-	-	33.3	-	100.0	(3)
$x^2(df)$			13.015(10)						

주: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중 방학 중 이용하지 않는 이유 2순위 응답자 5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마. 방과후학교 이용 실태

1) 학기 중 방과후학교

학기 중 방과후학교 학습프로그램의 이용여부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73.9%가 학기 중 방과후학교 학습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다. 주당 개수는 1.61개이고, 월평균 비용은 7만 7천 5백원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가 클수록 학습프로그램을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취업모인 경우 학습프로그램 주당 개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1-48〉 방과후학교 이용여부와 개수, 비용(학습프로그램)(학기 중)

단위: %(명), 개, 만원

구분	학습프로그램		계	(수)	개수(주당)	프로그램 비용(월)	(수)
	이용	미이용					
전체	73.9	26.1	100.0	(463)	1.61	7.75	(342)
모 취업상태							
전업모	74.7	25.3	100.0	(158)	1.48	6.83	(118)
취업모	73.4	26.6	100.0	(305)	1.68	8.24	(224)
$x^2(df)$/t	0.083(1)				-2.053*	-1.653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72.4	27.6	100.0	(98)	1.49	8.49	(71)
400~500만원 미만	73.4	26.6	100.0	(109)	1.53	7.15	(80)
500~600만원 미만	66.7	33.3	100.0	(108)	1.58	6.72	(72)
600만원 이상	80.4	19.6	100.0	(148)	1.76	8.34	(119)
$x^2(df)$/F	6.293(3)				1.971	1.098	
지역규모							
대도시	76.4	23.6	100.0	(347)	1.58	7.85	(265)
중소도시	68.9	31.1	100.0	(103)	1.73	7.68	(71)
읍면지역	46.2	53.8	100.0	(13)	1.67	4.33	(6)
$x^2(df)$/F	7.597(2)*				0.964	0.649	

주: 학기 중 방과후학교를 신청한 463명과 방과후학교 학습프로그램을 이용한 342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학기 중 방과후학교 예체능프로그램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9.7%가 학기 중 방과후학교 예체능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다. 주당 개수는 1.63개이고 월평균 프로그램 비용은 7만 5천원이었다.

〈표 Ⅶ-1-49〉 방과후학교 이용여부와 개수, 비용(예체능프로그램)(학기 중)

단위: %(명), 개, 만원

구분	예체능프로그램		계	(수)	개수(주당)	프로그램 비용(월)	(수)
	이용	미이용					
전체	79.7	20.3	100.0	(463)	1.63	7.50	(369)
모 취업상태							
전업모	76.6	23.4	100.0	(158)	1.69	7.46	(121)
취업모	81.3	18.7	100.0	(305)	1.60	7.51	(248)
$x^2(df)$/t	1.439(1)				0.938	-0.061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77.6	22.4	100.0	(98)	1.51	7.05	(76)
400~500만원 미만	77.1	22.9	100.0	(109)	1.74	7.14	(84)

구분	예체능프로그램		계	(수)	개수(주당)	프로그램 비용(월)	(수)
	이용	미이용					
500~600만원 미만	83.3	16.7	100.0	(108)	1.64	7.52	(90)
600만원 이상	80.4	19.6	100.0	(148)	1.62	8.01	(119)
$x^2(df)$/F	1.674(3)				1.122	0.360	
지역규모							
대도시	76.7	23.3	100.0	(347)	1.57	7.62	(266)
중소도시	90.3	9.7	100.0	(103)	1.81	7.47	(93)
읍면지역	76.9	23.1	100.0	(13)	1.70	4.40	(10)
$x^2(df)$/F	9.188(2)				3.310*	0.956	

주: 학기 중 방과후학교를 신청한 463명과 방과후학교 예체능프로그램을 이용한 36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학기 중 방과후학교 학습프로그램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 26.3%, 만족하는 편 59.4%, 매우 만족 12.0%로 대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표 Ⅶ-1-50〉 방과후학교의 서비스 만족도(학습프로그램)(학기 중)

단위: %(명), 점

구분	학습프로그램					계	(수)	평균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전체	0.3	2.0	26.3	59.4	12.0	100.0	(342)	3.81
모 취업상태								
전업모	0.8	-	23.7	64.4	11.0	100.0	(118)	3.85
취업모	-	3.1	27.7	56.7	12.5	100.0	(224)	3.79
$x^2(df)$/t			6.960(4)					0.804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	2.8	22.5	64.8	9.9	100.0	(71)	3.82
400~500만원 미만	-	-	23.8	57.5	18.8	100.0	(80)	3.95
500~600만원 미만	1.4	-	26.4	63.9	8.3	100.0	(72)	3.78
600만원 이상	-	4.2	30.3	54.6	10.9	100.0	(119)	3.72
$x^2(df)$/F			16.385(12)					1.881
지역규모								
대도시	0.4	2.3	25.3	61.9	10.2	100.0	(265)	3.79
중소도시	-	1.4	28.2	52.1	18.3	100.0	(71)	3.87
읍면지역	-	-	50.0	33.3	16.7	100.0	(6)	3.67
$x^2(df)$/F			6.885(8)					0.532

주: 학기 중 방과후학교 학습프로그램을 이용한 342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학기 중 방과후학교 예체능프로그램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 21.4%, 만족하는 편 58.3%, 매우 만족 18.7%로 학습프로그램보다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표 Ⅷ-1-51〉 방과후학교의 서비스 만족도(예체능프로그램)(학기 중)

단위: %(명), 점

구분	예체능프로그램					계	(수)	평균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전체	-	1.6	21.4	58.3	18.7	100.0	(369)	3.94
모 취업상태								
전업모	-	1.7	20.7	57.0	20.7	100.0	(121)	3.97
취업모	-	1.6	21.8	58.9	17.7	100.0	(248)	3.93
X^2(*df*)/t			0.466(3)					0.523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	5.3	23.7	48.7	22.4	100.0	(76)	3.88
400~500만원 미만	-	-	11.9	72.6	15.5	100.0	(84)	4.04
500~600만원 미만	-	-	27.8	50.0	22.2	100.0	(90)	3.94
600만원 이상	-	1.7	21.8	60.5	16.0	100.0	(119)	3.91
X^2(*df*)/F			21.870(9)**					0.830
지역규모								
대도시	-	1.9	20.7	58.6	18.8	100.0	(266)	3.94
중소도시	-	1.1	23.7	54.8	20.4	100.0	(93)	3.95
읍면지역	-	-	20.0	80.0	-	100.0	(10)	3.80
X^2(*df*)/F			3.762(6)					0.218

주: 학기 중 방과후학교 예체능프로그램을 이용한 36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1$.

학기 중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1,2,3순위 합계 기준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가 57.9%로 가장 높았고,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가 57.7%,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56.8%,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가 42.8%, '돌볼 사람이 없어서'가 37.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Ⅷ-1-52〉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학기 중)

단위: %(명)

구분	①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②프로그램이 좋아서	③돌볼 사람이 없어서	④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⑤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⑥ 기타	계	(수)
1순위	25.9	22.2	20.7	11.0	18.6	1.5	100.0	(463)
2순위	21.8	26.1	9.6	17.7	24.7	-	100.0	(417)
3순위	18.6	16.9	12.3	24.3	26.2	1.7	100.0	(301)
1+2+3순위	57.7	56.8	37.4	42.8	57.9	2.6		(463)

주: 학기 중 방과후학교를 이용한 46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학기 중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 1순위로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가 25.9%로 가장 높았고,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22.2%, '돌볼 사람이 없어서'가 20.7%,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가 18.6%,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가 11.0%로 나타났다.

〈표 Ⅷ-1-53〉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1순위)(학기 중)

단위: %(명)

구분	①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②프로그램이 좋아서	③돌볼 사람이 없어서	④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⑤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⑥ 기타	계	(수)
전체	25.9	22.2	20.7	11.0	18.6	1.5	100.0	(463)
모취업상태								
전업모	26.6	29.1	3.8	11.4	27.2	1.9	100.0	(158)
취업모	25.6	18.7	29.5	10.8	14.1	1.3	100.0	(305)
$x^2(df)$				48.218(5)***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20.4	30.6	7.1	8.2	31.6	2.0	100.0	(98)
400~500만원 미만	27.5	26.6	17.4	7.3	19.3	1.8	100.0	(109)
500~600만원 미만	25.9	19.4	21.3	13.9	18.5	0.9	100.0	(108)
600만원 이상	28.4	15.5	31.8	13.5	9.5	1.4	100.0	(148)
$x^2(df)$				46.863(15)***				
지역규모								
대도시	26.2	26.2	18.2	11.2	17.3	0.9	100.0	(347)
중소도시	26.2	9.7	29.1	9.7	21.4	3.9	100.0	(103)
읍면지역	15.4	15.4	23.1	15.4	30.8	-	100.0	(13)
$x^2(df)$				22.410(10)*				

주: 학기 중 방과후학교를 이용한 46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학기 중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 2순위로는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26.1%,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가 24.7%로 가장 높았고,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가 21.8%,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가 17.7%, '돌봄 사람이 없어서'가 9.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Ⅶ-1-54〉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2순위)(학기 중)

단위: %(명)

구분	①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②프로그램이 좋아서	③돌볼 사람이 없어서	④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⑤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계	(수)
전체	21.8	26.1	9.6	17.7	24.7	100.0	(417)
모취업상태							
전업모	29.7	28.3	5.5	15.2	21.4	100.0	(145)
취업모	17.6	25.0	11.8	19.1	26.5	100.0	(272)
$x^2(df)$			12.308(4)*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30.7	25.0	11.4	14.8	18.2	100.0	(88)
400~500만원 미만	19.8	29.7	6.9	17.8	25.7	100.0	(101)
500~600만원 미만	24.0	27.0	10.0	17.0	22.0	100.0	(100)
600만원 이상	15.6	23.4	10.2	20.3	30.5	100.0	(128)
$x^2(df)$			12.361(12)				
지역규모							
대도시	22.5	26.9	10.4	16.1	24.1	100.0	(316)
중소도시	19.3	25.0	6.8	22.7	26.1	100.0	(88)
읍면지역	23.1	15.4	7.7	23.1	30.8	100.0	(13)
$x^2(df)$			4.224(8)				

주: 학기 중 방과후학교 이용자 중 이용하는 주된 이유 2순위 응답자 41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방과후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1,2,3순위 합계 기준으로 '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가 43.7%로 가장 높았고, '자녀가 가고 싶어하지 않아서'가 41.0%, '방과후에 집에 보호자(부모나 조부모 등)가 있어서'가 35.9%,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아서'가 33.6%, '프로그램의 질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가

23.6%, '이용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해서'가 22.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Ⅷ-1-55〉 방과후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학기 중)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	(수)
1순위	25.4	11.7	13.5	6.9	4.1	15.6	17.4	5.5	100.0	(437)
2순위	14.4	10.5	17.4	15.0	9.6	19.2	12.9	0.9	100.0	(333)
3순위	14.4	4.5	13.5	10.4	13.1	21.2	17.1	5.9	100.0	(222)
1+2+3순위	43.7	22.0	33.6	23.6	18.1	41.0	35.9	9.2		(437)

주: 1) 학기 중 방과후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43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①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②이용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해서, ③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아서, ④프로그램의 질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 ⑤강사 대 아동 비율이 높아서, ⑥자녀가 가고 싶어하지 않아서, ⑦방과 후에 집에 보호자(부모나 조부모 등)가 있어서, ⑧기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방과후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1순위로는 '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가 25.4%로 가장 높았고, '방과후에 집에 보호자(부모나 조부모 등)가 있어서'가 17.4%, '자녀가 가고 싶어하지 않아서'가 15.6%,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아서'가 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Ⅷ-1-56〉 방과후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1순위)(학기 중)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	(수)
전체	25.4	11.7	13.5	6.9	4.1	15.6	17.4	5.5	100.0	(437)
모취업상태										
전업모	16.2	8.8	15.7	7.8	4.4	18.1	25.5	3.4	100.0	(204)
취업모	33.5	14.2	11.6	6.0	3.9	13.3	10.3	7.3	100.0	(233)
$x^2(df)$				36.460(7)***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21.8	12.1	14.5	4.8	2.4	21.8	14.5	8.1	100.0	(124)
400~500만원 미만	29.2	8.5	15.1	6.6	3.8	15.1	17.0	4.7	100.0	(106)
500~600만원 미만	23.5	11.1	11.1	9.9	8.6	11.1	23.5	1.2	100.0	(81)
600만원 이상	27.0	14.3	12.7	7.1	3.2	12.7	16.7	6.3	100.0	(126)
$x^2(df)$				22.520(21)						
지역규모										
대도시	22.7	12.1	14.5	7.6	4.8	16.6	17.5	4.2	100.0	(331)
중소도시	33.0	11.3	10.3	5.2	2.1	12.4	16.5	9.3	100.0	(97)
읍면지역	44.4	-	11.1	-	-	11.1	22.2	11.1	100.0	(9)
$x^2(df)$				14.790(14)						

주: 1) 학기 중 방과후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43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①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②이용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해서, ③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아서, ④프로그램의 질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 ⑤강사 대 아동 비율이 높아서, ⑥자녀가 가고 싶어하지 않아서, ⑦방과 후에 집에 보호자(부모나 조부모 등)가 있어서, ⑧기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01$.

방과후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2순위로는 '자녀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가 19.2%로 가장 높았고,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아서'가 17.4%, '프로그램의 질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가 15.0%, '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가 14.4%, '방과후에 집에 보호자(부모나 조부모 등)가 있어서'가 12.9%로 나타났다.

〈표 Ⅶ-1-57〉 방과후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2순위)(학기 중)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	(수)
전체	14.4	10.5	17.4	15.0	9.6	19.2	12.9	0.9	100.0	(333)
모취업상태										
전업모	14.3	12.4	16.1	13.7	9.9	14.9	17.4	1.2	100.0	(161)
취업모	14.5	8.7	18.6	16.3	9.3	23.3	8.7	0.6	100.0	(172)
$x^2(df)$				10.049(7)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14.7	11.6	16.8	11.6	10.5	14.7	18.9	1.1	100.0	(95)
400~500만원 미만	15.4	12.8	21.8	9.0	6.4	23.1	10.3	1.3	100.0	(78)
500~600만원 미만	15.9	9.5	11.1	17.5	11.1	20.6	12.7	1.6	100.0	(63)
600만원 이상	12.4	8.2	18.6	21.6	10.3	19.6	9.3	-	100.0	(97)
$x^2(df)$				17.820(21)						
지역규모										
대도시	13.9	8.9	18.1	16.6	8.9	20.1	12.4	1.2	100.0	(259)
중소도시	14.7	16.2	14.7	10.3	11.8	16.2	16.2	-	100.0	(68)
읍면지역	33.3	16.7	16.7	-	16.7	16.7	-	-	100.0	(6)
$x^2(df)$				10.688(14)						

주: 1) 학기 중 방과후학교 미이용자 중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2순위 응답자 33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①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②이용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해서, ③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아서, ④프로그램의 질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 ⑤강사 대 아동 비율이 높아서, ⑥자녀가 가고 싶어하지 않아서, ⑦방과 후에 집에 보호자(부모나 조부모 등)가 있어서, ⑧기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방과후학교 이용 의향으로는 '서비스 수준이 개선된다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67.0%로 가장 높았다.

〈표 Ⅷ-1-58〉 방과후학교 이용 의향

단위: %(명)

구분	조건없이 이용하겠다	서비스 수준이 개선 된다면 이용하겠다	서비스 수준이 개선 되어도 이용하지 않겠다	계	(수)
전체	27.0	67.0	5.9	100.0	(437)
모취업상태					
전업모	24.5	67.6	7.8	100.0	(204)
취업모	29.2	66.5	4.3	100.0	(233)
$x^2(df)$		3.20692)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28.2	66.9	4.8	100.0	(124)
400~500만원 미만	34.0	61.3	4.7	100.0	(106)
500~600만원 미만	16.0	80.2	3.7	100.0	(81)
600만원 이상	27.0	63.5	9.5	100.0	(126)
$x^2(df)$		12.350(6)			
지역규모					
대도시	25.7	68.3	6.0	100.0	(331)
중소도시	33.0	61.9	5.2	100.0	(97)
읍면지역	11.1	77.8	11.1	100.0	(9)
$x^2(df)$		3.474(4)			

주: 학기 중 방과후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43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바. 지역아동센터 이용 실태

1) 학기 중 지역아동센터

학기 중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시간대를 조사하였는데, 총 16명이 응답하였다. 오후돌봄에는 응답자 모두 신청하였고, 저녁 돌봄은 18.8%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후 돌봄은 93.8%가 실제 이용한다고 응답했고 저녁돌봄은 3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지역아동센터 월평균 이용 비용은 5만 6천 9백원이었다.

〈표 Ⅶ-1-59〉 지역아동센터 시간 유형별 신청/이용여부 및 월평균 비용(학기 중)

단위: %(명), 만원

구분	신청여부			이용여부			월평균 비용
	신청	미신청	계	이용	미이용	계	
오후돌봄	100.0	-	100.0(16)	93.8	6.3	100.0(15)	5.69
저녁돌봄	18.8	81.3	100.0(16)	100.0	-	100.0(3)	

주: 학기 중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16명과 오후돌봄 이용한 15명/저녁돌봄 이용한 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학기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오후 돌봄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67점이었으며, 저녁돌봄은 4.00점으로 나타났다.

〈표 Ⅶ-1-60〉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만족도(학기 중)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계	평균
오후돌봄	-	-	40.0	53.3	6.7	100.0(15)	3.67
저녁돌봄	-	-	33.3	33.3	33.3	100.0(3)	4.00

주: 학기 중 지역아동센터 오후돌봄을 이용한 15명/저녁돌봄 이용한 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초등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질문한 결과, '부모가 데리고 감', '지역아동센터 차량으로 이동함' 및 기타 응답이 각각 25.0%로 가장 높았고, '조부모 또는 친척이 데리고 감'과 '학원차량 등 기타차량으로 이동함' 응답이 각각 12.5%로 나타났다.

〈표 Ⅶ-1-61〉 초등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로의 이동방법(학기 중)

단위: %(명)

구분	부모가 데리고 감	조부모 또는 친척이 데리고 감	공공 아이돌보미가 데리고 감	민간 육아도우미가 데리고 감	지역아동센터 차량으로 이동함	학원차량 등 기타 차량으로 이동함	기타	계	(수)
전체	25.0	12.5	-	-	25.0	12.5	25.0	100.0	(16)

주: 학기 중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1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학기 중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1순위에서는 돌볼 사람이 없어서 이용하는 비율이 43.8%로 가장 높았고, 아이의 전인적 발달(18.8%), 숙제 등 학습관리를 받기 위해(12.5%), 또래 친구와의 놀이 시간을 위해(12.5%), 정부의 돌봄 비용 지원(6.3%), 급식 제공(6.3%) 순으로 응답하였다. 2순위에서는 프로그램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28.6%로 가장 높았고, 아이의 전인적 발달과 학습관리를 위해서, 급식 제공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은 각각 21.4%, 또래친구와 놀게 하기 위해서는 7.1%로 나타났다. 3순위에서는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이용한다는 응답과 정부의 돌봄 비용 지원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30.8% 동률로 가장 높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아이의 전인적 발달, 돌볼 사람이 없어서, 좋은 프로그램 등도 이유로 언급되었다. 1순위에서 3순위까지 합산 결과, 돌볼 사람의 부재가 학기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50.0%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이의 전인적 발달과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라는 응답이 43.8%, 숙제 등 학습관리를 받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정부의 돌봄 비용 지원이 31.3% 동률로 나타났다. 이 외에 급식제공, 사교육비 부담 절감은 각각 25.0%, 12.5%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이유로 꼽았다.

〈표 Ⅷ-1-62〉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학기 중)

단위: %(명)

구분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돌볼 사람이 없어서	숙제 등 학습 관리를 받기 위해	프로그램이 좋아서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돌봄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 되어서	급식이 제공 되어서	계	(수)
1순위	18.8	43.8	12.5	-	12.5	-	6.3	6.3	100.0	(16)
2순위	21.4	-	21.4	28.6	7.1	-	-	21.4	100.0	(14)
3순위	7.7	7.7	-	7.7	30.8	15.4	30.8	-	100.0	(13)
1+2+3순위	43.8	50.0	31.3	31.3	43.8	12.5	31.3	25.0		(16)

주: 학기 중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1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2)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시간대를 조사한 결과, 오후돌봄 신청이 65.0%로 가장 높았고, 오전돌봄은

60.0%, 저녁돌봄은 10.0%로 나타났다. 오전돌봄을 신청한 20명 중 12명이 실제로 오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오후돌봄은 13명, 저녁돌봄은 2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해당 결과는 총 20명 응답을 분석한 것으로 표집수가 상당히 적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응답자의 지역아동센터 월평균 이용비용은 약 9만 7천원이었다.

〈표 Ⅶ-1-63〉 지역아동센터 시간 유형별 신청/이용여부 및 월평균 비용(방학 중)

단위: %(명), 만원

구분	신청여부			이용여부			월평균 비용
	신청	미신청	계	이용	미이용	계	
오전돌봄	60.0	40.0	100.0(20)	100.0	-	100.0(12)	9.70
오후돌봄	65.0	35.0	100.0(20)	92.3	7.7	100.0(13)	
저녁돌봄	10.0	90.0	100.0(20)	100.0	-	100.0(2)	

주: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20명과 오전돌봄 이용자 12명/오후돌봄 이용자 13명/저녁돌봄 이용자 2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실제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오후 돌봄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8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오전 돌봄은 3.58점, 저녁 돌봄은 3.50점으로 나타났다.

〈표 Ⅶ-1-64〉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만족도(방학 중)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보통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계	평균
오전돌봄	-	-	41.7	58.3	-	100.0(12)	3.58
오후돌봄	-	-	33.3	50.0	16.7	100.0(12)	3.83
저녁돌봄	-	-	50.0	50.0	-	100.0(2)	3.50

주: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오전돌봄 이용자 12명/ 오후돌봄 이용자 12명/ 저녁돌봄 이용자 2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1순위에서는 돌볼 사람이 없어서 이용한다는 응답이 4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숙제 등 학습관리를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0.0%,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라는 응답이 15.0%로 나타났다. 돌봄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0.0%, 아

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와 급식이 제공되어서라는 응답 비율은 5.0%였다.

2순위 응답에서는 숙제 등 학습관리를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6.3%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프로그램이 좋아서와 돌봄비용이 정부에서 지원되어서라는 응답이 21.1%로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및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각각 10.5%로 나타났다. 3순위 응답에서는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이용한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순위에서 3순위까지 합산 결과를 보면, 숙제 등 학습관리를 받기 위해 이용하다는 응답 및 친구와 놀게 하려고 이용한다는 응답이 동률인 55.0%로 가장 높았으며 돌볼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50.0%, 돌봄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되어서라는 응답도 40.0%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프로그램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25.0%,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은 20.0%로 낮지 않았으며, 사교육비 부담 절감 및 급식 제공이 되어서라는 이유로 이용하는 경우도 각각 15.0%, 10.0%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1-65〉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방학 중)

단위: %(명)

구분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돌볼 사람이 없어서	숙제 등 학습 관리를 받기 위해	프로그램이 좋아서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돌봄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 되어서	급식이 제공 되어서	계	(수)
1순위	5.0	45.0	20.0	-	15.0	-	10.0	5.0	100.0	(20)
2순위	5.3	5.3	26.3	21.1	10.5	10.5	21.1	-	100.0	(19)
3순위	13.3	-	13.3	6.7	40.0	6.7	13.3	6.7	100.0	(15)
1+2+3순위	20.0	50.0	55.0	25.0	55.0	15.0	40.0	10.0		(20)

주: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2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사.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실태

1) 학기 중 다함께돌봄센터

학기 중 다함께돌봄센터 시간 유형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저녁 돌봄 이용자는 표집되지 않았고, 오후 돌봄 이용자 6사례가 응답하였다. 이용자가 과소표집되었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 결과를 해석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의 다함

께돌봄센터 월평균 이용 비용은 약 9만 6천 7백원이었다.

학기 중 다함께돌봄센터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3.83점으로 다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1-66〉 다함께돌봄센터 시간 유형별 신청/이용여부 및 월평균 비용(학기 중)

단위: %(명), 만원

구분	신청여부			이용여부			월평균 비용
	신청	미신청	계	이용	미이용	계	
오후돌봄	100.0	-	100.0(6)	100.0	-	100.0(6)	9.67
저녁돌봄	-	100.0	100.0(6)	-	-	-	

주: 학기 중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한 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표 Ⅶ-1-67〉 다함께돌봄센터 서비스 만족도(학기 중)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보통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계	평균
오후돌봄	-	-	33.3	50.0	16.7	100.0(6)	3.83

주: 학기 중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한 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초등학교에서 다함께돌봄센터로의 이동방법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직접 이동시키는 경우가 3분의 2였으며, 나머지는 다함께돌봄센터 차량으로 센터로 이동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Ⅶ-1-68〉 초등학교에서 다함께돌봄센터의 이동방법(학기 중)

단위: %(명)

구분	부모가 데리고 감	조부모 또는 친척이 데리고 감	공공 아이돌보미가 데리고 감	민간 육아도우미가 데리고 감	다함께돌봄센터 차량으로 이동함	학원차량 등 기타 차량으로 이동함	기타	계	(수)
전체	66.7	-	-	-	33.3	-	-	100.0	(6)

주: 학기 중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한 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1순위에서는 돌볼 사람의 부재 및 학습관리를 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50.0% 동률로 가장 많았다. 2순위에서는 프로그램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순위에서는 4사례만 응답하였는데,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는 이유가 75.0%로 가장 높았으며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용한다는 응답도 25.0%로 나타났다. 순위 합산 결과, 숙제 등 학습관리를 위해 및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이용한다는 응답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돌볼 사람의 부재 및 프로그램이 좋아서도 50.0% 동률로 나타났다.

〈표 Ⅷ-1-69〉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학기 중)

단위: %(명)

구분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돌볼 사람이 없어서	숙제 등 학습관리를 받기 위해	프로그램이 좋아서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계	(수)
1순위	-	50.0	50.0	-	-	-	100.0	(6)
2순위	16.7	-	16.7	33.3	16.7	16.7	100.0	(6)
3순위	-	-	-	25.0	75.0	-	100.0	(4)
1+2+3순위	16.7	50.0	66.7	50.0	66.7	16.7		(6)

주: 학기 중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한 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학기 중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1순위와 2순위에서 각각 26.3%, 19.4%로 가장 높았고, 합산 순위에서도 45.3%가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주변에 해당 시설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합산 순위에서도 40.9%로 두 번째로 높았다. 즉, 현재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점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가 적은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는 방과후에 집에 보호자가 있어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합산 33.0%로 세 번째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은 서비스의 질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23.5%로 낮지 않았다.

〈표 Ⅶ-1-70〉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학기 중)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7.7	5.5	3.2	13.8
이용 자격 기준이 되지 않아서	7.5	6.4	5.4	15.4
이용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해서	2.0	3.3	2.8	6.2
주변에 해당 시설이 없어서	22.1	17.1	10.0	40.9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알지 못해서	26.3	19.4	7.2	45.3
서비스의 질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	5.8	13.5	13.0	23.5
원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아서	2.2	5.8	8.4	11.4
자녀가 가고 싶어하지 않아서	4.4	7.7	12.8	17.4
방과 후에 집에 보호자(부모나 조부모 등)가 있어서	14.7	12.3	15.8	33.0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므로	3.1	4.9	10	12.5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1.6	3.3	9.2	9.3
기타	2.6	0.9	2.2	4.5
계(수)	100.0(894)	100.0(691)	100.0(500)	(894)

주: 학기 중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8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향후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서비스 수준이 개선된다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수준이 개선되어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24.8%, 조건 없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15.7%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라 이용 의향을 비교한 결과, 취업모가 전업모에 비해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경우 이용 의향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전업모는 개선되어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취업모에 비해 다소 높았다.

〈표 Ⅶ-1-71〉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의향

단위: %(명)

구분	조건없이 이용하겠다	서비스 수준이 개선된다면 이용하겠다	서비스 수준이 개선되어도 이용하지 않겠다	계	(수)
전체	15.7	59.5	24.8	100.0	(894)
모취업상태					
전업모	14.9	55.8	29.3	100.0	(362)
취업모	16.2	62.0	21.8	100.0	(532)
$\chi^2(df)$		6.469(2)*			
소득수준					

구분	조건없이 이용하겠다	서비스 수준이 개선된다면 이용하겠다	서비스 수준이 개선되어도 이용하지 않겠다	계	(수)
400만원 미만	14.9	55.2	29.9	100.0	(221)
400~500만원 미만	19.2	61.7	19.2	100.0	(214)
500~600만원 미만	15.0	62.6	22.5	100.0	(187)
600만원 이상	14.0	59.2	26.8	100.0	(272)
$x^2(df)$		9.348(6)			
지역규모					
대도시	13.7	60.3	26.0	100.0	(672)
중소도시	21.5	57.5	21.0	100.0	(200)
읍면지역	22.7	54.5	22.7	100.0	(22)
$x^2(df)$		8.632(4)			

주: 학기 중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8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2)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한 11사례를 대상으로, 오전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봄의 신청여부와 이용 여부, 이용한 시간, 서비스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신청여부를 살펴보면, 오전돌봄과 오후돌봄은 각각 54.5%, 90.9%가 방학 중 이용을 희망하여 신청하였으며, 저녁돌봄은 36.4%가 신청하였다.

유형별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여부와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신청자 중, 83.3%가 오전 돌봄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평균시간은 132분으로 나타났다.

〈표 Ⅷ-1-72〉 유형 별 다함께돌봄센터 신청/이용 여부와 이용 시간(오전돌봄)(방학 중)

단위: 분, %(명)

구분	오전돌봄		오전돌봄		계	(수)	평균 시간	(수)
	신청	미신청	이용	미이용				
전체	54.5	45.5	83.3	16.7	100.0	(11)/(6)	132.0	(5)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100.0	-	100.0	-	100.0	(1)/(1)	180.0	(1)
400~500만원 미만	-	-	-	-	-	-	-	-
500~600만원 미만	33.3	66.7	100.0	-	100.0	(6)/(2)	150.0	(2)
600만원 이상	75.0	25.0	66.7	33.3	100.0	(4)/(3)	90.0	(2)
$x^2(df)/F$	2.597(2)		1.200(2)				1.800	
지역규모								
대도시	37.5	62.5	100.0	-	100.0	(8)/(3)	140.0	(3)
중소도시	100.0	-	66.7	33.3	100.0	(3)/(3)	120.0	(2)
읍면지역	-	-	-	-	-	-	-	-

구분	오전돌봄		오전돌봄		계	(수)	평균 시간	(수)
	신청	미신청	이용	미이용				
$x^2(df)/F$	3.438(1)		1.200(1)				0.150	

주: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를 신청한 11명과 오전돌봄을 이용한 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오후돌봄은 신청자 중 100%가 이용하였으며, 평균시간은 201분으로 나타났다.

〈표 Ⅶ-1-73〉 유형 별 다함께돌봄센터 신청/이용 여부와 이용 시간(오후돌봄)(방학 중)

단위: 분, %(명)

구분	오후돌봄		오후돌봄		계	(수)	평균 시간	(수)
	신청	미신청	이용	미이용				
전체	90.9	9.1	100.0	-	100.0	(11)/(10)	201.00	(10)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100.0	-	100.0	-	100.0	(1)/(1)	210.00	(1)
400~500만원 미만	-	-	-	-	-	-	-	-
500~600만원 미만	83.3	16.7	100.0	-	100.0	(6)/(5)	252.00	(5)
600만원 이상	100.0	-	100.0	-	100.0	(4)/(4)	135.00	(4)
$x^2(df)/F$	0.917(2)						1.517	
지역규모								
대도시	87.5	12.5	100.0	-	100.0	(8)/(7)	235.71	(7)
중소도시	100.0	-	100.0	-	100.0	(3)/(3)	120.00	(3)
읍면지역	-	-	-	-	-	-	-	-
$x^2(df)/F$	0.413(1)						3.091	

주: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를 신청한 11명과 오후돌봄을 이용한 1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저녁돌봄은 신청자 중 100%가 이용하였으며, 평균시간은 187.5분으로 나타났다.

〈표 Ⅶ-1-74〉 유형 별 다함께돌봄센터 신청/이용 여부와 이용 시간(저녁돌봄)(방학 중)

단위: 분, %(명)

구분	저녁돌봄		저녁돌봄		계	(수)	평균 시간	(수)
	신청	미신청	이용	미이용				
전체	36.4	63.6	100.0	-	100.0	(11)/(4)	187.50	(4)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	100.0	-	-	100.0	(1)/(0)	-	(0)
400~500만원 미만	-	-	-	-	-	-	-	-
500~600만원 미만	50.0	50.0	100.0	-	100.0	(6)/(3)	230.00	(3)
600만원 이상	25.0	75.0	100.0	-	100.0	(4)/(1)	60.00	(1)

구분	저녁돌봄		저녁돌봄		계	(수)	평균 시간	(수)
	신청	미신청	이용	미이용				
$x^2(df)/F$	1.277(2)							
지역규모								
대도시	25.0	75.0	100.0	-	100.0	(8)/(2)	195.00	(2)
중소도시	66.7	33.3	100.0	-	100.0	(3)/(2)	180.00	(2)
읍면지역	-	-	-	-	-	-	-	-
$x^2(df)/F$	1.637(1)							

주: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를 신청한 11명과 저녁돌봄을 이용한 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의 오전 돌봄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매우 만족이 40.0%, 만족하는 편 20.0%, 보통 40.0%로, 5점 만점의 평균 4.00점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표 Ⅶ-1-75〉 유형 별 다함께돌봄센터 서비스 만족도(오전돌봄)(방학 중)

단위: %(명), 점

구분	오전돌봄					계	(수)	평균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전체	-	-	40.0	20.0	40.0	100.0	(5)	4.00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	-	100.0	-	-	100.0	(1)	3.00
400~500만원 미만	-	-	-	-	-	-	-	-
500~600만원 미만	-	-	50.0	-	50.0	100.0	(2)	4.00
600만원 이상	-	-	-	50.0	50.0	100.0	(2)	4.50
$x^2(df)/F$			3.750(4)					0.600
지역규모								
대도시	-	-	66.7	-	33.3	100.0	(3)	3.67
중소도시	-	-	-	50.0	50.0	100.0	(2)	4.50
읍면지역	-	-	-	-	-	-	-	-
$x^2(df)/F$			2.917(2)					0.789

주: 방학 중 오전돌봄을 이용한 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의 오후 돌봄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매우만족이 50.0%, 만족하는 편 40.0%, 보통 10.0%로, 모든 이용자가 오후돌봄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5점 만점의 평균 4.40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Ⅶ-1-76〉 유형 별 다함께돌봄센터 서비스 만족도(오후돌봄)(방학 중)

단위: %(명), 점

구분	오후돌봄					계	(수)	평균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하는편	③보통	④만족하는편	⑤매우 만족			
전체	-	-	10.0	40.0	50.0	100.0	(10)	4.40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	-	10.0	40.0	50.0	100.0	(1)	3.00
400~500만원 미만	-	-	-	-	-	-	-	-
500~600만원 미만	-	-	-	60.0	40.0	100.0	(5)	4.40
600만원 이상	-	-	-	25.0	75.0	100.0	(4)	4.75
$x^2(df)/F$			11.225(4)*					4.397
지역규모								
대도시	-	-	14.3	57.1	28.6	100.0	(7)	4.14
중소도시	-	-	-	-	100.0	100.0	(3)	5.00
읍면지역	-	-	-	-	-	-	-	-
$x^2(df)/F$			4.286(2)					4.320

주: 방학 중 오후돌봄을 이용한 1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의 저녁 돌봄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매우만족이 50.0%, 만족하는 편이 25.0%, 불만족하는 편이 25.0%로 나타났으며, 5점 만점의 평균 4.00점으로 나타났다.

〈표 Ⅶ-1-77〉 유형 별 다함께돌봄센터 서비스 만족도(저녁돌봄)(방학 중)

단위: %(명), 점

구분	저녁돌봄					계	(수)	평균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하는편	③보통	④만족하는편	⑤매우 만족			
전체	-	25.0	-	25.0	50.0	100.0	(4)	4.00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	-	-	-	-	-	-	-
400~500만원 미만	-	-	-	-	-	-	-	-
500~600만원 미만	-	33.3	-	33.3	33.3	100.0	(3)	3.67
600만원 이상	-	-	-	-	100.0	100.0	(1)	5.00
$x^2(df)/F$			1.333(2)					0.571

구분	저녁돌봄					계	(수)	평균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지역규모								
대도시	-	50.0	-	50.0	-	100.0	(2)	3.00
중소도시	-	-	-	-	100.0	100.0	(2)	5.00
읍면지역	-	-	-	-	-	-	-	-
$x^2(df)/F$			4.000(2)					4.000

주: 방학 중 저녁돌봄을 이용한 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방학 중에 초등자녀의 다함께돌봄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월 평균 12만 9천 1백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1-78〉 다함께돌봄센터 월평균 비용(방학 중)

단위: 만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2.91	10.89	(11)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35.00	-	(1)
400~500만원 미만	-	-	-
500~600만원 미만	11.17	11.37	(6)
600만원 이상	10.00	-	(4)
F	3.340		
지역규모			
대도시	14.63	12.44	(8)
중소도시	8.33	2.89	(3)
읍면지역	-	-	-
F	0.706		

주: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한 1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방학 중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를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1순위에서 3순위를 합산한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돌볼 사람이 없어서 이용하는 경우가 63.6%로 압도적이었으며, 숙제 등 학습관리를 받기 위해와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각각 54.5%와 36.4%로 나타났다.

〈표 Ⅶ-1-79〉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방학 중)

단위: %(명)

구분	①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②돌볼 사람이 없어서	③숙제 등 학습 관리를 받기 위해	④프로그램이 좋아서	⑤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⑥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⑦돌봄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 되어서	⑧ 급식이 제공 되어서	계	(수)
1순위	18.2	54.5	18.2	-	9.1	-	-	-	100.0	(11)
2순위	-	11.1	33.3	11.1	-	11.1	22.2	11.1	100.0	(9)
3순위	-	-	12.5	37.5	25.0	12.5	12.5	-	100.0	(8)
1+2+3순위	18.2	63.6	54.5	36.4	27.3	18.2	27.3	9.1		(11)

주: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한 1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방학 중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 1순위를 살펴보면, 돌볼 사람이 없어서 이용하는 경우가 54.5%로 가장 높고, 아이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 이용과 숙제 등 학습관리를 받기 위해 이용이 각 18.2%, 또래 친구와 놀게 하기 위해서 이용이 9.1%로 나타났다.

〈표 Ⅶ-1-80〉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1순위)(방학 중)

단위: %(명)

구분	①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②돌볼 사람이 없어서	③숙제 등 학습 관리를 받기 위해	④프로그램이 좋아서	⑤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⑥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⑦돌봄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 되어서	⑧ 급식이 제공 되어서	계	(수)
전체	18.2	54.5	18.2		9.1				100.0	(11)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	100.0	-	-	-	-	-	-	100.0	(1)
400~500만원 미만	-	-	-	-	-	-	-	-	-	-
500~600만원 미만	33.3	33.3	33.3	-	-	-	-	-	100.0	(6)
600만원 이상	-	75.0	-	-	25.0	-	-	-	100.0	(4)
$x^2(df)$				6.264(6)						
지역규모										
대도시	12.5	62.5	25.0	-	-	-	-	-	100.0	(8)
중소도시	33.3	33.3	-	-	33.3	-	-	-	100.0	(3)
읍면지역	-	-	-	-	-	-	-	-	-	-
$x^2(df)$				4.278(3)						

주: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한 1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아. 공공아이돌보미 이용 실태

1) 학기 중 공공아이돌보미

학기 중에 공공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응답자 2명을 대상으로 이용하는 주된 이유를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돌볼 사람이 없어서 이용하는 것(100%)으로 나타났다.

〈표 Ⅷ-1-81〉 공공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학기 중)

단위: %(명)

전체	①개인 돌봄이 필요해서	②돌볼 사람이 없어서	③아이들 데리고 이동할 사람이 필요해서(학교와 집, 학원 등)	④주변에 적절한 돌봄 시설이 없어서	계	(수)
전체	-	100.0	-	-	100.0	(2)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	-	-	-	-	-
400~500만원 미만	-	-	-	-	-	-
500~600만원 미만	-	100.0	-	-	100.0	(1)
600만원 이상	-	100.0	-	-	100.0	(1)
지역규모						
대도시	-	100.0	-	-	100.0	(1)
중소도시	-	100.0	-	-	100.0	(1)
읍면지역	-	-	-	-	-	-

주: 학기 중 공공아이돌보미를 이용한 2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2) 방학 중 공공아이돌보미

방학 중에 공공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응답자 4명을 대상으로 이용하는 주된 이유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용자의 50%는 개인돌봄이 필요해서 이용하며, 25%는 돌볼 사람이 없어서와 아이들 데리고 이동할 사람이 필요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1-82〉 공공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방학 중)

단위: %(명)

전체	①개인 돌봄이 필요해서	②돌볼 사람이 없어서	③아이들 데리고 이동할 사람이 필요해서(학교와 집, 학원 등)	④주변에 적절한 돌봄 시설이 없어서	계	(수)
전체	50.0	25.0	25.0	-	100.0	(4)
모 취업상태						
전업모	-	-	-	-	-	-
취업모	50.0	25.0	25.0	-	100.0	(4)
$x^2(df)$			-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	-	100.0	-		(1)
400~500만원 미만	-	100.0	-	-	100.0	(1)
500~600만원 미만	100.0	-	-	-	100.0	(1)
600만원 이상	100.0	-	-	-	100.0	(1)
$x^2(df)$			8.000(6)			
지역규모						
대도시	-	-	100.0	-	100.0	(1)
중소도시	100.0	-	-	-	100.0	(2)
읍면지역	-	100.0	-	-	100.0	(1)
$x^2(df)$			8.000(4)			

주: 방학 중 공공아이돌보미를 이용한 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자. 민간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1) 학기 중 민간육아도우미

학기 중에 민간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이용자 21명을 대상으로, 민간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를 물었다. 그 결과, 돌볼 사람이 없어서가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돌봄이 필요해서가 23.8%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아이를 데리고 이용할 사람이 필요해서 이용과 주변에 적절한 돌봄 시설이 없어서 이용하는 경우가 각 14.3%로 나타나, 민간육아도우미를 학교와 집, 학원 등을 이동할 때 도움의 수단으로도 이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Ⅷ-1-83〉 민간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학기 중)

단위: %(명)

전체	①개인 돌봄이 필요해서	②돌볼 사람이 없어서	③아이를 데리고 이동할 사람이 필요해서(학교와 집, 학원 등)	④주변에 적절한 돌봄 시설이 없어서	계	(수)
전체	23.8	47.6	14.3	14.3	100.0	(21)
모 취업상태						
전업모	-	-	50.0	50.0	100.0	(2)
취업모	26.3	52.6	10.5	10.5	100.0	(19)
$x^2(df)$			5.526(3)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	-	-	100.0	100.0	(1)
400~500만원 미만	100.0	-	-	-	100.0	(1)
500~600만원 미만	-	66.7	-	33.3	100.0	(3)
600만원 이상	25.0	50.0	18.8	6.3	100.0	(16)
$x^2(df)$			12.308(9)			
지역규모						
대도시	25.0	50.0	12.5	12.5	100.0	(16)
중소도시	20.0	40.0	20.0	20.0	100.0	(5)
읍면지역	-	-	-	-	-	-
$x^2(df)$			0.420(3)			

주: 학기 중 민간육아도우미를 이용한 2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2) 방학 중 민간육아도우미

방학 중에 민간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25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용의 주된 이유를 물었다. 그 결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가 72.0%로 압도적이었으며, 개인 돌봄이 필요해서, 아이들 데리고 이동할 사람이 필요해서, 주변에 적절한 돌봄시설이 없어서 이용하는 경우가 각 8.0%로 나타났다.

〈표 Ⅶ-1-84〉 민간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방학 중)

단위: %(명)

구분	①개인 돌봄이 필요해서	②돌볼 사람이 없어서	③아이들 데리고 이동할 사람이 필요해서(학교와 집, 학원 등)	④주변에 적절한 돌봄 시설이 없어서	⑤기타	계	(수)
전체	8.0	72.0	8.0	8.0	4.0	100.0	(25)
모 취업상태							
전업모	-	-	-	100.0	-	100.0	(2)
취업모	8.7	78.3	8.7	-	4.3	100.0	(23)
$x^2(df)$			25.000(4)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	100.0	-	-	-	100.0	(1)
400~500만원 미만	-	66.7	33.3	-	-	100.0	(3)
500~600만원 미만	-	50.0	-	25.0	25.0	100.0	(4)
600만원 이상	11.8	76.5	5.9	5.9	-	100.0	(17)
$x^2(df)$			11.390(12)				
지역규모							
대도시	9.5	66.7	9.5	9.5	4.8	100.0	(21)
중소도시	-	100.0	-	-	-	100.0	(3)
읍면지역	-	100.0	-	-	-	100.0	(1)
$x^2(df)$			1.852(8)				

주: 방학 중 민간육아도우미를 이용한 2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차. 학원 등 사교육 이용 실태

1) 학기 중 학원 등 사교육

학기 중에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교육 프로그램 종류(학습/예체능/그룹지도)에 따라 이용여부와, 개수, 월 비용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창의, 기타 외국어 등 학습과 관련된 학원 및 사교육을 이용하는 아동은,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하는 전체 696명 중 5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당 1.88개의 학습과 관련된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약 21만 9천 7백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수준에 따라 프로그램 월비용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600만원 이상 가구가 약 26만 4천 8백원으로 가장 높은 학원학습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400-500만원 미만 가구가 약 18만 7천 1백원으로 가장 낮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1-85〉 학원 등 사교육 이용여부와 개수 비용(학원학습)(학기 중)

단위: %(명), 개, 만원

구분	학원 학습		계	(수)	개수(주당)	프로그램 비용(월)	(수)
	이용	미이용					
전체	58.9	41.1	100.0	(696)	1.88	21.97	(410)
모 취업상태							
전업모	60.6	39.4	100.0	(274)	1.91	22.24	(166)
취업모	57.8	42.2	100.0	(422)	1.86	21.79	(244)
$x^2(df)$/t	0.524(1)					0.438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52.5	47.5	100.0	(160)	2.02	19.92	(84)
400~500만원 미만	52.9	47.1	100.0	(170)	1.72	18.71	(90)
500~600만원 미만	65.1	34.9	100.0	(146)	1.83	20.18	(95)
600만원 이상	64.1	35.9	100.0	(220)	1.92	26.48	(141)
$x^2(df)$/F	9.945(3)					7.754***	
지역규모							
대도시	63.2	36.8	100.0	(513)	1.86	22.53	(324)
중소도시	46.2	53.8	100.0	(169)	1.97	19.82	(78)
읍면지역	57.1	42.9	100.0	(14)	1.75	20.25	(8)
$x^2(df)$/F	15.203(2)					1.202	

주: 학기 중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696명과 그 중 학원학습을 이용한 41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01$.

이어서,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예체능과 관련된 학원 및 사교육을 이용하는 아동은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하는 전체 696명 중 8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당 4.82개의 예체능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16만 1천 1백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예체능 프로그램에 지출하는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1-86〉 학원 등 사교육 이용여부와 개수 비용(학원 예체능)(학기 중)

단위: %(명), 개, 만원

구분	학원 예체능		계	(수)	개수(주당)	프로그램 비용(월)	(수)
	이용	미이용					
전체	89.2	10.8	100.0	(696)	4.82	16.11	(621)
모 취업상태							
전업모	87.6	12.4	100.0	(274)	4.83	15.26	(240)
취업모	90.3	9.7	100.0	(422)	4.82	16.64	(381)
$x^2(df)$/t	1.253(1)					0.401	

구분	학원 예체능		계	(수)	개수(주당)	프로그램 비용(월)	(수)
	이용	미이용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89.4	10.6	100.0	(160)	6.00	13.97	(143)
400~500만원 미만	90.6	9.4	100.0	(170)	4.00	15.41	(154)
500~600만원 미만	86.3	13.7	100.0	(146)	4.31	15.60	(126)
600만원 이상	90.0	10.0	100.0	(220)	4.99	18.52	(198)
$x^2(df)$/F	1.768(3)					9.358***	
지역규모							
대도시	86.9	13.1	100.0	(513)	5.07	16.01	(446)
중소도시	95.3	4.7	100.0	(169)	4.03	16.51	(161)
읍면지역	100.0	-	100.0	(14)	2.50	14.57	(14)
$x^2(df)$/F	10.893(2)**					0.445	

주: 학기 중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696명과 그 중 학원예체능을 이용한 62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또한, 축구교실 등 그룹지도를 이용하는 아동은 19.1%로 나타났으며, 주당 1.08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지도를 위해 지출하는 월 비용은 약 9만 3천 1백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Ⅶ-1-87〉 학원 등 사교육 이용여부와 개수 비용(그룹지도)(학기 중)

단위: %(명), 개, 만원

구분	그룹지도		계	(수)	개수(주당)	프로그램 비용(월)	(수)
	이용	미이용					
전체	19.1	80.9	100.0	(696)	1.08	9.31	(133)
모 취업상태							
전업모	15.7	84.3	100.0	(274)	1.09	9.77	(43)
취업모	21.3	78.7	100.0	(422)	1.08	9.09	(90)
$x^2(df)$/t	3.411(1)					0.200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18.1	81.9	100.0	(160)	1.24	10.31	(29)
400~500만원 미만	10.0	90.0	100.0	(170)	1.06	8.00	(17)
500~600만원 미만	13.0	87.0	100.0	(146)	1.05	7.84	(19)
600만원 이상	30.9	69.1	100.0	(220)	1.03	9.62	(68)
$x^2(df)$/F	35.552(3)***					1.306	
지역규모							
대도시	17.3	82.7	100.0	(513)	1.08	9.73	(89)
중소도시	25.4	74.6	100.0	(169)	1.09	8.60	(43)
읍면지역	7.1	92.9	100.0	(14)	1.00	2.00	(1)

구분	그룹지도		계	(수)	개수(주당)	프로그램 비용(월)	(수)
	이용	미이용					
$x^2(df)$/F	6.712(12)					1.687	

주: 학기 중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696명과 그중 그룹지도를 이용한 13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01$.

학기 중에, 학습과 관련된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정도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부담되는 편이 55.4%, 매우 부담이 13.9%로 69.3%가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3.76점으로 부담 정도는 보통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Ⅶ-1-88〉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비용 부담 정도(학원 학습)(학기 중)

단위: %(명), 점

구분	학원 학습					계	(수)	평균
	①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부담되지 않는편	③보통	④부담되는 편	⑤매우 부담			
전체	0.7	5.4	24.6	55.4	13.9	100.0	(410)	3.76
모 취업상태								
전업모	-	5.4	22.3	60.8	11.4	100.0	(166)	3.78
취업모	1.2	5.3	26.2	51.6	15.6	100.0	(244)	3.75
$x^2(df)$/t			5.388(4)					0.421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	6.0	22.6	60.7	10.7	100.0	(84)	3.76
400~500만원 미만	1.1	4.4	18.9	52.2	23.3	100.0	(90)	3.92
500~600만원 미만	1.1	4.2	22.1	60.0	12.6	100.0	(95)	3.79
600만원 이상	0.7	6.4	31.2	51.1	10.6	100.0	(141)	3.65
$x^2(df)$/F			14.691(12)					2.367
지역규모								
대도시	0.6	5.6	23.8	58.0	12.0	100.0	(324)	3.75
중소도시	1.3	5.1	29.5	42.3	21.8	100.0	(78)	3.78
읍면지역	-	-	12.5	75.0	12.5	100.0	(8)	4.00
$x^2(df)$/F			9.912(8)					0.415

주: 학기 중 학원학습을 이용한 41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이어서, 예체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의 비용 부담 정도를 알아보았다. 부담되는 편 49.0%, 매우 부담 10.6%로 응답되어, 전체 응답자의 59.6%는 예체능 사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3.61점이다.

〈표 Ⅶ-1-89〉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비용 부담 정도(학원 예체능)(학기 중)

단위: %(명), 점

구분	학원 예체능					계	(수)	평균
	①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부담되지 않는편	③보통	④부담되는 편	⑤매우 부담			
전체	0.6	7.6	32.2	49.0	10.6	100.0	(621)	3.61
모 취업상태								
전업모	0.4	8.8	32.9	49.2	8.8	100.0	(240)	3.57
취업모	0.8	6.8	31.8	48.8	11.8	100.0	(381)	3.64
$x^2(df)$/t			2.399(4)					-1.055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0.7	7.7	26.6	54.5	10.5	100.0	(143)	3.66
400~500만원 미만	-	6.5	28.6	49.4	15.6	100.0	(154)	3.74
500~600만원 미만	-	7.9	34.1	47.6	10.3	100.0	(126)	3.60
600만원 이상	1.5	8.1	37.9	45.5	7.1	100.0	(198)	3.48
$x^2(df)$/F			16.025(12)					3.226*
지역규모								
대도시	0.9	7.8	33.2	48.7	9.4	100.0	(446)	3.58
중소도시	-	6.8	29.2	49.7	14.3	100.0	(161)	3.71
읍면지역	-	7.1	35.7	50.0	7.1	100.0	(14)	3.57
$x^2(df)$/F			5.205(8)					1.727

주: 학기 중 학원예체능을 이용한 62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학기 중, 그룹지도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가 45.9%로 가장 많았으며, 부담되는 편 30.8%, 부담되지 않는 편 12.0%, 전혀 부담되지 않음 6.0%, 매우 부담 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Ⅷ-1-90〉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비용 부담 정도(그룹지도)(학기 중)

단위: %(명), 점

구분	그룹지도					계	(수)	평균
	①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부담 되지 않는편	③보통	④부담 되는 편	⑤매우 부담			
전체	6.0	12.0	45.9	30.8	5.3	100.0	(133)	3.17
모 취업상태								
전업모	9.3	14.0	44.2	25.6	7.0	100.0	(43)	3.07
취업모	4.4	11.1	46.7	33.3	4.4	100.0	(90)	3.22
x^2(*df*)/t			2.298(4)					-0.888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3.4	6.9	44.8	34.5	10.3	100.0	(29)	3.41
400~500만원 미만	-	29.4	41.2	17.6	11.8	100.0	(17)	3.12
500~600만원 미만	10.5	15.8	47.4	26.3	-	100.0	(19)	2.89
600만원 이상	7.4	8.8	47.1	33.8	2.9	100.0	(68)	3.16
x^2(*df*)/F			13.905(12)					1.258
지역규모								
대도시	6.7	10.1	49.4	30.3	3.4	100.0	(89)	3.13
중소도시	4.7	14.0	39.5	32.6	9.3	100.0	(43)	3.28
읍면지역	-	100.0	-	-	-	100.0	(1)	2.00
x^2(*df*)/F			10.539(8)					1.165

주: 학기 중 그룹지도를 이용한 13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학기 중, 학원 등 사교육으로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만족하는 경우가 70.7%(만족하는 편 62.2%+매우만족 8.5%)이며, 보통이 27.6%, 불만족이 1.7%인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를 점수화하면 3.78점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전업모가 취업모보다 학원 학습 서비스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1-91〉 학원 등 사교육 서비스 만족도(학원 학습)(학기 중)

단위: %(명), 점

구분	학원 학습					계	(수)	평균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전체	-	1.7	27.6	62.2	8.5	100.0	(410)	3.78
모 취업상태								
전업모	-	0.6	15.7	75.3	8.4	100.0	(166)	3.92
취업모	-	2.5	35.7	53.3	8.6	100.0	(244)	3.68
$x^2(df)$/t			24.029(3)***					3.859***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	2.4	14.3	72.6	10.7	100.0	(84)	3.92
400~500만원 미만	-	3.3	31.1	56.7	8.9	100.0	(90)	3.71
500~600만원 미만	-	2.1	24.2	65.3	8.4	100.0	(95)	3.80
600만원 이상	-	-	35.5	57.4	7.1	100.0	(141)	3.72
$x^2(df)$/F			16.866(9)					.2.302
지역규모								
대도시	-	1.5	25.9	65.4	7.1	100.0	(324)	3.78
중소도시	-	2.6	33.3	48.7	15.4	100.0	(78)	3.77
읍면지역	-	-	37.5	62.5	-	100.0	(8)	3.63
$x^2(df)$/F			10.643(6)					0.254

주: 학기 중 학원학습을 이용한 41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01$.

예체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만족하는 편 62.0%, 매우만족이 12.7%로, 응답되어, 전체 중 74.7%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5점 점수로 환산하면 평균 3.87점이다. 어머니가 전업모인 경우 취업모보다 학원 예체능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1-92〉 학원 등 사교육 서비스 만족도(학원 예체능)(학기 중)

단위: %(명), 점

구분	학원 예체능					계	(수)	평균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전체	-	0.6	24.6	62.0	12.7	100.0	(621)	3.87
모 취업상태								
전업모	-	0.4	17.5	68.3	13.8	100.0	(240)	3.95
취업모	-	0.8	29.1	58.0	12.1	100.0	(381)	3.81
$x^2(df)$/t			11.262(3)*					2.772**

구분	학원 예체능					계	(수)	평균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	-	23.8	58.0	18.2	100.0	(143)	3.94
400~500만원 미만	-	1.3	26.6	63.0	9.1	100.0	(154)	3.80
500~600만원 미만	-	0.8	17.5	72.2	9.5	100.0	(126)	3.90
600만원 이상	-	0.5	28.3	57.6	13.6	100.0	(198)	3.84
$x^2(df)$/F			15.265(9)					1.623
지역규모								
대도시	-	0.7	23.5	63.7	12.1	100.0	(446)	3.87
중소도시	-	0.6	26.7	57.1	15.5	100.0	(161)	3.88
읍면지역	-	-	35.7	64.3	-	100.0	(14)	3.64
$x^2(df)$/F			5.028(6)					0.950

주: 학기 중 학원 예체능을 이용한 62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학기 중, 그룹지도를 이용하는 경우, 만족하는 편 53.4%, 매우 만족 15.0%로, 68.4%는 그룹지도 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점수화하면 평균 3.81점이다. 전업모의 경우 취업모보다 그룹지도 이용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1-93〉 학원 등 사교육 서비스 만족도(그룹지도)(학기 중)

단위: %(명), 점

구분	그룹지도					계	(수)	평균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전체	-	2.3	29.3	53.4	15.0	100.0	(133)	3.81
모 취업상태								
전업모	-	-	18.6	62.8	18.6	100.0	(43)	4.00
취업모	-	3.3	34.4	48.9	13.3	100.0	(90)	3.72
$x^2(df)$/t			5.514(3)					2.143*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	-	41.4	37.9	20.7	100.0	(29)	3.79
400~500만원 미만	-	-	17.6	64.7	17.6	100.0	(17)	4.00
500~600만원 미만	-	5.3	15.8	63.2	15.8	100.0	(19)	3.89
600만원 이상	-	2.9	30.9	54.4	11.8	100.0	(68)	3.75
$x^2(df)$/F			8.656(9)					0.660

구분	그룹지도					계	(수)	평균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지역규모								
대도시	-	2.2	31.5	52.8	13.5	100.0	(89)	3.78
중소도시	-	2.3	23.3	55.8	18.6	100.0	(43)	3.91
읍면지역	-	-	100.0	-	-	100.0	(1)	3.00
$x^2(df)$/F			3.650(6)					1.165

주: 학기 중 그룹지도를 이용한 13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학기 중에 자녀를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 보내는 주된 이유를 3순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1순위에서 3순위를 합산한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가 65.8%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가 원해서 보내는 경우가 64.8%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 선행학습, 돌볼 사람이 없어서, 학교수업 보충 심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보내고 있어서 보내는 경우는 20~30%대로 나타났다.

〈표 Ⅶ-1-94〉 학원 등 사교육프로그램 이용하는 주된 이유(학기 중)

단위: %(명)

구분	①자녀가 원해서	②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③ 선행 학습	④학교 수업 보충 심화	⑤돌볼 사람이 없어서	⑥강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서	⑦주변 사람들이 많이 보내고 있어서	⑧ 기타	계	(수)
1순위	36.9	25.1	11.4	6.9	14.1	1.1	2.6	1.9	100.0	(696)
2순위	21.1	31.7	13.0	10.5	10.0	3.5	8.7	1.6	100.0	(254)
3순위	14.3	19.5	12.0	16.0	11.0	5.4	17.8	4.0	100.0	(426)
1+2+3순위	64.8	65.8	30.5	26.1	29.9	7.6	21.4	5.7		(696)

주: 학기 중 학원 등 사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한 69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자녀를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 보내는 이유 1순위를 살펴보면, 학원을 이용하는 전체 응답자의 36.9%는 자녀가 원해서 보낸다고 응답하였으며, 25.1%는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사람이 없어서 학원에 보내는 경우는 14.1%이며, 선행학습 11.4%, 학교수업 보충심화학습은

6.9%로 나타나, 학습을 위해서 보내는 경우가 18.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Ⅷ-1-95〉 학원 등 사교육프로그램 이용하는 주된 이유(1순위)(학기 중)

단위: %(명)

구분	① 자녀가 원해서	②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③ 선행 학습	④학교 수업 보충 심화	⑤돌볼 사람이 없어서	⑥강사대 아동 비율이 낮아서	⑦주변 사람들이 많이 보내고 있어서	⑧ 기타	계	(수)
전체	36.9	25.1	11.4	6.9	14.1	1.1	2.6	1.9	100.0	(696)
모취업상태										
전업모	39.4	32.8	10.9	7.7	2.2	1.1	4.4	1.5	100.0	(274)
취업모	35.3	20.1	11.6	6.4	21.8	1.2	1.4	2.1	100.0	(422)
$x^2(df)$				63.286(7)***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41.9	25.6	11.9	5.0	10.6	-	3.1	1.9	100.0	(160)
400~500만원 미만	37.1	27.1	6.5	8.8	14.1	1.2	3.5	1.8	100.0	(170)
500~600만원 미만	34.9	24.7	11.6	8.2	16.4	0.7	2.1	1.4	100.0	(146)
600만원 이상	34.5	23.6	14.5	5.9	15.0	2.3	1.8	2.3	100.0	(220)
$x^2(df)$				18.475(21)						
지역규모										
대도시	36.5	26.1	13.1	7.2	11.5	1.6	2.5	1.6	100.0	(513)
중소도시	37.9	22.5	6.5	6.5	21.3	-	2.4	3.0	100.0	(169)
읍면지역	42.9	21.4	7.1	-	21.4	-	7.1	-	100.0	(14)
$x^2(df)$				21.892(14)						

주: 학기 중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한 69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01$.

학기 중 학원 등 사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유 2순위는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가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원해서 21.1%, 선행학습 13.0%, 학교수업 보충 심화가 10.5%, 돌볼 사람이 없어서가 10.0%, 주변 사람들이 많이 보내고 있어서가 8.7%가 그 뒤를 이었다.

〈표 Ⅶ-1-96〉 학원 등 사교육프로그램 이용하는 주된 이유(2순위)(학기 중)

단위: %(명)

구분	① 자녀가 원해서	②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③ 선행 학습	④학교 수업 보충 심화	⑤돌볼 사람이 없어서	⑥강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서	⑦주변 사람들이 많이 보내고 있어서	⑧ 기타	계	(수)
전체	21.1	31.7	13.0	10.5	10.0	3.5	8.7	1.6	100.0	(631)
모취업상태										
전업모	27.6	34.6	11.4	8.3	2.4	3.5	10.2	2.0	100.0	(254)
취업모	16.7	29.7	14.1	11.9	15.1	3.4	7.7	1.3	100.0	(377)
$x^2(df)$				38.670(7)***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27.3	31.7	5.8	12.2	7.9	3.6	9.4	2.2	100.0	(139)
400~500만원 미만	19.9	32.1	16.0	5.1	10.9	3.2	10.3	2.6	100.0	(156)
500~600만원 미만	16.2	29.4	17.6	13.2	8.1	3.7	9.6	2.2	100.0	(136)
600만원 이상	21.0	33.0	12.5	11.5	12.0	3.5	6.5	-	100.0	(200)
$x^2(df)$				28.002(21)						
지역규모										
대도시	19.7	29.9	14.8	12.1	9.5	3.6	8.3	2.1	100.0	(472)
중소도시	23.8	38.8	6.8	6.1	11.6	2.7	10.2	-	100.0	(147)
읍면지역	41.7	16.7	16.7	-	8.3	8.3	8.3	-	100.0	(12)
$x^2(df)$				23.221(14)						

주: 학기 중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2순위 응답자 63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01$.

2) 방학 중 학원 등 사교육

방학 중 자녀를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 보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교육 프로그램 종류(학습/예체능/그룹지도)에 따라 이용여부와, 주당 이용 개수, 월 비용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창의, 기타 외국어 등 학습과 관련된 학원 및 사교육을 이용하는 아동은, 방학 중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하는 전체 681명 중, 6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당 1.89개의 학습과 관련된 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23만 1천 9백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수준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학원 및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Ⅷ-1-97〉 학원 등 사교육 이용여부와 개수 비용(학원학습)(방학 중)

단위: %(명), 개, 만원

구분	학원 학습		계	(수)	개수 (주당)	프로그램 비용(월)	(수)
	이용	미이용					
전체	60.1	39.9	100.0	(681)	1.89	23.19	(409)
모 취업상태							
전업모	62.1	37.9	100.0	(277)	1.89	23.62	(172)
취업모	58.7	41.3	100.0	(404)	1.89	22.88	(237)
$x^2(df)$/t	0.806(1)					0.488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54.9	45.1	100.0	(153)	1.98	20.71	(84)
400~500만원 미만	55.6	44.4	100.0	(162)	1.67	20.19	(90)
500~600만원 미만	66.0	34.0	100.0	(147)	1.91	21.57	(97)
600만원 이상	63.0	37.0	100.0	(219)	1.98	27.80	(138)
$x^2(df)$/F	6.016(3)					6.756***	
지역규모							
대도시	65.0	35.0	100.0	(512)	1.83	23.46	(333)
중소도시	44.5	55.5	100.0	(155)	2.20	21.81	(69)
읍면지역	50.0	50.0	100.0	(14)	1.86	24.14	(7)
$x^2(df)$/F	21.494(2)***					0.346	

주: 방학 중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한 681명과 학원학습을 이용한 40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01$.

이어서,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예체능과 관련된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하는 아동은, 방학 중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하는 전체 681명 중, 8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당 1.70개의 예체능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16만 9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예체능 프로그램 비용은 취업모의 경우 그리고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 더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1-98〉 학원 등 사교육 이용여부와 개수 비용(학원 예체능)(방학 중)

단위: %(명), 개, 만원

구분	학원 예체능		계	(수)	개수(주당)	프로그램 비용(월)	(수)
	이용	미이용					
전체	88.7	11.3	100.0	(681)	1.70	16.90	(604)
모 취업상태							
전업모	87.7	12.3	100.0	(277)	1.67	15.95	(243)
취업모	89.4	10.6	100.0	(404)	1.72	17.54	(361)
$x^2(df)$/t	0.436(1)					-2.162*	

구분	학원 예체능		계	(수)	개수(주당)	프로그램 비용(월)	(수)
	이용	미이용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88.2	11.8	100.0	(153)	1.53	14.36	(135)
400~500만원 미만	89.5	10.5	100.0	(162)	1.71	16.30	(145)
500~600만원 미만	85.0	15.0	100.0	(147)	1.65	15.58	(125)
600만원 이상	90.9	9.1	100.0	(219)	1.85	19.89	(199)
$x^2(df)$/F	3.134(3)					13.098***	
지역규모							
대도시	86.7	13.3	100.0	(512)	1.63	16.73	(444)
중소도시	94.2	5.8	100.0	(155)	1.92	17.55	(146)
읍면지역	100.0	-	100.0	(14)	1.71	15.64	(14)
$x^2(df)$/F	8.451(1)*					0.621	

주: 방학 중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한 681명과 학원 예체능을 이용한 60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또한, 축구교실 등 그룹지도를 이용하는 아동은 20.1%로 나타났으며, 주당 1.12개의 그룹지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월 평균 10만 2천 3백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Ⅶ-1-99〉 학원 등 사교육 이용여부와 개수 비용(그룹지도)(방학 중)

단위: %(명), 개, 만원

구분	그룹지도		계	(수)	개수(주당)	프로그램 비용(월)	(수)
	이용	미이용					
전체	20.1	79.9	100.0	(681)	1.12	10.23	(137)
모 취업상태							
전업모	17.7	82.3	100.0	(277)	1.10	10.71	(49)
취업모	21.8	78.2	100.0	(404)	1.14	9.95	(88)
$x^2(df)$/t	1.713(1)					0.826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17.0	83.0	100.0	(153)	1.27	10.81	(26)
400~500만원 미만	11.1	88.9	100.0	(162)	1.06	8.72	(18)
500~600만원 미만	15.6	84.4	100.0	(147)	1.13	9.22	(23)
600만원 이상	32.0	68.0	100.0	(219)	1.09	10.73	(70)
$x^2(df)$/F	30.058(3)***					0.634	
지역규모							
대도시	19.5	80.5	100.0	(512)	1.11	10.58	(100)
중소도시	23.9	76.1	100.0	(155)	1.16	9.27	(37)
읍면지역	-	100.0	100.0	(14)	-	-	-

구분	그룹지도		계	(수)	개수(주당)	프로그램 비용(월)	(수)
	이용	미이용					
$x^2(df)$/F	4.994(2)					1.755	

주: 방학 중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한 681명과 그룹지도를 이용한 13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01$.

방학 중에, 학습과 관련된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정도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부담되는 편이 56.7%, 매우 부담이 14.4%로 71.1%가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3.79점으로 부담 정도는 보통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Ⅶ-1-100〉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비용 부담 정도(학원 학습)(방학 중)

단위: %(명), 점

구분	학원 학습					계	(수)	평균
	①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부담되지 않는편	③보통	④부담되는 편	⑤매우 부담			
전체	0.7	4.9	23.2	56.7	14.4	100.0	(409)	3.79
모 취업상태								
전업모	0.6	4.1	23.3	60.5	11.6	100.0	(172)	3.78
취업모	0.8	5.5	23.2	54.0	16.5	100.0	(237)	3.80
$x^2(df)$/t			2.845(4)					-0.162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	4.8	22.6	61.9	10.7	100.0	(84)	3.79
400~500만원 미만	1.1	4.4	17.8	50.0	26.7	100.0	(90)	3.97
500~600만원 미만	-	5.2	21.6	59.8	13.4	100.0	(97)	3.81
600만원 이상	1.4	5.1	28.3	55.8	9.4	100.0	(138)	3.67
$x^2(df)$/F			19.217(12)					2.812
지역규모								
대도시	0.6	5.1	23.7	57.4	13.2	100.0	(333)	3.77
중소도시	1.4	4.3	23.2	50.7	20.3	100.0	(69)	3.84
읍면지역	-	-	-	85.7	14.3	100.0	(7)	4.14
$x^2(df)$/F			6.173(8)					0.941

주: 방학 중 학원학습을 이용한 40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이어서, 예체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의 비용 부담 정도를 알아보았다. 부담되는 편 49.8%, 매우 부담 11.4%로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61.2%는 예체능 사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3.65점이다.

〈표 Ⅶ-1-101〉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비용 부담 정보(학원 예체능)(방학 중)

단위: %(명), 점

구분	학원 예체능					계	(수)	평균
	①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부담되지 않는편	③보통	④부담되는 편	⑤매우 부담			
전체	0.8	5.8	32.1	49.8	11.4	100.0	(604)	3.65
모 취업상태								
전업모	0.8	7.8	32.5	49.4	9.5	100.0	(243)	3.59
취업모	0.8	4.4	31.9	50.1	12.7	100.0	(361)	3.70
$x^2(df)$/t			4.277(4)					-1.635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0.7	7.4	28.9	51.9	11.1	100.0	(135)	3.65
400~500만원 미만	-	4.1	31.0	46.2	18.6	100.0	(145)	3.79
500~600만원 미만	-	4.0	35.2	48.0	12.8	100.0	(125)	3.70
600만원 이상	2.0	7.0	33.2	52.3	5.5	100.0	(199)	3.52
$x^2(df)$/F			22.714(12)*					3.506*
지역규모								
대도시	1.1	5.6	33.8	48.4	11.0	100.0	(444)	3.63
중소도시	-	6.2	27.4	52.7	13.7	100.0	(146)	3.74
읍면지역	-	7.1	28.6	64.3	-	100.0	(14)	3.57
$x^2(df)$/F			6.683(8)					1.216

주: 방학 중 학원 예체능을 이용한 60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방학 중, 그룹지도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부담되는 편 33.6%, 부담되지 않는 편 9.5%, 매우 부담 8.8%, 전혀 부담되지 않음 4.4% 순으로 나타나,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42.4%로 응답되었다. 이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3.33점이다.

〈표 Ⅷ-1-102〉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비용 부담 정보(그룹지도)(방학 중)

단위: %(명), 점

구분	그룹지도					계	(수)	평균
	①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부담 되지 않는편	③보통	④부담 되는 편	⑤매우 부담			
전체	4.4	9.5	43.8	33.6	8.8	100.0	(137)	3.33
모 취업상태								
전업모	6.1	14.3	36.7	34.7	8.2	100.0	(49)	3.24
취업모	3.4	6.8	47.7	33.0	9.1	100.0	(88)	3.38
$x^2(df)$/t			3.306(4)					-0.788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3.8	3.8	42.3	38.5	11.5	100.0	(26)	3.50
400~500만원 미만	-	27.8	44.4	16.7	11.1	100.0	(18)	3.11
500~600만원 미만	4.3	13.0	39.1	30.4	13.0	100.0	(23)	3.35
600만원 이상	5.7	5.7	45.7	37.1	5.7	100.0	(70)	3.31
$x^2(df)$/F			13.469(12)					0.634
지역규모								
대도시	6.0	8.0	43.0	33.0	10.0	100.0	(100)	3.33
중소도시	-	13.5	45.9	35.1	5.4	100.0	(37)	3.32
읍면지역	-	-	-	-	-	-	-	
$x^2(df)$/F			3.826(4)					0.001

주: 방학 중 그룹지도를 이용한 13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방학 중, 학원 등 사교육으로 학원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만족하는 경우가 72.8%(만족하는 편 65.0%+매우만족 7.8%)이며, 보통이 26.2%, 불만족이 1.0%인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를 점수화하면 3.80점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전업모의 경우 취업모보다 방학 중 학원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학원 학습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1-103〉 학원 등 사교육 서비스 만족도(학원 학습)(방학 중)

단위: %(명), 점

구분	학원 학습					계	(수)	평균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전체	-	1.0	26.2	65.0	7.8	100.0	(409)	3.80
모 취업상태								
전업모	-	-	16.3	74.4	9.3	100.0	(172)	3.93
취업모	-	1.7	33.3	58.2	6.8	100.0	(237)	3.70
$x^2(df)$/t			18.830(3)***					4.015***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	1.2	14.3	73.8	10.7	100.0	(84)	3.94
400~500만원 미만	-	1.1	27.8	61.1	10.0	100.0	(90)	3.80
500~600만원 미만	-	-	27.8	64.9	7.2	100.0	(97)	3.79
600만원 이상	-	1.4	31.2	62.3	5.1	100.0	(138)	3.71
$x^2(df)$/F			11.544(9)					2.764*
지역규모								
대도시	-	1.2	25.8	66.4	6.6	100.0	(333)	3.78
중소도시	-	-	27.5	58.0	14.5	100.0	(69)	3.87
읍면지역	-	-	28.6	71.4	-	100.0	(7)	3.71
$x^2(df)$/F			6.757(6)					0.692

주: 방학 중 학원학습을 이용한 40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방학 중 예체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만족하는 편 63.1%, 매우만족 11.6%로 응답되어, 전체 중 74.7%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이를 5점 점수로 환산하면 평균 3.86점이다. 전업모가 취업모보다 방학 중 학원 예체능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표 Ⅶ-1-104〉 학원 등 사교육 서비스 만족도(학원 예체능)(방학 중)

단위: %(명), 점

구분	학원 예체능					계	(수)	평균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전체	-	-	25.3	63.1	11.6	100.0	(604)	3.86
모 취업상태								
전업모	-	-	20.6	66.7	12.8	100.0	(243)	3.92
취업모	-	-	28.5	60.7	10.8	100.0	(361)	3.82

구분	학원 예체능					계	(수)	평균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x^2(df)$/t			4.937(2)					2.021*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	-	25.2	60.7	14.1	100.0	(135)	3.89
400~500만원 미만	-	-	25.5	64.1	10.3	100.0	(145)	3.85
500~600만원 미만	-	-	25.6	64.8	9.6	100.0	(125)	3.84
600만원 이상	-	-	25.1	62.8	12.1	100.0	(199)	3.87
$x^2(df)$/F			1.592(6)					0.185
지역규모								
대도시	-	-	24.8	64.0	11.3	100.0	(444)	3.86
중소도시	-	-	27.4	58.9	13.7	100.0	(146)	3.86
읍면지역	-	-	21.4	78.6	-	100.0	(14)	3.79
$x^2(df)$/F			3.600(4)					0.121

주: 방학 중 학원 예체능을 이용한 60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방학 중, 그룹지도를 이용하는 경우, 만족하는 편 54.7%, 매우 만족 16.1%로, 70.8%는 그룹지도 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점수화 하면 평균 3.85점이다.

〈표 Ⅶ-1-105〉 학원 등 사교육 서비스 만족도(그룹지도)(방학 중)

단위: %(명), 점

구분	그룹지도					계	(수)	평균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전체	-	2.2	27.0	54.7	16.1	100.0	(137)	3.85
모 취업상태								
전업모	-	2.0	22.4	53.1	22.4	100.0	(49)	3.96
취업모	-	2.3	29.5	55.7	12.5	100.0	(88)	3.78
$x^2(df)$/t			2.574(3)					1.396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	-	34.6	42.3	23.1	100.0	(26)	3.88
400~500만원 미만	-	5.6	11.1	61.1	22.2	100.0	(18)	4.00
500~600만원 미만	-	-	21.7	65.2	13.0	100.0	(23)	3.91
600만원 이상	-	2.9	30.0	54.3	12.9	100.0	(70)	3.77

구분	그룹지도					계	(수)	평균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x^2(df)$/F			7.988(9)					0.636
지역규모								
대도시	-	3.0	30.0	53.0	14.0	100.0	(100)	3.78
중소도시	-	-	18.9	59.5	21.6	100.0	(37)	4.03
읍면지역	-	-	-	-	-	-	-	-
$x^2(df)$/F			3.521(3)					3.364

주: 방학 중 그룹지도를 이용한 13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방학 중에 자녀를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 보내는 주된 이유를 3순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1순위에서 3순위를 합산한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가 68.0%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가 원해서 보내는 경우가 66.1%로 그다음을 이었다. 이외에 선행학습, 돌볼 사람이 없어서, 학교수업 보충 심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보내고 있어서 보내는 경우는 30~20%대로 나타났다.

〈표 Ⅶ-1-106〉 학원 프로그램 이용하는 주된 이유(방학 중)

단위: %(명)

구분	①자녀가 원해서	②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③ 선행 학습	④학교 수업 보충 심화	⑤돌볼 사람이 없어서	⑥강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서	⑦주변 사람들이 많이 보내고 있어서	⑧ 기타	계	(수)
1순위	35.7	26.3	11.2	5.4	15.6	1.0	3.2	1.6	100.0	(681)
2순위	20.8	33.8	14.9	10.6	9.9	2.4	6.1	1.6	100.0	(625)
3순위	17.9	17.0	12.4	16.6	11.4	4.0	18.2	2.6	100.0	(429)
1+2+3순위	66.1	68.0	32.6	25.6	31.9	5.7	20.3	4.7		(681)

주: 방학 중 학원등 사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한 68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방학 중에 자녀를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 보내는 이유 1순위를 살펴보면, 학원을 이용하는 전체 응답자의 35.7%는 자녀가 원해서 보낸다고 응답하였으며, 26.3%는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볼 사람이 없어서 학원에 보내는 경우는 15.6%이며, 선행학습 11.2%, 학교수업 보충

심화학습은 5.4%로 나타났다.

〈표 Ⅷ-1-107〉 학원 프로그램 이용하는 주된 이유(1순위)(방학 중)

단위: %(명)

구분	① 자녀가 원해서	②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③ 선행 학습	④학교 수업 보충 심화	⑤돌볼 사람이 없어서	⑥강사대 아동 비율이 낮아서	⑦주변 사람들이 많이 보내고 있어서	⑧ 기타	계	(수)
전체	35.7	26.3	11.2	5.4	15.6	1.0	3.2	1.6	100.0	(681)
모취업상태										
전업모	39.7	33.9	11.9	5.8	2.2	1.4	3.6	1.4	100.0	(277)
취업모	32.9	21.0	10.6	5.2	24.8	0.7	3.0	1.7	100.0	(404)
$x^2(df)$				67.796(7)***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43.8	24.2	9.8	6.5	11.1	-	2.6	2.0	100.0	(153)
400~500만원 미만	30.9	27.8	9.9	6.8	17.9	0.6	4.3	1.9	100.0	(162)
500~600만원 미만	36.7	26.5	12.2	4.8	13.6	2.7	2.7	0.7	100.0	(147)
600만원 이상	32.9	26.5	12.3	4.1	18.3	0.9	3.2	1.8	100.0	(219)
$x^2(df)$				19.230(21)						
지역규모										
대도시	34.6	27.3	13.1	6.1	12.5	1.4	3.7	1.4	100.0	(512)
중소도시	38.1	23.2	5.2	3.9	25.2	-	1.9	2.6	100.0	(155)
읍면지역	50.0	21.4	7.1	-	21.4	-	-	-	100.0	(14)
$x^2(df)$				28.665(14)*						

주: 방학 중 학원등 사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한 68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방학 중에 자녀를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 보내는 이유 2순위를 살펴보면, 33.8%가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보낸다고 응답하였으며, 20.8%는 자녀가 원해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선행학습, 학교수업 보충심화가 각각 14.9%, 10.6%로 나타났다.

〈표 Ⅶ-1-108〉 학원 프로그램 이용하는 주된 이유(2순위)(방학 중)

단위: %(명)

구분	① 자녀가 원해서	②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③ 선행 학습	④학교 수업 보충 심화	⑤돌볼 사람이 없어서	⑥강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서	⑦주변 사람들이 많이 보내고 있어서	⑧ 기타	계	(수)
전체	20.8	33.8	14.9	10.6	9.9	2.4	6.1	1.6	100.0	(625)
모취업상태										
전업모	23.5	36.9	14.2	9.2	3.5	3.1	8.5	1.2	100.0	(260)
취업모	18.9	31.5	15.3	11.5	14.5	1.9	4.4	1.9	100.0	(365)
$x^2(df)$				27.984(7)***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23.4	36.9	11.3	9.9	9.2	1.4	6.4	1.4	100.0	(141)
400~500만원 미만	23.0	34.2	13.8	11.2	6.6	0.7	7.2	3.3	100.0	(152)
500~600만원 미만	15.0	30.1	18.8	12.8	12.0	2.3	8.3	0.8	100.0	(133)
600만원 이상	21.1	33.7	15.6	9.0	11.6	4.5	3.5	1.0	100.0	(199)
$x^2(df)$				24.287(21)						
지역규모										
대도시	20.2	32.4	16.0	12.2	8.4	2.5	6.3	1.9	100.0	(475)
중소도시	22.6	37.2	11.7	5.8	15.3	2.2	4.4	0.7	100.0	(137)
읍면지역	23.1	46.2	7.7	-	7.7	-	15.4	-	100.0	(13)
$x^2(df)$				18.157(14)						

주: 방학 중 학원등 사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2순위 응답자 62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01$.

2. 만5세 돌봄 수요 조사 결과

가. 만5세 자녀 돌봄 시간 실태

만5세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평균적인 하루 일과 중 자녀를 누가, 어디에서 돌보고 있는지 시간대별로 응답하게 한 결과를 살펴보면, 오전 8시에서 8시 29분까지는 응답자 중 73.3%가 부모가 직접 돌본다고 응답했으며,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14.3%, 유치원 6%, 어린이집 4.3%, 공공 아이돌보미 1.3% 등으로 나타났다. 8시 30분부터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10시부터 2시까지는 약 98% 정도가 보육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약 1% 정

도가 유아 영어 학원, 놀이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서 돌봄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1% 이내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2시부터는 부모의 직접 돌봄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사교육 기관 이용도 증가한다. 오후 5시경에는 31.7%로 사교육 기관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은 29.7%였다.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돌보는 비율도 오후 3시경부터 증가하여 오후 6시에는 22%의 만5세 자녀가 조부모 또는 친인척의 돌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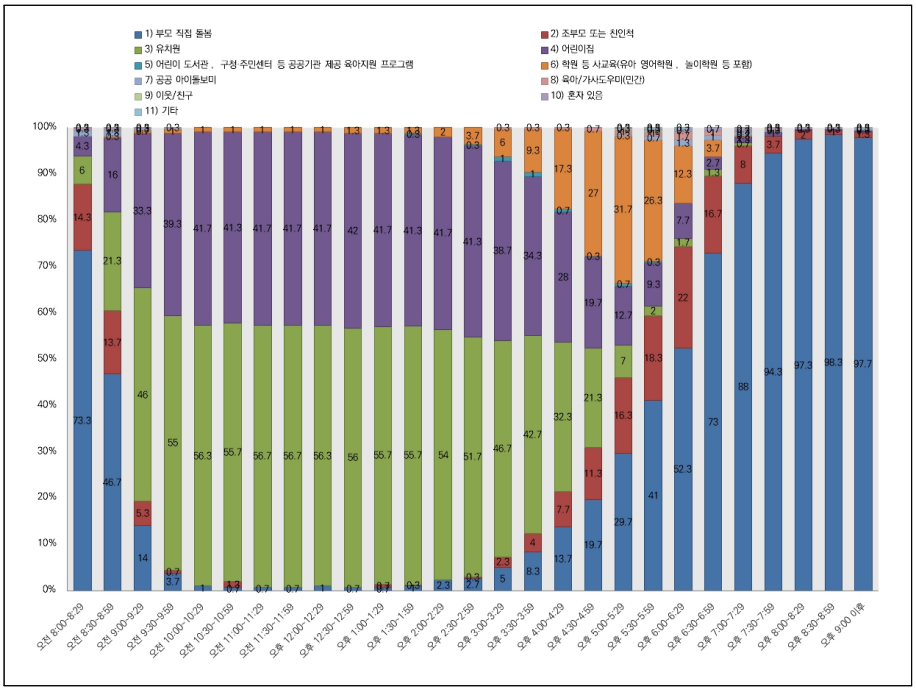
오후 4시 30분부터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오후 2시 이전 이용 비율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7시까지 급격히 감소한다. 유치원 이용비율이 어린이집보다 높다가 오후 5시부터는 어린이집에서 돌봄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져,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더 많은 비율이 보육시설에서 장시간 돌봄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후 6시 이후에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서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돌보는 비율과 사교육 이용 비율도 감소한다. 9시 이후에는 대다수인 97.7%는 부모가 직접 돌보고, 1.3%는 여전히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5세 자녀를 둔 취업모와 전업모의 응답을 나타낸 그림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부모가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전업모에서 높게 나타났다. 오전 8시에서 8시 29분까지 취업모 자녀의 경우 부모가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62.9%인데 비해 전업모는 95.8%이며 9시 이전까지는 80%가 직접 자녀를 돌본다고 응답하였다. 오전 9시부터는 전업모의 자녀도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돌봄을 받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오전 10시에는 취업모와 전업모 자녀 모두 약 98%가 보육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모와 취업모 자녀가 돌봄을 받는 보육기관 유형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전업모의 경우 3분의 1정도만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반면, 취업모의 자녀는 약 46%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의 경우 자녀를 장시간 보육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전업모에 비해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시설에 등원하기 이전 시간에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자녀를 돌보는 비율은 취업모의 경우 8시에서 8시 29분 사이에 5분의 1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시 이후에도 해당 비율이 증가하여 오후 6시에서 6시 29분에는 31.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오후 7시에서 7시 29분 사이까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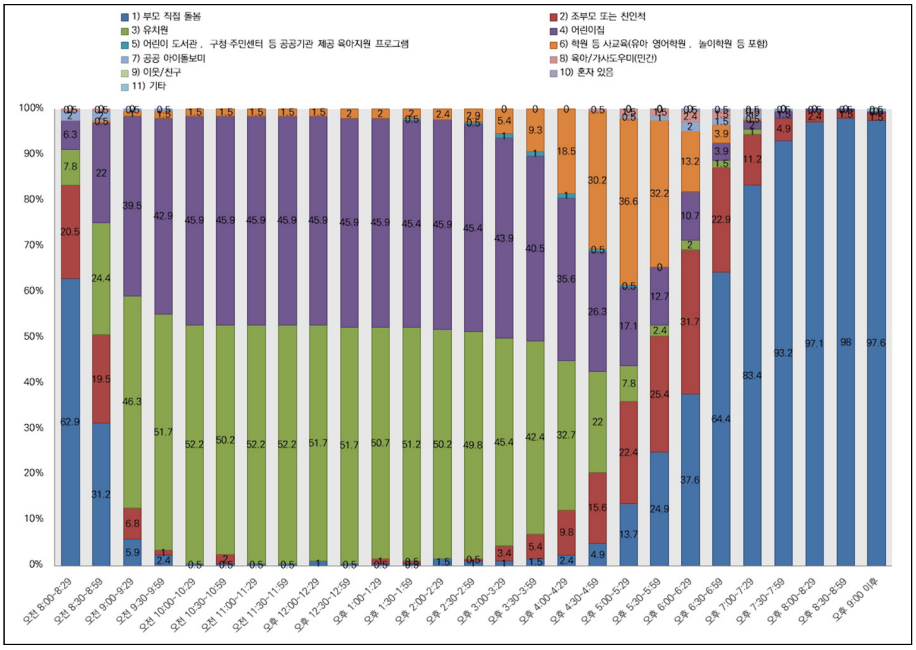
11.2%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의 돌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서 돌봄을 받는 비율도 전업모 자녀보다 취업모 자녀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전업모의 경우 오후 2시 이전에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용 시간대는 5시에서 5시 29분이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취업모의 자녀의 경우는 4시 30분 이후에 사교육 기관 이용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5시에서 5시 29분에는 36.6%가 사교육 기관에서 돌봄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5시 30분에서 5시 59분에도 32.2%가 이용하고, 6시 이후에 13.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 아이돌보미는 전업모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모의 경우는 출퇴근 전후 시간에 공공 아이돌보미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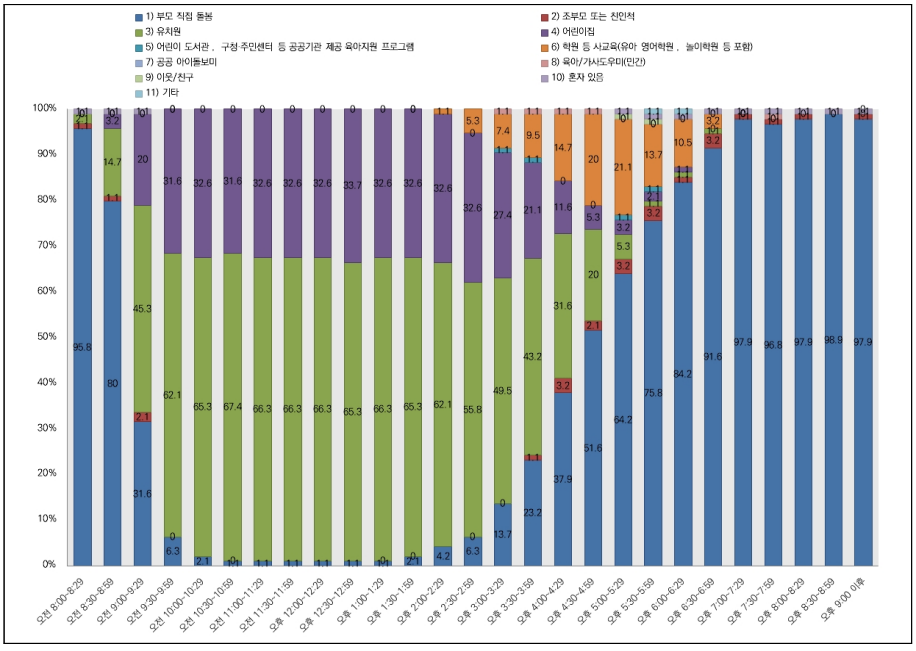
[그림 Ⅶ-2-1] 시간대별 만5세 자녀 돌봄 실태(전체)



[그림 Ⅶ-2-2] 시간대별 만5세 자녀 돌봄 실태(취업모)



[그림 Ⅶ-2-3] 시간대별 만5세 자녀 돌봄 실태(전업모)



나. 돌봄 요구 및 취학 후 돌봄의 변화 예측

출근시간을 전후한 아침시간대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취업모는 42.9%였으며,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500만원 이상 가구소득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며, 거주지 지역규모에서는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편, 출근시간을 전후한 저녁시간대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취업모는 47.3%로 아침시간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과 지역규모 비교에서 아침시간대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Ⅶ-2-1〉 출퇴근시간을 전후한 아침/저녁시간대에 돌봄서비스 필요(취업모)

단위: %(명)

구분	아침시간대		저녁시간대		계	(수)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전체	42.93	57.07	47.32	52.68	100.0	(205)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34.62	65.38	38.46	61.54	100.0	(26)
400~500만원 미만	29.27	70.73	36.59	63.41	100.0	(41)
500~600만원 미만	48.44	51.56	54.69	45.31	100.0	(64)
600만원 이상	48.65	51.35	50.00	50.00	100.0	(74)
$x^2(df)$	5.64 (3)		4.32 (3)			
지역규모						
대도시	48.59	51.41	51.41	48.59	100.0	(142)
중소도시	31.15	68.85	39.34	60.66	100.0	(61)
읍면지역	0.00	100.00	0.00	100.00	100.0	(2)
$x^2(df)$	6.82 (2)*		4.31 (2)			

주: 취업모 20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취학 전 (만5세)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큰 변화를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1순위에서 자녀가 일찍 귀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65.7%로 나타났고, 1순위에서 3순위까지 합산한 결과에서 해당 항목에 83.7%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귀가 시간이 빨라짐에 따라 부모가 담당하거나 해결해야할 돌봄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큰 변화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순위 응답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응답은 사교육비 증가였으

며, 긴 방학, 담임 교사가 덜 신경을 씀, 통학차량 없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와 3순위에서는 긴 방학이 자녀의 입학과 함께 발생할 큰 변화로 36.4%, 24.4%가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순위에서 3순위까지 합산 결과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68.3%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높았던 이른 귀가로 인한 돌봄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입학과 함께 긴 방학으로 인한 돌봄 문제를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순위와 3순위에서 두 번째로 높았던 사교육 비용 증가는 합산 결과에서 3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취학 이후에 사교육을 이용해야한다 또는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합산 결과의 기타 순위를 보면, 학교 교사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재원때보다 신경을 덜 써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4번째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의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는 항목이 뒤를 이었으며, 통합 차량 없음, 등교시간 늦음,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Ⅶ-2-2〉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발생하게 될 변화 예측(1,2,3순위)

단위: %(명)

구분	집에 일찍 옴	사교육 비용 증가	긴 방학	등교 시간 늦음	통학 차량 없음	담임 교사가 덜 신경씀	부모의 역할 요구	기타	생각해 본적 없음	계	(수)
1순위	65.7	10.33	9.7	2.0	4.0	5.7	1.3	0.7	0.7	100.0	(300)
2순위	12.6	20.4	36.4	4.0	9.5	10.2	6.8	0.0	0.0	100.0	(294)
3순위	6.0	21.2	24.4	4.6	6.0	17.0	20.5	0.4	0.0	100.0	(283)
1+2+3순위	83.67	50.33	68.33	10.33	19.00	31.67	27.33	1.00	0.67		(3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취학 전 (만5세)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라 1순위와 2순위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업모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일찍 귀가하는 것을 가장 큰 변화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72.2%로 전업모에 비해 2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전업모의 경우 사교육 비용 증가와 담임교사가 자녀에게 이전보다 덜 신경 쓸 것을 가장 큰 변화로 응답한 비율이 취업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취업모는 2순위에서 긴 방학에 44.3%가 응답하여 전업모에 비해 25%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취업모의 경우 자녀가 가정에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Ⅶ-2-3〉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발생하게 될 변화 예측(1,2순위)

단위: %(명)

	구분	집에 일찍 옴	사교육 비용 증가	긴 방학	등교 시간 늦음	통학 차량 없음	담임 교사가 덜 신경씀	부모의 역할 요구	기타	생각해 본적 없음	계	(수)
1 순위	전체	65.67	10.33	9.67	2.00	4.00	5.67	1.33	0.67	0.67	100.0	(300)
	모취업상태											
	전업모	51.58	17.89	9.47	0.00	5.26	11.58	2.11	1.05	1.05	100.0	(95)
	취업모	72.20	6.83	9.76	2.93	3.41	2.93	0.98	0.49	0.49	100.0	(205)
	$x^2(df)$					25.05 (8)**						
2 순위	전체	12.59	20.41	36.39	4.08	9.52	10.20	6.80	-	-	100.0	(294)
	모취업상태											
	전업모	16.13	22.58	19.35	2.15	16.13	13.98	9.68	0.00	0.00	100.0	(93)
	취업모	10.95	19.40	44.28	4.98	6.47	8.46	5.47	0.00	0.00	100.0	(201)
	$x^2(df)$					23.55 (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취학 전 (만5세)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1$.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이후 이용할 예정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질문한 결과, 1순위에서는 초등 돌봄 교실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방과후학교가 39.7%였다. 학원 등 사교육은 9%, 지역아동센터는 1.3%에 그쳤다. 2순위에서는 방과후학교가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원 등 사교육이 35.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3순위에서는 학원 등 사교육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돌봄교실이 18.8%로 뒤를 이었다. 1순위에서 3순위까지 합산 결과에서는 방과후학교가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원 등 사교육도 78%로 상당히 높았다. 초등돌봄교실은 72.7%가 응답하였으며, 그 외에 응답은 모두 7%이하로 지역아동센터, 기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육아/가사도우미, 공공아이돌보미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Ⅷ-2-4〉 초등학교 입학 한 후, 이용 예정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1,2,3순위)

단위: %(명)

구분	초등 돌봄 교실	방과 후 학교	지역 아동 센터	다함께돌봄 센터(우리 동네키움 센터)	학원 등 사교육(그룹 지도 포함)	공공 아이 돌보미	육아/ 가사 도우미 (민간)	기타	계	(수)
1순위	46.3	39.7	1.3	0.7	9.00	0.3	0.3	2.3	100.0	(300)
2순위	14.8	43.9	2.2	1.8	35.3	0.7	1.4	0.0	100.0	(278)
3순위	17.8	6.6	5.2	5.2	51.2	3.8	4.2	6.1	100.0	(213)
1+2+3순위	72.7	85.0	7.0	6.0	78.0	3.7	4.7	6.7		(3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취학 전 (만5세)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1순위 응답은 모의 취업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맞벌이 가정 중심의 돌봄 지원 서비스인 초등돌봄교실에 응답이 취업모에서 20%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방과후학교는 전업모에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고, 방과후학교 응답 비율은 낮았으며, 600만원 이상에서 학원 등 사교육에 대한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일수록 초등돌봄교실 비율이 낮고, 방과후학교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교육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Ⅷ-2-5〉 초등학교 입학 한 후, 이용 예정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1순위)

단위: %(명)

구분	초등 돌봄 교실	방과 후 학교	지역 아동 센터	다함께돌봄 센터(우리 동네키움 센터)	학원 등 사교육(그룹 지도 포함)	공공 아이 돌보미	육아/ 가사 도우미 (민간)	기타	계	(수)
전체	46.3	39.7	1.3	0.7	9.0	0.3	0.3	2.3	100.0	(300)
모취업상태										
전업모	31.6	52.6	0.0	1.1	11.6	0.0	0.0	3.2	100.0	(95)
취업모	53.2	33.7	2.0	0.5	7.8	0.5	0.5	2.0	100.0	(205)
$x^2(df)$					16.95 (7)*					
소득수준										
400만원 미만	34.7	56.9	0.0	1.4	4.2	0.0	0.0	2.8	100.0	(72)
400~500만원 미만	43.6	38.7	1.6	0.0	8.1	1.6	0.0	6.5	100.0	(62)
500~600만원 미만	50.6	34.6	3.7	0.0	8.6	0.0	1.2	1.2	100.0	(81)
600만원 이상	54.1	30.6	0.0	1.2	14.1	0.0	0.0	0.0	100.0	(85)
$x^2(df)$					36.68 (21)*					

구분	초등 돌봄 교실	방과 후 학교	지역 아동 센터	다함께돌봄 센터(우리 동네키움 센터)	학원 등 사교육(그룹 지도 포함)	공공 아이 돌보미	육아/ 가사 도우미 (민간)	기타	계	(수)
지역규모										
대도시	41.0	42.0	1.5	0.5	11.5	0.5	0.5	2.5	100.0	(200)
중소도시	54.8	36.6	1.1	1.1	4.3	0.0	0.0	2.2	100.0	(93)
읍면지역	85.7	14.3	0.0	0.0	0.0	0.0	0.0	0.0	100.0	(7)
$x^2(df)$					12.71 (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취학 전 (만5세)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2순위와 3순위 응답에서 전업모와 취업모의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2순위에서는 1순위와는 다르게 방과후학교에 대한 취업모의 응답 비율이 약 20% 높게 나타났으며, 3순위에서는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전업모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순위와 3순위에서는 학원 등 사교육 응답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2순위에서는 전업모의 해당 항목 응답이 49.4%로 가장 높았고, 3순위에서는 취업모의 응답이 58.1%로 가장 높았다.

〈표 Ⅶ-2-6〉 초등학교 입학 한 후, 이용 예정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2,3순위)

단위: %(명)

	구분	초등 돌봄 교실	방과 후 학교	지역 아동 센터	다함께돌봄 센터(우리 동네키움 센터)	학원 등 사교육 (그룹지도 포함)	공공 아이 돌보미	육아/ 가사 도우미 (민간)	계	(수)
2 순위	전체	14.8	43.9	2.2	1.8	35.3	0.7	1.4	100.0	(278)
	모취업상태									
	전업모	12.1	30.1	3.6	2.4	49.4	1.2	1.2	100.0	(83)
	취업모	15.9	49.7	1.5	1.5	29.2	0.5	1.5	100.0	(195)
	$x^2(df)$				14.25 (6)*					
3 순위	전체	17.8	6.6	5.2	5.2	51.2	3.8	4.2	100.0	(213)
	모취업상태									
	전업모	27.6	8.6	8.6	6.9	32.8	0.0	3.5	100.0	(58)
	취업모	14.2	5.8	3.9	4.5	58.1	5.2	4.5	100.0	(155)
	$x^2(df)$				20.1 (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취학 전 (만5세)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다. 돌봄서비스 구성요소의 중요성

초등 1학년 자녀가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서비스의 구성요소를 크게 접근성, 시설편의성, 프로그램, 돌봄서비스인력, 식사/간식으로 나누어 각각에 하위 구성요소들의 중요성을 5점 만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상위 구성요소에서는 돌봄 서비스 인력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사/간식과 프로그램 요소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부적인 하위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 접근성에서는 이동 시 안전한 보호 지원이 4.72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시설편의성에서도 주변 환경 및 시설 공간의 안전이 4.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들이 돌봄 서비스에서 자녀의 안전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접근성에서 주말 및 공휴일 이용 가능시간에 대한 중요도가 2.83점으로 모든 하위 구성요소들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외에 접근성 요소의 순위를 보면, 이동 시 안전한 보호 지원 다음으로 집이나 하교에서의 짧은 이동거리가 뒤를 이었고, 주중 이용 가능한 시간, 방학 중 이용 가능 시간, 제한없는 이용 자격, 하교 및 이동 시 차량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 편의성에서는 주변 환경 및 시설 공간의 안전 다음으로 자녀들이 가정 같은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느끼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분한 놀이 공간, 교재나 교구 구비, 바깥 놀이가 가능한 것 순이었다. 프로그램 요소에서는 교과목 보충학습에 대한 중요도보다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예체능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서비스 인력 요소는 모든 항목의 중요도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돌봄 교사가 아동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에 대한 중요도가 4.74로 모든 항목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나 돌봄 인력이 아동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돌봄 교사와 부모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돌봄 교사의 자격요건,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의 중요도도 높게 나타났다. 식사/간식 요소에서는 식사 및 간식의 질의 중요도가 4.5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저녁 식사는 3.41점, 아침 식사는 3.31점으로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Ⅶ-2-7〉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중요도

단위: %(명), 점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중요	매우 중요	계	(수)	평균
접근성	(1) 주중 이용 가능한 시간	0.0	0.3	7.3	28.0	64.3	100.0	(300)	4.56
	(2) 주말 및 공휴일 이용 가능시간	15.7	29.0	23.0	21.0	11.3	100.0	(300)	2.83
	(3) 방학 중 이용 가능한 시간	0.0	1.0	10.7	26.7	61.7	100.0	(300)	4.49
	(4) 집이나 학교에서의 이동거리가 가까울 것	0.0	0.3	6.3	27.7	65.7	100.0	(300)	4.59
	(5) 하교 및 이동 시 차량 지원	1.7	4.7	20.3	29.7	43.7	100.0	(300)	4.09
	(6) 이동 시 안전한 보호 지원	0.0	0.0	6.0	16.0	78.0	100.0	(300)	4.72
	(7) 이용 자격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	0.0	1.7	16.7	30.7	51.0	100.0	(300)	4.31
시설 편의성	(8)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	0.0	0.3	10.0	30.0	59.7	100.0	(300)	4.49
	(9) 놀이 공간이 충분할 것	0.0	0.0	10.3	34.0	55.7	100.0	(300)	4.45
	(10) 바깥 놀이를 할 수 있을 것	0.3	1.7	20.7	35.3	42.0	100.0	(300)	4.17
	(11) 교재나 교구 구비	0.0	1.0	16.7	38.7	43.7	100.0	(300)	4.25
	(12) 주변 환경 및 시설 공간의 안전	0.0	0.0	5.3	19.7	75.0	100.0	(300)	4.70
프로그램	(13) 교과목 보충학습 프로그램	0.0	2.0	20.3	52.7	25.0	100.0	(300)	4.01
	(14) 예체능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0.3	0.3	18.0	48.7	32.7	100.0	(300)	4.13
	(15)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	0.0	0.7	13.7	44.3	41.3	100.0	(300)	4.26
돌봄 서비스 인력	(16) 돌봄 선생님이 아동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질 것	0.0	0.0	4.0	17.7	78.3	100.0	(300)	4.74
	(17) 돌봄 선생님과 부모의 소통	0.0	0.0	5.3	21.3	73.3	100.0	(300)	4.68
	(18) 돌봄 선생님의 자격 요건	0.0	0.0	9.3	22.7	68.0	100.0	(300)	4.59
	(19) 돌봄 선생님 1인당 담당하는 아동의 수	0.0	0.0	6.7	28.3	65.0	100.0	(300)	4.58
식사/간식	(20) 아침 식사 제공	4.3	16.0	40.3	23.0	16.3	100.0	(300)	3.31
	(21) 저녁 식사 제공	4.7	14.7	36.7	23.3	20.7	100.0	(300)	3.41
	(22) 방학 중 식사 제공	0.3	2.0	15.7	35.0	47.0	100.0	(300)	4.26
	(23) 식사 및 간식의 질	0.0	0.0	7.7	31.0	61.3	100.0	(300)	4.5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취학 전 (만5세)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에 해당하는 하위 구성요소들의 중요도를 모의 취업상태와 소득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표 Ⅶ-2-8〉와 같다. 취업모는 주중 이용 가능한 시간, 방학 중 이용 가능한 시간, 하교 및 이동 시 차량 지원 요소를 전업모에 비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말 및 공휴일 이용 가능

시간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중요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방학 중 이용 가능한 시간의 중요도는 다른 가구소득 집단에 비해 400만원 미만에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표 Ⅷ-2-8〉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중요도(접근성)

단위: 점

구분	모 취업상태			소득수준				
	전업모	취업모	*t*	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F*
주중 이용 가능한 시간	4.41	4.63	-2.83**	4.46	4.58	4.57	4.64	1.01
주말 및 공휴일 이용 가능 시간	2.97	2.77	1.28	3.14	3.03	2.77	2.49	4.27*
방학 중 이용 가능한 시간	4.17	4.64	-5.48***	4.25	4.74	4.46	4.54	5.57***
집이나 학교에서의 근거리 이동	4.48	4.63	-1.94	4.54	4.68	4.59	4.55	0.64
하교 및 이동 시 차량 지원	3.88	4.19	-2.48*	4.01	4.10	4.09	4.15	0.26
이동 시 안전한 보호 지원	4.71	4.73	-0.31	4.64	4.82	4.78	4.66	1.79
이용 자격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	4.28	4.32	-0.38	4.42	4.35	4.25	4.25	0.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취학 전 (만5세)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시설편의성에 해당하는 하위 구성요소들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취업모의 중요도 응답의 평균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소득수준에서는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의 중요도가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에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400~500만원 미만 소득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Ⅶ-2-9〉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중요도(시설편의성)

단위: 점

구분	모 취업상태			소득수준				
	전업모	취업모	*t*	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F*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	4.40	4.53	-1.55	4.35	4.68	4.52	4.45	2.78*
놀이 공간이 충분할 것	4.44	4.46	-0.2	4.39	4.60	4.42	4.44	1.24
바깥 놀이를 할 수 있을 것	4.11	4.20	-0.91	4.15	4.32	4.06	4.18	1.16
교재나 교구 구비	4.24	4.25	-0.12	4.21	4.32	4.19	4.29	0.55
주변 환경 및 시설 공간의 안전	4.66	4.71	-0.7	4.65	4.77	4.70	4.67	0.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취학 전 (만5세)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구성요소로서 프로그램의 하위 구성요소들에서는 모의 취업상태와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Ⅶ-2-10〉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중요도(프로그램)

단위: 점

구분	모 취업상태			소득수준				
	전업모	취업모	*t*	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F*
교과목 보충학습 프로그램	4.00	4.01	-0.11	4.10	4.03	3.90	4.01	0.95
예체능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4.15	4.12	0.28	4.19	4.13	4.00	4.20	1.3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	4.34	4.23	1.22	4.28	4.39	4.12	4.29	1.7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취학 전 (만5세)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돌봄 서비스 인력의 하위 구성요소들을 모의 취업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 돌봄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취업모가 전업모에 비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모든 하위 구성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돌봄 서비스 인력과 관련된 세 항목에서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 소득집단의 중요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400~500만원 미만 가구소득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 돌봄 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는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집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2-11〉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중요도(돌봄 서비스 인력)

단위: 점

구분	모 취업상태			소득수준				
	전업모	취업모	*t*	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F*
돌봄 선생님이 아동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질 것	4.72	4.76	-0.62	4.63	4.90	4.70	4.76	3.47*
돌봄 선생님과 부모의 소통	4.62	4.71	-1.22	4.49	4.84	4.67	4.74	4.9**
돌봄 선생님의 자격 요건	4.52	4.62	-1.27	4.39	4.79	4.52	4.67	5.13**
돌봄 선생님 1인당 담당하는 아동의 수	4.42	4.66	-3.16**	4.40	4.65	4.58	4.69	3.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취학 전 (만5세)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식사/간식 구성요소의 하위 요소들을 모의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저녁 식사 제공과 방학 중 식사 제공 요소에서 취업모와 전업모의 중요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취업모가 전업모에 비해 방과후 돌봄서비스에서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것과 방학 중 식사 제공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방학 중 식사 제공에서만 나타났는데,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 집단에서 가장 낮았고, 400~500만원 미만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Ⅷ-2-12〉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중요도(식사/간식)

단위: 점

구분	모 취업상태			소득수준				
	전업모	취업모	*t*	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F*
아침 식사 제공	3.14	3.39	-1.93	3.35	3.37	3.27	3.27	0.17
저녁 식사 제공	3.13	3.54	-3.02**	3.36	3.61	3.37	3.33	0.92
방학 중 식사 제공	3.91	4.43	-5.4***	3.97	4.52	4.26	4.33	5.43**
식사 및 간식의 질	4.44	4.58	-1.76	4.40	4.69	4.58	4.49	2.6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취학 전 (만5세) 아동 돌봄 수요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VIII

초등 1학년 돌봄 정책 개선방안

01 초등 1학년 돌봄 수요예측

02 초등 1학년 돌봄 정책 개선방안

Ⅷ. 초등 1학년 돌봄 정책 개선방안

1. 초등 1학년 돌봄 수요예측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7세 인구를 기반으로(출산율 저위 가정) 초등 1학년 돌봄 수요예측을 하고 이에 따른 수요 대비 공급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Ⅷ-1-1〉과 같다. 시간제 맞벌이 비율에 근거한 이용률 40.2%를 기준으로 했을 시 2022년 온종일 돌봄체계 완성 후 공급수준은 수요 대비 공급률 82.8%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1실당 20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과밀수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1실당 수용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실당 10명이 되었을 경우는 2022년 수요 대비 공급률은 41.4%가 된다. 또한 기혼여성 취업률 증가 및 이용자격 확대 등에 따라 이용률이 증가할 수도 있다. 2019년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 방과후 및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률 75.2%를 기준으로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률을 최대 75.2%로 가정한다면, 1실당 10명을 기준으로 할 때, 2030년에는 온종일 돌봄체계 완성 후 공급수준을 기준으로 수요대비 공급률이 40.85%가 된다. 그러나 1실당 10명을 가정하더라도, 이용률 40.2%를 기준으로 하면, 2030년 수요 대비 공급률은 76.4%가 된다. 이와 같이 초등 1학년 돌봄 수요는 장래인구추계 출산율 저위 가정을 하더라도, 이용률 및 1실당 수용 아동 수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게 되고, 해당 수요에 필요한 공급수준도 달라지게 된다.

분석 결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경우 이용률을 최대치인 75.2%, 돌봄교실당 인원을 최소치인 10명으로 가정한다고 해도 2030년이 되면 공급 총량은 수요의 80% 가까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률 및 돌봄교실 당 인원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는 수요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에서 가정하는 최대 이용률 40.2%, 돌봄교실 당 인원 20명을 가정하면 온종일 돌봄체계가 완성될 시의 공급수준을 유지하면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추세로 인한 급격한 아동 수 감소로 인하여 2030년으로 가게 되면 양적인

수준에서는 온종일 돌봄체계의 공급 수준이 부족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22년에는 이용률 40.2%를 가정할 시 공급은 수요의 82.8%로 추정되어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추세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초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완성 후 돌봄 공급은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에 비해 106.2%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온종일 돌봄체계가 초등 전학년에 대한 돌봄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초등 1학년에 대한 돌봄 공급은 상대적으로 그 확대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봄 수요가 가장 높은 학년은 1학년이고(교육부, 2019: 1),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되므로, 돌봄 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1학년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그 외에도 돌봄 공급은 총량의 수준에서만 봐서는 안되고 질적인 수준과 수요자가 원하는 돌봄 시간대에 공급이 되는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오후 5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오후돌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8년 범정부 공동 초등 돌봄 수요조사 결과 보고」에서는 오후 5시 이후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4%로 나타났는데(교육부, 2019: 2), 이러한 결과는 돌봄 공급을 총량의 관점에서만 보아서는 안되며,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오후돌봄의 경우에도 학부모가 원하는 수준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할 수 있다. 초등 1학년 돌봄 정책 개선방안은 이와 같은 돌봄틈새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지점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표 Ⅷ-1-1〉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대비 공급률

구분			온종일 돌봄체계 이전 공급수준	온종일 돌봄체계 완성 후 공급수준
1실당 20명	2022년	이용률 75.2%	수요 대비 공급률 41.7%	수요 대비 공급률 44.3%
		이용률 40.2%	수요 대비 공급률 78%	수요 대비 공급률 82.8%
	2030년	이용률 75.2%	수요 대비 공급률 77%	수요 대비 공급률 81.7%
		이용률 40.2%	수요 대비 공급률 144%	수요 대비 공급률 152.8%
1실당 10명	2022년	이용률 75.2%	수요 대비 공급률 20.85%	수요 대비 공급률 22.15%
		이용률 40.2%	수요 대비 공급률 39%	수요 대비 공급률 41.4%
	2030년	이용률 75.2%	수요 대비 공급률 38.5%	수요 대비 공급률 40.85%
		이용률 40.2%	수요 대비 공급률 72%	수요 대비 공급률 76.4%

2. 초등 1학년 돌봄 정책 개선방안

가. 운영시간

설문조사 결과에서 만5세 돌봄 시간 실태와 비교하면 취업모의 경우 초등 1학년은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이용 비율이 50% 미만으로 감소하는 시간대는 오후 3시로 나타났다(초등돌봄교실 37.93%, 방과후학교 10.63%). 이후 시간대에는 공적 방과후 돌봄 이용 비율은 급격히 감소한다. 그에 비해 후술할 만5세의 경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50% 미만으로 감소하는 시간대는 오후 4시 30분으로 나타났다(유치원 26.3%, 어린이집 22%). 이후 시간대에는 공적 방과후 돌봄 이용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다. 이를 비교하면 공적 방과후 돌봄 이용 비율이 50% 미만으로 감소하는 시간대가 초등 1학년과 만5세는 1시간 30분의 차이가 나며, 취학 전후를 비교할 때 초등 1학년은 취학 전 1년에 비해 공적 방과후 돌봄이 담당하는 시간이 일찍 끝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퇴근시간을 전후로 한 저녁시간대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취업모의 54%, 출근시간대를 전후로 한 아침시간대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취업모의 41.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침 및 저녁돌봄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초등 1학년을 위한 공적 방과후 돌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등돌봄교실은 오후돌봄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아침 및 저녁돌봄의 운영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아침돌봄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비율이 23.1%, 저녁돌봄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비율은 2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돌봄 공백 시간에 대응하기 방안으로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운영시간 차등화 및 연계 강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초등 방과후 돌봄의 운영시간은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은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오후돌봄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운영 돌봄 기관이 저녁돌봄을 담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교 운영 돌봄교실은 안전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저녁돌봄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시설을 통한 돌봄 서비스나 학교 내 교실을 이용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의 인력을 통한 관리가 이루어지

는 경우에는 저녁돌봄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학교돌봄이 오후돌봄을 중심으로 운영될 때 저녁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학교 밖의 마을돌봄 기관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학원 등 사교육기관도 차량을 이용해 아동을 이동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차량 운영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차량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 및 비용부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취학 후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 시간을 현재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이 저녁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이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가 저녁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운영시간을 이원화하여 저녁돌봄은 지방자치단체 운영 돌봄기관에서 담당하고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연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시간과 관련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탄력적인 시간 운영이 필요하다.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등에서는 의무이용시간을 규정한 경우가 많고 학원 등을 이용하기 위해 외부로 나가면 다시 입실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다. 심층면담 결과 학부모들은 학교 안 돌봄과 학교 밖 돌봄, 공적 돌봄과 사적 돌봄을 조합하여 자신에게 최적화된 조합을 만들어 시간을 관리하고 있었다. 돌봄 기관이 시간을 경직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학부모의 최적 조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적 돌봄 이용을 저해할 수도 있다. 물론 돌봄기관에 운영시간의 기준은 필요하지만 아동 및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나. 인력관리

교육공무직 파업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초등 돌봄전담사 등 초등 방과후 돌봄 종사자의 지위를 둘러싼 갈등은 초등 돌봄 서비스의 안정성 및 질 제고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 돌봄 수요에 부응하는 돌봄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돌봄 종사자들의 지위 및 인력 관리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는 법적 근거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 돌봄전담사 등 돌봄 종사자의 인력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서는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 3,500실 7만명, 지방자치단체 운영 교실활용 돌봄교실을 1,500실 3만명을 증원할 계획이

다(관계부처 합동, 2018b: 11). 이에 따라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교실도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돌봄 종사자의 소속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지위 및 처우가 소속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민간 위탁이 이루어질 경우는 교육청 소속, 지방자치단체 소속, 민간 위탁이냐에 따라 종사자 지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에서는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안 제10조제2항) 지방자치의 확대를 반영하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력 관리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종사자 지위의 지역 간, 기관 간, 소속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사자 지위는 법령에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인력 관리와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는 돌봄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이다. 기존의 돌봄 시설은 종사자 자격 기준을 유초중등 교사, 보육 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 보유자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부모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약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앞에서 박경미 의원안이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것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 돌봄 종사자의 자격 요건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조례가 아닌 법령에 종사자 자격을 규정한다고 해도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부모와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 공간 확보

초등 방과후 돌봄의 공간 확보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에서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는 학교 내 유휴교실을 돌봄교실로 사용하는데 초등 돌봄 수요가 많은 학교는 과밀학급인 경우가 많아 유휴교실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인구 감소로 인해 유휴교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특정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유휴교실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임차료 등의 비용부담으로 인해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임차료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복지부의 입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와의 형평성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의 보조금에 대해서만 제한을 풀기는 어렵다.

박경미 의원에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에서는 이러한 공간확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8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및 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취약함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 수익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국회 교육위원회, 2019: 24-25).

이에 따라 초등 방과후 돌봄에 사용되는 공간 확보를 위한 별도의 법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공간 확보와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편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에 4천여개의 센터를 확보하고 있다. 초등 방과후 돌봄의 방향이 보편적 지원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다함께돌봄센터로의 전환 또는 융합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립 목적이 다르고 운영자의 자격 요건도 다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제도설계가 요구된다.

라. 법적 근거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 규정이 있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 규정이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공적 돌봄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는 법적 근

거가 없는 실정이다. 그뿐 아니라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연계하고 부처 간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없다. 이에 따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등 방과후 돌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지장을 초래하고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근거법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 그동안 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형태로 제출되었으나 온종일 돌봄체계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도의 법률은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근거 규정 뿐 아니라 온종일 돌봄체계 전반에 걸친 돌봄 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 간 연계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 거버넌스

초등 방과후 돌봄의 거버넌스는 관리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교육부와 복지부,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중 누가 관리주체가 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앙정부 수준에서 교육부와 복지부 중 어느 부처가 관리주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중앙정부 수준의 관리주체를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으로 규정하였고,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기 때문에 부처 간 연계·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관리주체가 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서비스 간 연계·협력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복지부 장관을 관리주체로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라는 관점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초등 방과후 돌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학교 내 시설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도·감독권한을 부여하였는데(안 제11조),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학교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국회 교육위원회, 2019: 26).

이와 같은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이다. 앞서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일본, 덴마크, 독일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정부 거버넌스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초등돌봄교실을 지도·감독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온종일 돌봄체계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돌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분리된 우리나라 만의 거버넌스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관계에 대한 정교한 제도설계가 요구된다. 초등 방과후 돌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은 학교의 의견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바. 프로그램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결과는 초등 방과후 돌봄의 프로그램의 질 및 다양성이 돌봄 서비스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설문조사에서 초등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에서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중시하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약간 중요 48.7%, 매우 중요 30.5%).

아동 및 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없이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정한 기관 내에서만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기 어렵고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학교돌봄의 경우에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가 연계하여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교 밖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종사자들의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 수익자 부담

초등 방과후 돌봄의 수익자 부담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급간식과 추가 프로그램의 경우만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월 10만원의 범위에서 수익자 부담을 허용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중심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을 확대하기 어렵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선택을 할 때 비용부담 정도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및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수익자 부담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여 유료로 이용 시 이용할 의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3.1%가 유료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월 평균 11.9만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정 수준의 수익자 부담 확대를 통해 돌봄 서비스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돌봄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수익자 부담이 급간식과 추가 프로그램의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보조인력을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될 경우 바깥놀이 등 다양한 돌봄 활동을 제공하기 어렵고 운동장 등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점에서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일정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수익자 부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 초등학교 수업시수 연장

초등 1학년 어머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초등학교 1학년의 수업시수가 오후 3시까지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어머니 중 55.3%는 동의하였으며, 44.7%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61.0%가 수업시수 연장에 동의하였고, 전업모는 47.0%가 동의하여, 취업모가 수업시수 연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초등학교 수업시수 연장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취업모의 경우는 돌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업시수 연장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나지만 전업모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초등 방과후 돌봄 시스템이 영유아 돌봄 시스템과 비교하여 아직 미비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수업시수 연장을 돌봄 공백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는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수업시수 연장은 교육과정 개편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OECD에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은 덴마크의 경우도 2014년 초등학교 수업시수를 연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낮은 성취도를 보인 것을 계기로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수업시수를 연장한 것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9: 56). 초등학교 수업 시수 연장은 돌봄 공백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돌봄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고 교육과정 개편과 연관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자. 방학 중 돌봄 공급

학기 중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였으나 방학 중에 이용하지 않는 이유 1순위로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돌봄」이 38.7%, 기타가 24.7%,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방학 프로그램 이용」이 16.1%, 「공공기관의 방학 프로그램 이용」이 9.7%, 「여행 또는 휴가」 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학 중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다른 프로그램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조부모 또는 친인척 돌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초등돌봄교실 등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수요자를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방학 중 돌봄 공급은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점은 공적 방과후 돌봄의 프로그램 측면의 향상을 요구하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교육과 돌봄의 분절화된 거버넌스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돌봄체계의 거버넌스 개편과 연관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2018a). 2019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2018b). 2019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2018c). 초등돌봄교실 운영 가이드라인[별책].

17개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2018d).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관계부처 합동(2018a).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2018b).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교육부(2013. 12.).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2015-74호.

교육부(2018a).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안).

교육부(2018b). "학생 숫자 예측 논란 보도 관련" 설명자료(2018.5.2. 배포)

교육부(2018c). 2018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교육부(2019). 2018년 범정부 공동 초등 돌봄 수요조사 결과 보고.

김경은(2012).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자기 돌봄 경험에 따른 일상생활경험 및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33(6), 51-69.

김민경·정영모(2018). 방과후학교 근거법 마련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교육문제연구, 68, 99-118.

김선혜(2015). 초등학교 돌봄서비스의 목적 논의: 공공성과 아동 자기결정의 자유에 근거하여.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6(4), 545-353.

김수동(2015). 일본의 방과후 아동교실 정책과 운영사례 분석.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9(2), 87-109.

김수동·윤준영·정영모(2017). 방과후학교의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방안.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2), 855-864.

김수동·정영모(2016). 한국과 일본의 초등 돌봄 정책 부처 간 연계방식 비교와 초등돌봄교실에 주는 시사점.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4), 279-288.

김영란·조선주·선보영·배호중·김진석·정영모(2018). 초등학생 돌봄 실태 파악 및 수요 분석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최인희·선보영·성경·배주현·김수정·양난주(2018).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방안 연구 II: 여성·가족관점의 돌봄정책 추진전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종호·심영미(2015). 방과 후 돌봄서비스 실태 및 만족도 비교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1), 399-419.

김지경·김균희(2013).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 유무 및 일수의 결정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4(1), 51-70.

김진석·백선희·정영모·김소영·조은하(2017).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및 제도화 방안. 범정부공동추진단·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팀.

김진숙·서혜전(2016). 방과후돌봄서비스간의 협력과 역할 분석-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방과후아동지도연구, 13(2), 45-67.

노성향(2012).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취업모의 인식 및 요구. 인간발달연구, 19(3), 21-40.

문무경·박창현·송기창·김문정(2017). 2018-2022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박혜준·이재림·김영선·이보람(2018). 서울시 초등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보건복지부(2019a). 2019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9b).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서혜전(2018). 한국과 미국의 방과후 돌봄 체제 비교-출발배경, 운영형태, 참여규모에서-. 열린부모교육연구, 10(2), 327-354.

송혜림(2014). 기혼여성취업의 일-가정 균형 실태: 초등학교 저학년생 자녀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41-59.

심정미·채현탁(2015).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협력에 관한 쟁점 고찰. 한국자치행정학회보, 29(2), 313-328.

윤성현(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덴마크. 한국법제연구원.

윤향미·조문석·오재록(2013).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7(1), 181-203.

이재희·김근진·엄지원(2017).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정미(2017). 한일 양국의 초등 돌봄교실에 있어서의 돌봄전담사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비교연구-한국의 창원시와 일본 도요타카시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62, 235-256.

임현정·정영모(2017). 한국과 일본의 초등보육정책 비교 연구-여유교실 활용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112, 273-299.

임혜정(2017).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돌봄 공백이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1(3), 65-86.

장수정·송다영·백경흔(2019). 초등돌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공동육아 방과후 참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2, 251-287.

장혜경·황정임·최인희·김영란·주재선·김소영·오현경·김수지(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9). 출생자 30만명 시대, '교육과 돌봄의 미래'에 대한 정책방향 모색: 덴마크의 유·초등교육과 돌봄교실의 현황 및 시사점,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조영희(2014).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1), 141-162.

통계청(각년도). 장래인구추계 7세 인구.

Alt, C., Guglhör-Rudan, A., Hüsken, K., & Winklhofer, U.(2019), Ganztagsbetreuung für Grundschulkinder, Kosten des Ausbaus bei Umsetzung des Rechtsanspruchs. Deutsches Jugendinstitut.

BMFSFJ(2018). Kindertagesbetreuung Kompakt: Ausbaustand und Bedarf 2017. BMFSFJ, Berlin.

Münder, J.(2017). Bedarfsdeckende Förderung und Betreuung für Grundschulkinder durch Schaffung eines Rechtsanspruchs. https://www.fruehe-chancen.de/fileadmin/PDF/Fruehe_Chancen/170821_Expertise_Muender_Langfassung_Final.pdf에서 2019년 8월 30일에 내려받음.

StEG-Konsortium(2016). Ganztagsschule: Bildungsqualität und Wirkungen außerunterrichtlicher Angebote. Ergebnisse der Studie zur Entwicklung von Ganztagsschulen 2012-2015. Frankfurt a.M..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2000).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Denmark – Background Report. Copenhagen.

[법률안 관련 자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2012.9.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2013.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55), 정부제출(의안번호 3627),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2017.2.

국회 교육위원회(2019).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2019.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16).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 검토보고,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336)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2016.12.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20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462), 2019.5.16.

김한정 의원 대표발의(20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305), 2017.9.12.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2016).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법안(의안번호 3336).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2019).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2), 2019. 8. 27.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20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836), 2012.11.28.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2016). 방과후 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4265), 2016.12.8.

유은혜 의원 대표발의(2016).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3899), 2016.11.28.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20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8), 2012.6.20.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2016). 방과후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687), 2016.7.7.

정부 제출법안(20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627). 2016.11.16.

정부 제출법안(20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57), 2012.8.31.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20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255), 2016.12.8.

[관련 법령]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9. 3. 26.] [법률 제16300호, 2019. 3. 26., 일부개정]

대한민국헌법 [시행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소득세법 [시행 2019.1.1.] [법률 제16104호, 2018.12.31.,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9.4.1.] [대통령령 제29523호, 2019.2.12., 일부개정]

식품위생법 [시행 2019.1.12.][법률 제1594호, 2018.12.11.,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2019.1.15.][법률 제16248호, 2019.1.15., 일부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16.9.3.][법률 제14064호, 2016.3.2.,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2019. 11. 1.] [법률 제16404호, 2019. 4. 30.,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2019. 11. 1.] [대통령령 제30171호, 2019. 10.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9.6.25.] [법률 제16042호, 2018.12.2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6.25.] [대통령령 제29896호, 2019.6.25.,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19.6.19.] [법률 제15986호, 2018.12.18., 일부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2018. 9. 14.] [법률 제15453호, 2018. 3. 13.,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7.6.22.][법률 제14603호, 2017.3.21., 일부개정]

[온라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인출일: 2019. 3. 10)

덴마크 공공 정보 포털 사이트 https://www.borger.dk/familie-og-boern/Boernepasning/Skolefritidsordning-og-fritidshjem (인출일: 2019. 8. 31.)

덴마크 공공 정보 포털 영어 사이트 https://lifeindenmark.borger.dk/Coming-to-Denmark/Family-and-children/(인출일: 2019. 8. 27.)

덴마크 아동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uvm.dk/sfo-klub-og-fritidshjem/sfo (인출일: 2019. 8. 30.)

독일 Kita 정보 포털 사이트 https://www.kita.de/wissen/hort/ (인출일: 2019. 9. 2.)

독일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홈페이지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kinderbetreuung/ganztagsbetreuung/betreuungsluecken-fuer-grundschulkinder-schliessen/133604 (인출일: 2019. 8. 23.)

바이에른 주 청소년청 육아 정보 사이트 https://www.elternimnetz.de/kinder/schulkind/ganztagsschulen.php (인출일: 2019. 9. 2.)

코펜하겐 시 홈페이지 https://international.kk.dk/artikel/cost-after-school-care (인출일: 2019. 8. 27)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인출일: 2019. 8. 29.)

[언론 자료]

한국교육신문(2016.11.10.). 「돌봄교실 운영주체 학교로 못 박나」.

Abstract

A Study on the Policy to Reduce Care Deficit of the First Grade in Primary School through Demand Forecasting: Focusing on the Period of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the First Grade

Keun Jin Kim, Eun Jung Park, Hee Sue Kim

This study is the research to review the status of care deficit of the first grade in primary school through demand forecasting, and to suggest directions to reduce care deficit of the first grade.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period of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the first grade.

Demand forecasting of the first grade in primary school especially is based on Population Projections by low variant in KOSIS(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of Statistics Korea. The survey for the afterschool care demand is conducted to 900 mothers of the first grade in primary schools and 300 mothers of age 5 in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After the demand forecasting for the afterschool care of first grade in primary school, institutional analysis is followed to consider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of afterschool care of primary school. For example, elementary school daycare class(the main daycare program for the first grade in primary school) does not have the legal basis and cannot be supported by institutional system.

This study suggested following policy proposals to reduce care deficit of the first grade in primary schools and improve the primary school afterschool system. The policy proposals have 9 categories including operation hours, human resource management, space securement, legal basis, governance of afterschool care, program of afterschool care,

extension of benefit principle, care during school vacation, and extension of primary school's regular curriculum hours a day.

Keyword: care deficit, first grade in primary school, demand forecasting, the period of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the first grade

부록: 조사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19년 기본과제인 「수요예측을 통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돌봄 공백 해소 방안: 취학 전·후를 중심으로」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있는 가구의 돌봄 공백 및 이에 따른 돌봄 수요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선호 등에 대해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의견을 여쭙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선문1. 본 설문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이십니까?

1. 예 (☞ 선문2) (다음 설문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2. 아니요 (☞조사중지)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설문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문2.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 전업모
2. 취업모

Ⅰ. 돌봄 시간 조사

※ 모든 응답자 응답 문항 (문1, 문2)

시간대		선택	보기 항목
기상	(1) 오전 8:00~8:29		
	(2) 오전 8:30~8:59		
	(3) 오전 9:00~9:29		
	(4) 오전 9:30~9:59		(0)학교 정규수업
	(5) 오전 10:00~10:29		①부모 직접 돌봄
	(6) 오전 10:30~10:59		②조부모 또는 친인척
	(7) 오전 11:00~11:29		③초등돌봄교실
	(8) 오전 11:30~11:59		④방과후학교
	(9) 오후 12:00~12:29		⑤지역아동센터
↑	(10)오후 12:30~12:59		⑥다함께돌봄센터(4우리동네키움센터)
	(11) 오후 1:00~1:29		⑦어린이 도서관, 구청·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제공 육아지원 프로그램
	(12) 오후 1:30~1:59		
	(13) 오후 2:00~2:29		
	(14) 오후 2:30~2:59		⑧학원 등 사교육(그룹지도 포함)
	(15) 오후 3:00~3:29		⑨공공 아이돌보미
	(16) 오후 3:30~3:59		⑩육아/가사도우미(민간)
↓	(17) 오후 4:00~4:29		⑪이웃/친구
	(18) 오후 4:30~4:59		⑫혼자 있음
	(19) 오후 5:00~5:29		혼자 있음: 보호자나 돌봐주는 사람 없이 아동이 혼자 있는 것을 의미함. 미성년인 형제자매와 있을 경우에도 혼자 있는 것으로 간주
	(20) 오후 5:30~5:59		
	(21) 오후 6:00~6:29		
	(22) 오후 6:30~6:59		
	(23) 오후 7:00~7:29		
	(24) 오후 7:30~7:59		⑬기타(적어주세요:)
	(25) 오후 8:00~8:29		
	(26) 오후 8:30~8:59		
취침	(27) 오후 9:00 이후		

문1. **(학기 중)** 귀하의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학기 중** 가장 **평균적인 하루일과**를 떠올리시고, 기상 이후 취침시간까지 주로 누가 또는 어디서 돌보고 있는지 시간대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2. **(방학 중)** 귀하의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방학 중** 가장 **평균적인 하루일과**를 떠올리시고, 기상 이후부터 취침시간까지 주로 누가 또는 어디서 돌보고 있는지 시간대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시간대		선택	보기 항목
기상	(1) 오전 8:00~8:29		
	(2) 오전 8:30~8:59		
	(3) 오전 9:00~9:29		
	(4) 오전 9:30~9:59		
	(5) 오전 10:00~10:29		
	(6) 오전 10:30~10:59		
	(7) 오전 11:00~11:29		①부모 직접 돌봄
	(8) 오전 11:30~11:59		②조부모 또는 친인척
	(9) 오후 12:00~12:29		③초등돌봄교실
↑	(10)오후 12:30~12:59		④방과후학교
	(11) 오후 1:00~1:29		⑤지역아동센터
	(12) 오후 1:30~1:59		⑥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13) 오후 2:00~2:29		⑦어린이 도서관, 구청·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제공 육아지원 프로그램
	(14) 오후 2:30~2:59		
	(15) 오후 3:00~3:29		⑧학원 등 사교육(그룹지도 포함)
	(16) 오후 3:30~3:59		⑨공공 아이돌보미
↓	(17) 오후 4:00~4:29		⑩육아/가사도우미(민간)
	(18) 오후 4:30~4:59		⑪이웃/친구
	(19) 오후 5:00~5:29		⑫혼자 있음
	(20) 오후 5:30~5:59		⑬기타(적어주세요:)
	(21) 오후 6:00~6:29		
	(22) 오후 6:30~6:59		
	(23) 오후 7:00~7:29		
	(24) 오후 7:30~7:59		
	(25) 오후 8:00~8:29		
	(26) 오후 8:30~8:59		
취침	(27) 오후 9:00 이후		

문3.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적응기간인 3월 한 달 동안** 중 어떤 돌봄 서비스를 사용하였습니까? 이용 시간이 많은 순으로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부모 직접 돌봄

②조부모 또는 친인척

③초등돌봄교실

④방과후학교
⑤지역아동센터
⑥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⑦어린이 도서관, 구청·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제공 육아지원 프로그램
⑧학원 등 사교육(그룹지도 포함)
⑨공공 아이돌보미
⑩육아/가사도우미(민간)
⑪이웃/친구
⑫혼자 있음
⑬기타(적어주세요)

II. 돌봄 요구 및 취학 후 돌봄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4~문11
※ 선문2의 2.취업모만 응답하도록 로직 구현

문4. 귀하는 출근시간을 전후한 아침시간대에 초등 자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
1. 예 → 문5-1번으로 이동 2. 아니오 → 문5번으로 이동

문4-1. 그럼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침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오전 ( )시 ( )분 ~ ( )시 ( )분

문5. 귀하는 퇴근시간을 전후한 저녁시간대에 초등 자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
1. 예 → 문5-1번으로 이동 2. 아니오 → 문6번으로 이동

문5-1. 그럼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저녁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오후 ( )시 ( )분 ~ ( )시 ( )분

※ 모든 응답자 응답 문항 (문6~문11)

문6. 초등 1학년 자녀를 위하여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의 각 서비스 구성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중요	매우 중요
접근성	(1) 주중 이용 가능한 시간	①	②	③	④	⑤
	(2) 주말 및 공휴일 이용 가능시간	①	②	③	④	⑤
	(3) 방학 중 이용 가능한 시간	①	②	③	④	⑤
	(4) 집이나 학교에서의 이동거리가 가까울 것	①	②	③	④	⑤
	(5) 하교 및 이동 시 차량 지원	①	②	③	④	⑤
	(6) 아동 시 안전한 보호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이용 자격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시설 편의성	(8)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	①	②	③	④	⑤
	(9) 놀이 공간이 충분할 것	①	②	③	④	⑤
	(10) 바깥 놀이를 할 수 있을 것	①	②	③	④	⑤
	(11) 교재나 교구 구비	①	②	③	④	⑤
	(12) 주변 환경 및 시설 공간의 안전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램	(13) 교과목 보충학습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14) 예체능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15)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돌봄 서비스 인력	(16) 돌봄 선생님이 아동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질 것	①	②	③	④	⑤
	(17) 돌봄 선생님과 부모의 소통	①	②	③	④	⑤
	(18) 돌봄 선생님의 자격 요건	①	②	③	④	⑤
	(19) 돌봄 선생님 1인당 담당하는 아동의 수	①	②	③	④	⑤
식사/간식	(20) 아침 식사 제공	①	②	③	④	⑤
	(21) 저녁 식사 제공	①	②	③	④	⑤
	(22) 방학 중 식사 제공	①	②	③	④	⑤
	(23) 식사 및 간식의 질	①	②	③	④	⑤

문7. 향후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준을 개선하여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초등 자녀를 위해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7-1번으로 이동　　2. 없다 → 문8번으로 이동

문7-1. 귀하께서는 향후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준 개선 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비용을 부담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월 평균 (　　) 만원

문8. 귀하는 초등학교 1학년 수업시수가 오후 3시까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1. 예 → 8-1번으로 이동　　2. 아니오 →9번으로 이동

문8-1. 초등학교 수업시수가 늘어난다면, 귀댁의 자녀는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좋아할 것이다
2. 싫어할 것이다
3.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을 것이다
4. 모르겠다.

문9.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발생한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자녀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재원할 때보다 일찍 집에 온다
2. 사교육 비용이 늘었다
3. 방학이 길다
4. 학교에 가는 시간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갈 때보다 늦다
5. 통학 차량이 없다
6. 선생님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재원 할 때보다 덜 신경을 써준다
7. 아이 숙제 지원, 녹색어머니회 등 부모의 역할을 학교에서 요구한다.
8. 기타 (　　)

문10. 취학 직전에 귀댁의 자녀는 어느 기관에 다녔습니까?

1. 유치원
2. 어린이집
3. 사교육기관(유아 영어학원, 놀이학원 등)

문11. 취학 전에 귀댁의 자녀는 유치원, 어린이집, 사교육기관 등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었습니까? **(일주일 중 가장 평균적인 일과 기준) (24시간 단위 표기)**

시작 시간	종료 시간
( )시 ( )분	( )시 ( )분

Ⅲ.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2~문16
※ **문1에서 ③초등돌봄교실** 을 선택한 응답자만 응답하도록 로직 구현

문12. 자녀가 학기초에 신청하였던 초등돌봄교실 유형을 선택하시고, 현재 이용 중인 초등돌봄교실을 답해 주십시오. (학기 중 기준)

유형	문12. 신청여부		문12-1. 이용여부	
	①신청	②미신청	①이용	②미이용
아침돌봄(06:30~09:00)	①	②	①	②
오후돌봄(방과후~17:00)	①	②	①	②
저녁돌봄(17:00~22:00)	①	②	①	②

문13.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이용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24시간 단위 표기) (학기 중 기준)

유형	문13.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아침돌봄(06:30~09:00)	( )시 ( )분	( )시 ( )분
오후돌봄(방과후~17:00)	( )시 ( )분	( )시 ( )분
저녁돌봄(17:00~22:00)	( )시 ( )분	( )시 ( )분

문14.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유형별로 해당 서비스의 만족도에 답해주세요. (학기 중 기준)

유형	문14. 서비스 만족도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아침돌봄(06:30~09:00)	①	②	③	④	⑤
오후돌봄(방과후~17:00)	①	②	③	④	⑤
저녁돌봄(17:00~22:00)	①	②	③	④	⑤

문15. 초등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학기 중, 2019년 기준)　　월평균 (　　)만원

문16.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학기 중)?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2. 돌볼 사람이 없어서
3. 숙제 등 학습관리를 받기 위해
4. 프로그램이 좋아서
5.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6.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7. 돌봄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되어서
8. 기타(　　)

문17~문18
※ 문1에서 ③초등돌봄교실을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만 응답하도록 로직 구현

문 17.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인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2. 이용 자격 기준이 되지 않아서
3. 이용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해서
4.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아서
5. 서비스의 질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
6. 자녀가 가고 싶어하지 않아서
7. 방과 후에 집에 보호자(부모나 조부모 등)가 있어서
8.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므로
9. 자녀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 등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10. 기타 ( )

문18. 정부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인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 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조건없이 이용하겠다
2. 서비스 수준이 개선된다면 이용하겠다
3. 서비스 수준이 개선되어도 이용하지 않겠다

Ⅲ-1.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9~문23
※ 문2에서 ③초등돌봄교실을 선택한 응답자만 응답하도록 로직 구현

문19. 자녀가 방학을 위해 신청하였던 초등돌봄교실 유형을 선택하시고, 현재 이용중인 초등돌봄교실을 답해 주십시오. (방학 중 기준)

유형	문19. 신청여부		문19-1. 이용여부	
	①신청	②미신청	①이용	②미이용
아침돌봄(06:30-09:00)	①	②	①	②
오전돌봄(09:00~12:00)	①	②	①	②
오후돌봄(12:00~17:00)	①	②	①	②
저녁돌봄(17:00-22:00)	①	②	①	②

문20.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이용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24시간 단위 표기) (방학 중 기준)

유형	문20.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아침돌봄(06:30-09:00)	( )시 ( )분	( )시 ( )분
오전돌봄(09:00~12:00)	( )시 ( )분	( )시 ( )분
오후돌봄(12:00~17:00)	( )시 ( )분	( )시 ( )분
저녁돌봄(17:00-22:00)	( )시 ( )분	( )시 ( )분

문21.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유형별로 해당 서비스의 만족도에 답해주세요. (방학 중 기준)

유형	문21. 서비스 만족도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아침돌봄(06:30-09:00)	①	②	③	④	⑤
오전돌봄(09:00~12:00)	①	②	③	④	⑤
오후돌봄(12:00~17:00)	①	②	③	④	⑤
저녁돌봄(17:00-22:00)	①	②	③	④	⑤

문22. 초등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방학 중, 2019년 기준)　　월평균 (　　)만원

문23.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방학 중)?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2. 돌볼 사람이 없어서
3. 숙제 등 학습관리를 받기 위해
4. 프로그램이 좋아서
5.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6.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7. 돌봄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되어서
8. 기타(　　)

문24
※ 문1에서 ③초등돌봄교실을 선택하였으나
문2에서 ③초등돌봄교실을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만 응답하도록 로직 구현

문24. **학기 중**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였으나 **방학 중**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공공기관의 방학 프로그램 이용
2.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방학 프로그램 이용
3. 조부모 또는 친인척 돌봄
4. 공공 아이돌보미 이용
5.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6. 여행 또는 휴가
7. 기타(　　)

Ⅳ. 학기 중 방과후학교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5~문28
※ **문1에서 ④방과후학교를** 선택한 응답자만 응답하도록 로직 구현

문2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이용여부와 개수를 유형별(학습, 예체능)로 기입해 주십시오.(학기 중 기준)

프로그램 종류	문25. 이용 여부		문25-1. 개수
	①이용	②미이용	
학습 프로그램(수학, 과학, 창의, 언어 등)	①	②	주( ) 개
예체능 프로그램(음악, 미술, 체육 등)	①	②	주( ) 개

문26. 방과후학교 이용을 위한 지출 비용을 유형별(학습, 예체능)로 기입해 주십시오. 분기별, 연 1회 납부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2019년 학기 중 기준).

프로그램 종류	문26. 프로그램 비용
학습 프로그램(수학, 과학, 창의, 언어 등)	월( )만원
예체능 프로그램(음악, 미술, 체육 등)	월( )만원

문27. 자녀가 이용하는 방과후학교의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유형별(학습, 예체능)로 기입해 주십시오.(학기 중 기준)

프로그램 종류	문27. 서비스 만족도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학습 프로그램(수학, 과학, 창의, 언어 등)	①	②	③	④	⑤
예체능 프로그램(음악, 미술, 체육 등)	①	②	③	④	⑤

문28.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학기 중)?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2. 프로그램이 좋아서

3. 돌볼 사람이 없어서
4.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5.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6. 기타 ( )

문29~문30
※ 문1에서 ④방과후학교를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만 응답하도록 로직 구현

문 29. 공적 방과후 서비스인 **방과후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학기 중)?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2. 이용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해서
3.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아서
4. 프로그램의 질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
5. 강사 대 아동 비율이 높아서
6. 자녀가 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7. 방과 후에 집에 보호자(부모나 조부모 등)가 있어서
8. 기타 ( )

문30. 정부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서비스인 **방과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학기 중)?

1. 조건없이 이용하겠다
2. 서비스 수준이 개선된다면 이용하겠다
3. 서비스 수준이 개선되어도 이용하지 않겠다

Ⅳ-1. 방학 중 방과후학교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1~문34
※ **문2에서 ④방과후학교를** 선택한 응답자만 응답하도록 로직 구현

문3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이용여부와 개수를 유형별(학습, 예체능)로 기입해 주십시오. (방학 중 기준)

프로그램 종류	문31. 이용 여부		문31-1. 개수
	①이용	②미이용	
학습 프로그램(수학, 과학, 창의, 언어 등)	①	②	주( ) 개
예체능 프로그램(음악, 미술, 체육 등)	①	②	주( ) 개

문32. 방과후학교 이용을 위한 지출 비용을 유형별(학습, 예체능)로 기입해 주십시오. 분기별, 연 1회 납부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2019년 방학 중 기준).

프로그램 종류	문32. 프로그램 비용
학습 프로그램(수학, 과학, 창의, 언어 등)	월( )만원
예체능 프로그램(음악, 미술, 체육 등)	월( )만원

문33. 자녀가 이용하는 방과후학교의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유형별(학습, 예체능)로 기입해 주십시오.(방학 중 기준)

프로그램 종류	문33. 서비스 만족도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학습 프로그램(수학, 과학, 창의, 언어 등)	①	②	③	④	⑤
예체능 프로그램(음악, 미술, 체육 등)	①	②	③	④	⑤

문34.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방학 중)?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2. 프로그램이 좋아서

3. 돌볼 사람이 없어서
4.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5.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6. 기타(　　)

V. 학기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5~문40
※ **문1에서 ⑤지역아동센터를** 선택한 응답자만 응답하도록 로직 구현

문35. 자녀가 학기 초에 신청하였던 지역아동센터 시간을 선택하시고, 현재 이용 중인 지역아동센터 시간을 답해 주십시오. (학기 중 기준)

유형	문35. 신청여부		문35-1. 이용여부	
	①신청	②미신청	①이용	②미이용
오후돌봄(방과후~19:00)	①	②	①	②
저녁돌봄(19:00~22:00)	①	②	①	②

문36.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24시간 단위 표기) (학기 중 기준)

유형	문36.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오후돌봄(방과후~19:00)	(　)시 (　)분	(　)시 (　)분
저녁돌봄(19:00~22:00)	(　)시 (　)분	(　)시 (　)분

문37.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시간별로 해당 서비스의 만족도에 답해주세요. (학기 중 기준)

유형	문37. 서비스 만족도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오후돌봄(방과후~19:00)	①	②	③	④	⑤
저녁돌봄(19:00~22:00)	①	②	③	④	⑤

문38. 초등자녀의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2019년 학기 중 기준)　　월평균 (　　)만원

문39.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1. 부모가 데리고 감
2. 조부모 또는 친척이 데리고 감
3. 공공 아이돌보미가 데리고 감
4. 민간 육아도우미가 데리고 감
5. 지역아동센터 차량으로 이동함
6. 학원차량 등 기타 차량으로 이동함
7. 기타(　　)

문40.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학기 중)?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2. 돌볼 사람이 없어서
3. 숙제 등 학습관리를 받기 위해
4. 프로그램이 좋아서
5.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6.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7. 돌봄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되어서
8. 급식이 제공되어서
9. 기타(　　)

문41~문42
※ 문1에서 ⑤지역아동센터을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만 응답하도록 로직 구현

문41.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학기 중)?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2. 이용 자격 기준이 되지 않아서
3. 이용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해서
4. 주변에 해당 시설이 없어서
5.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알지 못해서
6. 서비스의 질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
7. 원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아서
8. 자녀가 가고 싶어하지 않아서
9. 방과 후에 집에 보호자(부모나 조부모 등)가 있어서
10.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므로
11. 자녀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 등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12. 기타 ( )

문42. 정부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 할 의향이 있습니까(학기 중)?

1. 조건없이 이용하겠다
2. 서비스 수준이 개선된다면 이용하겠다
3. 서비스 수준이 개선되어도 이용하지 않겠다

V-1.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43~문47
※ **문2에서 ⑤지역아동센터를** 선택한 응답자만 응답하도록 로직 구현

문43. 자녀가 방학을 위해 신청하였던 지역아동센터 시간을 선택하시고, 현재 이용중인 지역아동센터 시간을 답해 주십시오. (방학 중 기준)

유형	문43. 신청여부		문43-1. 이용여부	
	①신청	②미신청	①이용	②미이용
오전돌봄(09:00~12:00)	①	②	①	②
오후돌봄(12:00~17:00)	①	②	①	②
저녁돌봄(17:00~22:00)	①	②	①	②

문44.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24시간 단위 표기) (방학 중 기준)

유형	문44.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오전돌봄(09:00~12:00)	( )시 ( )분	( )시 ( )분
오후돌봄(12:00~17:00)	( )시 ( )분	( )시 ( )분
저녁돌봄(17:00~22:00)	( )시 ( )분	( )시 ( )분

문45.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시간별로 해당 서비스의 만족도에 답해주세요. (방학 중 기준)

유형	문45. 서비스 만족도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오전돌봄(09:00~12:00)	①	②	③	④	⑤
오후돌봄(12:00~17:00)	①	②	③	④	⑤
저녁돌봄(17:00~22:00)	①	②	③	④	⑤

문46. 초등자녀의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2019년 방학 중 기준) 월평균 ( )만원

문47.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방학 중)?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2. 돌볼 사람이 없어서
3. 숙제 등 학습관리를 받기 위해
4. 프로그램이 좋아서
5.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6.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7. 돌봄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되어서
8. 급식이 제공되어서
9. 기타(　　)

Ⅵ. 학기 중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48~문53
※ 문1에서 ⑥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선택한 응답자만 응답하도록 로직 구현

문48. 자녀가 학기 초에 신청하였던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시간을 선택하시고, 현재 이용중인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시간을 답해 주십시오. (학기 중 기준)

유형	문48. 신청여부		문48-1. 이용여부	
	①신청	②미신청	①이용	②미이용
오후돌봄(방과후~19:00)	①	②	①	②
저녁돌봄(19:00~22:00)	①	②	①	②

문49.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24시간 단위 표기) (학기 중 기준)

유형	문49.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오후돌봄(방과후~19:00)	( )시 ( )분	( )시 ( )분
저녁돌봄(19:00~22:00)	( )시 ( )분	( )시 ( )분

문50.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시간별로 해당 서비스의 만족도에 답해주세요. (학기 중 기준)

유형	문50. 서비스 만족도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오후돌봄(방과후~19:00)	①	②	③	④	⑤
저녁돌봄(19:00~22:00)	①	②	③	④	⑤

문51. 초등자녀의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2019년 방학 중 기준) 월평균 ( )만원

문52.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1. 부모가 데리고 감
2. 조부모 또는 친척이 데리고 감
3. 공공 아이돌보미가 데리고 감
4. 민간 육아도우미가 데리고 감
5. 다함께돌봄센터 차량으로 이동함
6. 학원차량 등 기타 차량으로 이동함
7. 기타( )

문53.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학기 중)?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2. 돌볼 사람이 없어서
3. 숙제 등 학습관리를 받기 위해
4. 프로그램이 좋아서
5.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6.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7. 돌봄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되어서
8. 급식이 제공되어서
9. 기타(　　)

문54~문55

※ 문1에서 ⑥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을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만 응답하도록 로직 구현

문54.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인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학기 중)?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2. 이용 자격 기준이 되지 않아서
3. 이용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해서
4. 주변에 해당 시설이 없어서
5.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해 알지 못해서
6. 서비스의 질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
7. 원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아서
8. 자녀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9. 방과 후에 집에 보호자(부모나 조부모 등)가 있어서

10.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므로
11. 자녀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 등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12. 기타 ( )

문55. 정부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인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 할 의향이 있습니까(학기 중)?

1. 조건없이 이용하겠다
2. 서비스 수준이 개선된다면 이용하겠다
3. 서비스 수준이 개선되어도 이용하지 않겠다

Ⅵ-1.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56~문60
※ 문2에서 ⑥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선택한 응답자만 응답하도록 로직 구현

문56. 자녀가 방학을 위해 신청하였던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시간을 선택하시고, 현재 이용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시간을 답해 주십시오. (방학 중 기준)

유형	문56. 신청여부		문56-1. 이용여부	
	①신청	②미신청	①이용	②미이용
오전돌봄(09:00~12:00)	①	②	①	②
오후돌봄(12:00~17:00)	①	②	①	②
저녁돌봄(17:00~22:00)	①	②	①	②

문57.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24시간 단위 표기) (방학 중 기준)

유형	문57.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오전돌봄(09:00~12:00)	( )시 ( )분	( )시 ( )분
오후돌봄(12:00~17:00)	( )시 ( )분	( )시 ( )분
저녁돌봄(17:00~22:00)	( )시 ( )분	( )시 ( )분

문58.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시간별로 해당 서비스의 만족도에 답해주세요. (방학 중 기준)

유형	문58. 서비스 만족도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오전돌봄(09:00~12:00)	①	②	③	④	⑤
오후돌봄(12:00~17:00)	①	②	③	④	⑤
저녁돌봄(17:00~22:00)	①	②	③	④	⑤

문59. 초등자녀의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2019년 방학 중 기준) 월평균 ( )만원

문60.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방학 중)?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2. 돌볼 사람이 없어서
3. 숙제 등 학습관리를 받기 위해
4. 프로그램이 좋아서
5. 또래 친구와 놀게 하려고
6.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7. 돌봄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되어서
8. 급식이 제공되어서
9. 기타( )

Ⅶ. 학기 중 공공 아이돌보미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1에서 ⑨공공 아이돌보미를** 선택한 응답자만 응답하도록 로직 구현

문61. 공공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학기 중)?

1. 개인 돌봄이 필요해서
2. 돌볼 사람이 없어서
3. 아이들 데리고 이동할 사람이 필요해서(학교와 집, 학원 등)
4. 주변에 적절한 돌봄 시설이 없어서
5. 기타( )

Ⅶ-1. 방학 중 공공 아이돌보미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2에서 ⑨공공 아이돌보미를** 선택한 응답자만 응답하도록 로직 구현

문62. 공공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방학 중)?

1. 개인 돌봄이 필요해서
2. 돌볼 사람이 없어서
3. 아이들 데리고 이동할 사람이 필요해서(학교와 집, 학원 등)
4. 주변에 적절한 돌봄 시설이 없어서
5. 기타( )

Ⅷ. 학기 중 민간육아도우미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1에서 ⑩민간육아도우미를** 선택한 응답자만 응답하도록 로직 구현

문63. 민간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학기 중)?

1. 개인 돌봄이 필요해서
2. 돌볼 사람이 없어서
3. 아이들 데리고 이동할 사람이 필요해서(학교와 집, 학원 등)
4. 주변에 적절한 돌봄 시설이 없어서
5. 기타( )

Ⅷ-1. 방학 중 민간육아도우미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2에서 ⑩민간육아도우미를** 선택한 응답자만 응답하도록 로직 구현

문64. 민간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방학 중)?

1. 개인 돌봄이 필요해서
2. 돌볼 사람이 없어서
3. 아이들 데리고 이동할 사람이 필요해서(학교와 집, 학원 등)
4. 주변에 아이를 맡기기에 적절한 돌봄 시설이 없어서
5. 기타( )

Ⅸ. 학기 중 학원 등 사교육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65~문69
※ **문1에서 ⑧학원 등 사교육(그룹지도 포함)를** 선택한 응답자만 응답하도록 로직 구현

문65.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고, 유형별(학원 학습, 학원 예체능, 학습지/방문과외, 그룹지도)로 주당 이용개수와 시간을 기입해 주십시오(학기 중)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 종류	문65. 이용 여부		문65-1. 주당 이용 개수	문65-2. 주당 총 이용시간
	①이용	②미이용		
학원 학습(국어, 영어, 수학, 과학·창의, 기타 외국어 등)	①	②	주( )개	주( )시간
학원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①	②	주( )개	주( )시간
그룹지도(축구교실 등)	①	②	주( )개	주( )시간

문66. 다음의 해당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유형별 월 평균 이용비용 지출을 기입해 주십시오. 분기별, 연 1회 납부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2019년 학기 중 기준).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 종류	문66. 월 평균 이용비용
학원 학습(국어, 영어, 수학, 과학·창의, 기타 외국어 등)	월( )만원
학원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월( )만원
그룹지도(축구교실 등)	월( )만원

문67. 해당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의 유형별 비용 부담 정도를 기입해 주십시오(학기 중).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 종류	문67 비용 부담 정도				
	①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부담되지 않는편	③보통	④부담되는 편	⑤매우 부담
학원 학습(국어, 영어, 수학, 과학·창의, 기타 외국어 등)	①	②	③	④	⑤
학원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①	②	③	④	⑤
그룹지도(축구교실 등)	①	②	③	④	⑤

문68. 해당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의 유형별 서비스 만족도를 기입해 주십시오 (학기 중).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 종류	문68 서비스 만족도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학원 학습(국어, 영어, 수학, 과학·창의, 기타 외국어 등)	①	②	③	④	⑤
학원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①	②	③	④	⑤
그룹지도(축구교실 등)	①	②	③	④	⑤

문69. 해당 학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학기 중)?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자녀가 원해서
2.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3. 선행학습
4. 학교수업 보충심화
5. 돌볼 사람이 없어서
6. 강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서
7. 주변 사람들이 많이 보내고 있어서
8. 기타 (　　)

Ⅸ-1. 방학 중 학원 등 사교육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70~문74
※ **문2에서 ⑧학원 등 사교육(그룹지도 포함)를** 선택한 응답자만 응답하도록 로직 구현

문70.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 선택하시고, 유형별(학원 학습, 학원 예체능, 학습지/방문과외, 그룹지도)로 주당 이용개수와 시간을 기입해 주십시오(방학 중).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 종류	문7. 이용 여부		문70-1. 주당 이용 개수	문70-2. 주당 총 이용시간
	①이용	②미이용		
학원 학습(국어, 영어, 수학, 과학·창의, 기타 외국어 등)	①	②	주( )개	주( )시간
학원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①	②	주( )개	주( )시간
그룹지도(축구교실 등)	①	②	주( )개	주( )시간

문71. 다음의 해당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유형별 월 평균 이용비용 지출을 기입해 주십시오. 분기별, 연 1회 납부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2019년 방학 중 기준).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 종류	문71. 월 평균 이용비용
학원 학습(국어, 영어, 수학, 과학·창의, 기타 외국어 등)	월( )만원
학원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월( )만원
그룹지도(축구교실 등)	월( )만원

문72. 해당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의 유형별 비용 부담 정도를 기입해 주십시오(방학 중)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 종류	문72 비용 부담 정도				
	①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부담되지 않는편	③보통	④부담되는 편	⑤매우 부담
학원 학습(국어, 영어, 수학, 과학·창의, 기타 외국어 등)	①	②	③	④	⑤
학원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①	②	③	④	⑤
그룹지도(축구교실 등)	①	②	③	④	⑤

문73. 해당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의 유형별 서비스 만족도를 기입해 주십시오 (방학 중)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 종류	문73 서비스 만족도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하는편	③보통	④만족 하는편	⑤매우 만족
학원 학습(국어, 영어, 수학, 과학·창의, 기타 외국어 등)	①	②	③	④	⑤
학원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①	②	③	④	⑤
그룹지도(축구교실 등)	①	②	③	④	⑤

문74. 해당 학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방학 중)?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자녀가 원해서
2.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3. 선행학습
4. 학교수업 보충심화
5. 돌볼 사람이 없어서
6. 강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서
7. 주변 사람들이 많이 보내고 있어서
8. 기타 ( )

가구 일반 현황

배문1. 귀 댁에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함께 살고 있는 친족 및 비혈연 관계를 모두 포함)은 본인을 포함하여 총 몇 명입니까?

총 (　　) 명

배문2. 귀하의 생년은 언제입니까?

19(　　)년

배문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중졸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대학교 졸업 이상

배문4. 귀하는 현재 취업한 상태입니까?

1. 예 → 배문4-1번 이동　　2. 아니오 → 배문5번 이동

배문4-1. 전일제입니까? 시간제입니까?

1. 전일제　　2. 시간제

배문4-2. 평소 출근을 위해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대는 다음 중 언제입니까?

1) 오전 00:00~05:59
2) 오전 06:00~06:59
3) 오전 07:00~07:59
4) 오전 08:00~08:59
5) 오전 09:00~09:59
6) 오전 10:00~10:59
7) 오전 11:00~11:59
8) 오후 12:00~14:59
9) 오후 15:00~17:59

10) 오후 18:00~20:59
11) 오후 21:00~23:59

배문4-3. 평소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하는 시간대는 다음 중 언제입니까?
1) 오전 00:00~05:59
2) 오전 06:00~08:59
3) 오전 09:00~11:59
4) 오후 12:00~14:59
5) 오후 15:00~15:59
6) 오후 16:00~16:59
7) 오후 17:00~17:59
8) 오후 18:00~18:59
9) 오후 19:00~19:59
10) 오후 20:00~21:59
11) 오후 22:00~23:59

배문5. 귀하께서는 과거 자녀 돌봄 문제로 일을 그만둔 적(퇴직, 사직)이 있습니까?
※ 휴직(일시휴직, 육아휴직 등)은 일을 그만둔(퇴직, 사직)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있다 → 배문5-1번으로 이동 2. 없다 → 배문6번으로 이동

배문5-1. 그럼, 일을 그만 둔 시기(퇴직, 사직)은 언제입니까?(첫째 자녀 기준)
1. 영유아기(초등학교 입학 이전) 2. 초등학교 입학 이후

배문6. 2019년 귀 댁 전체(모든 가구원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대략 얼마였습니까?
월평균 ( ) 만원

배문7. 귀하께서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주소	( )시·도 ( )구·군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돌봄 수요조사 (만5세 아동 문항)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19년 기본과제인 「수요예측을 통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돌봄 공백 해소 방안: 취학 전·후를 중심으로」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있는 가구의 돌봄 공백 및 이에 따른 돌봄 수요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선호 등에 대해 취학 전 1년인, **만5세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의견을 여쭙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선문1. 본 설문은 **만5세 자녀(내년 초등학교 입학)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만5세 자녀(내년 초등학교 입학)를 둔 어머니이십니까?

1. 예 (☞ 선문2) (다음 설문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2. 아니요 (☞조사중지)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설문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문2.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 전업모
2. 취업모

Ⅰ. 돌봄 수요 조사

문1. 귀하의 만5세 자녀(내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의 일주일 중 가장 **평균적인 하루일과**를 떠올리시고, 기상 후 취침시간까지 주로 누가 또는 어디서 돌보고 있는지 시간대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시간대		선택	보기 항목
기상	(1) 오전 8:00~8:29		
	(2) 오전 8:30~8:59		
	(3) 오전 9:00~9:29		
	(4) 오전 9:30~9:59		
	(5) 오전 10:00~10:29		
	(6) 오전 10:30~10:59		
	(7) 오전 11:00~11:29		
	(8) 오전 11:30~11:59		①부모 직접 돌봄
	(9) 오후 12:00~12:29		②조부모 또는 친인척
↑	(10)오후 12:30~12:59		③유치원
	(11) 오후 1:00~1:29		④어린이집
	(12) 오후 1:30~1:59		⑤어린이 도서관, 구청·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제공 육아지원 프로그램
	(13) 오후 2:00~2:29		
	(14) 오후 2:30~2:59		⑥학원 등 사교육(그룹지도 포함)
	(15) 오후 3:00~3:29		⑦공공 아이돌보미
	(16) 오후 3:30~3:59		⑧육아/가사도우미(민간)
↓	(17) 오후 4:00~4:29		⑨이웃/친구
	(18) 오후 4:30~4:59		⑩혼자 있음
	(19) 오후 5:00~5:29		⑪기타(적어주세요:)
	(20) 오후 5:30~5:59		
	(21) 오후 6:00~6:29		
	(22) 오후 6:30~6:59		
	(23) 오후 7:00~7:29		
	(24) 오후 7:30~7:59		
	(25) 오후 8:00~8:29		
	(26) 오후 8:30~8:59		
취침	(27) 오후 9:00 이후		

(학기 중 기준)

문2~문3
※ 선문2의 2.취업모만 응답하도록 로직 구현

문2. 귀하는 출근시간을 전후한 아침시간대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
1. 예 → 문3-1번으로 이동 2. 아니오 → 문4번으로 이동

문2-1. 그럼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침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오전 ( )시 ( )분 ~ ( )시 ( )분

문3. 귀하는 퇴근시간을 전후한 저녁시간대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
1. 예 → 문4-1번으로 이동 2. 아니오 → 문5번으로 이동

문3-1. 그럼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저녁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오후 ( )시 ( )분 ~ ( )시 ( )분

※ 모든 응답자 응답 문항 (문4~문6)

문4. 자녀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발생하게 될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로 예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자녀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재원 할 때보다 일찍 집에 온다
2. 사교육 비용이 늘었다
3. 방학이 길다
4. 학교에 가는 시간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갈 때보다 늦다
5. 통학 차량이 없다
6. 선생님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재원할 때보다 덜 신경을 써준다
7. 아이 숙제 지원, 녹색어머니회 등 부모의 역할을 학교에서 요구한다.
8. 기타 ( )
9. 아직 생각 안 해봤음

문5.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어떤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계획이십니까?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초등돌봄교실
2. 방과후학교
3. 지역아동센터
4.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5. 학원 등 사교육(그룹지도 포함)
6. 공공 아이돌보미
7. 육아/가사도우미(민간)
8. 기타 (　　)

※ 초등돌봄교실: 맞벌이 가정 대상으로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돌봄교실(교육부 관할)
※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에 위치한 돌봄서비스 제공 센터로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 운영(복지부 관할)
※ 다함께돌봄센터: 학교 밖에 위치한 돌봄서비스 제공 센터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보편적 이용 가능 (복지부 관할)

문6. 초등 1학년 자녀를 위하여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의 각 서비스 구성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중요	매우 중요
접근성	(1) 주중 이용 가능한 시간	①	②	③	④	⑤
	(2) 주말 및 공휴일 이용 가능시간	①	②	③	④	⑤
	(3) 방학 중 이용 가능한 시간	①	②	③	④	⑤
	(4) 집이나 학교에서의 이동거리가 가까울 것	①	②	③	④	⑤
	(5) 하교 및 이동 시 차량 지원	①	②	③	④	⑤
	(6) 아동 시 안전한 보호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이용 자격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별로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약간 중요	매우 중요
시설 편의성	(8)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	①	②	③	④	⑤
	(9) 놀이 공간이 충분할 것	①	②	③	④	⑤
	(10) 바깥 놀이를 할 수 있을 것	①	②	③	④	⑤
	(11) 교재나 교구 구비	①	②	③	④	⑤
	(12) 주변 환경 및 시설 공간의 안전	①	②	③	④	⑤
프로 그램	(13) 교과목 보충학습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14) 예체능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15)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돌봄 서비스 인력	(16) 돌봄 선생님이 아동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질 것	①	②	③	④	⑤
	(17) 돌봄 선생님과 부모의 소통	①	②	③	④	⑤
	(18) 돌봄 선생님의 자격 요건	①	②	③	④	⑤
	(19) 돌봄 선생님 1인당 담당하는 아동의 수	①	②	③	④	⑤
식사/ 간식	(20) 아침 식사 제공	①	②	③	④	⑤
	(21) 저녁 식사 제공	①	②	③	④	⑤
	(22) 방학 중 식사 제공	①	②	③	④	⑤
	(23) 식사 및 간식의 질	①	②	③	④	⑤

가구 일반 현황

배문0. 만5세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1. 유치원 2. 어린이집 3. 사교육기관 4. 기타

배문1. 귀 댁에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함께 살고 있는 친족 및 비혈연 관계를 모두 포함)은 본인을 포함하여 총 몇 명입니까?

총 ( ) 명

배문2. 귀하의 생년은 언제입니까?

19( )년

배문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중졸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대학교 졸업 4.대학원 졸업 이상

배문4. (취업모만) 평소 출근을 위해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대는 다음 중 언제입니까?

1) 오전 00:00~05:59
2) 오전 06:00~06:59
3) 오전 07:00~07:59
4) 오전 08:00~08:59
5) 오전 09:00~09:59
6) 오전 10:00~10:59
7) 오전 11:00~11:59
8) 오후 12:00~14:59
9) 오후 15:00~17:59
10) 오후 18:00~20:59
11) 오후 21:00~23:59

배문5. (취업모만) 평소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하는 시간대는 다음 중 언제입니까?

1) 오전 00:00~05:59
2) 오전 06:00~08:59
3) 오전 09:00~11:59
4) 오후 12:00~14:59
5) 오후 15:00~15:59
6) 오후 16:00~16:59
7) 오후 17:00~17:59
8) 오후 18:00~18:59
9) 오후 19:00~19:59
10) 오후 20:00~21:59
11) 오후 22:00~23:59

배문6 .귀하께서는 과거 자녀 돌봄 문제로 일을 그만둔 적(퇴직, 사직)이 있습니까?

※ 휴직(일시휴직, 육아휴직 등)은 일을 그만둔(퇴직, 사직)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있다 (→ 배문6-1번으로 이동)
2) 없다 (→ 배문6 으로 이동)

배문6-1. 그럼, 일을 그만 둔 시기(퇴직, 사직)은 언제입니까? (첫째 자녀 기준)

1) 영유아기(초등학교 입학 이전)
2) 초등학교 입학 이후

배문7. 2019년 귀 댁 전체(모든 가구원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대략 얼마였습니까?

월평균 ( ) 만원

배문8. 귀하께서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주소	( )시·도 ( )구·군

수요예측을 통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돌봄 공백 해소 방안:
취학 전·후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3330
9 791187 952992
ISBN 979-11-87952-99-2